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모로코 -

2015. 08.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DS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

저자

책임연구원 이 재 훈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별연구원

▸ 알제리:

박 영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 다 연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튀니지: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Maher Gassab Université Hassan, 1er

▸ 모로코:

박 찬 용 안동대학교 교수
Driss Baakil L'école supérieur de commerce

▸ 세네갈: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문 건 진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 민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 코트디부아르:

전 홍 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 은 샘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기획관

연구보조원 이 윤 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신 혜 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

서 문

본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기획하고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가 수행한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즉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를 대상으로 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겪은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사헬(Sahel)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이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후 정세불안이 지속되며 경기침체 및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량·식수 부족문제와 더불어 에볼라 등의 보건 문제로 경제사회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여러 나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한국의 비중점 협력국으로서 체계적인 협력이 미약했던 바, 향후 협력증대 및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발환경 분석 및 구체적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KOICA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불어권 5개국을 대상으로 KOICA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이를 KDS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기본적인 전략틀을 수립하는데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협력틀을 바탕으로 대상국의 「니즈」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파악하여 이의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상기의 협력틀과 실행방안 수립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개발협력 흐름과의 일치 여부와 더불어, 국제사회 여러 지원 기관과의 구체적 공조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국가별로 일반현황 및 개발환경 조사를 통해 개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국가개발전략 및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여 해당 정부가 개발과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형태별·분야별·규모별로 분석하고 주체별로 특징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KOICA를 비롯한 한국 지원 기관들의 협력현황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협력 기본목표와 함께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과 포괄적 협력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진은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 방문조사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하며 실제적인 현지 정보를 입수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수요와 공여능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정량적 분석 방법과 정책적 타당성, 수원국의 개발협력 의지, KOICA의 지원경험,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한 정성적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는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중점지원 분야를 모색하되, 수원국의 실질적인 「니즈」와 KOICA의 공급능력 등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채용한 첫 연구 사례로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앞두고,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연구위원, 안동대 박찬용 교수, KDS 전홍민 연구위원 등 주 연구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또한 모든 단계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은 황재상 KOICA 서아프리카팀장과 라갑채 과장, 송은의 과장, 김정민 대리, 이규홍 대리, 이지현 대리 등 서아프리카팀원을 비롯하여, 정회진 모로코 사무소장, 김상철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 송기정 세네갈 사무소장, 서호진 알제리 사무소장, 윤지현 튀니지 사무소장 등 KOICA 현지 사무소장과 사무소 직원 등 사업 수행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보고서의 중간 및 완성 단계에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KDS 최다연, 이은샘, 김민주, 이윤주, 신혜림 연구원 등 실무자들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KOICA의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과의 향후 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에 있어 생생한 정보와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국가 간의 협력이 확대되어, 양국간 협력효과가 주변 국가들의 국가발전에까지 파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5년 8월

연구책임자 이재훈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5
제3절 연구의의 및 한계 ---- 8
1. 연구의 의의 ---- 8
2. 연구의 한계 ---- 9

제2장 모로코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 11
제1절 일반현황 ---- 13
1. 국가일반 개황 ---- 14
2. 정치 현황 ---- 15
3. 경제 현황 ---- 26
4. 사회·문화 현황 ---- 43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 50
1. 개발환경 ---- 50
2. 분야별 개발과제 ---- 58
제3절 국가개발정책 ---- 63
1. 국가개발전략(NDS) ---- 63
2. 분야별 전략 ---- 64

제3장 국제사회의 모로코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 71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 73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 73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 79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 98
4. 국제사회의 ODA 특징비교 및 시사점 ---- 110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 113
1. 한-모로코 협력현황 ---- 113
2. KOICA의 지원현황 ---- 114
3. 기타기관의 지원현황 ---- 116

제4장 KOICA의 모로코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 119
제1절 기본방향 ---- 121
1. 모로코의 개발과제 및 특징 ---- 121
2. 모로코 지원 기본방향 ---- 123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 124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 124
2. 분석 결과 ---- 133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 138
1. 교육 ---- 138
2. 공공행정 ---- 141
3. 산업에너지 ---- 145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 146

제5장 결론 ---- 149

참고문헌 ---- 153

부록 ---- 165

표 목차

〈표 2-1〉 모로코 개황 ---- 13
〈표 2-2〉 행정부조직 ---- 16
〈표 2-3〉 주요경제지표 ---- 26
〈표 2-4〉 분야별 GDP 비중 ---- 28
〈표 2-5〉 주 생산품 농업생산량 ---- 29
〈표 2-6〉 관광산업 현황 ---- 33
〈표 2-7〉 인프라 현황 ---- 35
〈표 2-8〉 운행 중인 자동차 보유 총수 변화 ---- 36
〈표 2-9〉 모로코 전력 소비량(2011) ---- 37
〈표 2-10〉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가입자 수 ---- 38
〈표 2-11〉 개인 인터넷 보급률 ---- 39
〈표 2-12〉 수출입 비중 주 무역국가 ---- 41
〈표 2-13〉 국가 및 분야별 FDI 유입 현황 ---- 42
〈표 2-14〉 모로코 MDG 평가 ---- 50
〈표 2-15〉 인간개발지수(HDI) 비교 ---- 53
〈표 2-16〉 역내 주변국간 HDI 세부지표 비교 ---- 53
〈표 2-17〉 HDI의 고용분야(2013) ---- 54
〈표 2-18〉 UNESCO 교육 지표(2013) ---- 54
〈표 2-19〉 WHO 보건/의료 수치 ---- 55
〈표 2-20〉 World Bank 농업 수치 ---- 55
〈표 2-21〉 World Bank 산업 수치 ---- 56
〈표 2-22〉 거버넌스 지수 I(2000-2011) ---- 57
〈표 2-23〉 거버넌스 지수 II(2012) ---- 57
〈표 2-24〉 World Bank 환경 수치 ---- 57
〈표 2-25〉 World Bank 젠더 지수 ---- 58
〈표 2-26〉 빈곤수준의 변화 ---- 60
〈표 3-1〉 ODA 공여주체별 모로코 지원 현황 ---- 73
〈표 3-2〉 양자기관의 지원현황 ---- 74
〈표 3-3〉 다자기관의 지원현황 ---- 75

〈표 3-4〉 자금형태별 ODA ---- 76
〈표 3-5〉 국제사회의 분야별 지원현황(2009-2013) ---- 76
〈표 3-6〉 양자 ODA의 분야별 지원현황(2012-2013) ---- 77
〈표 3-7〉 對 모로코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현황 ---- 78
〈표 3-8〉 AFD그룹의 모로코 지원현황 ---- 79
〈표 3-9〉 프랑스의 對 모로코 ODA 추이 ---- 80
〈표 3-10〉 무상 ODA ---- 81
〈표 3-11〉 유상 ODA ---- 81
〈표 3-12〉 프랑스의 對 모로코 ODA 추이 ---- 83
〈표 3-13〉 프랑스의 對 모로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 84
〈표 3-14〉 프랑스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84
〈표 3-15〉 프랑스의 對 모로코 생산 분야 지원현황(2002-2013) ---- 85
〈표 3-16〉 미국 對 모로코 ODA 추이(2002-2013) ---- 86
〈표 3-17〉 미국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2009-2013) ---- 89
〈표 3-18〉 미국의 對 모로코 생산 지원현황(2002-2013) ---- 90
〈표 3-19〉 미국의 對 모로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 90
〈표 3-20〉 미국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 91
〈표 3-21〉 일본의 對 모로코 ODA 추이(2002-2013) ---- 92
〈표 3-22〉 무상 ODA(GRANT)(2002-2013) ---- 93
〈표 3-23〉 유상 ODA(LOAN)(2002-2013) ---- 93
〈표 3-24〉 일본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2009-2013) ---- 95
〈표 3-25〉 일본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 95
〈표 3-26〉 일본의 對 모로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 96
〈표 3-27〉 일본의 對 모로코 생산 지원현황(2002-2013) ---- 97
〈표 3-28〉 EU의 對 모로코 분야별 지원비중 ---- 100
〈표 3-29〉 EU의 對 모로코 ODA 추이(2002-2013) ---- 100
〈표 3-30〉 무상 ODA(2002-2013) ---- 101
〈표 3-31〉 유상 ODA(2002-2013) ---- 101
〈표 3-32〉 EU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2009-2013) ---- 101
〈표 3-33〉 EU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 102
〈표 3-34〉 EU의 對 모로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 102

〈표 3-35〉 EU의 對 모로코 생산 분야 지원현황(2002-2013) ---------- 103
〈표 3-36〉 AFESD의 對 모로코 ODA 추이 ---------- 105
〈표 3-37〉 AFESD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2009-2013) ---------- 105
〈표 3-38〉 AFESD의 對 모로코 분야별 ODA지원현황(2008-2013) ---- 106
〈표 3-39〉 AFESD의 對 모로코 유상 ODA(2013) ---------- 106
〈표 3-40〉 AFESD의 對 모로코 무상 ODA(2013) ---------- 107
〈표 3-41〉 CIF의 對 모로코 ODA 추이(2008-2013) ---------- 108
〈표 3-42〉 CIF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 ---------- 108
〈표 3-43〉 CIF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8-2013) --- 108
〈표 3-44〉 CIF의 對 모로코 다부문 지원현황(2008-2013) ---------- 109
〈표 3-45〉 對 모로코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분야 지원순위 ---------- 110
〈표 3-46〉 對 모로코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순위 ------ 111
〈표 3-47〉 한-모로코 교역 규모 ---------- 113
〈표 3-48〉 유형별 지원실적(1991-2014) ---------- 115
〈표 3-49〉 KOICA의 지원(2015년 현재) ---------- 116
〈표 3-50〉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로코 협력사업 개요 ---------- 116
〈표 4-1〉 분야별 세부 지표 및 데이터 출처 ---------- 126
〈표 4-2〉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 127
〈표 4-3〉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 127
〈표 4-4〉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 131
〈표 4-5〉 분석 지표 및 가중치 ---------- 132
〈표 4-6〉 정량분석 결과 ---------- 134
〈표 4-7〉 정성분석 결과 ---------- 136
〈표 4-8〉 종합분석 결과 ---------- 137
〈표 4-9〉 모로코의 전자정부 관련 협력수요 ---------- 143

그림 목차

[그림 1-1] 정량분석모형에 의한 지원분야 분포도 ---------- 6
[그림 2-1] 모로코 지도 ---------- 13
[그림 2-2] 누적 FDI 추세(2001-2011) ---------- 43
[그림 2-3] 지역별 인구분포도 ---------- 61
[그림 3-1] JICA의 모로코 사업대상지 ---------- 97
[그림 3-2] KOICA의 모로코 지원 추이 ---------- 114
[그림 3-3] (구)교육과학기술부 對 모로코 무상원조 지원현황 --------- 117
[그림 3-4] (구)교육인적자원부 무상원조 지원현황 ---------- 117
[그림 3-5] 방송통신위원회 무상원조 지원현황 ---------- 118
[그림 4-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 125
[그림 4-2]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 129
[그림 4-3] KOICA-모로코 간 협력 프레임워크 ---------- 146

글상자 목차

[글상자 2-1] 모로코-알제리 외교 연대표 ---------- 25
[글상자 2-2] Vision 2010 ---------- 68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 128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 128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수식 ---------- 133

주요 약어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佛개발청)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개발은행)
AFESD	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아랍 사회경제 개발기금)
AU	African Union(아프리카연맹)
CICID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 (국제개발협력 정부 간 위원회)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캐나다국제개발청)
CIF	Climate Investment Funds(기후투자기금)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부패인식지수)
CSP	Country Strategic Partnership(국가전략파트너십)
CTB	Coopération Technique Belge(벨기에개발협력청)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개발컨설팅프로젝트)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Korea(대외경제협력기금)
EDI	Education for All Development Index(교육지표)
EPI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환경수행지수)
EU	European Union(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식량농업기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세계경쟁력지수)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獨국제개발본부)
HDI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개발지수)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국제농업개발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INDH	Initiative Nationale pour le Developpement Humain(인간개발계획)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JICA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日국제개발청)
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KOAFEC	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한-아프리카장관급회의)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OCI	Organisation de la coopération islamique(이슬람협력기구)
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아프리카단결기구)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
UMA	Union du Maghrabe Arabe(마그레브아랍연합)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유엔인구기금)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유엔아동기금)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유엔공업개발기구)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美국제개발청)
WDI	World Development Index(세계개발지수)
WEF	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
WGI	World Governance Indicators(세계거버넌스지수)
WFP	World Food Programme(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요 약

우리나라는 아직 개도국에 대한 정보 및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이슬람국가인 모로코에 대한 정보와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협력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등 ODA 공여국으로서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모로코의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 및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모로코와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 틀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조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분야별 핵심 지표와 벤치마킹 국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대상국의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급능력을 정량화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한 현장의 수요와 개발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2011년의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은 모로코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2011년 3월에 헌법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동년 7월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혁명의 파고를 피해갈 수 있었다. 모로코는 재스민 혁명 이후 아주 큰 변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금까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모로코의 GDP는 961억 달러, 1인당 GDP는 2,956달러였으며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하였다. 구조적으로 모로코 경제는 내수 기반의 산업과 생산성이 낮은 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로코의 농업부문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모로코 산업의 근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로코의 농업은 전형적인 소규모 영세농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농경지의 85.7%가 관개시설이 없는 상태이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수산자원이 풍족하다. 주요 어종은 정어리, 멸치, 고등어, 대구, 도미, 오징어 등이며 수확된 상품들은 대부분 냉동, 통조림 제품으로 가공되어 주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모로코는 필요한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원의 대외의존도가 97%로 심각한 수준인데다 전력수요가 매년 8% 규모로 증가해,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모로코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 양말/메리야스류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 석유, 가스 오일, 연료유 등이다. 수출입 대상국은 주로 유럽 국가들인데 최근에 모로코 정부는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모로코의 MDG 경과추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로코는 대부분 MDG 목표치에 근접하였으나 실업문제, HIV/AIDS 등 보건문제, 대기오염에 집중된 환경문제는 아직 더 개선해야 할 부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HDI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는 튀니지나 알제리에 비해 고용 측면에서는 앞서지만, 교육과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2013년 모로코의 부패인식지수(CPI)는 37/100점으로 177개국 중 91위에 해당하여 세계평균(43/100점)에 미치지 못하며, 2012년도 인권과 시민사회 참여 부문의 경우 전세계 52개국 중 40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모로코가 발전하기 위해 시급해 추진해야 할 개발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되었다. 첫째, 문맹 퇴치, 둘째, 실업률 완화, 셋째, 지역 간 격차해소, 넷째. 열악한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로코는 국가개발전략(NDS)을 직업교육과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촌분야의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의 분야별 개발전략에서 산업개발계획(Plan Emergence)은 산업조직을 역동적으로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산업정책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전자, 해산물가공, 항공, 섬유 및 가죽, 식품 등 7개 분야를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지목하였다.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은 낙후된 농업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관개시설 및 제반시설을 확충, 지역별로 농업 거점도시를 지정해 효율적인 농업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수산업개발계획(Plan Halieutis)은 수산업 분야에서 비공식 고용을 줄이고 국내시장에서 어류 소비를 늘리고 수출을 늘리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은 어항 건설, 수출용 수산물의 가치 극대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개발계획(Plan Azur)은 2020년까지 관광산업이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왕 모하메드 6세에 의해 시작된 인간개발계획(INDH)의 목표는 교육 및 능력 개발을 통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 계획은 민주주의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간중심의 공공정책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정책 결정 단계에서 시민 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상업개발계획(Programme Rawaj)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업 서비스를 제공, 모든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물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업의 각 부문에 적합한 교육훈련 선진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보 시스템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공업개발계획(Artisanat du Maroc)은 수공예품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GDP 제고, 국내 및 해외 고객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게 모로코 수공예 제품을 개선, 주요 관광 지역에 소매 공간 마련, 현대적인 유통 네트워크 개발 등의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 12년간 모로코를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해온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관의 경우, 지난 12년 간 EU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아랍펀드(Arab Fund)와 환경투자펀드(CIF)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의 ODA 담당기관인 AFD는 다음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모로코를 지원하고 있다. ①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직업의 질 개선, ② 사회·지역적 격차해소, ③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보존에 기여 등이다. 프랑스와 모로코의 협력은 국제개발협력 정부간 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CICID)가 정한 우선순위와 양국 총리 회담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중점지원 분야는 교통 및 물류보관, 교육, 산업·광업·건설과 식수위생 분야 순으로 지원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의 평균 지원규모를 보면, 그 중에서도 교육과 교통 및 물류보관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 모로코 개발협력 목표는 ① 노동력 개발, ② 식수와 위생개선, ③ 교육지원, ④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발전, ⑤ 청소년개발 등이다. 미국 USAID의 중점 지원 분야는 농업·임업·어업 분야이고, 그 다음으로 교육, 시민사회 및 치안, 식수위생 순으로 지원되고 있다.

일본의 모로코 지원 사업 방향은 ① 경제발전, ② 농업발전, ③ 남남협력 등 3가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 JICA의 대 모로코 중점지원 분야는 교통 및 물류보관, 교육, 식수위생, 농수산임업 순이다.

EU의 대 모로코 협력전략의 분야별 예산비중을 보면, ① 기초 사회 서비스에 누구나 접근하도록 지원 (원조금액의 30%), ②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법치 국가의 발전 그리고 사회변화를 지원 (원조금액의 25%), ③ 고용, 지속가능하고 포괄적 성장을 지원 (원조금액의 25%), ④ 역량강화와 시민사회 부문 지원 (원조금액의 20%) 등이다. 전체적으로 EU는 모로코에게 교통물류, 교육, 에너지, 산업·광업·건설 순서로 중점지원을 하고 있다.

아랍 사회경제 개발기금(AFESD)은 모로코 지원에 있어서 기초서비스 제공, 생산역량 향상, 투자환경 향상과 인프라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지원하는 ODA는 대부분이 유상이다. ODA 지원금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교통 및 물류보관에 할당해 왔다.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대 모로코 중점지원 분야는 교육과 식수위생, 교통과 에너지, 농수산임업으로 요약된다. 특히 유상 비중이 높은 프랑스, EU, 일본, Arab Fund 등은 주로 도로교통 등 경제인프라 구축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등 무상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농업, 교육, 거버넌스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KOICA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09~2012년 사이 교육분야의 지원금액이 약 131억 원으로 월등히 높다. 다른 분야의 지원을 보면 공공행정(약 50억 원), 산업에너지(약 17억 원), 보건(약 10억 원), 농림수산(약 4억 6천만 원), 기타(약 1억 3천만 원), 긴급구호(약 9천만 원) 등의 순이다. 최근 지원현황을 보면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 지원사업, 모로코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사업, 무역역량 강화사업,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 태양광 에너지 효율향상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구)교육과학기술부 및 (구)교육인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관련분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모로코가 직면한 개발과제를 보면 높은 문맹율, 높은 실업률, 높은 에너지 비용, 계층간·지역간 큰 격차 등이다. KOICA는 모로코의 시장경제 활성화 및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지원을 협력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는 1) 문맹률 완화 및 공공행정 역량배양, 2)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둘 것을 제안한다. 중점지원 분야로는 정량 및 정성 분석에 따라 교육, 공공행정 및 산업에너지 분야가 도출되었다.

우선 교육 분야의 경우 문해교육 접근성 확대 및 국가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문맹률 완화를 위한 문해교육기관 건립 및 문해교육 지원, 직업훈련-취·창업센터 지원, 한국어 중등교육 지원을 제안하였다.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정부 효율화 및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목표로 1) 전자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2)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을 제안하였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수자원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1) 수자원관리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및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유관분야 연구소,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협력 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다.

모로코에서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프랑스와 같은 공여국과의 협력이 바람직하며 이들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불어로 현지인과 소통이 가능한 KOICA 불어권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모로코

Abstract



Korea is still lacking in information and research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ose on Morocco which is Arabic-French speaking and islamic country, are more scarce. So as a donor country, we need to strengthen the concerned capacity to establish the strategi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upport by comprehensive study on Morocco.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framework of the basic strategy and specific practice plans of the KOICA's ODA b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circumstance an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Morocco a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one by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far.

To this end, this study did a quantitative analysis, literature review, expert group meetings, fieldwork etc.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the first, we quantified the development needs of Morocco and the assistance capacity of Korea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ctoral key indicators and the benchmark countries), and w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development needs of Morocco through fieldwork.

"Jasmine Revolution" in 2011 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even in Morocco. In March 2011, the Moroccan government announced a plan for constitutional reform and in July the same year, a national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was conduc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rapid response enable the Moroccan regime to avoid a wave of revolution. Unlike the expectation that there would be big changes in Morocco due to the Jasmine Revolution, it seems to maintain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so far.

Morocco's GDP in 2012 was $ 96.1 billion, GDP per capita was $ 2,956, and economic growth rate of 2.7% was recorded. Structurally Moroccan economy is built around the low productivity of agriculture and domestic demand based industries.

Morocco's agricultural sector has provided about 40% of total employment by 2012. Agriculture is the backbone of the Moroccan industry. However, agriculture in Morocco has shown a typical small-scale artisanal forms. In addition, 85.7% of the total agricultural land is in a state without irrigation.

Except for Nigeria, Morocco has the most abundant fishery resources in the African continent. The main species are sardines, anchovies, mackerel, cod, snapper, squid and so on. Harvested products are mostly processed into frozen or canned products, then mainly exported to Europe.

Morocco has imported a required total amount of energy. Dependence on foreign energy sources is a serious level of 97%, and electricity demand has increased by 8% every year. So Moroccan government is committed to a stable supply and diversification of energy sources. Morocco's main exports are clothing, socks, etc. and imports are crude oil, petroleum, gas oil, etc. Trade partners are mainly the European countries but Moroccan government has recently tried to diversify trading partners such as China, India, Russia, Brazil and the emerging economies.

In the MDG, Morocco can be evaluated as a country that has achieved the overall absolute poverty and hunger eradication. In addition, Morocco has almost reached the MDG target in most areas, but unemployment, HIV/AIDS and health issues and environmental issues (especially on air pollution) are still needed to be further improved.

According to the HDI data, Morocco is ahead in terms of employment in comparison with Tunisia and Algeria, but social aspects, that is,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are put relatively low valuation. According to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Morocco's 2013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took 37/100 points which is below the world average (43/100 points) and the 91st place

among 177 countries. The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2012 belong to the very low 40th among 52 countries in the world.

The major problems like high illiteracy rate, high unemployment rate, serious regional disparities, poor living infrastructure should be dealt with urgentl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Morocco. To cope with these problems, Morocco has focus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 to promote the national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and promote national programs for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of rural areas.

Industrial development plan in sectoral development strategy of Morocco (Plan Emergence) is that it will strengthen the industry as a dynamic organization and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and concentrate industrial policy measures on areas having comparative advantage. To this end, the seven strategic areas such as automotive, electronics, seafood processing, aviation, textile and leather and food were selected.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Plan Maroc Vert) is that it rebuilds underdevelope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of Morocco, expands irrigation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and specifies the local agricultural base city in order to achieve an efficient agricultural development.

Fisheries Development Plan (Plan Halieutis) is that it reduces an informal employment, and increases a fish consumption in the domestic market and exports. The plan contains the details to construct a fishing port, to maximize the value of fishery products for export.

Tourism Development Plan (Plan Azur) sets a goal that the tourism industry plays a role as a motive power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by 2020.

The goal of the Human Development Plan (INDH) launched by the King Mohammed VI is to alleviat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rough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The plan emphasizes the creation of a new governance based on a human-centered public policy and participation to achieve democracy and development. Thus it induces an effectiv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all decision-making stage.

Commercial development plan (Programme Rawaj) is to provide a good quality of commercial services to consumers, and to build a logistics system which can meet the various needs of consumers. For this purpose, the plan is to advance the commercial training suitable for each sector of commerce and to strengthen information systems to protect consumers.

Craft Industry Development Plan (Artisanat du Maroc) has goals as follows; a creation of new jobs, an increase of GDP, an improvement of Moroccan handicraft products to meet the domestic and foreign customers tastes, a preparation of major retail space in the tourist area, and a development of modern distribution network etc.

For the last 12 years, France has supported Morocco the most in terms of ODA amount, then Germany and Japan are following suit. Looking into the ODA of multilateral entities for the past 12 years, the EU has supported the most, then the Arab Fund, the CIF have followed.

The AFD of France has been supporting Morocco for the three goals; ①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y and the quality of jobs, ② solve the social and regional disparities, ③ set the sustainable growth conditions, such as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cooperation between France and Morocco has been done based on the priorities set by the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Prime Minister talks of the two countries. The focused support areas of France have been transport and logistics storage, education, industry, mining, construction and drinking water. Inter alia, the average support amount for three years from 2011 to 2013, shows that it focused more on education, transport, logistics storage areas.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bjectives of the United States are ① workforce development, ② water and sanitation improvement, ③ education support, ④ development of governance and democracy, ⑤ youth development. The focused support areas of the USAID have bee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ector and then education, civil society and public safety, drinking water in order.

The direction of Japan's support in Morocco, has the three priorities, such as ① economic development, ② agriculture development, ③ South-South cooperation. Recently, the JICA has focused on support for transport and logistics sector, education, drinking water, sanitation, and the agriculture-fisheries-forestry in order.

In sectoral budget share of the EU for supporting Morocco, ① 30% of the aid amount was supported for access to all the basic social services, ② its 25% was supported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governance, constitutional state and social changes, ③ 25% was for employment and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and ④ 20% was for empowerment sector and civil society, etc. Overall, the EU's focused support sectors are transportation logistics, education, energy, industry, mining and construction.

The Arab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Fund (AFESD) has supported Morocco by providing basic service and by improving production capacity and investment environment with priority on infrastructure. Most of the AFESD's ODA

is loan and the majority, that is, over 90% of ODA funding has been allocated for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torage.

Overall the ODA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orocco has focused on the sector of education and water sanitation, transport and energy, agriculture-fisheries-forestry. In particular, the donor countries or institutions that the ODA loans' ratio is higher than that of grants, for example, France, the EU, Japan, the AFESD, etc. have mainly puts a lot of emphasis on building economic infrastructure such as traffic road, etc. In contrast, the countries or institutions that put more emphasis on grants, such as the United States, tend to concentrate on their support for the sectors of agriculture, education, governance, etc.

In the case of the KOICA's assistance for three years (2009-2012), the support scale in education was the largest (about 13.1 billion Won). The support scales in other sectors are as follows; public administration (approx. 5 billion Won), energy industry (about 1.7 billion Won), health care (about 1.0 billion Won), agriculture-forestry-fisheries (approximately 460 million Won), the emergency relief (about 90 million Won), and others (approx 130 million Won). In the latest support status of the KOICA, the following projects were successfully carried out; Casablanca cars vocational training support, Moroccan cyber security center development, Trade capacity building, Enhancement for industrial statistics measurement and capacity building of its utilization, Establishment of research infrastructure for improving the solar energy efficiency, etc. In addition, Korean Ministry for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tc. also have supported Morocco.

Morocco has been facing the following difficulties; high illiteracy, high unemployment, high energy costs, serious income disparity and large regional gaps.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the KOICA sets up a goal for promoting

market economy and alleviating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Also, the KOICA's strategic priorities are suggested as follows; 1) mitigating illiteracy r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capacity building, 2) strengthening national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stabilizing the power supply.

To select focus sectors for support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s were attempted. As a result, education was selected as the best focus sector for supporting, and then public administration and energy industry were followed in order.

In the case of education, the following have been proposed; establishment of literacy education institutions to expand access for literacy education,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center-entrepreneurship center for national industrial training, and Korean language support for secondary schools.

In the case of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it is suggested to build up the e-government system for government efficiency and policy oriented capacity building and to support civil service capacity building.

In the case of industrial energy, it is proposed to conduct feasibility study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improvement and strengthen the capacity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This can be promoted through cooperation in the form of technical cooperation in relevant areas such as research institu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is advisable to cooperate with the advanced donor countries, such as France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in Morocco. For the successful cooperation with them, it is pre-required to adequately train local Korean experts who can communicate and work in French with the locals.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모로코

Résumé



La Corée manque encore de l'information et de la recherche pour les pays en développement. En particulier, ceux sur le Maroc qui est un pays islamique et parlant arabe-français sont plus rares. Donc, en tant qu'un pays donateur d'Aide Pulbique au Développement (APD), la Corée doit renforcer la capacité concerné d'établir les stratégies de soutien d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par une étude approfondie sur le Maroc.

Cette étude vise à établir un cadre des plans stratégiques et des pratiques spécifiques de base de l'APD de la KOICA (Agenc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Coréenne) en enquêtant sur les circonstances de développement et les stratégies nationales de développement au Maroc et de la coopération pour le développement fait par la Corée et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à ce jour.

À cette fin, cette étude fait une analyse quantitative, revue de la littérature, des réunions de groupes d'experts, le travail de terrain, etc. Cette étude a la signification suivante; la première, nous avons quantifié les besoins de développement du Maroc et de la capacité d'assistance de Corée (basé sur la différence entre les indicateurs clés sectoriels et les pays de référence), et nous avons analysé en détail les besoins de développement du Maroc à travers le terrain.

"Révolution du jasmin" en 2011 a eu une influence considérable, même au Maroc. En Mars 2011, le gouvernement marocain a annoncé un plan de réforme constitutionnelle et en Juillet de la même année, un référendum national sur les amendements constitutionnels a été réalisée dans un court laps de temps. Cette réaction rapide permet le régime marocain pour éviter une vague de la révolution. Contrairement à l'attente qu'il y aurait de grands changements au Maroc en raison de la révolution de jasmin, il semble que le Maroc maintient la stabilité politique et sociale à présent.

Le PIB du Maroc en 2012 a été de $ 96,1 billion, le PIB par habitant a été $ 2.956 et le taux de croissance économique de 2,7% a été enregistré. Structurellement l'économie marocaine est construite autour de la faible productivité de l'agriculture et les industries basées sur la demande domestique.

Le secteur agricole du Maroc a fourni environ 40% de l'emploi total en 2012. L'agriculture est une colonne vertébrale de l'industrie marocaine. Cependant, l'agriculture au Maroc a montré un exemple typique de formes artisanales à petite échelle. En outre, 85,7% de la superficie agricole totale est dans un état sans irrigation.

Sauf pour le Nigeria, le Maroc dispose des ressources halieutiques les plus abondantes dans le continent africain. Les principales espèces sont les sardines, les anchois, le maquereau, la morue, le vivaneau, le calmar, etc. Produits récoltés sont pour la plupart transformés en produits surgelés ou en conserve, alors principalement exportés vers l'Europe.

Le Maroc a importé une quantité totale d'énergie nécessaire. Dépendance à l'égard des sources d'énergie étrangères est un niveau grave de 97%, et la demande d'électricité a augmenté de 8% chaque année. Gouvernement marocain est donc engagé à un approvisionnement stable et la diversification des sources d'énergie. Les principales exportations du Maroc sont les vêtements, chaussettes, etc., et les importations sont le pétrole brut, le pétrole, le gaz, etc. Les partenaires commerciaux sont principalement les pays européens, mais le gouvernement marocain a récemment essayé de diversifier les partenaires commerciaux comme la Chine, l'Inde, la Russie, le Brésil et les économies émergentes.

Dans l'OMD, le Maroc peut être évaluée comme un pays qui a atteint l'éradication de la pauvreté et de la faim absolue globale. En outre, le Maroc a

presque atteint la cible de l'OMD dans la plupart des domaines, mais le chômage, le VIH/sida et les questions de santé et les questions environnementales (notamment sur la pollution de l'air) sont encore nécessaires pour être améliorée.

Selon les données de l'IDH, le Maroc est en avance en termes d'emploi en comparaison avec la Tunisie et l'Algérie, mais les aspects sociaux, à savoir, l'éducation et l'égalité des sexes sont mis valorisation relativement faible. Sel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3 Indice de Perception de la Corruption du Maroc (IPC) a pris 37/100 points qui est en dessous de la moyenne mondiale (43/100 points) et de la 91ème place parmi 177 pays. Le droit de l'homme et la participation de la société civile en 2012 appartiennent à la très faible 40ème parmi les 52 pays dans le monde.

Les problèmes majeurs qui sont le taux d'analphabétisme élevé, taux de chômage élevé, les disparités régionales graves, les infrastructures de vie pauvres devraient être traitées de toute urgence pour promouvoir le développement du Maroc. Pour faire face à ces problèmes, le Maroc a mis l'accent sur la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national (PDN) pour promouvoi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l'emploi national et des programmes nationaux pour le développement régional des zones rurales.

Plan de développement industriel dans la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sectoriel du Maroc (Plan Emergence) permettra de renforcer l'industrie comme une organisation dynamique, d'accroître sa compétitivité, et de concentrer les mesures de politique industrielle sur les zones ayant un avantage comparatif. À cette fin, les sept domaines stratégiques tels que l'automobile, l'électronique, la transformation de fruits de mer, de l'aviation, le textile et le cuir et de la nourriture ont été sélectionnés.

Plan de développement agricole (Plan Maroc Vert) est qu'il reconstruit l'infrastructure agricole sous-développée du Maroc, développe des installations et infrastructures d'irrigation et indique la ville de base agricole locale afin de parvenir à un développement agricole efficace.

Plan de développement de la pêche (Plan Halieutis) contient un engagement à réduire un emploi informel, et à augmenter la consommation de poisson dans le marché intérieur et les exportations. Le plan contient aussi les détails de construire un port de pêche, afin de maximiser la valeur des produits de la pêche destinés à l'exportation.

Plan de développement touristique (Plan Azur) fixe un objectif que l'industrie du tourisme joue un rôle en tant que force motrice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social et culturel d'ici à 2020.

L'objectif du Plan de Développement Humain (INDH) lancée par le Roi Mohammed VI est de réduire la pauvreté et l'exclusion sociale par l'éducation et le développement des compétences. Le plan met l'accent sur la création d'une nouvelle gouvernance basée sur une politique publique centrée sur l'homme et la participation pour atteindre la démocratie et le développement. Ainsi, il induit une participation effective de la société civile dans toutes les étapes de prise de décision.

Plan de développement commercial (Programme Rawaj) est de fournir une bonne qualité de services commerciaux pour les consommateurs, et de construire un système de logistique qui peut répondre aux différents besoins des consommateurs. A cet effet, le plan est de faire progresser la formation commerciale appropriée pour chaque secteur du commerce, et de renforcer les systèmes d'information afin de protéger les consommateurs.

Plan de Développement de l'Artisanat (Artisanat du Maroc) a des objectifs comme suit; une création de nouveaux emplois, une augmentation du PIB, une amélioration des produits de l'artisanat marocain pour répondre aux goûts des clients nationaux et étrangers, une préparation de grande espace de détail dans la zone touristique, and a développement du réseau de distribution moderne etc.

Pour les 12 dernières années, la France a soutenu le Maroc le plus en termes de montant de l'APD, puis l'Allemagne et le Japon suivent. En regardant dans l'APD des organismes multilatéraux pour les 12 dernières années, l'UE a soutenu le plus, le Fonds arabe, le CIF ont suivi.

L'AFD de la France a soutenu le Maroc pour les trois objectifs; ① améliorer la compétitivité de l'économie et la qualité des emplois, ② résoudre les disparités sociales et régionales, ③ définir les conditions d'une croissance durable, comme la contribution à la préservation de l'environnement. La coopération entre la France et le Maroc a été fait sur la base des priorités fixées par le 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coopération et le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et par les entretiens des premier ministres de deux pays. Les zones ciblées de soutien de la France ont été les transports, la logistique de stockage, de l'éducation, de l'industrie, des mines, de la construction et de l'eau potable. Entre autres, le montant moyen de support pour les trois années de 2011 à 2013, montre que la France a porté davantage sur l'éducation, les transports, les zones de stockage de la logistique.

Les objectifs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des États-Unis sont ① développement de la main-d'œuvre, ②amélioration de l'assainissement d'eau ③ soutien à l'éducation, ④ développement de la gouvernance et de la démocratie, ⑤ développement de la jeunesse. Les zones ciblées de soutien de l'USAID ont été l'agriculture, la foresterie et la pêche, l'éducation, la société civile et la sécurité publique, de l'eau potable dans l'ordre.

La direction de l'appui du Japon au Maroc, a trois priorités, tels que ① développement économique, ② développement de l'agriculture, ③ coopération Sud-Sud. Récemment, la JICA a mis l'accent sur le soutien pour le transport et de la logistique, de l'éducation, l'eau potable, l'assainissement, l'agriculture-pêche-foresterie dans l'ordre.

En part du budget sectoriel de l'UE pour le soutien du Maroc, ① 30% du montant de l'aide a été prise en charge pour l'accès à tous les services sociaux de base, ② 25% a été pris en charge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gouvernance démocratique, l'Etat de droit et les changements sociaux, ③ 25 % a été pour l'emploi et la croissance durable et inclusive, et ④ 20% a été pour le secteur de l'autonomisation et de la société civile, etc. Dans l'ensemble, les secteurs ciblées de soutien de l'UE sont la logistique de transport, l'éducation, l'énergie, l'industrie, l'exploitation minière et la construction.

Le Fonds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 arabe (FADES) a soutenu Maroc en fournissant des services de base et par l'amélioration de la capacité de production et de l'environnement de l'investissement avec une priorité sur les infrastructures. La plupart de l'APD de l'FADES est un prêt et la majorité, soit plus de 90% du financement de l'APD a été alloué pour le transport et la logistique de stockage.

Globalement, l'APD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pour le Maroc a mis l'accent sur le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ssainissement de l'eau, les transports et l'énergie, l'agriculture-pêche-foresterie. En particulier, les pays ou institutions donateurs que le ratio des prêts d'APD est plus élevé que celui des dons, par exemple, la France, l'UE, le Japon, le FADES, etc., ont met principalement beaucoup d'accent sur le renforcement des infrastructures économiques telles que le trafic route, etc. En revanche, les pays ou les institutions qui mettent davantage l'accent sur les dons, tels que les Etats-Unis,

ont tendance à se concentrer sur leur soutien pour les secteurs de l'agriculture, l'éducation, la gouvernance, etc.

Dans le cas de l'assistance de la KOICA pour trois ans (2009-2012), l'échelle de soutien dans l'éducation était le plus grand (environ 13,1 milliards de Won). Les échelles de support dans d'autres secteurs sont comme les suivants; administration publique (environ 5 milliards de Won), de l'industrie de l'énergie (environ 1,7 milliards de Won), les soins de santé (environ 1,0 milliards de Won), agriculture-foresterie-pêcheries (environ 460 millions de Won), les secours d'urgence (environ 90 millions de Won), et d'autres (environ 130 millions de Won). Dans le dernier état de l'appui de la KOICA, les projets suivants ont été réalisés avec succès;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pour les voitures à Casablanca, le développement de centre de la cyber-sécurité marocaine,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commerce, l'amélioration des statistiques industrielles de mesure et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son utilisation, la création d'infrastructures de recherche pour améliorer l'efficacité de l'énergie solaire, etc. En outre, le Ministère coréen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et des Affaires Rurales, le Ministère de l'Education, la Commission coréenne des communications, etc. également ont soutenu Maroc.

Le Maroc a été confrontée à des difficultés suivantes; le taux élevé d'analphabétisme, le taux de chômage élevé, les coûts élevés de l'énergie, la disparité des revenus sérieuse et de grandes disparités régionales. Par conséquent, il est proposé que la KOICA met en place un objectif de promotion de l'économie de marché et la réduction de l'inégalité économique et sociale. En outre, les priorités stratégiques de la KOICA sont proposés comme suit; 1) l'atténuation de taux d'analphabétisme et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l'administration publique, 2) le renforcement de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nationale et la stabilisation de l'alimentation.

Pour sélectionner les secteurs prioritaires pour le soutien, les évaluations quantitatives et qualitatives ont été tentées. En conséquence, l'éducation a été choisi comme le meilleur secteur de concentration pour supporter, puis l'industrie de l'administration publique et de l'énergie ont été suivis dans l'order.

Dans le cas de l'éducation, les suivantes ont été proposées; mise en place des institutions d'enseignement d'alphabétisation pour élargir l'accès à l'éducation de l'alphabétisation, le soutien pour le 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entrepreneuriat pour la formation industrielle nationale, et le soutien de langue coréenne pour les écoles secondaires.

Dans le cas du secteur de l'administration publique, il est suggéré de mettre en place le système d'e-gouvernement pour l'efficacité du gouvernement et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la politique orientée et de soutenir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la fonction publique.

Dans le cas de l'énergie industrielle, il est proposé de mener une étude de faisabilité pour l'amélioration de la gestion des ressources en eau et renforcer la capacité de développem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Ceci peut être favorisé par la coopération sous forme de coopération technique dans des domaines pertinents tels que les instituts de recherche,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Il est conseillé de coopérer avec les pays donateurs de pointe, comme la France pour améliorer l'efficacité de l'aide au Maroc. Pour le succès de la coopération avec eux, il est pré-requis pour former adéquatement experts coréens locaux qui peuvent communiquer et travailler en français avec les habita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ODA예산은 2013년 현재 약 2조원으로, OECD/DAC에 가입한 2010년의 약 1조 3천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ODA 지원방식 발전 및 지원효과 제고는 이런 빠른 예산 증가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아직 개도국의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소화할 수 있는 지역별 ODA전문가와 개도국에 대한 정보 및 연구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랍어를 국어로, 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1] 이슬람국가인 모로코에 대한 정보와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와는 매우 이질적인 모로코와 같은 국가를 이해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려면, 튀니지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접근을 종합하여 개발협력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선진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011년은 모로코에 매우 특별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2010년 12월, 한 튀니지 청년의 분신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2011년의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으로 발전하여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 불리는 지역 초유의 상향식(bottom-up) 정치·사회적인 변혁으로 이어졌다. "아랍의 봄"이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 국가들을 비롯한 아랍 사회에 남긴 흔적은 매우 크다. 이집트, 튀니지, 예멘, 리비아 등에서 정권 교체가 발생하는 등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아랍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

1) 마그레브는 아랍어로 "해가 지는 지역" 또는 "서쪽"이라는 뜻으로, 지정학적으로 이집트를 경계로 북서쪽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지역을 말한다. 아틀라스 산맥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으로 오늘날에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등의 국가가 이 지역에 속해 있다. 1989년에는 "마그레브아랍연합(UMA; Union du Maghreb Arabe)"이 결성되어 모리타니와 분쟁지역인 서부사하라를 포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로코는 2011년 3월에 헌법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동년 7월에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리비아나 예멘 등과 같은 정치적 변혁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의 심화, 지역 간 개발수준의 큰 격차, 높은 문맹률, 높은 실업률 등의 심각한 문제들은 현재 모로코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불안의 불씨로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KOICA가 모로코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전반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준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모로코의 개발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 및 한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모로코와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 틀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KOICA의 향후 협력 사업이 튀니지는 물론 튀니지와 유사한 환경에 처한 인근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기획 및 수행 프로세스를 구조화하려는 KOICA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KOICA가 수행하고자 하는 모로코와의 협력사업이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국제기구 및 다른 지원 공여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공조 가능 분야도 가늠해 보아, KOICA 협력사업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KOICA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가능성 타진도 연구 목적의 하나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면적인 조사방법과 분석기법을 채용하였다. 자료조사에 있어서 모로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NGO 등이 발표한 개발협력 전략 등 기존 출간자료 조사와 더불어 모로코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헌조사는 기존 출판 자료에서 취득한 정보가 연구목적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점 등 문헌자료의 분명한 한계를 노정한다. 따라서 문헌조사가 내재한 이와 같은 한계점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미니포럼, 모로코 내 개발협력에 관련된 기관/기구 방문 및 국제기구, 타(他)공여국 및 NGO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1차 자료를 취득, 종합하였다. 이와 같이 현지조사에서 취합된 자료를 문헌조사에서 취득한 2차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사용하였다. 즉, 모로코의 개발협력 "니즈(needs)"는 이와 같이 다면적인 조사 방법을 통하여 파악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부합 가능성이 높은 협력 분야, 즉 KOICA의 중점지원 분야를 결정하였다. 중점지원 분야의 도출에는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함께 사용하여 각 분석기법이 가지는 한계를 상호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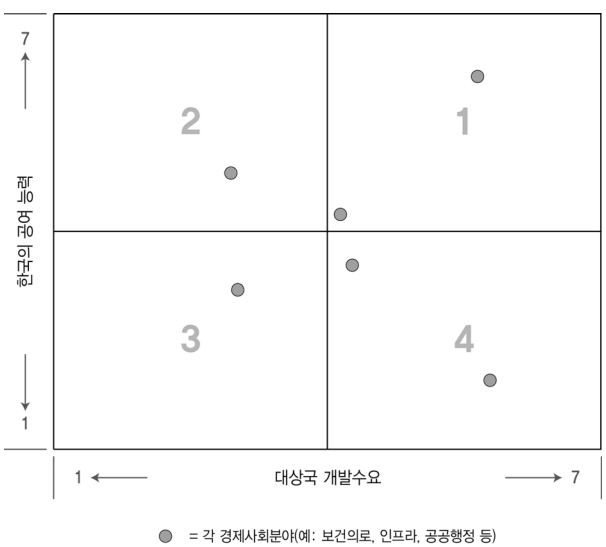
정량분석은 기본적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세계경쟁력지수(GCI)를 기준으로 하여, 6개의 경제·사회 분야, 즉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인프라 등 대표적인 경제·사회 분야의 발전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여러 국가단위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추가하여 선행연구의 지표를 보완, 실증하였다.[2] 이 과정에서는 세계경쟁력지수(GCI), 인간개발지수(HDI), 세계개발지수(WDI)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악하려는 수원국, 즉, 여기서는 모로코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이른 국가들(경제발전 수준 기준 차상위 peer group)과 대비하여 분야

2) 박영호 외.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방안, ODA 지역연구 1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별 발전수준의 상대적 격차(relative gap)를 파악하고, 이 같은 양적인 격차를 한국의 공여 능력과 비교하였다. 한국의 공여 능력은 수원국의 분야별 발전수준에 대비한 한국의 발전수준의 상대적 격차를 역시 계량화하여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유사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그룹과 비교한 수원국의 각 분야별 발전수준의 격차는 수원국 개발수요의 대리변수로, 한국과 비교한 수원국의 분야별 양적 차이는 한국의 공여 능력, 즉 수원국 지원에 있어 한국이 가지는 분야별 비교우위로 취급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사회적 분야의 상대적 격차를 1-7 사이의 값으로 지수화 하여 한국의 공여능력과 비교하여 개발수요와의 교차 분야를 살펴보았다. 이 분포도에서 각 축을 임의로 양분하여 사분면을 도출하였다([그림] 참조). 여기서 어떤 한 수원국의 "개발수요"가 높고,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일사분면을 최적의 지원 대상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이사분면은 수원국의 수요는 비교적 낮으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이며, 삼사분면은 수원국의 수요도 낮으며 한국의 역량도 부족한 분야, 그리고 사사분면은 수원국의 개발 수요는 비교적 높지만 한국의 역량이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비교적 낮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1] 정량분석모형에 의한 지원분야 분포도



자료: 박영호 외, 2012.

벤치마킹 기법에 기반을 둔 분석은 수원국의 상대적인 분야별 발전수준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가늠할 수 있으며, 한국의 공여능력과 비교하여 최적의 교차점을 탐색할 수 있는 반면, 개발협력의 주체인 수원국의 의중과 개발 “니즈”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원국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별 특수성 등의 지표를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여 앞서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이 정성분석 모형은 1점(매우 낮음), 2점(낮음), 3점(보통), 4점(높음), 5점(매우 높음)의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부여된 지표별 평점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얻은 값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에서 도출된 상이한 두 지표값을 표준화(Normalisation)하여, 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얻어진 지표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종적인 중점지원 분야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얻은 분석결과는 아프리카 5개국 전체 연구진이 참여한 심층 분석 과정을 거쳐, KOICA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결과로 도출되었다.

제3절 연구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연구 방법론에 있어 최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로코 ODA는 체계적인 중장기 협력 방향성 하에서 추진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마그레브 지역의 중소규모 개발협력 대상국인 모로코에 대해 큰 틀에서 우리의 ODA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좌표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모로코에 대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목표는 분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은 부실하였다.

셋째, 중점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인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일반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개발협력의 필요성 또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모로코의 지역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현지방문 조사, 전문가 그룹 회의는 물론 현지 컨설턴트 소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수원국인 모로코의 사정(개발수요)을 최대한 이해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력이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가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도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모로코에 대한 기존문헌은 국제기구 및 제3국의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모로코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와 국제기구 및 제3국의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진전에 있어 한계선을 설정하였다.

튀니지에서의 테러와 리비아 사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마그레브 지역의 치안불안 등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 점도 연구에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채용한 모형은 동태적인 모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에 내생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의 모형은 “시간”이란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태적(情態的)인 모델로서의 본질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량분석 모형은 최근 것이지만 역시 한 해의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한계점을 현지조사를 통한 “오늘”의 데이터로 보완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이에 따른 현지의 개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KOICA의 전략 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지표 등 주요 개발환경 지표가 시시각각으로 쉬이 변화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아프리카 5개국에 대한 전략 방향과 실행분야는 “최근(up-to-date)” 수원국의 개발환경을 반영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한 연구의 한계점은 KOICA가 향후 일정한 시점에서 유사한 주제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제2장
모로코의 개발과제 및 정책 추진현황

제1절 일반현황

[그림 2-1] 모로코 지도



자료: CIA World Factbook

<표 2-1> 모로코 개황

면적	710,850㎢(한반도의 3.2배)	위치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 연안
인구	3,285만 명(2013년 기준)	언어	아랍어, 베르베르어, 불어(상용)
정치 체제	입헌군주제 행정, 사법, 의회 분리	기후	온대기후(북부 지중해성기후, 중부 대륙성 기후, 남부 사막기후)
수도	라바트(Rabat)	행정 구역	16개 지방(61개 주와 현)
독립일	1956년 3월 2일 (프랑스에서 독립)	통화 단위	Morocco Dirham(MAD) 1US$=8.35MAD
주요 도시	카사블랑카(Casablanca), 라바트 & 쌀(Rabat & Sale), Fes(페스) 마라케(Marrakech), 탕헤르(Tangier), 케니트라(Kenitra)		

자료: 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http://mar.mofa.go.kr/korean/af/mar/policy/overview/index.jsp

1. 국가일반 개황

모로코는 아프리카 서북단에 위치하며 알제리, 모리타니, 스페인과 접경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 유럽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국가의 정식 명칭은 모로코왕국(the Kingdom of Morocco)이다. 인구는 2013년 현재 3,285만 명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대 국가에 포함된다. 국토면적은 현재 영토문제가 되고 있는 서사하라를 포함할 경우 710,850㎢(한반도의 3.2배)이지만, 서사하라를 제외한 면적은 447,000㎢(한반도의 2배)이 된다. 수도는 라바트(Rabat)로 인구가 약 180만 명이고 모로코 최대 도시는 카사블랑카(Casablanca)로 인구가 약 330만 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모로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평가를 받는 마라케시(Marrakech)에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곳은 많은 유럽 연금수급자들이 거주하는 휴양도시로도 유명하다.[3)]

모로코는 아랍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중동지역의 아랍 국가들에 비해 서구적인 색채가 강하다. EU, 미국 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 국가들과 FTA 체결을 통해 신흥시장으로서 모로코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모로코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와 외교·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모로코는 재스민 혁명 이후 아주 큰 변혁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금까지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로코에서는 큰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국왕의 통치 하에 별 불만 없이 지내던 모로코 국민들이 자신들과 언어·종교·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영향을 받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모로코의 국민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국제무대에서 자국이 중요한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모로코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 가에 따라 모로코의 안정이 유지될지 아니면 큰 변화가 올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www.hcp.ma

2. 정치 현황[4] [5]

가. 정치체제 및 중앙부처 체계

모로코는 의회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왕은 행정, 입법, 사법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원수이자 최고 종교지도자이다. 현재 국왕은 모하메드 6세(Mohammed Ⅵ)이고 총리는 벤키란(Abdelilah Benkirane)이다.

모로코의 정치가 입헌군주제이고 수차례에 걸친 개헌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의정치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등 행정·사법·입법 3권을 초월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국왕은 총리임명권과 총리의 제청에 의한 각료임명권, 각료회의 주재권, 법률공포권,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으며 군 참모총장을 겸직하고, 대사임명, 조약비준권, 사면권 및 비상사태 선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모로코 의회는 과거 단원제였으나 1996년 제4차 헌법개정에 따라 상원(Chambre des Conseillers) 및 하원(Chambre des Représentants)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변경됐다. 하원은 임기 6년으로 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325석이다. 상원은 임기 9년으로 지역 선거인단 대표에 의해 총의석(270석)의 3/5을 지역별로 선출하고, 나머지 2/5 의석은 직능별 대표와 전국의 임금노동자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한다. 상원의원은 재선이 가능하며, 3년마다 1/3씩 교체되고 있다. 모로코에는 18개가 넘는 정당이 있는데, 주요 정당으로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정의발전당(PJD), 독립당(Istiqlal), 대중운동당(MP), 국민독립재건당(RNI), 사회국민연합당(USFP) 등이 있다.

모로코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된 이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1963년 5월 최초로 치러졌고 이후 원칙적으로 매 5년마다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총선은 새 헌법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 25일에 실시된 조기총선이었고, 이 선거에서 온건 이슬람성향의 정의발전당(PJD)이 제1당 지위를 차지했다.

---

4) World Bank. 2014
5) KOTRA 모로코 무역관 홈페이지 국가정보 내용을 재구성

모로코 행정부는 의회 다수파 중 국왕에 의해 지명되는 총리(Premier Ministre)와 총리에 의해 제청돼 국왕이 임명하는 각료(Ministre)로 구성되어 있다.[6] 행정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2-2> 행정부조직

총리(Chef du Gouvernement): M. Abdelilah Benkirane
국무부(Ministère d'Etat)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외교부(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e la Coopération)
법무부(Ministère de la Justice et des Libertés)
이슬람 종교부(Ministère des Habous et des affaires islamiques)
관방장관(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
재정경제부(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건설부(Ministère de l'Urbanism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주거도시부(Ministère de l'Habitat et de la Politique de la ville)
농수산부(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pêche maritime)
교육직업훈련부(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de la Formation des cadres)
교통부(Ministère de l'Equipement, du Transport et de la Logistique)
산업부(Ministère de l'Industrie, du Commerce, de l'Investissement et de l'Economie numérique)
청소년스포츠부(Ministèr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보건부(Ministère de la Santé)
정책홍보부(Ministère de la Communication, porte-parole du gouvernement)
에너지자원부(Ministère de l'Energie, des mines, de l'Eau et de l'Environnement)
관광부(Ministère du Tourisme)
사회연대여성가족부(Ministère de la Solidarité, de la Femme, de la Famille et du Développement social)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
수공예와 사회적경제부(Ministère de l'Artisanat, de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고용과 사회정책부(Ministère de l'Emploi et des Affaires sociales)

자료: http://www.maroc.ma/fr/content/la-liste-du-gouvernement

6) 현재의 총리는 2011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정의발전당(PJD)의 지도자 압델리라 벤키란(Abdelilah Benkirane)이다.

모로코는 국왕이 임명한 “Walis”라고 불리는 지방관이 통치하는 16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밑으로 도(préfecture), 주(province) 그리고 시·읍·면(commune)이 있다. 각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지방의회가 있으며, 의원들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모로코는 2006년에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보건행정만 지방자치화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권한은 국토기획과 구분 등에 의해 정해지는 상황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법관은 국왕이 주재하는 사법평의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지방법원, 행정법원, 상고법원, 대법원 등이 주요 사법기관이다. 법원은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개인의 재산권[7]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행정부에 대한 소송, 행정계약이나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있다. 이 외에도, 가족법, 상속, 계약, 노동분쟁, 민사소송 등을 심의하는 민사 1심 법원과 형사소송, 민사 1심 법원의 상고 등을 심의하는 상고법원이 있다.

또한, 대법원, 지방 관리나 중앙정부 공무원의 횡령 및 배임에 관한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나 위법행위에 대해 심의를 하는 고등법원과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나. 정세 및 대외환경 변화

지난 수십 년간 모로코의 정치적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촉발된 재스민 혁명은 2011년 3월에 국왕으로 하여금 헌법 개정계획을 발표하게 하는 등 평화로운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국왕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왕 직속 ‘경제사회위원회’를 헌법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정당들의 폭 넓은 의견을 모으고, 1996년에 개정된 헌법을 수정하는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모로코 국왕은 2011년 7월 1일 국왕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98%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새 헌법의 초안 작성을 포함하여 개혁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새 헌법은 정부의 수반과 의회의 권한

7) 금액 1,000 디람 이하

을 확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더욱 광범위하게 인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산하여, 더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함께 잘 사는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국가의 수반이자 군사 총책임자이고 종교의 수장인, 국가의 가장 큰 권력으로 남게 된 데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국왕은 대법원과 사법최고위원회를 총괄하므로 사실상 국가 전체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로코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2011년 11월에 조기총선을 실시하였는데, 조기총선 결과, 총 325석 중 107석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의발전당(PJD)의 압델리라 벤키란(Abdelilah Benkirane)이 정부의 수반으로 임명되었다. 독립당(Istiqlal)이 60석으로 2위를 차지했고, 국왕 모하메드 6세와 정치적 유대관계가 깊은 다른 8개 정당은 총 160석을 얻는데 그쳤다. 총선 5일 전인 2011년 11월 20일에 수도 라바트와 카사블랑카에서 3,000명 규모의 조기 총선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총선 이후에는 총선결과 인정 거부운동이 일어났으나, 현재 정부가 다방면으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여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행위는 잠잠해진 상태이다.

모로코 국민들의 시위는 여타 아랍국들과 달리 왕권의 퇴진이 아니라 왕권 축소를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2012년 1월에 카사블랑카에서 왕정의 정치개혁이 헌법 개정 및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정부시위가 재발했다. 2007년에도 2차례에 걸쳐 알카에다의 사주로 알려진 테러시도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의 테러목적은 사회불안 심리조성과 미국대사관 공격이었으나 모두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모로코는 유럽과의 인접성으로 인하여 이슬람세계에서는 상당히 개방된 편인데, 원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알카에다의 입장에서는 모로코가 이슬람의 율법을 많이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를 느껴왔다. 2011년에는 마라케시에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모로코는 과거 스페인 자치령이었던 서부 사하라를 1974년부터 사실상 통치하고 있으며 현지의 주민들은 폴리사리오(Polisario) 인민해방전선을 결성해 독립운동을 계

속하고 있다.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은 알제리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내전을 계속해왔으나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은 지난 1988년 유엔중재의 평화안을 수용해 내전이 일단락되었으며 1991년 유엔 서부 사하라 투표임무단(Mission des Nations Unies pour le référendum au Sahara occidental: la MINURSO des Nations Unies)이 그 지역에 파견되었다. 유엔이 내린 중재안은 주민투표를 진행해서 서부 사하라의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후 양 당사자는 유권자의 대상을 놓고 대립하여 주민투표는 1992년 1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 후 모로코는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 측의 주민투표 조기실시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이로써 서부 사하라 지역의 분쟁은 해결 가능성이 요원한 상태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인광석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주변국의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모로코 정부는 서부 사하라 지역에 군시설을 설치하고,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등 영유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엔 서부 사하라 투표임무단(NU MINURSO)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중국, 프랑스, 이집트, 러시아 등에서 219명이 파견·주재 중이다.

모로코는 알제리와 서부 사하라 영토분쟁으로 대립관계에 있으나, 2011년에는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폐쇄되어 있는 육로의 개방을 논의하는 등 관계복원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 폴리사리오(Polisario)측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였던 아프리카통일기구(OUA; Organisation de l'unité africaine)와도 협상을 통해 서부 사하라의 실질자치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위 문제에 대해 모로코는 알제리와 모리타니, 기니 등과 9월 회담을 통해 국제기구(UN)에 모로코 자치안을 승인받는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폴리사리오(Polisario)측이 난민을 억압하고 테러위협과 마약, 무기밀매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다.

다. 외교관계

모로코의 외교정책 기조는 ① 비동맹중립, ② 대 마그레브권 건설, ③ 아랍권 단결 및 아프리카의 단결, ④ 서부 사하라(Sahara Occidental)의 영토보전 및 통합이다. 따라서 모로코는 마그레브 아랍연합(UMA; Union du Maghreb arabe) 및 아랍연맹(La Ligue Arabe)을 통한 역내 국가, 아랍권 및 회교권 전체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로코는 아랍 국가 관계에 있어 이란과 같은 시아파 확장에 우려를 나타내며 2009년 이란과의 외교단절을 선언하고, 모로코 내 시아파 세력 확장방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모로코는 유럽과 역사, 지리, 전략적, 경제적인 이유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및 스페인이 중요한 동맹국인 동시에 최대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 및 인도와 기존 비동맹외교에 바탕을 둔 친선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인사 상호방문 및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국제협력단(JICA), 해외협력기금(OECF) 및 어업협력기금(OFCF) 등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2009년 3월 6일, 모로코는 이란과의 외교단절을 선언했다. 그 이유는 이란이 중동사회 및 모로코 사회에 시아파 영향력을 확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8] 외교단절 후, 모로코는 이란 원유수입을 금지했는데, 모로코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의 확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등 이란과 외교적 마찰이 있었던 국가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히며 모로코 내 시아파 세력 확장을 방지하고 있다.

1) 지역협력체 참여현황

아랍 및 아프리카권 단결정책을 기반으로 실리추구 외교정책을 펴고 있는 모로코는 마그레브아랍연합(Union du Maghrabe Arabe; UMA)[9] 및 아랍연맹(La Ligue Arabe)을 통한 역내국가, 아랍권 및 회교권 전체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마그레브아랍연합(UMA)은 1989년 2월 마그레브 5국(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아)이 지역 내 단일시장 창설을 목표로 설립한 기구이다. 본부를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 두고(현 사무총장은 튀니지 전 외교장관 Habib Ben Yahia), 각국이 1년 순환

8) 중동의 강대국 중 하나인 이란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둔 모로코의 결정은 아랍권에서 자국 지위를 높이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9) http://www.maghrebarabe.org/fr/meet_arch.cfm

의장국을 맡고 있으나, 94년 제 6차 정상회담을 끝으로 정상회담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이다. 서부 사하라 독립을 지지하는 알제리에 반발, 모로코는 94년 의장국인 알제리의 정상회담 소집을 거부한 이래 계속 정상회담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튀니지의 이니셔티브로 2001년 1월 마그레브아랍연합(UMA) 재활성화에 합의한 마그레브 5국은 자문이사회, 재판소, 마그레브대학 및 과학 아카데미, 마그레브 투자무역은행(본부 튀니스)을 창설하였다. 이 연합은 북아프리카 지역 내 아랍국가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실업률 감소를 목표로 경제사회 개발 전망을 논의하였다. 이 연합 소속 국가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농업분야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모로코는 마그레브아랍연합(UMA)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서부 사하라 문제를 둘러싼 알제리와의 갈등 및 서방권의 대 리비아 제재 등으로 마그레브아랍연합(UMA)는 유명무실화 상태에 있다. 현재 모로코는 외교부장관 주도 하에 마그레브청년연합(Union des jeunes maghébins)을 창설하는 등 마그레브아랍연합(UMA)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모로코는 이슬람협력기구(Organisation de la coopération islamique; OCI)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기구는 1969년 9월에 첫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1971년 5월 정식 출범하였으며 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 소재하고, 이슬람 57개국 회원국 간 이슬람 유대강화와 경제·사회·문화·과학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2011년 이슬람회의기구(Organisation de la Conférence islamique)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최근 2014년 3월 8일 처음으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지지와 감사의 의사를 밝힌바 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로서의 일체성의 중요함을 부각하고, 아프리카 제국들에 대한 지원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폴리사리오(Polisario)의 아프리카통일기구(OUA) 가입에 항의해 1984년 아프리카통일기구(OUA)를 탈퇴한 바 있다. 이에 아프리카통일기구(OUA)의 후신인 아프리카연합(AU)에도 비회원국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부 불어권 국가들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로코의 최대 목표는 EU회원국 가입이다. 1987년 EU에 가입신청을 한 바 있으나 2015년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모로코 수산협정과 재정협정 등을 통해 EU시장 편입을 위한 제도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에 모로코-EU 간 관세인하협력 협정이 발효되었고, 지난 2012년 3월 EU와의 관세가 전면 철폐되었다. 모로코는 튀니지, 팔레스타인에 이어 지중해 연안 중동국가로는 3번째로 EU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이다.

2) 프랑스와의 우호관계

프랑스와는 과거 식민지 관계였다고 여겨질 수 없을 만큼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제1의 교역 및 협력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0)]

프랑스는 모로코의 풍력과 태양열 발전 등 재생자원 개발에 1억 3백만 유로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모로코 해저자원 발굴에도 투자 및 연구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총수출의 20.5%, 수입의 13%, 외국인투자의 35.1%, 무상원조의 30%, 해외거주교민의 43%, 해외취업자송금의 63% 등을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모로코-프랑스 관계는 경직되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했으나,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관계가 더욱 가까워짐에 따라, 프랑스는 모로코에 30억유로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으며, 고속철도건설(Tangier-Casablanca 구간)과 우라늄 추출사업에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양국 간 원자력을 무기가 아닌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 간 원자력발전협약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개발협력을 진행 중이다.

2009년에 모로코철도청(ONCF)과 프랑스철도공사(SNCF) 간 기술협력(65백만유로 규모) 등 협력협정이 체결되어, 고속철도 차량과 주요 시설은 프랑스 알스톰(Alstom)

10) 프랑스 이민국통합국(OFII)는 1963년 이후 2013년까지 모로코에서 프랑스로의 이민자 수가 약 820,000명이며, 매년 20,000여 명의 모로코-프랑스 이민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모로코로 떠나는 프랑스 퇴직자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퇴직자 중 연간 4만 명 이상이 모로코에 다녀가며 아예 모로코로 이주하는 퇴직자들 수도 점점 늘고 있다.

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맺었으며, 모로코는 오는 2035년까지 총 연장 1,500km에 달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로코와 알스톰(Alstom)사와의 계약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것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모로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고속철의 필요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고속철 공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모로코 실정에 맞지 않는 대규모 공사라고 비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 미국과의 관계

1787년에 모로코가 세계 최초로 신생독립국인 미국을 인정한 이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01년 9.11사태 발생 이후 모로코는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의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1956년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양국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동평화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에 중요한 동반자 위치를 굳히고 있다.

2004년도에는 모로코-미국 간의 FTA협정체결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모로코는 미국으로부터 약 35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여 프랑스, 스페인, 중국에 이어 미국이 4번째 수입국으로 집계되었고, 미국에서 모로코는 아랍국가 중 6번째로 큰 수출국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 11월 21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가 워싱턴에 방문하여 양국 간 무역교류를 촉진하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양국합의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과 모로코는 2001년부터 African Eagle로 명명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공동 군사훈련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되는 큰 규모의 군사 훈련으로 미군 1,200명, 모로코군 900명 등 총 2,100명 규모이며, 양국의 공동훈련 목표는 모로코와 대 테러 공조 및 상호 작전능력 제고이다.

4) 알제리와의 외교마찰

이웃 알제리와는 서부 사하라 영토분쟁으로 대립관계에 있다. 모로코는 서부 사하라에서 스페인을 축출하기 위해 1967년 알제리 및 모리타니아와 함께 서부 사하라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1969년 알제리에 분쟁지역을 양보함으로써 서부 사하라에 대한 주도권을 얻음과 동시에 알제리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75년부터 알제리와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알제리는 1976년에 결성된 서사하라 독립을 위한 게릴라 조직인 폴리사리오(Polisario)와 그 추종세력들을 지지해왔고, 뿐만 아니라 서사하라의 살라위(Sahrawi)족의 망명자들도 지원해 왔다. 따라서 1994년 이래로 양국의 국경은 폐쇄되어왔으나, 2011년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폐쇄되어 있는 육로의 개방 등 관계 복원을 노력하기도 하였지만 2013년에는 알제리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모로코는 알제리에서 대사관을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기준 양국 대립비용이 연간 국민총생산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의 경제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2011년 11월 총선 이후, 신임 외무부장관이 2012년 1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알제리 대통령과 양국 관계 진전방안 및 마그레브아랍연합(UMA) 부활을 통한 정치, 경제, 협력활성화를 논의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모로코 라바트에서 모로코-알제리 산업포럼이 개최되어 알제리의 영향력 있는 기업의 대표들과 모로코 수출입협회, 경제인연합회, 주요금융사, 상공회의소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사하라 사막 분쟁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은 제외한 채 상업과 경제 관련 회의만 진행하여 양국 간 상업적·경제적 파트너쉽 증진을 주로 다룬 바 있다. 이 포럼 이후, 알제리는 9월 12일 모로코와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등 사하라 인접 국가들을 알제로 초청해서 사하라 문제에 대한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서사하라 국토분쟁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론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2012년 기준, 모로코 대 알제리 교역규모는 82억 디람인데 반해 교역량의 85%가 수입으로써, 모로코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향후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글상자 2-1] 모로코-알제리 외교 연대표

1967년 알제리, 모리타니아와 함께 서부사하라 독립운동 지원
1969년 알제리에 분쟁지역 양보, 서부사하라 주도권 얻음. 알제리와 우호관계 유지
1975년 서부 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통치권 문제로 양국 갈등 시작
1989년 알제리 관계발전을 모색하였으나, 알제리와 갈등관계는 지속
1994년 양국 국경 폐쇄 시작
2011년 천연가스 공급계약 체결하고, 현재 국경폐쇄 종료 등 관계 복원 노력
2012년 외무부장관이 알제리 대통령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도모
2012년 알제리는 모로코와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등과 서사하라 국토분쟁 문제를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론화하는 방안 검토
2013년 알제리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되어 알제리에서 대사관 철수
2015년 현재까지 양국 국경은 폐쇄상태

5) 대 중국관계

1956년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후 처음으로 모코로 국왕 모하메드 6세가 2002년에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모로코 국왕의 중국방문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1999년 모로코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2년 양국은 보건, 관광, 환경 등 6개 분야에 이르는 사회발전 공동협약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2013년 전반기 미국을 밀어내고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대 모로코 수출액은 2011년 28억 달러, 수입액은 2.3억 달러로, 모로코에 대해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양국 간 첨예한 경제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모로코의 여러 산업분야에 투자진출을 강화하고 있는데, 철근공장(Faston사) 및 오토바이 조립공장(Motochina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앞으로 양국 교역량은 점차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3. 경제 현황

가. 거시경제 여건

2012년 모로코의 GDP는 961억 달러, 1인당 GDP는 2,956달러였으며,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하였다. 2011년 경제성장률은 5.0%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작황 부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유로존의 경기침체 등으로 2.7%를 기록하였다. 2008-2009년에는 세계적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 및 양호한 작황으로 각각 5.6%와 4.8%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고, 2001-2011년 사이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5%이었으므로 2012년의 경제성장률 2.7%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2년에 1.3%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0.9%에 비해 약간 더 상승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8.1에서 8.6으로 역시 안정적이었다. 단, 같은 기간 동안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표 2-3> 주요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0	2011	2012
국내경제	GDP	억 달러	908	992	961
	1인당 GDP	달러	2,850	3,082	2,956
	경제성장률	%	3.6	5.0	2.7
	실업률*	%	9.1	9.2	8.9
	정부부채/GDP*	%	48	51.3	54.3
	소비자물가상승률	%	1.0	0.9	1.3
대외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Dh	8.4	8.1	8.6
	경상수지	백만 달러	-3,749	-8,052	-9,570
	상품수지	백만 달러	-17,318	-21,387	-21,885
	수출	백만 달러	12,309	15,946	16,992
	수입	백만 달러	29,627	37,333	38,877
	서비스수지	백만 달러	7,365	7,325	7,210
	자본수지	백만 달러	1,364	2,295	1,884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23,613	20,642	17,535
외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27,472	31,440	33,768

	경제지표	단위	2010	2011	2012
채현황	단기외채	백만 달러	2,539	3,174	2,588
	총외채잔액/GDP	%	30.3	31.7	35.1
	외채상환액/총수출	%	7.8	7.7	7.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세계은행

모로코 경제는 2013년에 다시 활성화가 되었다. 2013년에 1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20.4% 오르는 등 경제 성장률이 4.4%를 기록했다. 3차 산업은 3.3%의 성장률을 유지했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0.5% 증가했다. 주요 경제활동 분야로 2012년에 4.6%였던 최종 소비가 5.5.%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가정의 구매력이 2012년에 3.6%을 기록한 후, 5.6%로 상승하는 등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성공적인 농번기 수입의 증가가 한 몫을 하였다. 공공분야의 소비는 2012년에 7.9%까지 오르고 그 이후 5.4%를 기록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국제 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인상 결정이 반영되기 시작한 관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에 1.3%에서 소폭 상승한 1.9%를 기록했다.

모로코의 경상수지 적자가 소폭 완화되었지만 적자 기조는 지속되었다. 2013년에 전년 대비 수입이 2%, 수출이 0.8% 감소했고, 경상수지 적자는 3.2% 감소했다. 수출의 감소는 모로코 인광석 공사(l'Office Chérifien des Phosphates)의 판매실적이 23.3%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인광석 수출을 제외하고는 수출 실적이 7.2% 상승). 유가의 하락은 에너지 비용과 수입 총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13년 관광 부문 수입과 해외교민의 송금액이 각각 0.7% 및 0.9% 소폭 감소하였다.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012년에는 10%, 2013년에는 7.7%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은 25.2% 증가하였다. 모로코의 2013년 외환보유고는 재화 및 서비스를 4개월간 수입한 것만큼 유지하였다.

2013년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5.4%를 기록하였다(목표가 5.5%였으며, 2012년에는 7.6% 기록). 2013년 9월 16일 모로코 당국은 국제 유가에 휘발유 및 경유와 같은 제품의 가격을 연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모로코의 국민 사회보장 금고 개혁

을 알리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되었다. 2014년 1월 모로코는 에너지 보조금 삭감 조치(경유, 산업 연료, 휘발유)를 발표하고 사회보장 금고 시스템 개혁을 시작했다. 농업 관련 대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었고, 부가가치세 개혁을 시작하였다.

나. 산업별 현황[11)]

<표 2-4> 분야별 GDP 비중

(단위: %)

분야별 GDP 비중	2008년	2012년
농업, 수렵, 임업, 어업	14.6	14.4
- 어업	1.2	1.0
광업	7.3	5.3
제조업	14.2	15.9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	2.6	2.6
건설	6.2	6.5
도매 및 소매업, 호텔 및 레스토랑	14.0	13.0
- 호텔 및 레스토랑	2.6	2.6
운송, 저장 및 통신	7.3	6.7
금융,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4.0	14.1
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사회 혹은 민간 서비스	8.7	9.7
기타 서비스	11.1	11.8
전체	100	100

자료: African Economic Outlook

구조적으로 모로코 경제는 건설, 공공사업,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내수 기반의 산업과 생산성이 낮은 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로코의 농업부문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작황에 따라 경제에 큰 변화가 있어왔다. 모로코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농업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11) 산업별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 수산업, 식품가공산업, 에너지산업, 관광산업, 금융업 등의 내용은 KOTRA 모로코 무역관 홈페이지의 국가정보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1) 농업

<표 2-5> 주 생산품 농업생산량

(단위: 1,000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밀	21,024	42,313	10,688	25,295	43,384	32,433	41,699	38,780
보리	11,021	25,351	7,626	13,532	3,786	25,665	23,176	-
밀(듀럼)	9,407	20,955	5,138	124	2,033	16,328	18,480	-
사탕수수	7,823	9,966	9,339	9,126	813	6,323	7,639	5,410
옥수수	501	2,974	949	121	2,045	2,792	2,213	90

자료: African Economic Outlook

농업은 모로코 산업의 근간이다. 농업부문의 작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변화가 좌지우지된다. 2013년 2분기 기준, 전체 1,000만 명의 노동인구 중 40% 수준인 4백만 명 이상이 종사함에 따라 경제성장 및 연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강우량 등 기후조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결정된다. 2011년 겨울, 기록적인 가뭄과 2012년 여름,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작황 감소로 말미암아 2012년 농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경제상황이 2011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관개시설 확충, 농업장비 현대화 등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농업분야의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농업·식품분야의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모로코의 농업은 전형적인 소규모 영세농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농경지의 85.7%가 관개시설이 없는 상태이다. 주요작물은 오렌지, 감귤, 포도, 올리브 및 채소류 등이다. 이중 오렌지, 감귤의 80%, 토마토 등 채소류의 33%가 유럽 등지로 수출된다.

2009년 4월, 모로코 정부는 농업개발을 위해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낙후되어 있는 농업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관개시설 및 제반시

설을 확충하여 농업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농업육성기금(Fond de Développement Agricole)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12년 8월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 산하 프로젝트인 농업현대화프로그램(Verocon)에 35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농업 현대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2) 수산업

모로코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3,500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및 어업기지 라스팔마스항이 모로코 서부 사하라의 라윤(Laayoune)항과 마주보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수산자원이 풍족하다. 모로코 수산업의 대표 도시는 사피(Safi), 에사우이라(Essaouira), 카사블랑카(Casablanca), 아가딜(Agadir)이며 주요 어종은 정어리, 멸치, 고등어, 대구, 도미, 오징어 등이다. 수확된 상품들은 대부분 냉동, 통조림 제품으로 가공되어 주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산업 부문은 어업과 수산가공업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어업의 경우 2013년 2분기 기준 GDP 점유비중이 약 1%이고, 수산가공업을 합친 수산업 전체의 경우 GDP의 약 2~3%를 차지한다. 하지만, 어업종사자는 약 10만 명, 관련 수산업 전체 종사자를 모두 합치면 50만 명(고용인구의 5%)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어업 및 수산업 부문의 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모로코 농수산부에서는 연간 어획 가능량을 1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으며, 적정 어획고를 연간 약 100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족자원 보호와 수산업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모로코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2개월의 휴어기를 4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유럽(스페인) 어선의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해 모로코 근해 조업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수산업개발계획(Plan Halieutis)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낙후된 수산업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항구를 개발해 물동량을 증가하는 방안을 통해 현재 GDP의 2-3% 수준인 수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3배인 6%대(219억 디람)까지 증대시키는데 있으며, 수산업 종사인구를 현재 5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계획이다.

총 90억 디람(약10억 달러)이 소요되는 이 계획으로 LAAYOUNE, TAN-TAN, TARFAYA, SIDI IFNI의 항만 현대화와 DAKHLA의 신 항구건설에 30억 디람(약 3억 5,000만 달러)이 투자 된다. 또한 어업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업방식전환, 미개발 어장선단 재배치, 선박엔진(400마력 이상) 및 어선현대화(톤수 증대), 냉동시설신축, 가공처리시설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3) 식품가공산업

최근 모로코 식품가공산업 중 주목을 받는 분야는 바로 할랄(Halal) 식품가공 분야이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다'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무슬림들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율법에 따라 도살, 처리, 가공된 식품과 공산품에 부여되는 일종의 인증을 가리킨다. 이슬람 율법의 핵심은 돼지고기와 술(알코올), 피 등을 먹지 않는 것이므로 식품의 원료로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원료가 들어가는 식품을 만든 제조설비에서 식품을 제조하면 안 되는 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할랄 시장의 규모는 7,000억 달러 규모(한화 약 850조원)이며, 할랄 인증식품, 공산품을 사용하는 무슬림 인구도 18억 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모로코에는 지금까지 할랄 인증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2년 9월13일 메크네스에서 열린 국제 할랄 엑스포에서 모로코 할랄 인증을 발표했다.

4) 에너지산업

모로코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원의 대외의존도가 97%로 심각한 수준인데다 전력수요가 매년 8% 규모로 증가해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안정적 공급확보 차원에서 모로코 정부는 그린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천연자원 고갈, 생태계파괴, 수질,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과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원유 수입규모는 36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9.6%을 차지했으며,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원유수입규모는 12억 디람을 기록하여 전체수입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생산의 80%는 화력발전에 의존(석탄 59%, 연료유 24.1%, 복합화력 16.1%)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비싸며,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인해 제조업 등 산업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원유를 천연가스로 대체(2010년 4%에서 2030년 30%)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에너지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정유설비 및 공급, 전기공급 등의 분야를 민영화한 바 있다.

모로코 전력수요는 매년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전기소비량 증가율은 8.4%로 2009년 4.2%와는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2012년도 전력소비량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했다. 모로코 내 전력생산량은 14.8% 증가하였고, 스페인과 알제리에서의 에너지 수입량은 9.6% 증가했다. 모로코의 전력생산은 20여개의 수력발전소와 10여개의 화력발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모로코 에너지부 산하의 전력청(ONE)은 1963년 설립되었으며, 전력공급과 송전, 도시 농어촌 배전을 책임지고 있다. 1996년 '농촌종합전력화정책' 공표 이후, 2008년까지 22억 달러를 투자해 약 35,000개의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였으며, 이 중 3,653곳은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1996년 22% 수준이던 농촌지역 전력공급률은 2011년 기준 96.5%에 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2010년 11월에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비용 충당을 위해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과 5,100백만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위와 같은 지방 전력화 정책 프로젝트 성공으로 인해 모로코 전력청(ONE)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전력화 정책의 고문역할과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다.

5) 관광산업

모로코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2012년 기준 모로코 GDP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92만 명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관광산업 종사자는 연간 3.6%씩 증가해 2021년도에 약 1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8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는 7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다. 증가한 여행객 국적별로 보면 영국(10%), 이탈리아(8%), 독일(7%) 등 전반적으로 관광

객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러시아(106%), 체코(63%)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체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389억 디람을 기록하였다.

<표 2-6> 관광산업 현황

(단위: 1,000, %)

관광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모로코 방문 관광객 수	6,077	6,777	7,701	8,209	8,661	9,752	9,834	9,800	9,943
호텔객실 수	59.8	64	68	73	78	-	-	-	-
숙박객 수	12,259	13,346	13,703	13,068	12,521	13,955	12,419	12,095	13,442
관광 수입(US$)	4,575,700	5,949,670	7,141,710	7,180,670	6,585,040	6,656,310	7,271,090	7,617,950	6,847,690
GDP 대비 관광수입비중	18.5	20.8	22.4	21.0	19.2	19.5	19.2	20.2	18.7
총고용 대비 관광산업 고용 비중	16.4	18.5	19.9	18.7	17.1	17.4	17.1	18.0	16.7

자료: African Economic Outlook

6) 금융업

모로코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 은행(Banque Al-Maghrib)과 6개의 상업은행, 보험회사, 주식시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층이 양극화되어 있어 저축률이 낮은 편이고 부유층은 아직도 부동산투자에 매력을 갖고 있다.

모로코 시중은행 대부분에 유럽계 은행들이 지분참여를 하고 있으며, 최대의 민간은행은 아티 자리와화 은행(Banque Atti Jariwafa)으로 2004년 BCM(Banque Commerciale du Maroc)과 와화은행(Banque Wafa) 간 합병으로 출범했다.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 은행(Banque Al-Maghrib)은 모로코 재무부와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재정정책 수립, 지폐발행, 외환 감독관리, 정부재정 관리, 상업은행 및 특수은행 감독 등의 업무와 일반 상업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모로코 정부는 보험시장에 은행 진출을 허가하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은행을 모회사로 삼고 있거나 파트너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 분야에서, Wafa 보험사와 Atti Jariwafa 은행은 국왕 가족 투자기금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이슬람문화권의 금융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2년 5월 이슬람은행 도입을 위한 법안제정을 발표했다. 모로코는 이슬람은행 도입을 통해 기존 은행의 경쟁을 부추겨 금융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 성장률에도 매년 2%pt의 추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증권시장은 1993년 관련법 개정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카사블랑카 증권거래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중 하나이며,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2012년 현재 상장된 기업 수는 79개사인데 5개 대기업이 증권시장 총자산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5대 기업의 거래금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기업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 주요 인프라 현황[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로코경제는 내수 산업인 건설, 공공,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산업인 농업도 생산성이 낮고 생산량도 일정하지 않아 변동이 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모로코는 지난 20년간 인프라 전반에 걸쳐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한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기록하였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켰지만 생산요소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정부지출로 에너지, 고속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실현하였다.

12) KOTRA 모로코 무역관 홈페이지의 국가정보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음.

1) 인프라 현황

<표 2-7> 인프라 현황

인프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도로 포장률(%)	59.6	60.0	61.5	61.6	70.0	70.0	71.0	70.0	-
철도(km)	1,907	1,907	1,907	1,907	2,109	2,109	2,109	2,109	-
1000명당 유선전화 사용자 수	44	41	77	95	113	119	111	101	-
1000명당 휴대폰 가입자 수	394	521	641	740	812	1,015	1,136	1,200	1,29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모로코 국가개황, KOTRA Globalwindow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5464&bbs_code_id=1311913444154&bbs_code_tp=BBS_2&code_tp=C01_188_208&code_tp_up=C01_188&code_tp_nm=TA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10M.html?BBS_ID=10&MENU_CD=M10012&UPPER_MENU_CD=M10002&MENU_STEP=2&ARTICLE_SE=20302

2011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이 호조세를 보였다. 고속도로의 개발과 임대주택 프로그램 등 모로코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큰 편이다. 모로코 정부는 발전플랜트, LNG 터미널 인산비료 플랜트, 재생에너지, 철도차량기지, 수처리 플랜트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과 함께 농업, 제조, 수산, 관광, 항공, 물류, 자동차, 정보통신 등 16개 중점 개발 분야에 대한 중기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은 물류인프라 구축계획(Plan national pour la logistique), 산업개발계획(Plan Emergence), 어업개발계획(Plan Halieutis),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 항만개발계획 2030(Stratégie Portuaire nationale 2030) 등이 있다. 또한 2015년까지 모로코 고속도로 개발의 마지막 400km 구간이 건설될 계획이다.

2) 도로

2014년 5월 기준 모로코 고속도로 총 연장은 1,511km로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고속도로 사정이 좋은 국가이며, 일반도로의 총 연장은 60,450km에 달하고 이 중 70%가 포장도로이다. 모로코는 지역별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추가건설과 아울러 지방도로의 포장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도로망 상태가 현재보다 더 좋아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카사블랑카 등 대도시의 교통난은 가중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토바이, 승용차, 상용차를 모두 합한 전체 차량 수는 매년 약 5~6%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차량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도시 교통사정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도시 도로망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표 2-8> 운행 중인 자동차 보유 총수 변화

(단위: 대)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2	2013	2012년대비 2013년 증가율(%)
오토바이	23,227	25,377	28,784	33,765	36,141	38,792	7.34
승용차	1,477,330	1,642,348	1,864,805	2,083,710	2,202,743	2,314,826	5.09
상용차	535,772	616,335	731,269	836,598	885,518	932,803	5.34
전체	2,036,329	2,284,060	2,624,858	2,954,073	3,124,402	3,286,421	5.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모로코 국가개황, KOTRA Globalwindow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5464&bbs_code_id=1311913444154&bbs_code_tp=BBS_2&code_tp=C01_188_208&code_tp_up=C01_188&code_tp_nm=TA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10M.html?BBS_ID=10&MENU_CD=M10012&UPPER_MENU_CD=M10002&MENU_STEP=2&ARTICLE_SE=20302

3) 전력

2013년 5월 기준 전력 소비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업분야 에너지 소비량이 6.6% 감소한 결과이다. 모로코 내 전력 생산량은 10.9% 증가했고, 스페인과 알제리에서의 에너지 수입량은 7.3% 감소하였다.

전력청(ONE) 및 민간발전 사업자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량은 2013년 기준 27,781 GWh에 달했다. 전력 생산의 38%가 석탄에서, 천연가스 18.4%, 석유 14.3%, 신재생에너지원(주로 수력, 풍력 등)은 11.5%를 차지하였다.[13)]

모로코의 전력수요는 1999년-2008년의 기간 동안 매년 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자체 전력공급은 이에 못 미쳐, 부족한 전력을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해 왔다. 전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 2월 '국가 재생에너지 육성 및 전력이용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풍력(14%), 태양(14%), 수력(14%) 등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비율을 전체의 4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표 2-9> 모로코 전력 소비량(2011)

구 분	전력 소비량(GWh)	비율(%)
산업용	9,741	38
교통	302	1.1
가정용	8,413	33
상업 및 공공 서비스	5,640	22
농업 및 임업	1,538	6
전체	25,635	100

자료: Energypedia 홈페이지

13) Energypedia 홈페이지

4) 정보통신[14)]

모로코의 정보통신 산업은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10년 전 모로코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민영화 조치 이후로 1999년 85억 디람이었던 산업규모가 2007년 말 300억 디람으로 성장(GDP의 7%)했으며, 2011년에는 530억 디람 규모로 발전하였다.

통신시장이 발달하면서 지난 5년간 통신 관련 업계에 약 12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그 중 약 3만 7,000명이 취업하였다. 모로코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인 Maroc Telecom은 연 매출액이 약 275억 3,200만 디람에 이르러 단일 기업으로는 모로코 최고를 기록하였다.

모로코 통신청(ANRT)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약 3,650만 명,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361만 598명, 공중전화 개수는 17만 5,887대로 보고되었다. 2013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호조세를 보이며 4,132만 명을 돌파하였다.

<표 2-10>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가입자 수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휴대전화						
휴대전화 가입자 수(백만명)	16.01	20.03	22.82	25.31	31.98	36.15
전년 대비 증가율(%)	29.2	25.1	13.9	10.9	26.4	13.0
휴대전화 보급률(%)	53.54	65.66	73.98	81.18	101.49	112.31
유선전화						
유선전화 가입자 수(백만명)	1.27	2.39	2.99	3.52	3.75	3.52
전년 대비 증가율(%)	-5.2	88.2	25.1	17.7	6.5	-6.1
유선전화 보급률(%)	4.24	5.62	9.7	11.28	11.9	10.9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모로코 국가개황, KOTRA Globalwindow
http://www.koreaexim.go.kr/kr/bbs/noti/view.jsp?no=15464&bbs_code_id=1311913444154&bbs_code_tp=BBS_2&code_tp=C01_188_208&code_tp_up=C01_188&code_tp_nm=TA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10M.html?BBS_ID=10&MENU_CD=M10012&UPPER_MENU_CD=M10002&MENU_STEP=2&ARTICLE_SE=20302

14) KOTRA 모로코 무역관 홈페이지 국가정보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정부 주도 IT 육성사업인 Maroc Numeric 프로젝트 발족으로 IT 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디지털 콘텐츠 확대, 농촌지역 인터넷 접근성 강화 등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것이 많다.

현재 모로코에서는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이 한창이며 회사, 학교, 공공시설의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모로코 가정 PC 보급률은 39%로 2004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보급률 역시 2004년 2%에 비해 급증한 35%로 나타났다. 모로코 통신청(ANRT)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400만 명이었으나 2014년 1분기에는 약 64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도심지역과 지방의 보급률 편차가 심한 편으로 도심지역 인터넷 보급률은 53%이나 지방 인터넷 보급률은 14%에 불과하다.

모로코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도 모로코 텔레콤 및 메디텔과 같은 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는 0.6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 카페 등의 형태로 업무 외 다양한 용도의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3년에는 100명당 56명으로 급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ADSL과 같은 데이터 중심의 인터넷 회선 보급으로 인해 2012년 63만 명이었던 ADSL 가입자는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9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ADSL 회선의 72.4%가 4Mbps의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8-12Mbps 등 초고속 인터넷 비중도 26.1%로 나타났다.

<표 2-11> 개인 인터넷 보급률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69	1.37	2.37	3.35	11.61	15.08	19.77	21.50	33.10	41.30	52.00	46.11	55.42	56.00

자료: ITU, Statistics, Percentage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

라. 대외경제 여건

1) 수출입현황

모로코 경제의 취약점 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세계의 자유무역 흐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모로코의 해외수출 점유율이 0.15% 정도 증가한데 비해 대부분의 경쟁국은 이보다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로코의 해외수출 가격이 경쟁국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격차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확대되었다. 즉, 모로코의 높은 수출상품 가격이 세계시장에서 모로코 기업 경쟁력의 지속적인 약점이 되고 있으므로 모로코 기업은 수출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모로코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 의해 타격을 입었는데, 이들 경제위기로 모로코는 식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부채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제조 및 항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출현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로코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출품: 옷, 양말/메리야스류, 갑각류/연체동물, 인산염, 인산
- 수입품: 원유, 석유, 가스오일, 연료유, 기계, 섬유, 버스

한편, 모로코에서는 밀수된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밀수는 주로 스페인과 인접한 지역과 알제리 국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밀수되는 제품은 전자제품과 생활필수품, 공산품 등 다양하다. 이러한 밀수된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로 인한 정상적인 유통구조가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모로코의 수출입 대상국은 주로 유럽 국가들인데 최근에 모로코 정부는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자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럽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2-12> 수출입 비중 주 무역국가

(단위: %)

수출비중 주 무역국가	비중	수입비중 주 무역국가	비중
스페인	19.48	프랑스	15.47
프랑스	17.57	스페인	14.54
브라질	6.23	중국	7.78
미국	5.05	미국	7.32
인도	4.66	사우디아라비아	6.12
이탈리아	3.96	이탈리아	5.18
독일	3.60	독일	4.88
벨기에	2.97	러시아	3.33
영국	2.93	알제리	2.46
러시아	2.41	벨기에	2.37

자료: AfDB Yearbook(2014)

2011년 중 모로코는 미국으로부터 약 35억 달러의 수입량을 기록하여, 미국이 프랑스, 스페인, 중국에 이어 4번째 수입국가로 집계되었으며, 미국에서 모로코는 아랍국가 중 6번째로 큰 수입국가로 집계되었다. 2013년 11월 21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왕 모하메드 6세를 초청한 바 있으며, 이 방문을 통해 세관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양국 간 무역 교류를 촉진하는 양국 합의에 서명을 하였다.

국왕 모하메드 6세는 미국(2012년 9월), 스페인(2012년 10월)과 경제회담, 중동순방(2012년 10월) 등을 통해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2012년 8월에는 IMF으로부터 유로존 위기 등 외부충격으로부터 모로코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62억 달러(약 7조 원)의 예방적 유동성 자금(PLL)을 지원받음으로써 내부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

2)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15)]

모로코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는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을 시행하였고, 정부 부처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헌장'을 2010년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듯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8년에 4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25억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는 35억달러로 다소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 및 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3> 국가 및 분야별 FDI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디람, %)

주요 투자국	2014
프랑스	8,557.5
아랍에미리트	4,070.4
사우디아라비아	3,860.6
미국	2,445.7
스위스	1,725.4
영국	1,553.0
스페인	1,046.7
쿠웨이트	951.2

주요 투자 분야	2013
산업	52.0
부동산	14.5
에너지 및 광업	8.6
관광	4.5
대규모 사업	4.5
무역	3.6
운송	2.9
금융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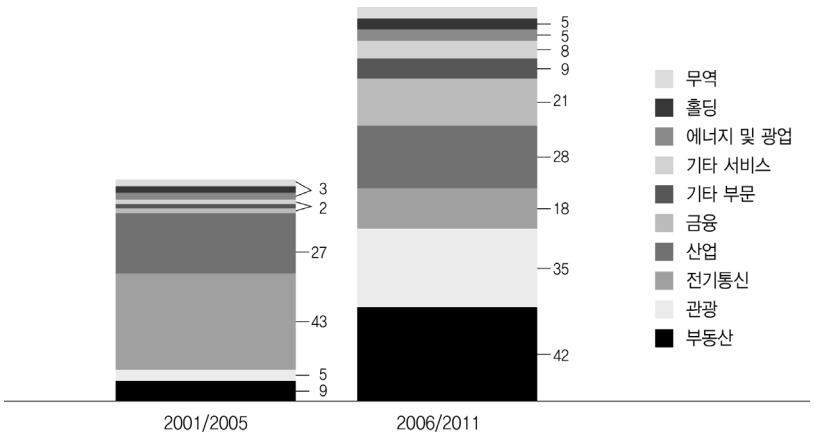
자료: KOTRA Globalwindow

위 표에서 보듯이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보면 2014년 현재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동지역 국가와 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요 투자 분야는 2013년에 산업이 52%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부동산, 에너지및 광업 등의 분야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5) 모로코 투자청

[그림 2-2] 누적 FDI 추세(2001-2011)

(단위: 십억 디람)



자료: 모로코 투자청

한편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와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를 비교해 보면, 최근 들어 부동산과 관광분야에 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전기통신 분야는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문화 현황

가. 사회적 특성

모로코는 1990년대부터 주목할 만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경험하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기회의 부족, 빈곤과 부패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어왔다. 특히 2011년 초 아랍의 봄에 의한 변화에 동승하여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자유 언론 등을 요구하였으며, 총선 5일 전인 2011년 11월 20일에 수도 라바트와 카사블랑카에서 3,000명 규모의 조기 총선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총선 이후에는 결과인정 거부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2년 1월 카사블랑카에서 헌법 개정 및 총선 이후에도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정부시위가 재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난 2011년 말 총선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세계자유상황보고서 2015(Freedom in the World)[16]’에 따르면, 모로코는 자유평가 4.5점, 시민의 자유 4점, 정치적 권리 5점으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언론자유평가보고서 2015(Press Freedom Survey)[17]’에 따르면 모로코는 66점으로 비 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18]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모로코는 헌법 개정을 통해 남녀 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헌법에서 명시하게 됐지만, 여전히 율법인 ‘샤리아법’의 강력한 제약 속에서 남녀동등 상속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 부모 사망 시 여성 자녀의 상속분은 남성의 절반,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전체 유산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보수 법학자들은 “일부다처제나 상속 등에 관한 사항은 율법이기에 누구도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19]

나. 민족구성 및 언어와 종교

민족구성은 아랍인(60%), 베르베르인(36%), 기타(4%)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베르베르인(Berber)이라고 하는 민족은 북부 아프리카의 토착 민족으로 고대 이집트 이전부터 거주하던 민족으로서, 사실상 모로코의 원주민은 베르베르인이며 아랍인들은 8-9세기 이슬람제국의 대 정복 이후에 대거 유입된 민족이다.

베르베르인들은 아직도 고유 언어인 베르베르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모로코의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는 아랍문자와 함께 이 베르베르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은 주로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으로 인해 많은 베르베르인들이 프랑스나 기타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모로코 국민의 98.7%가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도 1.1% 있다. 이처럼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중동지역의 이슬람국가들에 비해

16) 민주주의 및 정치자유자유도를 1~7 사이로 평가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17) 법과 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경제적 압력, 실질적인 언론 피해사례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여 0-30점은 ‘자유국가’, 31-60점은 ‘부분 자유국가’, 61-100점은 ‘비 자유국가’로 분류.
18) Freedom House(2014)
19) http://www.womennews.co.kr/news/70924#.VUlyeSHtmko

모로코는 상당히 서구화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거리에 술을 파는 레스토랑이 많이 있으며 여성들의 복장도 차도르나 히잡을 한 여성의 비율이 중동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완전히 유럽여성과 같은 복장을 한 여성 비율도 높아 전반적으로 서구화된 경향이 많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모로코의 국어는 베르베르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방언성격의 아랍어로, 시리아, 이라크 등의 중동지역의 아랍어와는 달라서, 이를 구사하지 못하는 모로코인은 중동 아랍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운 편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6년 프랑스에서 독립하였으므로 지금도 아랍어 외에 불어를 상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로코 아랍어로는 아랍국가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우므로 아랍어 대신 불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강좌가 불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즈니스도 거의 불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어대신 영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모로코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5%로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었지만 2010-2015년 기준 인구 증가율은 1.0%, 도시인구 성장률은 1.6%, 농촌인구 성장률은 0.1%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전통 산업경제 구조에서 볼 수 있는 피라미드형은 아니지만 초기 공업화가 진행되는 인구구조, 즉, 25세-54세의 인구가 4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기준 모로코 전체인구 중 57%는 도시에, 43%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2000년도 대비 3.7%이며, 전 세계에서 도시화율 관련 115위를 차지하고 있다.[20]

20) FAO Yearbook(2013)

다. 문화 및 역사

모로코는 내륙지역 고유의 베르베르 문명과 기원전 1100년 경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페니키아 문명, 카르타고, 로마, 반달, 비잔틴, 이슬람 문명이 혼합된 고유의 폭넓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 이래 형성되어 온 베르베르 문명과 기원후 7세기경부터 유입된 이슬람 문명이 모로코 문화의 두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로코는 다양한 전통문화와 고유유산 보존을 문화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1956년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서구문화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대하면서, 모로코는 전통적인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문화를 보존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이슬람의 영향이 매우 크다.

모로코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이슬람력에 따른 공휴일, 라마단 기간을 준수,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흡연이 금지되며 대부분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 그러나 온건 수니파 이슬람권으로 세속화되어, 주류 판매 및 구입을 허용하는 등 실생활에 대한 종교적 제약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모로코는 프랑스의 44년 식민지배 기간(1912-1956) 동안의 문화적 영향으로 언어 및 사회제도 상으로는 불어문화권과 중첩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혹은 외국인 남성과 모로코인 여자가 호텔에 같은 객실에 투숙하는 경우 두 사람이 혼인증서를 제시해야 하는 등, 이슬람 문화가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모로코 국왕이나 왕가를 포함한 국왕제 비난, 이슬람 종교에 대한 모독, 모로코의 서부사하라 주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절대 금물이며, 또한 현지인과 종교 관련 토론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인에 대한 타종교 포교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모로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모로코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베르베르 및 유럽계의 통치(BC 1100년-7세기)

현재 모로코가 있는 지역에는 BC 1100년경부터 베르베르족이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베르베르족은 AD 24년 경 모리타니아 왕국을 출현시켰으나 곧 로마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AD 253년 베르베르족의 저항에 따라 로마는 식민화를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하였으며, 그 공백을 이용하여 게르만민족의 일종인 반달족이 모로코 북부지역을 점령하였다. 뒤이어, 동로마제국으로 불리는 그리스계의 비잔틴 제국이 반달족을 격퇴하고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된다.

이처럼 7세기 이슬람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현재의 모로코 지역은 베르베르족, 로마인, 게르만족의 일종인 반달족, 그리스계 등 주로 유럽인들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2) 이슬람교 도래와 이드리스(Idriss) 왕조(8세기-11세기)

680년부터 이슬람교도들의 모로코 침입이 시작하였으며, 711년경에 아랍화된 이슬람교도인 무어족에 의한 모로코 지배가 확립되면서 이 지역은 아랍화가 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베르베르족들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모로코의 이슬람화는 공고해져 갔다.

이드리스(Idriss) 1세는 아라비아반도에 거주하던 마호메트의 직계 후손으로 아바스 왕조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몇몇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서쪽으로 달아나 이집트를 거쳐 북부 모로코로 들어가 이곳의 베르베르족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면서 모로코 내 아랍왕조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런 이유로 모로코 국왕 가문은 현재까지도 아랍세계에서 전통 있는 가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3) 베르베르족의 모라비드(Al Moravids) 왕조(1062-1145)와 모하드(Al Mohads) 왕조(1145-1248)

베르베르족은 이드리스 왕조가 멸망한 공백기를 틈타 마라케쉬(Marrakech)를 수도로 하는 모라비드(Al moravids) 왕조를 수립하였는데, 이때 이 왕조의 영토는 세네갈, 알제리, 모리타니, 튀니지, 리비아를 포함하는 대제국이었다. 모라비드 제국 영토가

현재 모로코 민족주의자들이 말하는 “대 모로코”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 모라비드 왕조에 의해 모로코는 수니파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1145년 아틀라스 지방의 베르베르족이 모라비드 왕조를 멸망시키고, 라바트(Rabat)를 수도로 하는 모하드 왕조를 수립하였다. 이후 계속되는 베르베르족의 왕조, 즉, 메레니드(Merenids) 및 와타시드(Wattasids) 왕조(1248-1554)가 출현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다시 아랍족의 왕조가 들어서게 된다.

4) 아랍족의 사아드(Saadians) 왕조(1554-1669)와 알라위트(Alaouite) 왕조(1665-현재)

베르베르 왕조들의 혼란이 계속되는 중에 이드리스 왕조 이래 두 번째 아랍왕조인 사아드 왕조가 수립되었다. 알라위트 왕조는 사아드 왕조 이후 종교적 지도력 확립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는데, 1787년 당시 왕국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이후 국내 정정의 불안 및 열강의 침공에 대응한 Moulay Slimane(1792-1822) 국왕의 고립 정책(대 유럽 통상금지 및 유럽영사관 추방)이 왕국의 쇠락을 촉진하였다.

1830년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 및 스페인의 대서양 연안 항구(Sidi Ifni)점령 등이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은 1907년부터 모로코에 대한 분할 강점을 시작하였다. 프랑스는 Fes협정을 통해 모로코의 국방, 외교, 국내 치안권을 장악하였고, 스페인은 유사한 협정을 통해 북부 해안지방과 남부지역 일부를 보호령화 하였다. 아울러 스페인은 별도의 협정을 통해 사하라 사막에 대한 식민통치 권한을 확보하였다.

5) 프랑스 및 스페인 보호령(1912-1956)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 정책에 따라 프랑스인들이 모로코로 대규모 이민을 왔으며 프랑스 문화 보급을 확대하였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 북부 리프지역에서의 광물 탐사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식민지 개발에는 무관심하였다.

1930년 라바트와 훼즈에 거주하는 모로코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슬람 민족주의 운동이 태동하였으며, 프랑스는 분할 식민통치 방식으로 산악지대의 베르베르족에 대한 기독교 포교를 통해 도시지역의 이슬람교 아랍인들과 반목을 조장하였다.

1927년 즉위한 모하메드 5세 국왕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모로코의 독립을 추구하였으나, 1953년 프랑스 식민 당국에 의해 강제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1955년 모하메드 5세 국왕은 해외 망명지에서 모로코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1956년 프랑스와 스페인은 모로코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었다.

6) 하싼 2세(Hassan II) 국왕(1961-1999)과 모하메드 6세 국왕(1999-)

1961년에 취임한 하싼 2세는 당시 모로코 행정 수도인 라바트와 상업중심지인 카사블랑카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의 도로, 보건위생, 교육시설들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는 바, 국가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1979년에는 모리타니로부터 서부사하라 포기를 받아내면서 서부사하라 전역을 장악하였다.

1999년에 하싼 2세 국왕이 서거하고 모하메드 6세 국왕(1999-)이 즉위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했고, 2011년에는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의 봄 영향으로 모하메드 6세 국왕이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21]

21)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 자료

제2절 개발환경 및 개발과제

1. 개발환경

가. MDG 경과추세[22)]

모로코의 개발환경 및 주요 개발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MDG의 달성여부와 인간개발지수(HDI) 등 분야별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모로코의 MDG 경과추세는 다음과 같다.

<표 2-14> 모로코 MDG 평가

목표	지표			1990	2008/2009	달성 여부
MDG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지표의 추세						
1-a: 하루 1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비율을 1990에서 2015는 사이에 1/2로 줄임	하루 1달러(PPP) 이하로 사는 사람들의 비율(%)			3.5	0.56 (2008)	O
1-b: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함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참가율			51.3 (2001)	49.9 (2009)	X
1-c: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킴	영양섭취가 최소수준 이하인 사람들 비율(%)			4.6 (1985)	0.9	O
	절대적 빈곤률(%)			12.5 (1985)	3.6	O
MDG2: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 지표의 추세						
2015년까지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초등교육 순 취학률 (6-11세)	전체		52.4	90.5	O
		도시	남	77.5	90.8	
			여	71.7	90.2	
		농촌	남	48.8	93.2	
			여	22.5	87.9	
	초등학교 전 과정 이수 학생비율	전체		46.6	87.5	△
		남		55.0	86.5	
		여		38.0	88.4	

22) UNDP(2010)

목표	지표		1990	2008/2009	달성 여부
MDG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제고 지표의 추세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 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 에서 성별 균형에 도달	초등교육에서 남학생 대비 여학생 비율		66	89**	△
	중등교육에서 남학생 대비 여학생 비율		70	80	△
	여성 국회의원 비율		0.7	10.5	
MDG4: 유아사망률 감소 지표의 추세					
1990년의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을 2015년까지 2/3로 감소시킴	5세 미만 아동사망률		76	37.9	O
MDG 5: 산모건강 증진 지표의 추세					
5-a: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산모 사망률을 3/4으로 감소시킴	출산10만 명당 산모사망률		332	132	O
5-b: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여성의 산전 관리 비율 (최소 1회 방문)(%)		33	80	△
MDG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표의 추세					
6-a: 2015년까지 HIV/AIDS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음	임신 여성의 HIV 감염률(%)		(1999) 0.07	0.17	X
	성산업 종사자의 유병률		2.30 (2001)	2.38	X
	15-24세 인구 중 HIV 감염자 비율(%)		0.02 (2007)	0.06	X
6-b: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돌려놓음	토착형 말라리아 발병률(10만명당)		6.2	0	0
	수입형 말라리아 발병률		(1992) 54	142	X
	결핵발병률(10만명당)		113	81	O
MDG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지표의 추세					
7-a: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가스 배출량을 줄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ton)		23524	37968 (2003)	X
	오존 파괴 물질 배출량(톤)		625.4	1060 (2004)	X
7-b: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1/2으로 줄임	개선된 식수원 사용 인구 비율	도시	(1994) 81	100	O
		농촌	14	90	△
	도시지역 위생시설 접근가능 가계 비율		(1994) 74.2	88.4	O

자료: Morocco MDG Report 2009, UNDP

주: O: 달성, △: 달성 가능성 있음, X: 달성 실패

먼저 MDG 제1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지표에서 목표 1-a를 보면, 하루 1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에 3.5%였으므로 2015년 목표치는 1.75%가 되는데 2008년에 이미 이보다 낮은 0.56%에 도달하였으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한다는 목표인 1-b의 경우 도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1-c는 목표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으로 모로코는 MDG 1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MDG 2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지표에서 1990년에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74%로 농촌지역의 진학률인 36%보다 2배가량 높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2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모든 아동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목표를 초등교육 순 취학률과 초등학교 전 과정 이수학생 비율로 볼 때,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도농 간의 격차가 과거 1990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

MDG 3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제고 지표의 추세도 전반적으로 목표달성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MDG 4 유아사망률 감소나 MDG 5 산모건강 증진 등은 모두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MDG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의 추세와 MDG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예를 들면 MDG 6 HIV감염 관련 세부지표 모두 증가세로 들어섰고, MDG 7에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오존파괴물질 배출량의 목표 달성 또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수관련 목표는 달성하였거나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1994년 안전한 식수 사용은 도시의 경우 인구의 약 81% 정도가 가능하였고 농촌의 경우 인구의 약 14%만이 가능하였으나, 2009년에 도시는 100% 그리고 농촌은 90%로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다.

따라서 모로코의 개발지표는 1990년과 2015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하였으나 실업문제, HIV/AIDS 등 보건문제 그리고 대기오염에 집중된 환경문제는 아직 더 개선해야 할 부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나. HDI 자료

모로코와 기타 4개 연구대상국(튀니지, 알제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간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비교해 보면, 모로코는 튀니지와 알제리 다음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대수명, 기대취학년수, 1인당 GNI에서 모두 3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취학년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표 2-15> 인간개발지수(HDI) 비교

HDI 순위 (총187개국중)		HDI 값 (2013)	기대수명 (2013)	평균 취학년수 (2012)	기대 취학년수 (2012)	1인당 GNI (2011 PPP $, 2013)
90	튀니지	0.721	75.9	6.5	14.6	10,440
93	알제리	0.717	71.0	7.6	14.0	12,555
129	모로코	0.617	70.9	4.4	11.6	6,905
163	세네갈	0.485	63.5	4.5	7.9	2,169
171	코트디브아르	0.452	50.7	4.3	8.9	2,774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한편 모로코는 튀니지와 알제리에 비해 성불평등도도 제일 높고, 여성 HDI/ 남성 HDI의 비율은 제일 낮으며, 문자 해독률도 제일 낮은 편이다.

<표 2-16> 역내 주변국간 HDI 세부지표 비교

HDI 순위 (총187개국 중)		Gini계수 (2003-2012)	성불평등 지수 (2013)	여성 HDI/ 남성 HDI (2013)	문자 해독률 (2005-2012)	
					15세이상	15-24세
90	튀니지	0.361	0.265	0.891	79.1	97.2
93	알제리	-	0.425	0.843	72.6	91.8
129	모로코	0.409	0.460	0.828	67.1	81.5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반면에 모로코는 알제리와 튀니지에 비해 고용 측면에서 앞서고 있는데, 고용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이들 두 나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7> HDI의 고용분야(2013)

HDI 순위 (총187개국 중)		전체인구에서 (25세 이상이면서) 고용된 자의 비율	청년 실업률 (15-24세)	실업률 (15세 이상)
90	튀니지	47.1	42.3	17.6
93	알제리	45.4	22.4	9.8
129	모로코	51.5	18.6	9.0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따라서 모로코는 튀니지나 알제리에 비해 고용 측면에서는 앞서지만, 사회적인 측면인 교육과 양성평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다.

다. 분야별 지표 분석

1) 교육

UNESCO가 발표하는 교육 지표인 EDI(Education for All Development Index)는 초등학교 입학률, 성인 해독율, 성별 교육 평등지수, 교육의 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발전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모로코는 총 113개국 중 86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성인 문해율의 경우, 인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2-18> UNESCO 교육 지표(2013)

EDI 순위	초등학교 입학률	성인 해독률	성별 교육 평등지수	교육의 질
86위(0.864)	0.987	0.671	0.856	0.941

자료: UNESCO Global Monitoring Reports 2015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22/232205e.pdf

2) 보건/의료

모로코는 WHO 지역 구분상 동지중해 지역(Eastern Mediterranean group)에 속하는데, 출생 시 기대수명이 지역 평균보다 3살 더 많다. 모성사망률은 지역 평균 170명에 비해 50명 더 적다. 5세 미만 사망률은 지역 평균 40보다 10명 더 적다.

<표 2-19> WHO 보건/의료 수치

지수	수치	년도
총인구	33,008,000명	2013
출생률(여성 1인당)	2.7명	2013
기대수명(출생시)	71세	2012
기대수명(60세)	18세	2012
5세 미만 사망률(천 명당)	30명	2013
모성 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수)	120명	2013
HIV/AIDS 사망(십만 명당)	3.7%	2012

자료: WHO, http://www.who.int/gho/countries/mar.pdf?ua=1

3) 농업

농지의 경우, 관개설비를 갖춘 토지가 총 농지 중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농업활동 참여율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료이용률은 북아프리카 평균인 15kg보다 3kg 더 적은 양을 나타냈다.

<표 2-20> World Bank 농업 수치

지수	모로코수치(북아프리카지역평균)	년도
관개설비를 갖춘 토지(총 농지 중 비율)	4.6%	2011
경작지(한 사람당)	0.25 ha	2012
농업에 이용되는 땅의 비율	67.3%(28.9%)	2009
여성 남성 농업활동 참여율	여 25.9% 남 74.7% (여 23.9% 남 74.1%)	2010

지수	모로코수치(북아프리카지역평균)	년도
비료 소비율 (경작지와 영구작물에 헥타르 당 kg)	12 kg(15 kg)	2009
농촌지역 물 자원 이용률	64%(49%)	2012

자료: World Bank Agriculture indicator, http://www.fao.org/docrep/018/i3107e/i3107e.PDF

4) 산업

모로코는 농업부문의 경제비중이 높은 특징과 함께 관광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55%에 달하는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주변국인 알제리의 경우, 석유가스 중심의 산업구조임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GDP의 41.9%에 불과하며, 튀니지의 경우, 모로코와 같이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 부문의 경제비중이 61.4%에 달한다.

<표 2-21> World Bank 산업 수치[23)]

지수	수치	년도
농업 부가가치(GDP %)	16.6%	2013
산업 부가가치(GDP %)	28.5%	2013
서비스 부가가치(GDP %)	54.9%	2013

자료: World Bank indicator

5) 거버넌스 및 사회통합

국제투명성기구가 2013년에 발표한 모로코의 부패인식지수(CPI)는 37/100점으로, 177개국 중 91위이며, 세계평균(43점)에는 미달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 33점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23) 모로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측정하는 기관마다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본 보고서 제2장 1절의 3. 경제현황 나. 산업현황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AfDB 자료인데 이는 World Bank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

<표 2-22> 거버넌스 지수 I(2000-2011)

	2000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모로코	52.9	…	57.5	56.5	56.8	57.2	57.3	58.0

자료: 2013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SUMMARY

<표 2-23> 거버넌스 지수 II(2012)

전체(순위)		안전 및 법규		참여 및 인권		지속가능한 경제기회		인간개발	
58.0	14위	60.7	13위	36.3	40위	64.4	7위	70.5	11위

자료: 2013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SUMMARY

2012년도 모로코의 거버넌스 지수는 100점 만점에 58점으로, 52개국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인권과 시민사회 참여 부문의 경우, 전세계 52개국 중 40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6)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주변국인 알제리(123,475)와 튀니지(25,878)와 비교했을 때, 모로코의 배출량이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산림지역은 알제리(0.6%)와 튀니지(6.7%)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분야 메탄 배출량은 알제리가 10.2%, 튀니지가 28.7%를 차지하여, 모로코가 두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다.

<표 2-24> World Bank 환경 수치

지수	수치	년도
이산화탄소 배출(kt)	50,608	2010
산림지역(총 면적 중)	11.5%	2012
농업분야 메탄 배출량	49.1%	2010

자료: World Bank indicator

7) 젠더

2013년 모로코의 남자 활동인구에 대한 여성의 활동인구 비율(35%)은 북아프리카 평균(27.5%)보다 높다. 초등학교 졸업비율(남: 100.8명/여: 97.8명) 또한 북아프리카 평균(남: 97.8명/여: 91.8명)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5> World Bank 젠더 지수

지수	남자 / 여자	년도
초등학교 졸업률	16,954명 / 25,440명	2014
15세 이상 활동인구	76% / 27%	2013
15-24세 해독률	89% / 74%	2011
실업률	9.0% / 9.8%	2013
출생시 기대수명률	72.7세 / 69.1세	2013

자료: World Bank indicator

2. 분야별 개발과제

가. 문맹 퇴치

독립 이후 모로코는 교육 분야에 우선과제를 두었고,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기간은 취학연령 아동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맹을 퇴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문맹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1960년에 총 인구의 90%였던 문맹률이 1994년에는 55%를 기록했다. 도시와 농촌간의 문맹률이 각각 37%, 75%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여성들의 높은 문맹률은 심각한 문제이다.

1990년대 초반 이래로 농촌, 성인여자,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문맹 퇴치 이니셔티브는 낮은 문자 해독률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1992년에 여아 취학률 향상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1993년에는 '문맹률 퇴치를 위한 국립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Alphabétisation)'가 설립되었다.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아래 대대적으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특히 여아를 대상으로 취학률을 높이는데 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는데, 학

용품 무상지원과 급식소 건축 등 가정에서 교육비 지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문맹률 퇴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맞춰졌던 농촌지역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도시에서는 비교적 남녀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지만, 농촌에서는 남자아이의 3/4 정도가 교육을 받을 때 여자아이의 절반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랍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로코에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다. 전통적으로 상속자인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하며, 재산을 물려받는다. 동시에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 모로코 여성은 여러 분야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가정에 의존적이다. 3명 중 1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2명 중 1명 이상이 문맹이다. 중·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이 드물다.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결혼, 일방적인 이혼,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금하는 등의 차별적인 사회적 관행은 여성 해방 및 여성 문맹 퇴치를 이루는데 놓인 장애물이다.

나. 실업률 완화

실업률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9%대를 전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 실업률은 남자가 9.0% 여자가 9.8%로 여성이 다소 높으며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실업률은 남자가 18.4% 여자가 19.2%로 남녀 모두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 금융위기 및 유로존의 경기침체, 불안정한 경제정책,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에 따라 모로코는 심각한 실업률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모로코의 경우에도 여타의 개도국이나 산업화된 선진국처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장기 실업이나 고학력자의 실업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 있으며, 비공식부문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도시에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확대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

모순적인 것은 도시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활동인구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 실업이 더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의 일자리는 대부분 농업분야에서 만들어지는데, 농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의 80%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농촌에서 기후조건 악화로 일자리가 없어지면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집중되어 도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로코 정부는 농촌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울러, 실업률을 낮추고 더 많은 부의 창출을 위해 지금보다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즉,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활성화와 투자환경의 조성,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관광, 비료 등을 중심으로 한 현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유럽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완화하며, 자원 그대로 수출하기 보다는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 간 격차해소

모로코는 도시와 농촌 간 식량, 위생, 보건 분야에서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 거주민의 평균 수명은 농촌 거주민의 수명보다 6년이 더 길고, 농촌의 영아 사망률이 도시보다 두 배나 더 높다. 사망률로 보았을 때도 농촌과 도시 간에 격차가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모든 측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동부, 중부 혹은 중남부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일 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은 중북부 지역보다 두 배 가량 더 높다.

절대적으로 목표달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빈곤에 대해서도 도농간 격차는 다음과 같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6> 빈곤수준의 변화

(단위: %)

빈곤율	범위	2001년	2008년
절대적 빈곤율	전국	6.7	3.6
	도시	2.3	1.3
	농촌	12.3	6.7
상대적 빈곤율	전국	15.3	8.8
	도시	7.6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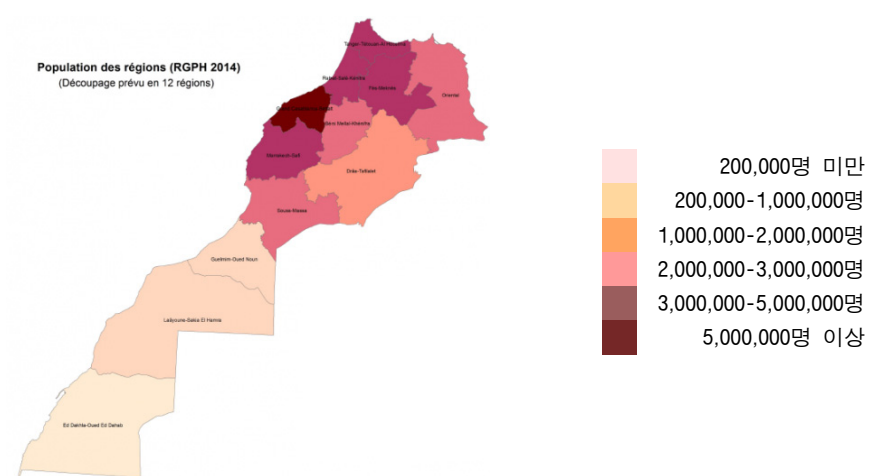
빈곤율	범위	2001년	2008년
	농촌	22.0	14.2
취약계층 비율	전국	22.8	15.9
	도시	16.6	11.7
	농촌	30.5	21.4

자료: Morocco MDG Report 2009, UNDP를 토대로 집필자가 작성

지역적 불균형의 원인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중심의 인구분포 구조에 있다. 현재 모로코는 12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로코 인구의 70%는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북부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반면에, 모로코 남쪽의 내륙으로 갈수록 인구밀도는 낮아지고 있다.

2015년 현재 모로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모로코의 7대 도시인 카사블랑카, 라바트, 탕헤르, 마라케쉬, 훼스, 메크네스, 살레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한다. 카사블랑카에 335만9000명, 훼스에 111만2000명, 탕헤르에 97만4000명, 마라케쉬가 92만8850명 등이다. 그리고 모로코 인구의 약 60%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2004년의 55%에 비하면 도시화가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지역별 인구분포도



자료: 모로코 HCP 2015

라. 열악한 생활 인프라

모로코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는 인프라 개발인데 현재 상황이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농촌지역의 전력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지역별로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존재한다. 또한, 도시 인구의 1/5 대비 농촌 인구의 3/4이 불안정하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모로코는 생활인프라 개선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시주택 건축 등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도시 주변의 빈민촌 인구는 대폭 줄었는데, 주목할 점은 주택 부족 현상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로코는 신규 주택지의 개발에 있어서 메디나(Médina)와 같이 역사 도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고대 주거 양식을 보존하고 개축하는데 노력을 해왔다.

농촌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많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농촌 전력화(Rural Electrification) 프로젝트로 2010년까지 모로코 인구의 1/3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수자원관리 개선을 통해 1995년에 실행된 식수 공급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었을 때에는, 천백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았다. 아울러, 도로인프라 건설을 통해 농촌지역의 교통망 확충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농촌 지역의 도로, 전력,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로 되어 있다.

제3절 국가개발정책

1. 국가개발전략(NDS)

모로코 정부는 거시경제 균형, 민간분야 활성화, 빈곤 퇴치를 목표로 선도적 지방분권화와 공공행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전략은 인프라 구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개발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직업교육과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촌분야의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개발전략(NDS)의 축은 네 가지로써, 경제개발, 인간개발, 사회개발, 환경개발 등이 있다. 여기서 경제개발은 성장을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다각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개발은 보건시스템, 현대적인 교육, 과학기술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제표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개발은 가족, 복지. 양성평등, 국가문화와 민주화 및 이슬람 정체성 강화 등을 포함한다. 환경개발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다.

국가개발전략(NDS)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거시경제, 성장, 경쟁력
- 거버넌스, 조직, 민주주의
- 소득창출 활동, 연대, 사회보장
- 개발을 위한 기본 인프라
- 농촌개발, 천연자원
- 교육, 문해력
- 건강, 인구
- 환경, 생활환경
- 고용, 훈련
- 문화, 종교, 평화와 안전
- 빈곤에 대한 분식 및 모니터링

이러한 영역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농업발전 제약여건 개선
- 삶의 질 향상
- 기술, 보존 및 천연자원의 향상
- 사회·경제적, 문화적 발전
- 과학정보기술과 통신
- 혁신과 경쟁력

국가개발전략(NDS)에는 경제발전, 인간발전과 구조적 발전에 대한 단기 전략으로서의 액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생산성 향상, 생산의 다각화, 의료 시스템과 교육의 발전, 공공 기관의 강화와 개선, 국가 인력개발 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2. 분야별 전략 [24]

이상에서 살펴본 모로코의 국가개발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개발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산업개발계획(Plan Emergence)

2005년에 시작된 모로코의 산업개발계획(Plan Emergence)은 다음 두 가지 방향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모로코 산업조직을 역동적으로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둘째, 모로코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산업정책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수출, 자동차, 전자, 해산물가공, 항공, 섬유 및 가죽, 식품 등 7개 분야를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지목하였다.

---

24) http://www.mtpnet.gov.ma/logistique/SNDCLN/Pages/Strategie-nationale-de-developpement-de-la-competitivite-logistique.aspx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하는 본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 고용과 성장
- 고부가가치 수출
- 경쟁력있는 산업 부문의 적극개발

산업 부문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항공 산업은 2천 2백 명을 고용하여 약 6억 디르함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다. 전자 부문은 항공. 자동차, 전자기기, 의료장치에 사용하여 10년 이상 50억 디람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1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해산물가공, 농산업, 올리브, 올리브 오일, 아르간 오일과 오렌지 주스, 섬유 및 의류 등의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

모로코 정부는 2008년에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을 발표하였다. 이는 낙후된 농업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관개시설 및 제반시설을 확충, 지역별로 농업 거점도시를 지정해 효율적인 농업 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모로코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환경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
- 농업에 의해 생성된 GDP의 재분배
- 고용 정책의 강화에 기여
- 식량 안보를 보장
- 수출 및 고부가가치 농산업 관련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모로코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은 모로코 농업부문의 새로운 지표를 열고자 실시된 정책으로, 농업발전기금(FDA)을 통해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15억 디람의 보조금으로 시작했고, 2014년에는 31억 디람의 보조금이 투입되었다.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은 두 개의 큰 목표와 목표 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먼저, 첫 번째 목표(Pilier I)는 모로코의 농업부문이 높은 부가가치와 높은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장의 요청에 잘 대응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업을 발전시키고, 우수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며,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 목표와 관련된 종사자를 약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Pilier II)는 영세농가 지원을 제고하여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빈곤축소를 위한 영세농의 현대화, 영세농의 소득향상이 전체 농업발전 계획의 한 축이 되도록 통합계획 수립, 영세농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경영 기술훈련 등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영세농은 약 60만명에서 80만명으로 추산된다.

요약하면, 농업분야를 모로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고, 농업분야 고용시장의 규모도 늘리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다. 또한 낙후된 농촌지역 개발을 장려하여 지역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려는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 계획은 농업 부문을 향후 십 년간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로 간주하고 추진하였다. 즉, 2020년까지 약 1,500억 디람을 농업부문에 투자하여 GDP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모로코 농민 소득의 향상과 식량 안보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 수산업개발계획(Plan Halieutis)

모로코 정부는 2009년 수산업개발계획(Plan Halieutis)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다음 3가지 축, ① 지속가능성, ② 퍼포먼스, ③ 경쟁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② 퍼포먼스는 높은 수준의 위생과 건강이 보장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 품질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장비 및 인프라를 관리하자는 것이다.
③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업 분야에서 비공식 고용은 줄이고 공식적인 채용을 늘리며, 국내시장에서 어류 소비를 늘리고 수출을 늘리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은 2007년 기준 9.74억불인 연간 수산물 수출액을 2020년까지 25.3억불로 확대하면서, 90억디람(약 11.25억불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항 건설, 수출용 수산물의 가치 극대화, 어획량 확대(전년 대비 약 4배), 어업 장비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 61,000명의 수산업 종사자 수를 115,000명으로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간접고용도 510,000명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 정부는 2006년 EU와 어업협정을 갱신함에 따라 EU 국가의 모로코 해역 내 조업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모로코의 낙후된 장비와 기술을 현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 관광개발계획(Plan Azur)

관광개발계획(Plan Azur)은 모로코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써, 2020년까지 모로코의 관광산업이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개발계획(Plan Azur)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 비전 2010의 성과를 활용
- 통합적인 계획수립에 충실
- 지역에서 가장 차별화 된 자원을 개발하여 가치 있게 상품화하고, 가장 유망한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충실
- 부문 내에서 지속적으로 약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완
- 전략의 중심에 지속 가능성이 있게 함

[글상자 2-2] Vision 2010

Vision 2010은 모로코 정부가 2001년에 수립한 관광개발계획으로서 다음 6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음.
첫째, 1천만 관광객 유치, 이중 7백만명은 외국관광객
둘째, 호텔 투숙객 수용규모를 16만 침대(bed)로 제고
- 이중 13만 침대는 해안 리조트, 3만 침대는 역사유물 지역에 설치하여 국내 총 숙박시설 규모를 23만 침대로 확충
셋째, 해안 리조트, 인프라, 호텔, 레져 등 건설을 위해 약 80~90억 유로를 투자
넷째, 480억 유로의 수입 달성
다섯째, 6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섯째, 현재 GDP의 8.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규모를 2010년까지 GDP의 20%까지 제고

마. 인간개발계획(INDH: Initiative Nationale pour le Developpement Humain)[25]

국왕 모하메드 VI에 의해 2005년부터 시작된 인간개발계획(INDH)의 목표는 교육 및 능력 개발을 통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 계획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근절
- 모든 사람에게 권리가 열려있는 삶의 기회를 확장
- 기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
- 사회통합 강화
- 인간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복지제공 등

인간개발계획(INDH)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프로그램으로 다음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 농촌지역 빈곤과의 싸움: 빈곤율이 30% 이상인 모로코 국내 403개의 농촌 공동체들(Communes)이 대상
- 도시의 사회적 배제 근절: 인구 10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 내에 있는 264개 행정단위가 대상

25) http://www.indh.gov.ma/index.php/fr/presentation 참조

- 위태로운 상황과의 싸움: 집 없는 젊은이, 길거리의 어린이, 빈곤노인 등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집단이 대상
- 인간개발 촉진: 위의 3가지 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자들을 대상으로 함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의 두 번째 단계에는 170억 디람의 예산으로 대상지역을 702개 농촌 공동체와 도시들 내에 있는 532개 행정단위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번째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는데, 그 대상은 22개의 내륙 지방과 산간지역에 살고 있는 100만 명이며 이 프로그램을 위해 50억 디람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인간개발계획(INDH)은 민주주의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간중심의 공공정책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정책 결정 단계에서 시민 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바. 상업개발계획(Programme Rawaj)

상업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잠재력이 높은 부문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로코 정부는 상업개발계획(Programme Rawaj)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업 서비스를 제공
- 모든 소비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물류배송 시스템을 구축

이를 위해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갖고 있다.

- 상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화
- 상업의 각 부문에 적합한 교육훈련 선진화
-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보 시스템의 강화
- 각 부문별 상인을 대표하는 단체 조직
- 상업 거래처리 시스템 개선

사. 수공업개발계획(Artisanat du Maroc)

모로코 수공업개발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수공예품에 의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GDP 제고
- 충분한 양 및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역량 기준 책정
- 국내 및 해외 고객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게 모로코 수공예 제품을 개선
- 마케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 생산량을 높여 수출 비중을 증가
- 주요 관광 지역에 소매 공간을 만듦
- 현대적인 유통 네트워크 개발 등

제3장

국제사회의 모로코 ODA 지원 특징 및 시사점



제1절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및 특징

1.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표 3-1> ODA 공여주체별 모로코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3년 평균	
						금액	구성비(%)
DAC 회원국	1	프랑스	629.50	666.77	876.48	724.25	33.33
	2	미국	146.56	187.64	276.56	203.59	9.37
	3	일본	98.58	146.49	138.04	127.70	5.88
	4	독일	119.33	85.78	121.41	108.84	5.01
	5	스페인	62.37	38.81	41.21	47.47	2.18
	6	벨기에	28.99	17.42	14.35	20.25	0.93
	7	포르투갈	0.28	58.24	0.14	19.56	0.90
	8	이탈리아	18.78	4.15	11.68	11.54	0.53
	9	캐나다	5.61	7.47	9.71	7.59	0.35
	10	스위스	4.62	8.19	7.84	6.89	0.32
	15	한국	7.51	6.22	5.35	6.36	0.29
	기타 DAC 회원국*		17.08	19.97	16.02	17.71	0.81
	DAC회원국 합계		1131.70	1240.94	1513.45	1295.36	59.61
DAC 비회원국	1	쿠웨이트	54.79	22.21	119.08	65.36	3.01
	2	아랍에미리트	32.17	26.93	62.37	40.49	1.86
	DAC비회원국 합계		86.96	49.14	181.45	105.85	4.87
다자 기구	1	EU Institutions	419.27	505.74	616.47	513.83	23.64
	2	ArabFund	210.57	193.37	205.31	203.08	9.35
	3	Climate Investment Funds	-	-	79.47	26.49	1.22
	4	OFID	19.74	12.04	4.95	12.24	0.56
	5	Global Fund	8.57	7.27	5.62	7.15	0.33
	6	GEF	0.67	1.71	2.03	1.47	0.04
	7	UNICEF	1.42	1.27	1.49	1.39	0.03
	8	UNFPA	1.51	1.22	1.44	1.39	0.07
	9	Isl.Dev Bank	-	2.41	-	2.41	0.06
	10	UNHCR	-	1.82	-	1.82	0.06

		국가	2011	2012	2013	3년 평균	
						금액	구성비(%)
	기타 다자기구		4.67	2.41	3.43	3.54	0.16
	다자기구 합계		666.41	729.24	920.20	771.95	35.52
ODA 총액			1885.08	2019.32	2615.09	2173.16	100.00

주: 한국 포함

자료: OECD,DAC Statistics 재구성

가. 양자기관의 지원현황

지난 12년간 모로코를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해온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이 비슷한 규모로 지원하였고, 이어서 스페인과 미국이 비슷한 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역시 프랑스가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하였지만 그 다음은 미국 그리고 일본과 독일, 스페인 순서로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도 이 시기에 10위권 안에 들어왔다. 즉, 미국과 한국이 최근 들어서 모로코를 과거보다 더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양자기관의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2-2013 (12년)	국가	2009-2013 (5년)
1	프랑스	5,276	프랑스	2,946
2	독일	1,380	미국	739
3	일본	1,352	일본	696
4	스페인	979	독일	571
5	미국	913	스페인	481
6	이탈리아	267	벨기에	106
7	벨기에	193	포르투갈	79
8	포르투갈	177	이탈리아	53
9	캐나다	79	캐나다	39
10	스위스	41	한국/스위스	25

자료: OECD CRS 재구,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나. 다자기관의 지원현황

다자기관의 모로코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 12년간 및 지난 5년간 모두 EU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아랍펀드(Arab Fund)와 환경투자펀드(CIF) 그리고 국제개발 OPEC펀드(OFID)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으며, 두 기간에서 모두 그 순위가 변하지 않고 있다. AfDB는 아프리카의 개발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아랍펀드(Arab Fund) 등에 비해 모로코에 대한 지원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다.

<표 3-3> 다자기관의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다자기구	2002-2013(12년)	다자기구	2009-2013(5년)
1	EU	3,323	EU	2,047
2	Arab Fund	1,063	Arab Fund	914
3	CIF	79	CIF	79
4	OFID	55	OFID	55
5	Global Fund	53	Global Fund	33
6	UNFPA	21	UNFPA	8
7	UNICEF	20	UNICEF	6
8	GEF	18	GEF	6
9	UNDP	11	UNDP	5
10	AfDB	10	AfDB	3

자료: OECD CRS 재구성,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다. 자금형태별 추이

모로코가 지원받은 자금을 형태별로 보면, 2011년까지는 무상원조 규모가 유상원조 규모보다 더 컸으나, 2012년부터는 유상원조의 규모가 무상원조 규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는, 재스민 혁명으로 모로코 정부가 경제활성화 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대규모로 유상원조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3-4> 자금형태별 ODA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무상원조	유상원조	유상원조/무상원조
2006	990.12	264.54	0.27
2007	1,060.58	204.64	0.19
2008	1,074.19	349.39	0.33
2009	760.92	262.05	0.34
2010	716.27	289.80	0.40
2011	784.31	602.24	0.77
2012	729.94	750.42	1.03
2013	904.14	1,011.77	1.12

자료: OECD DAC AID FLOWS http://www.aidflows.org/

라. 분야별 지원현황

국제사회의 대 모로코 지원을 분야별로 보면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43.1%가 지원되었으며, 그 다음이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로서 19.1%이 지원되었다.

<표 3-5> 국제사회의 분야별 지원현황(2009-2013)

(단위: %)

분야	지원 비율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43.1%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19.1%
교육	14.0%
생산	12.8%
다부문(multi/cross-cutting)	7.6%
나머지 분야	3.3%

자료: OECD DAC AID FLOWS 재구성 http://www.aidflows.org/

한편, 국제사회의 분야별 지원 비율과 최근 양자 ODA 주요 분야별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등 3개 주요 분야의 순서는 일치하지만, 나머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3-6> 양자 ODA의 분야별 지원현황(2012-2013)

(단위: %)

분야	할당 비율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43%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23%
교육	14%
다부문	13%
생산	4%
프로그램	2%
비할당 원조 등	나머지

자료: https://public.tableau.com/views/AidAtAGlance_Recipients/Recipients?:embed=n&:show Tabs=y&:display_count=no?&:showVizHome=no#1

<표 3-7> 對 모로코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기준: 2011-13년 평균 Gross Disbursement)

		ODA 지원 총액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다부문 • 크로스 커팅
			총계	교육	보건	인구 생식	식수 위생	정부 시민 사회	기타	총계	교통 수송	통신	에너지	은행 금융	사업 기타	총계	농수산 임업	산업 광업 건설업	무역 정책 규정	관광업	
1	프랑스	724.25	265.56	184.19	10.25	0.65	35.36	3.38	31.73	217.78	194.07	0.11	23.20	0.07	0.33	132.22	25.79	106.38	0.00	0.05	102.93
2	미국	203.59	29.40	16.53	1.43	0.08	0.32	8.87	2.16	14.59	1.99	-	0.49	7.85	4.27	138.66	131.11	4.63	2.91	-	19.82
3	일본	127.70	43.75	21.99	0.75	0.29	19.63	0.26	0.82	73.35	72.92	0.12	0.29	0.01	0.01	3.38	3.05	0.24	0.06	0.03	3.73
4	독일	108.84	66.00	33.71	0.03	0.10	29.34	2.08	0.75	33.62	-	-	28.19	2.54	2.88	1.73	1.50	0.22	-	-	7.49
5	스페인	47.47	30.32	12.21	3.65	2.06	0.38	5.57	6.44	6.25	1.01	0.09	5.01	0.04	0.11	2.93	1.78	1.05	0.04	0.06	2.15
6	벨기에	20.25	13.72	2.10	0.20	0.14	8.57	2.05	0.66	0.29	-	0.01	0.01	0.26	-	3.22	3.16	0.06	-	-	1.59
7	포르투갈	19.56	0.17	0.10	-	-	-	0.00	0.06	-	-	-	-	-	-	0.01	-	0.01	-	-	0.02
8	이탈리아	11.54	0.63	0.11	0.20	0.12	0.09	0.03	0.07	1.14	0.52	-	-	0.38	0.24	1.45	0.35	1.09	-	-	0.23
9	캐나다	7.59	5.91	3.70	0.01	-	0.10	1.69	0.42	0.79	-	0.04	-	0.01	0.74	0.84	0.16	0.43	0.25	-	0.05
10	스위스	6.89	0.75	0.08	0.01	-	0.29	0.25	0.11	0.11	-	-	-	-	0.11	0.39	0.01	0.28	0.10	-	0.70
15	한국	6.36	4.50	3.02	0.29	-	0.10	1.09	-	1.27	0.02	0.60	0.65	0.00	-	0.52	0.19	0.07	0.25	-	0.05
DAC 회원국		1295.36	468.23	279.85	16.84	3.46	94.20	29.88	44.00	351.07	270.53	1.03	57.83	12.98	8.70	285.86	167.24	114.86	3.62	0.14	139.40
1	EU	513.83	163.62	80.42	15.50	1.03	36.51	11.80	18.37	249.43	178.24	0.00	70.70	0.45	0.04	77.04	14.37	62.66	0.00	0.02	8.81
2	ArabFund	203.08	37.52	0.06	-	-	37.46	-	-	152.98	150.94	-	2.04	-	-	12.59	12.59	-	-	-	-
3	CIF*	26.49	-	-	-	-	-	-	-	13.16	-	-	13.16	-	-	-	-	-	-	-	13.33
4	OFID	12.24	9.83	2.62	-	-	7.22	-	-	1.41	1.41	-	-	-	-	0.92	0.92	-	-	-	0.08
5	GlobalFund	7.15	7.15	-	1.58	5.57	-	-	-	-	-	-	-	-	-	-	-	-	-	-	-
다자기구		771.95	223.02	83.59	18.00	8.57	81.22	13.03	18.61	417.66	330.64	0.02	86.07	0.88	0.05	90.88	28.20	62.66	-	0.02	24.05
총계		2173.16	716.58	363.44	55.79	12.03	179.49	42.95	62.89	803.02	633.44	1.06	145.91	13.87	8.74	383.32	202.03	177.52	3.62	0.15	202.51

* Climate Investment Funds

주: 각 국가는 ODA 지원 총액 순에 따라 정렬하였으며 분야는 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및 생산 분야에 한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OECD DAC. Statistics. 연구진 재구성

2.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가. 프랑스[26)]

1) 현황 및 지원전략

프랑스의 ODA 담당기관은 AFD그룹이며 다음 기관들로 구성된다.

① AFD
② PROPARCO
③ CEFEB(금융경제은행연구소)
④ FFEM(세계환경을 위한 프랑스기금)

AFD그룹은 1992년부터 여러 방식으로 모로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8> AFD그룹의 모로코 지원현황

(단위: 백만 유로)

기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FD	159.1	161.5	397.0	140.4	483.2	380.7	222.9	50.5
PROPARCO	9.0	50.0	3.1	3.0	60.0	-	30.0	-
FFEM	1.5	0.5	0.9	-	-	-	2.1	-
전체	169.6	212.0	401.0	143.4	543.2	380.7	255.0	50.5

자료: AFD

모로코는 2011년 AFD의 ODA 지원 금액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도에는 1위인 코트디부아르 다음으로 지원규모가 컸다. AFD는 모로코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직업연수 서비스와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전문가를 투입하고 있다.

26) http://www.afd.fr/home/pays/mediterranee-et-moyen-orient/geo/maroc

AFD그룹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 즉, 프로그램, 분야별 예산지원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다. AFD그룹의 PROPARCO는 민간분야에 차관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지역 은행의 발전을 돕고, 민간기업 자금출자, 소금융 지원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민간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의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원(전문성 및 역량강화 자금이나 차관 형태로 지원)이다. 즉, 양허성 차관이거나 비양허성 차관, 담보 대출, 기업 자본금 출자 등으로 지원한다.

프랑스가 2002년부터 모로코에게 지원한 ODA 추이를 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 액수가 240백만 달러부터 400백만 달러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재스민 혁명의 여파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629.5백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이는 2013년에 와서 876.5백만 달러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3-9> 프랑스의 對 모로코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액	404.649	240.467	294.087	293.005	371.957	421.297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304.201	382.817	390.824	629.500	666.768	876.482

자료: OECD Stat

동기간 자금형태별 ODA 추이를 보면, 먼저 무상 ODA는 약 150백만 달러에서 약 280백만 달러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였고, 유상 ODA의 경우 동기간 증감의 폭이 큰 편인데, 2003년의 지원규모는 약 56백만 달러였으나 2013년의 경우 약 678백만 달러였다. 그리고 2011년의 지원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10> 무상 ODA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액	148.806	184.197	218.114	207.525	231.461	279.231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204.052	199.221	191.010	202.304	192.094	198.284

자료: OECD Stat

<표 3-11> 유상 ODA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원액	255.843	56.270	75.973	85.480	140.496	142.066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100.149	183.596	199.815	427.195	474.674	678.198

자료: OECD Stat

AFD는 다음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모로코를 지원하고 있다.[27)]

①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직업의 질 개선

모로코의 농업개발계획(Plan Maroc Vert)과 수산업개발계획(Plan Halieutis)을 통해 농업과 어업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항공 및 자동차 관련 직업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② 사회·지역적 격차해소

AFD그룹은 모로코 교육의 개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간 보건서비스의 격차 해소, 도시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연결수단인 교통시스템의 현대화 등에 개발협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27) AFD 홈페이지

③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보존에 기여

첫째, 농촌에서 식수 공급율을 대폭 높이고, 둘째, 도시의 수도망을 개선하며, 셋째, 낙후된 오염방지와 위생시스템을 개선하고, 넷째, 중소 관개수로의 개발을 통해 천수답의 개선, 다섯째, 태양에너지 개발 등 재활용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아울러 전기를 활용한 이동수단을 개발하는데 지원하였다.

한편 PROPARCO는 지방은행의 재무상태 개선을 지원하고, 모로코 기업에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주거나 투자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아울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을 통해서 모로코 기업을 지원하거나 장기대출을 통해 지원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와 모로코의 협력은 국제개발협력 정부 간 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CICID)가 정한 우선순위와 양국 총리 회담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국제개발협력 정부간 위원회(CICID)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① 거버넌스 발전, ②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 ③ 개발의 문화적 측면의 발전, ④ 개발을 위한 연구와 고등교육의 촉진 등이다.

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은 인적자원의 적절한 활용과 행정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산업조직의 현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사회통합을 위한 협력은 농촌 지역의 빈곤퇴치, 삶의 질과 소득증가 도모 및 빈곤지역의 교통과 통신의 확충, 의료서비스 확충, 교육의 질 향상, 식수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왔다.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으로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도모와 천연자원의 활용,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삼림 보호, 저장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위의 전략은 4가지 분야 즉, 교육 분야(교육을 통한 빈곤퇴치, 엘리트 연수), 생산 분야(경쟁력 향상, 무역활성화), 기초 인프라 분야(사회적 배제와 빈곤퇴치), 식수위생 분야(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조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2) 중점지원 분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의 모로코 지원을 보면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프랑스의 對 모로코 ODA 추이

(단위: USD 백만)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순위
사회인프라	222.447	235.315	258.921	286.206	251.556	1254.445 / 1
경제인프라	114.006	124.483	204.050	123.267	326.028	891.834 / 2
생산 부문	2.848	3.027	154.964	197.400	44.299	402.538 / 3
다부문	37.975	20.339	7.638	52.805	248.348	367.105 / 4
인도주의	0.069	0.005		0.049	0.016	0.319 / 7
행정비용	3.601	3.104	2.281	5.318	5.242	19.546 / 5
비할당	1.870	4.522	1.647	1.724	0.994	10.757 / 6
년도별 합계	382.816	390.795	629.769	876.483	876.482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한편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세부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3> 프랑스의 對 모로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153.231	196.527	230.098	215.762	229.752	265.385
	190.273	222.447	235.315	258.921	286.206	251.556
교육	129.419	168.613	194.297	186.351	201.787	230.613
	151.858	171.968	144.976	176.268	179.764	196.542
보건	1.341	2.210	2.939	4.782	5.847	10.036
	6.929	9.484	19.678	22.289	0.839	7.630
인구계획	-	0.110	-	-	-	-
	0.048	0.407	0.689	1.014	0.533	0.389
식수 위생	11.486	19.924	21.539	20.168	8.386	7.859
	13.959	25.262	35.728	17.844	83.290	4.954
시민사회 및 치안	0.795	0.571	0.802	0.821	1.518	3.343
	4.273	4.335	4.631	4.214	2.857	3.063
그 외 사회인프라	10.190	5.100	10.520	3.641	12.214	13.535
	13.206	10.992	29.613	37.292	18.923	38.976

자료: OECD Stat

프랑스가 모로코에 지원하는 ODA 규모 순위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의 세부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4> 프랑스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10.064	31.425	46.262	54.215	106.802	88.545
	57.248	114.006	124.483	204.050	123.267	326.028
교통 및 물류보관	1.063	5.621	8.823	4.536	37.459	42.370
	33.206	105.269	110.388	203.245	109.149	269.818
통신	0.147	0.084	0.375	-	3.766	-
	0.341	0.307	0.234	0.164	0.000	0.164
에너지	8.735	25.720	36.504	42.599	59.265	31.757
	23.643	4.200	13.417	0.301	13.712	55.574
금융 서비스	-	-	-	6.234	6.312	14.419
	-	4.178	0.007	0.006	0.209	-
기타서비스	0.119	-	0.559	0.845	-	-
	0.057	0.053	0.437	0.334	0.197	0.472

자료: OECD Stat

ODA 규모를 농업·임업·어업, 산업·광업·건설, 무역정책 및 규제, 관광 등 산업별로 봤을 때, 프랑스는 모로코의 농업·임업·어업 분야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변화가 없었다.

<표 3-15> 프랑스의 對 모로코 생산 분야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	6.633	3.064	1.486	2.937	1.807	10.967
	3.806	2.848	3.027	154.964	197.400	44.299
농업·임업·어업	5.056	1.725	1.281	2.732	1.470	10.561
	3.359	2.595	2.193	29.737	3.963	43.676
산업·광업·건설	1.479	1.330	0.205	0.205	0.336	0.406
	0.127	0.057	0.363	125.219	193.392	0.518
무역정책 및 규제	-	-	-	-	-	-
	-	-	-	-	0.006	-
관광	0.098	0.009	-	-	-	-
	0.319	0.196	0.470	0.008	0.039	0.105

자료: OECD Stat

이상을 종합해 보면, 프랑스의 중점지원 분야는 교통 및 물류보관, 교육, 산업·광업·건설과 식수위생 분야 순으로 지원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평균 지원규모를 보면, 그 중에서도 교육과 교통 및 물류보관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표적인 사업 사례 및 성공/실패의 핵심요인 [28]

프랑스의 모로코 지원 성공사례로는 '모로코 비위생적인 주거지와 빈민촌의 문제 단계적 해소 지원'이란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 기간은 2008-2012년이었고 그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로코 정부는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빈민촌 없는 마을 프로그램(Le Programme Villes sans bidonvilles; PVSB)을 추진하였는데, 도시

28) http://www.afd.fr/webdav/site/afd/shared/PUBLICATIONS/RECHERCHE/Evaluations/Evaluation-capitalisation/55-evaluation-capitalisation.pdf

지역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비위생적인 주택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분야에 우선순위로 PVSB를 지정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농촌 및 도시 지역의 빈민촌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고,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빈민촌을 고려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인구통계학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통계처리 과정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 미국[29)]

1) 현황 및 지원전략[30)]

1957년부터 미국과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모로코의 청년실업률은 높고 문맹률이 45%에 이르는 등, 많은 복잡한 도전에 처해있다.

미국의 대 모로코 ODA 추이를 보면 2002년에 약 18백만 달러였던 지원액이 2011년에 약 147백만 달러로 급상승을 하였고 이후 2013년까지 매년 가파른 상승을 하였다.

<표 3-16> 미국 對 모로코 ODA 추이(2002-2013)

(단위: USD 백만)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17.904	24.345	21.693	17.298	23.989	36.107
	33.377	56.520	71.848	146.561	187.643	276.556

자료: OECD Stat

29) http://www.usaid.gov/morocco/our-work

30) http://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83/CDCS%20Morocco%202013-2017%20FINAL%20Public.pdf
http://www.usaid.gov/morocco/history

USAID는 모로코의 2011년 새로운 헌법이후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개혁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 모로코 노동력 개발, 시민의 거버넌스 참여, 기초학력 달성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시행하였다.

USAID가 모로코에서 거둔 지원 사업 중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분야는 교육, 경제성장, 거버넌스이다. 교육의 경우 중학교 교육수준의 제고를 위해 5,500명 이상의 교사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다. 또한 모로코 보건부와 협력하여 30년간 가족계획, 모성보건 및 아동보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유아생존율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또한, USAID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한 지원으로 수천 개의 모로코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모로코 북부지역 도시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전통적인 사회조직 속에서도 현대화된 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 USAID의 전략은 농업부문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 교사 연수, 지방정부 역량강화, 청년의 사회·경제·시민활동 참여율 증가에 집중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새로운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 모로코 개발협력 전략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력 개발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모로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경제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USAID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노동력 수요가 있는 부문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앞으로 USAID는 수요에 맞는 노동력 개발을 위해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 활성화하려고 하며, 지역NGO 및 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② 식수와 위생

USAID는 지방 조직과 직접 협력함으로써 원조를 넘어서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였다. USAID는 3개의 모로코 농촌 NGO 지원을 통해 그 지역의 식수위생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폐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위생시스템을 개선하여 식수로 인한 질병유발을 낮추고 식수자원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학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식수를 공급받고 개선된 위생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교육

USAID는 주로 중학교 교육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여 방과 후 생활기술 클럽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중퇴예방 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의 질 제고와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USAID는 어린 시절에 글을 깨우치게 하여 문맹을 피하도록 하는 것에 교육 프로그램의 초점을 두고 있다.

④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여성과 청년들이 포함된 일반시민들이 지방자치 단체들과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협력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즉,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시민의 관심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로 이끌어갈 수 있게 지원하였다.

⑤ 청소년개발

청소년을 위한 자기개발강화 프로그램(FORSATY)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에 처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계속 다니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집행유예 등에 있는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2) 중점지원 분야

USAID의 중점 지원분야를 보면, 2011년부터 생산부문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가 2위,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표 3-17> 미국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2009-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순위
사회인프라	13.256	10.255	21.691	28.577	37.926	111.705 / 2
경제인프라	20.522	15.690	18.557	9.764	15.446	79.979 / 3
생산부문	17.650	36.945	97.858	122.028	196.096	470.577 / 1
다부문	5.083	8.958	8.455	27.274	23.724	73.494 / 4
인도주의	0.008				0.284	0.292 / 6
비할당					3.080	3.08 / 5
년도별합계	56.519	71.848	146.561	187.643	276.556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생산분야를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농업·임업·어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특히 2011년부터 지원규모가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농업·임업·어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80백만 달러로서,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내 가장 지원규모가 컸던 교육(2013년 기준, 약 19백만달러)분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따라서, ODA 지원규모로 볼 때 미국의 대 모로코 중점 지원분야는 농업·임업·어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시민사회 및 치안, 식수위생 순으로 지원되고 있다.

<표 3-18> 미국의 對 모로코 생산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	2.513	1.968	0.768	1.411	0.566	0.815
	7.378	17.650	36.945	97.858	122.028	196.096
농업·임업·어업	-	0.006	-	0.072	-	0.606
	3.442	14.210	34.860	95.127	117.979	180.234
산업·광업·건설	0.003	-	-	0.205	0.322	0.082
	0.068	0.153	-	1.979	3.231	8.694
무역정책 및 규제	2.510	1.586	0.768	0.397	0.244	0.128
	3.869	3.286	2.085	0.753	0.818	7.167
관광	-	0.376	-	0.737	-	-
	-	-	-	-	-	-

자료: OECD Stat

<표 3-19> 미국의 對 모로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6.952	18.225	10.984	6.290	12.213	22.653
	14.822	13.256	10.255	21.691	28.577	37.926
교육	0.005	2.266	1.445	3.228	6.544	7.839
	5.339	5.610	3.150	11.357	19.712	18.526
보건	3.825	3.460	-	0.002	-	1.427
	-	-	0.127	0.205	0.936	3.147
인구계획	-	1.180	2.202	0.184	0.060	0.091
	0.165	0.142	0.161	0.124	0.098	0.025
식수 위생	1.876	2.508	4.031	0.177	0.201	0.220
	0.055	0.272	0.362	0.322	0.303	0.340
시민사회 및 치안	1.235	2.530	3.242	2.588	5.302	9.874
	9.264	7.231	6.455	8.814	6.975	10.825
그 이외 인프라	0.011	6.281	0.064	0.111	0.106	3.203
	-	-	-	0.869	0.552	5.063

자료: OECD Stat

<표 3-20> 미국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0.472	0.108	5.644	5.036	8.412	9.537
	7.873	20.522	15.690	18.557	9.764	15.446
교통 및 물류보관	0.359	-	-	0.403	0.355	0.318
	0.614	1.034	-	3.119	2.645	0.194
통신	0.113	-	-	-	-	-
	0.011	0.026	0.050	-	-	-
에너지	-	-	-	0.030	0.030	0.326
	0.571	0.572	1.306	0.328	0.501	0.632
금융 서비스	-	0.043	-	0.441	0.142	0.000
	0.654	13.201	6.349	6.627	2.931	13.985
기타서비스, 전체	-	0.065	5.644	4.162	7.885	8.894
	6.022	5.689	7.985	8.483	3.688	0.636

자료: OECD Stat

3) 대표적 프로젝트 사례 성공/실패 핵심요인[31)]

USAID의 대 모로코 지원사업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종합적 농업 및 농산업 발전 프로젝트(Integrated Agriculture and Agribusiness Project)』를 들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05년 – 2009년이었으며, 평가년도는 2012년 4월-7월이었다.

프로젝트 내용은 장비, 정보기술, 마케팅 도구,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 모로코의 농업분야를 발전시키며, 농업분야 공공정책과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가공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관련 산업, 기업,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산라인의 경쟁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요소는 국가 개발목표와 USAID 프로젝트의 목적이 적절하게 일치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협동조합(cooperatives)보다 기타 시장 행위자(larger market player)가 마케팅 및 유통 등 가치사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역적 파트너의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http://pdf.usaid.gov/pdf_docs/pdacu494.pdf

다. 일본[32)]

1) 현황 및 지원전략[33)]

모로코는 고실업률, 특히 도시 청년의 실업문제가 심각하며, 농촌지역의 낙후 등으로 사회적 불안요소가 항상 내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농촌발전과 균형 잡힌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JICA는 지역적 그리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다.

JICA는 1967년부터 모로코에서 활동하였는데 당시 초기에는 주로 해외자원봉사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지금까지 모로코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JICA 자원봉사자수는 1,000명을 넘고 있다. 1970년대에는 기술협력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그 분야는 수산업, 도로보수, 광물자원연구, 그리고 관개수로 개발 등이었다.

현재 JICA의 협력지원사업 형태는 기술협력(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파견,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포함), 유상원조, 그리고 무상원조이다. 일본의 대 모로코 ODA 추이를 보면 2010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었으나 재스민 혁명의 여파가 본격화 되었던 2011년에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표 3-21> 일본의 對 모로코 ODA 추이(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44.529	85.581	91.551	80.495	88.593	122.535
	142.975	138.674	174.767	98.580	146.487	138.043

자료: OECD Stat

32) http://www.jica.go.jp/morocco/english/

33) http://www.jica.go.jp/morocco/english/
http://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reports/annual/2014/c8h0vm000090s8nn-att/2014_21.pdf

그리고, 유무상 지원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02년에는 유무상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유상의 규모가 커지면서, 2013년에는 유상의 규모가 무상의 규모에 비해 8배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무상 ODA(GRANT)(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9.441	31.266	20.895	15.236	17.368	14.936
	23.009	12.882	18.378	11.905	20.547	16.006

자료: OECD Stat

<표 3-23> 유상 ODA(LOAN)(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35.088	54.314	70.657	65.259	71.225	107.599
	119.966	125.792	156.389	86.675	125.941	122.037

자료: OECD Stat

지난 10년간에 이루어진 JICA 지원 사업들의 성과를 보면 먼저, 모로코 철도기관이 기관차를 갖게 되었고, 도시와 오지에 식수와 전력공급을 개선하였으며, 고속도로와 고등학교를 건설하였고, 강 유역을 보호하는 작업을 한 것 등이었다.

최근 JICA는 농촌 경제 안정화와 균형잡힌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JICA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개도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로관리, 농업기계, 작은 단위의 양식장, 항구 관리 그리고 모성 건강 교육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를 대상으로 한 지원규모를 보면,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로코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중점 원조 전략을 보면, ①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에 안정화를 도모, ② 국가의 평화와 부흥을 공고히 함, ③ 수원국 지역에서 일본 기업의 활동을 지원, ④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의 발전에 기여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JICA의 원조 우선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정치 및 행정 분야
② 고용창출과 산업활동 지원
③ 인적자원 개발

이와 함께 현재 JICA가 모로코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방향은 다음 3가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① 경제발전
② 농업발전
③ 남남협력

먼저 경제발전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은 지중해 우회도로 건설 사업으로 차관에 의해 현재 진행 중이며, 연안 수산 연구 강화 프로젝트는 기술협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농업발전 분야로서는 JICA 자원봉사단이 농촌지역에 파견되어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차관을 통해 약 20개 고등학교를 건설하는 것이 있다.

남남협력사업은 일본-모로코 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을 사하라 사막 이하의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원하여 개발된 모로코의 여러 기술들은 사하라 사막 이하의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설정된 방향이다.

2) 중점지원 분야[34)]

일본은 모로코에 대해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분야에 그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경제인프라와 서비스 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대신에 교통 및 물류보관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자지하게 되었다. 최근 일본의 중점지원 분야는 교통 및 물류보관, 교육, 식수위생, 농수산임업 순이다.

<표 3-24> 일본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2009-2013)

(단위: USD 백만)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순위
사회인프라	27.231	39.122	25.824	23.486	81.930	197.593 / 2
경제인프라	102.977	129.588	66.334	109.238	44.477	452.614 / 1
생산 부문	6.554	1.848	2.554	3.450	4.142	18.548 / 3
다부문	0.756	3.691	3.294	6.555	1.346	15.642 / 4
필수품원조				3.759	6.148	9.907 / 5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25> 일본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	10.703	25.997	21.568	36.298	58.925
	83.335	102.977	129.588	66.334	109.238	44.477
교통 및 물류보관	-	4.575	3.829	2.420	15.272	41.853
	71.309	95.389	117.406	65.651	109.028	44.093
통신	-	0.557	0.057	0.112	0.114	0.169
	0.103	0.123	0.197	0.190	0.073	0.105
에너지	-	5.470	21.980	18.974	20.912	16.902
	11.923	7.441	11.889	0.477	0.137	0.254

34) http://www.jica.go.jp/morocco/english/
http://www.jica.go.jp/english/publications/reports/annual/2014/c8h0vm000090s8nn-att/2014_21.pdf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융 서비스	-	-	-	-	-	-
	-	0.023	0.058	0.016	-	-
기타서비스	-	0.101	0.131	0.063	-	-
	-	-	0.037	-	-	0.024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26> 일본의 對 모로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5.048	18.576	27.866	40.408	35.655	46.555
	44.816	27.231	39.122	25.824	23.486	81.930
교육	-	2.271	3.149	3.251	1.682	15.108
	23.541	6.779	20.844	7.612	2.193	56.176
보건	1.374	8.306	2.524	1.328	1.750	5.479
	5.199	0.666	0.687	1.023	0.682	0.541
인구계획	-	0.016	0.047	0.011	0.260	0.816
	-	0.521	0.307	0.374	0.400	0.106
식수 위생	3.331	6.249	20.859	34.265	26.154	24.099
	14.904	18.201	16.131	15.517	19.149	24.224
시민사회 및 치안	-	0.403	0.209	-	4.312	0.022
	0.041	0.165	0.127	0.304	0.264	0.227
그 이외 인프라	0.343	1.331	1.078	1.554	1.498	1.031
	1.130	0.898	1.027	0.994	0.798	0.655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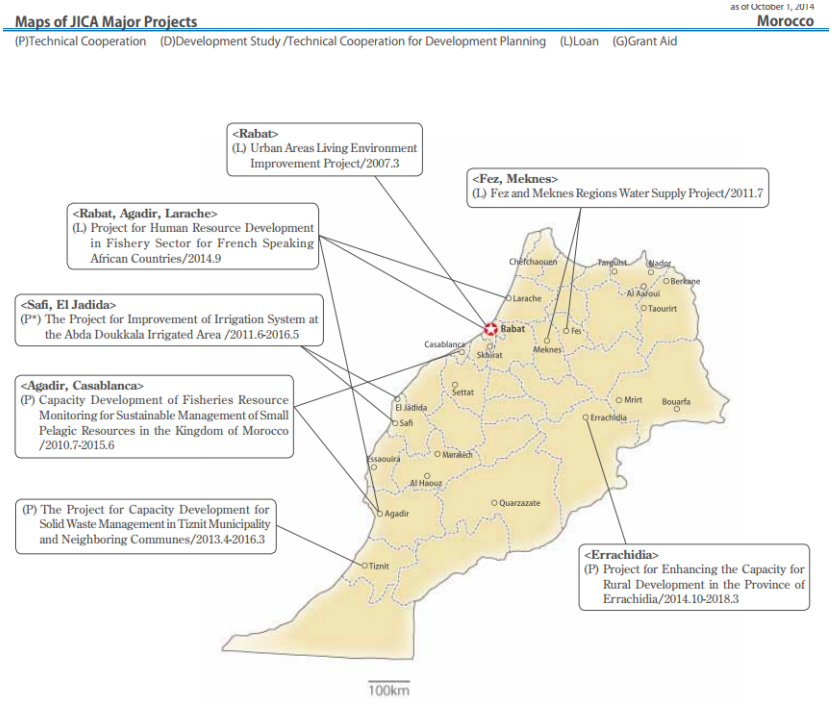
<표 3-27> 일본의 對 모로코 생산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	4.137	14.110	10.316	5.423	2.243	2.320
	6.648	6.554	1.848	2.554	3.450	4.142
농업·임업·어업	4.137	11.640	8.780	4.479	1.721	1.640
	6.058	5.823	1.679	2.313	3.262	3.587
산업·광업·건설	-	2.392	1.496	0.916	0.386	0.611
	0.480	0.649	0.073	0.137	0.090	0.497
무역정책 및 규제	-	-	-	-	0.109	0.009
	0.069	0.012	0.015	0.039	0.079	0.058
관광	-	0.078	0.040	0.029	0.026	0.061
	0.041	0.070	0.080	0.065	0.020	-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그림 3-1] JICA의 모로코 사업대상지



자료: JICA 홈페이지

3) 대표적 프로젝트 사례 성공/실패 핵심요인[35]

JICA 지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서 '3차 농촌전력화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한 년도는 2005년이었고, 평가년도는 2012년-2013년이었다.

사업평가 결과, 동 프로젝트는 수원국의 니즈에 부합하고, 일본의 ODA 정책이 모로코의 개발계획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였으며, 2차 및 3차 농촌전력화 프로젝트가 진행된 후, 2011년 농촌전력화율(rural electrification rate)이 30%pt 증가하여 97.4%에 도달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아울러, 원활한 전기 공급으로 주민의 위생 상태가 향상되고, 가로등으로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등 부차적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프로젝트 지역과 의견조정을 하는 시간 소요 및 건축 활동의 지연으로 예상되었던 완료 기간보다 진행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 프로젝트 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3. 주요 다자기구의 지원현황 및 특징

가. 유럽연합(EU)[36]

1) 현황 및 지원전략

모로코는 EU의 주요 수원국이다. EU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로코 협력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은 모로코 정부, 시민사회, 유럽 회원국 그리고 그 외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상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2007-2013년을 대상으로 한 협력전략이 있었다. 이 두 기간의 지원전략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5) http://www2.jica.go.jp/en/evaluation/index.php?anken=&country1=Morocco&area2=&country2=&area3=&country3=&field1=&field2=&field3=&start_from=&start_to=&search=Search

36) http://mar.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 boardid=4940&seqno=908273&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http://eeas.europa.eu/delegations/morocco/documents/news/comdepresse_20141105_fr.pdf

먼저 2007-2013년 원조계획을 보면 '5가지 우선순위(2007-2013년)'[37]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정책 수립과 발전, 경제 현대화, 제도구축 및 표준화, 굿 거버넌스 발전과 인권향상, 환경보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① 사회정책 개발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며, 인간개발계획(INDH)의 목적과 천년개발목표(MDGs) 도달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지원하였다.

② 경제적 현대화

특히 이주민이 많은 지역에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고용률을 높임으로써, 빈곤감소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현대화를 지원하였다.

③ 제도구축 및 표준화

국가적 Action Plan 하에 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국제적 혹은 유럽 기준의 채택을 지원하였다.

④ 굿 거버넌스와 인권 향상

헌법 개정 등 모로코의 민주화를 위한 지원에 해당한다. 특히 모로코 감옥 시스템이나 법정 관리에 대한 훈련에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거버넌스와 인권 향상을 목표로 EU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다.

⑤ 환경 보호

2005년 11월, 바르셀로나 유럽-지중해 회담에서 참여국들은 2020년까지 지중해 오염제거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EU는 모로코가 사막화 방지, 위협받는 지역의 보호, 수자원의 보호, 쓰레기 관리 등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해왔다.

각 전략의 분야별 예산비중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다. 먼저 2007-2010년에는 사회정책 발전에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굿 거버넌스와 인권에 가장 적은 지원을 하였으

37) http://www.enpi-info.eu/library/content/morocco-country-strategy-paper-2007-2013
지원활동의 중복 방지를 위해, CSP와 NIP는 각 EU 회원국과의 공조아래 만들어진다.

나, 2011-2013년 기간에는 제도상의 지원 비중이 가장 컸고, 경제적 현대화에 대한 지원비중이 가장 적었다.

<표 3-28> EU의 對 모로코 분야별 지원비중

전략	사회정책 발전	경제적 현대화	제도상의 지원	굿거버넌스와 인권	환경보호
2007-2010	45.3%	35.9%	9.9%	1.2%	7.6%
2011-2013	20%	10%	40%	15%	15%

자료: http://ec.europa.eu/europeaid/where/neighbourhood/country-cooperation/morocco/morocco_en.htm

한편 2014-2017년 협력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 사회 서비스에 누구나 접근하도록 지원한다.(원조금액의 30%)
②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법치 국가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양상의 변화를 지원한다.(원조금액의 25%)
③ 고용, 지속가능하고 포괄적 성장을 돕는다.(원조금액의 25%)
④ 역량강화와 시민사회 부문에 대해 보완적으로 지원한다.(원조금액의 20%)

EU의 대 모로코 지원규모를 보면, EU 역시 2011년부터 지원규모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이전에는 유상 ODA규모가 미미하였고 대부분 무상 ODA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1년부터는 유상 ODA가 급증하였고 무상 ODA는 감소 추세이다.

<표 3-29> EU의 對 모로코 ODA 추이(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	0.093	-	294.993	343.103	308.469
	329.441	282.394	223.440	419.268	505.738	616.474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30> 무상 ODA(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	0.093	-	272.625	330.531	308.469
	329.441	282.394	223.440	212.093	145.421	114.970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31> 유상 ODA(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액	-	-	-	22.368	12.571	-
	-	-	-	207.175	360.317	501.504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2) 중점지원 분야

EU는 모로코의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제인프라 부문 내에서는 교통 및 물류보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교육과 식수위생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EU는 교통물류, 교육, 에너지, 산업·광업·건설 순서로 중점지원을 하고 있다.

<표 3-32> EU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2009-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순위
사회인프라	185.174	146.322	184.851	190.899	115.108	822.354 / 2
경제인프라	83.114	39.278	175.179	228.866	344.247	870.684 / 1
생산부문	5.871	34.798	23.035	64.468	143.613	271.785 / 3
다부문	8.230	3.020	0.837	17.073	8.521	37.681 / 4
필수품원조			17.290	4.432	4.808	26.53 / 5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순위
행정비용					0.168	0.168 / 7
비할당	0.006	0.021	18.076		0.010	18.113 / 6
년도별합계	282.439	223.439	419.268	505.738	616.475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33> EU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	-	-	103.666	58.964	81.392
	34.052	83.114	39.278	175.179	228.866	344.247
교통 및 물류보관	-	-	-	78.922	44.506	69.716
	4.861	31.021	20.174	88.117	160.359	286.254
통신	-	-	-	-	-	-
	-	-	-	-	-	-
에너지	-	-	-	-	-	-
	24.030	21.362	6.577	86.271	68.424	57.396
금융 서비스	-	-	-	0.732	0.536	0.007
	0.227	0.125	0.152	0.763	-	0.596
기타서비스	-	-	-	24.012	13.922	11.669
	4.934	30.606	12.376	0.029	0.083	-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34> EU의 對 모로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	-	-	137.218	243.367	196.142
	270.184	185.174	146.322	184.851	190.899	115.108
교육	-	-	-	15.648	41.695	15.170
	34.157	75.933	32.169	123.932	97.398	19.922
보건	-	-	-	10.679	32.154	1.449
	15.025	35.243	23.042	8.207	15.625	22.660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계획	-	-	-	-	-	-
	2.164	-	0.388	1.338	0.857	0.885
식수 위생	-	-	-	17.310	86.807	14.460
	40.092	0.142	30.680	36.119	40.905	32.500
시민사회 및 치안	-	-	-	53.914	74.879	97.936
	121.314	40.233	43.585	13.655	15.526	6.219
그 이외 인프라	-	-	-	39.668	7.832	67.126
	57.431	33.623	16.457	1.600	20.589	32.922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35> EU의 對 모로코 생산 분야 지원현황(2002-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	-	-	-	14.792	13.521	10.171
	9.012	5.871	34.798	23.035	64.468	143.613
농업·임업·어업	-	-	-	4.538	9.011	9.071
	7.006	2.927	32.155	21.739	11.665	9.694
산업·광업·건설	-	-	-	9.932	3.550	0.543
	0.948	2.255	2.643	1.296	52.802	133.873
무역정책 및 규제	-	-	-	0.323	0.960	0.557
	1.059	0.091	-	-	-	-
관광	-	-	-	-	-	-
	-	0.599	-	-	-	0.046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지원방식의 특성은 추가예산 할당 제도가 있다는 점이다. 즉, ① 지속적이고 공고한 민주주의로 가는 이행 진보에 따라 추가예산 할당 가능 프로그램, ②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유럽기금, ③ 개발협력과 분야별 프로그램을 위한 유럽기금, ④ 이웃국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럽기금 등이 그 예이다.[38]

38) http://eeas.europa.eu/delegations/morocco/documents/news/comdepresse_20141105_fr.pdf

3) 대표적 프로젝트 사례 성공/실패 핵심요인[39)]

EU가 모로코에 지원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지중해 고속도로 건설(Building the Mediterranean Motorways of the Sea)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프로젝트 기간은 2006-2009년이었고, 유럽 국가와 지중해 10개국 사이의 효율적인 해상 교통수단을 구축하고, 지중해 국가들 간에 경제활동과 무역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교통수단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고 무역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상 교통의 이용이 증가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아랍 사회경제 개발기금(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FESD)[40) 41)]

1) 현황 및 지원전략

모로코는 아랍 사회경제 개발기금(AFESD)의 회원국으로 경제 및 사회개발 프로젝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AFESD는 모로코 지원에 있어서 기초서비스 제공, 생산역량 향상, 투자환경 향상과 같은 산업 및 인프라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지원하는 ODA는 대부분이 유상이다. 또한, AFESD는 회원국에 제도적 지원과 트레이닝, 긴급 프로그램 시행, 세미나 및 컨퍼런스, 타당성 조사나 프로젝트 사전준비 등 포괄적 연구 및 조사를 목표로 무상원조를 진행해 왔으나 그 규모는 미미하다.

39) http://ec.europa.eu/europeaid/documents/case-studies/neighbourhood_trade_mos_en.pdf
40) http://www.arabfund.org/Default.aspx?pageId=357&cid=10
http://www.arabfund.org/Data/site1/pdf/Annual_Report_2014_E.pdf 9p
41) http://www.arabfund.org/Default.aspx?pageId=357&Cr=MOROCCO

<표 3-36> AFESD의 對 모로코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2-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총액	0	148.727	87.193	218.156	210.566	193.368	205.310
무상	0	0.994	0.856	2.687	0.128	0.839	-
유상	0	147.733	86.337	215.469	210.437	192.529	205.310

자료: OECD Stat

2) 중점지원 분야

ODA 지원금의 대부분을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통 및 물류보관에 예산의 약 90%이상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식수위생, 농수산임업, 에너지부문에 할당했다.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다음으로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그 규모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의 규모에 비해 1/4도 안 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산분야의 지원규모는 더욱 적다.

<표 3-37> AFESD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2009-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순위
사회인프라	22.195	29.134	41.813	37.419	33.319	163.88 / 2
경제인프라	61.770	176.786	158.349	142.521	158.056	697.482 / 1
생산 부문	2.497	10.837	10.404	13.428	13.935	51.101 / 3
다부문	0.731	1.399				2.13 / 4
년도별합계	87.193	218.156	210.566	193.368	205.31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38> AFESD의 對 모로코 분야별 ODA지원현황(2008-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43.090	22.195	29.134	41.813	37.419	33.319
교육	17.863	0.125	0.879	0.128	0.042	-
보건	-	-	-	-	-	-
인구계획	-	-	-	-	-	-
식수 위생	24.928	8.340	15.277	41.685	37.378	33.319
시민사회 및 치안	0.299	-	-	-	-	-
이외 인프라	-	13.730	12.978	-	-	-
생산						
생산	-	2.497	10.837	10.404	13.428	13.935
농업·임업·어업	-	2.497	10.837	10.404	13.428	13.935
산업·광업·건설	-	-	-	-	-	-
무역정책 및 규제	-	-	-	-	-	-
관광	-	-	-	-	-	-

자료: OECD Stat

AFESD의 유상지원 분야는 주로 항구나 댐 건설, 고속도로 건설과 식수공급사업 등 주로 대규모 건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3-39> AFESD의 對 모로코 유상 ODA(2013)

(단위: 1 KD = 약3.6 US Dollars, KD 천만)

프로젝트명	분야	승인년도	지원액
지중해 탕헤르 항구(2단계)	Transport	2013	50,000
테투안 지역 식수공급	Water and Sewerage	2013	7,000
DJEDEIDA-ASFI 도로	Transport	2012	30,000
탕헤르-카사블랑카 고속철 프로젝트	Transport	2012	30,000
탕헤르 지중해 II 항구	Transport	2010	50,000
Dar Khrofa 댐	Agriculture	2010	12,000
Berrechid-BeniMellal 도로	Transport	2010	55,000
탕헤르-탄탄 지역 식수공급	Water and Sewerage	2010	20,000
Zerrar 댐	Water and Sewerage	2009	15,000
카사블랑카-라바트 도로확장	Transport	2009	20,000
페스-우즈다 도로	Transport	2009	27,000

자료: Arab Fund

한편 무상 ODA의 경우 중·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 회계(special account)를 운영하거나, 직접적으로 프로젝트 시행업체에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표 3-40> AFESD의 對 모로코 무상 ODA(2013)

(단위: 1 KD = 약3.6 US Dollars, KD 천만)

프로젝트명	분야	승인년도	지원액
국민의사소통	기타분야	2012	100
RABAT의 3개 구 건물 재건축	에너지	2011	500
페스의 Qarawiyeen 도서관(2단계)	기타 분야	2010	300
지방 교육건물의 재건축	사회서비스	2010	60

자료: Arab Fund

다.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42)]

1) 현황 및 지원전략

기후투자기금(CIF)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고 다국적 금융기구에 위탁하여 운용되는 ODA기금으로서, 주로 세계은행이 기금운용의 중심에 있다. 이 기금은 청정기술기금(Clean Technology Fund, CTF)과 전략적 기후기금(Strategic Climate Fund, SCF)이라는 두 개의 신탁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로코는 청정기술기금(Clean Technology Fund, CTF)의 지원으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모로코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는 에너지 공급의 자립을 돕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당국의 정책수립 및 역량강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 계획, 에너지 수요정책 운영, 기술원조 등을 지원한다.

CIF의 대 모로코 ODA지원은 2013년에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유상 및 무상 모두 각각 40백만 달러 수준이었다.

42) CIF 홈페이지

<표 3-41> CIF의 對 모로코 ODA 추이(2008-2013)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원총액	-	-	-	-	-	79.470
무상	-	-	-	-	-	39.470
유상	-	-	-	-	-	40.000

자료: OECD Stat

2) 중점지원 분야

중점지원 분야로는 다부문의 환경부문 및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의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표 3-42> CIF의 對 모로코 원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분야별합계/순위
경제인프라	-	-	-	-	39.470	39.470 / 2
다부문	-	-	-	-	40.000	40.000 / 1
년도별 합계	-	-	-	-	79.470	

자료: OECD CRS 통계 재구성

<표 3-43> CIF의 對 모로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현황(2008-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	-	-	-	-	39.470
	교통 및 물류보관	-	-	-	-	-	-
	통신	-	-	-	-	-	-
	에너지	-	-	-	-	-	39.470
	금융 서비스	-	-	-	-	-	-
	기타서비스, 전체	-	-	-	-	-	-

자료: OECD Stat

<표 3-44> CIF의 對 모로코 다부문 지원현황(2008-2013)

(단위: 백만 달러)

분야 \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다부문		-	-	-	-	-	40.000
	기타 다부문	-	-	-	-	-	-
	환경	-	-	-	-	-	40.000
	금융 서비스	-	-	-	-	-	-
	기타서비스, 전체	-	-	-	-	-	-

자료: OECD Stat

지원방식의 특성은 먼저, 다자기구 즉,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점, 그리고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태양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청정기술기금(CTF)을 통해 태양에너지 발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대표적 프로젝트 사례 성공/실패 핵심요인[43]

대표적인 성공사례 프로젝트는 One Wind Energy Plan 이라는 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프로젝트 이행기관은 모로코 전력청(National Office for Electricity; ONE)이었고, 시작년도는 2013년 6월이다.

프로젝트 내용 및 목적은 모로코 풍력 에너지 발전 등 모로코의 발전원을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다각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공해 전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세금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으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프로젝트 디자인 단계에서 모로코 당국은 공여국 및 다자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모로코 정부가 최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므로, 거버넌스와 관련된 리스크는 적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모로코 전력

43) CIF 홈페이지

청의 경험으로 유용한 지식이전이 가능하고, 기술적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4. 국제사회의 ODA 특징비교 및 시사점

가. 중점지원 분야

국제사회의 중점지원 분야를 종합해 보면,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교육과 식수위생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교통과 에너지, 생산 부문에서는 농수산임업이 주된 지원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유상 비중이 높은 프랑스, EU, 일본, Arab Fund 등은 주로 도로교통 등 경제인프라 구축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등 무상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농업, 교육, 거버넌스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표 3-45> 對 모로코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분야 지원순위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보건	식수위생	시민사회 및 치안
	A: 3(3) B: 4(3) C: 1(1) D: 0(0)	A: 0(0) B: 0(0) C: 0(0) D: 1(1)	A: 1(1) B: 2(1) C: 1(1) D: 1(1)	A: 0(0) B: 2(2) C: 1(1) D: 1(1)
프랑스	B		D	
미국	B			C
일본	B		C	
독일	A		B	
스페인	A	D		B
벨기에	C		A	D
한국	A			B
EU	B			
Arab Fund			B	

자료: 저자가 구성

주1: 양자 및 다자 주체의 중점지원 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를 A, 다음 순위는 B, 그 다음은 C, D로 표기

주2: 괄호안 숫자는 다자 주체를 제외한 양자 주체의 중점지원 순위를 의미

<표 3-46> 對 모로코 주요 공여국·다자기구의 세부분야 지원순위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		
	교통 물류	통신	에너지	은행 금융	농수산 임업	산업 광업 건설업
	A: 4(2) B: 0(0) C: 0(0) D: 0(0)	A: 0(0) B: 0(0) C: 0(0) D: 1(1)	A: 0(0) B: 0(0) C: 4(3) D: 1(0)	A: 0(0) B: 0(0) C: 0(0) D: 2(2)	A: 1(1) B: 1(1) C: 1(0) D: 1(1)	A: 0(0) B: 0(0) C: 1(1) D: 1(0)
프랑스	A					C
미국				D	A	
일본	A				D	
독일			C	D		
스페인			C			
벨기에					B	
한국		D	C			
EU	A		C			D
ArabFund	A		D		C	

자료: 연구자가 구성

주1: 양자 및 다자 주체의 중점지원 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를 A, 다음 순위는 B, 그 다음은 C, D로 표기

주2: 괄호안 숫자는 다자 주체를 제외한 양자 주체의 중점지원 순위를 의미

나. 주요 시사점

모로코를 지원하는 공여국들은 대부분 ODA 사업 역사가 오래되어 많은 경험이 축적된 서유럽 국가들이며, 이들 서유럽 공여국들은 모로코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언어적인 장벽도 낮기 때문에 ODA 사업방식도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면이 있다. 즉, 스페인의 AECID나 벨기에의 CBT 등 서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ODA전문가들이 모로코에 상주하면서 자국이 추진하는 ODA 사업의 장단기 계획 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동조합 등 다양한 현지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KOICA가 모로코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 역량을 강화해야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에 불어로 현지인과 소통이 가능한 불어권 전문가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모로코에서 ODA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험있는 전문가·전문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현지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므로, 먼저 모로코와 불어권 국가에서의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초역량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현지 사무소 직원채용 시스템, 예를 들면, 한국인 불어권 전문가 양성이나 모로코인 채용확대 등에 대한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서유럽 국가들의 사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우리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프랑스가 모로코에게 지원하는 양자 ODA 총액의 1/2 이상 및 다자기구 지원총액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원함을 고려했을 때, KOICA는 프랑스의 AFD와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협력가능 형태는 프랑스와 모로코 양국 간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했을 때, AFD가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의 사업과 관련하여 모로코인을 우리나라에 초청해 연수나 훈련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형태의 사업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한국의 지원현황 및 특징

1. 한-모로코 협력현황

모로코와 우리나라의 수교는 1962년에 이루어졌으며, 2013년 양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 모로코 수출액이 2.93억 불로 주요 수출품은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정밀 화학원료, 인조섬유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 모로코 수입액은 1.66억불이고 주요 수입품은 나프타, 동, 반도체, 의류, 인광석 등이다.[44)]

2013년 현재 우리나라가 모로코에 투자한 액수는 121백만 불(51건)이고 모로코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는 2백만 불(25건)이며,[45)] 현재 모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 ENG, 대우건설 등이다.[46)]

<표 3-47> 한-모로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	362,317	508,492	292,557	자동차, 휴대전화기, 영상기기, 에어컨,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폴리에스테르섬유 등
수입	137,257	218,120	165,702	동(銅)제품, 반도체(IC), 의류, 알루미늄, 해조류, 냉동어류, 신발, 기타 광물

자료: 한국무역협회

양국은 경제기술, 문화과학, 체육협력, 이중과세 방지, 항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맺었으며, 최근에는 2011년 6월 환경협력 MOU와 2012년 3월, 4대강 사업 기술협력 MOU를 맺었다.

44)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 자료
45)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 자료
46) World Bank.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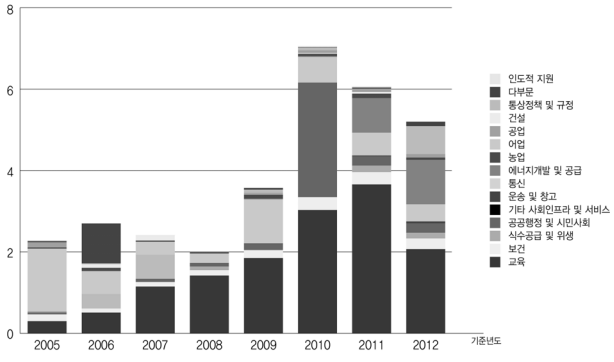
2. KOICA의 지원현황

2009-2012년 사이 KOICA의 지원 현황을 보면, 교육분야의 지원금액이 약 131억 원으로 월등히 높다. 다른 분야의 지원을 보면, 공공행정(약 50억 원), 산업에너지(약 17억 원), 보건(약 10억 원), 농림수산(약 4억 6천만 원), 기타(약 1억 3천만 원), 긴급구호(약 9천만 원) 등의 순이다.

교육·보건·긴급구호 분야의 원조 금액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공공행정 분야의 원조 금액은 2010년에 전년도 대비 약 1.6배 상승 후 2011년에도 18.7배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2010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 분야는, 2011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감소했지만, 2012년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산업에너지 분야의 지원금액은 2012년에 전년도 대비 11배 상승하였다.

[그림 3-2] KOICA의 모로코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순지출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KOICA의 대 모로코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프로젝트 지원액이 약 9억4천만원, 연수생초청 지원액이 약 6억원, 해외봉사단 지원액이 약 21억원으로 해외봉사단을 통한 지원규모가 가장 컸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프로젝트 지원액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있고, 연수생초청 예산액은 완만하게 증가세에 있었으며, 해외봉사단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세에 있었다.

최근 지원현황을 보면,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 지원사업('10-'13년/600만 달러)', '모로코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사업('10-'13년/340만 달러)', '국내초청연수(30명)', '해외봉사단(25명)'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설립된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원(IFMIAC)은 자동차분야만이 아니라 기계 및 자동화(전기)분야의 직업훈련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체 부품제작과 소규모 창업 지원 등 다목적 역할을 발휘하는 종합적인 기술인력 양성기관이다.

KOICA의 2014년도 사업을 보면, 공공행정 분야에서 '무역역량 강화사업('13-'15년/295만 달러)',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14-'18년/610만 달러)',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에너지 효율향상 연구기반 구축사업('12-'14년/250만 달러)' 등이 시행 중이다.

<표 3-48> 유형별 지원실적(1991-2014)

사업 유형	사업 내용(사업기간/지원규모)
프로젝트 (11건)	중고교 컴퓨터 지원사업(1994-1996/85.8만불)(기자재 공여형)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개선사업(2004-2005/54.2만불)
	알아카와인대학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건립사업(2006-2007/167.5만불)
	국가토지등록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지원(2007-2008/103.3만불)
	티플렛 마을 시민의 집 운영 지원(2007-2008/88.3만불)
	중등교사 IT활용교육 역량강화사업(라밧시)(2008-2010/300만불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및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0-2011/340만불)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 지원사업(2010-2013/600만불)
	무역역량 강화 사업(2012-2017/295만불)
	태양광에너지 효율향상 연구 기반구축 사업(2012-2014/250만불)
	모로코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강화 사업(2014-2018/610만불)
국내 초청연수	초청인원 515명 310만불
봉사단파견	파견인원 215명 1,140만불
전문가파견	수산물 양식 전문가 등 10명 11만불
기 타	- 긴급원조: 2004년 알호세이마 지진피해 재난구호 1건 10만불 - 물자지원: 12건 148만불

자료: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africa/AsstConAfricaMo.jsp

<표 3-49> KOICA의 지원(2015)

담당부처	사업명	사업형태	총사업 예산	총사업 기간	'15 예산 (억원)	구분
외교부 (KOICA)	무역역량 강화사업(295만불)	개발 컨설팅	33.34	'13-'15	16.18	계속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 강화사업(610만불)	프로젝트	68.32	'14-'18	7.02	계속
	Sebu강 유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400만불)	개발 컨설팅	41.2	'15-'16	2	신규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 개발 역량강화	초청연수	1.99	'15-'17	1.215	신규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역량강화	초청연수	2.26	'15-'17	1.215	신규
	e-Government	초청연수	2.03	'15-'17	1.215	신규
	사이버범죄 예방 및 수사정책, 제도 구축	초청연수	0.81	'15-'17	0.81	신규

자료: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africa/AsstConAfricaMo.jsp

3. 기타 기관의 지원현황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모로코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표 3-50>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로코 협력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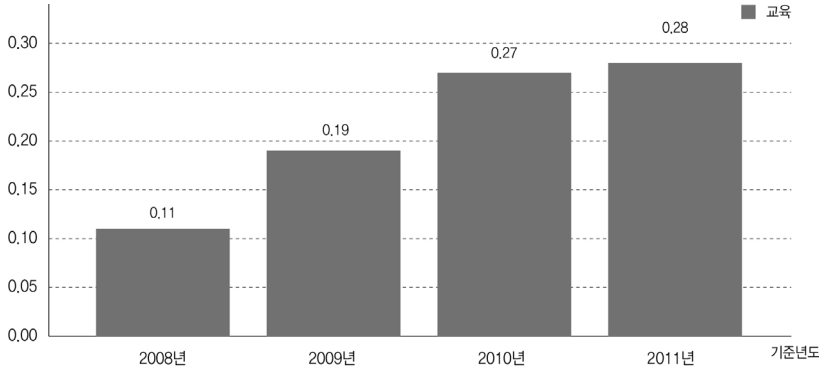
	사업내용	비고
모로코	-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의 농업기초 연구개발 기획회의 - 기간: 2014.4.7-4.9 - 장소: 모로코 라바트 - 모로코 국립농업연구소(INRA) 협력	- KAFACI는 아프리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전수하는 협의체로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 협력사업 수행
	- KAFACI는 2011년 7.4-13일까지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 워크숍'을 에티오피아에서 개최	- 아프리카 지역 가축개량과 축산분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 전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구)교육과학기술부 및 (구)교육인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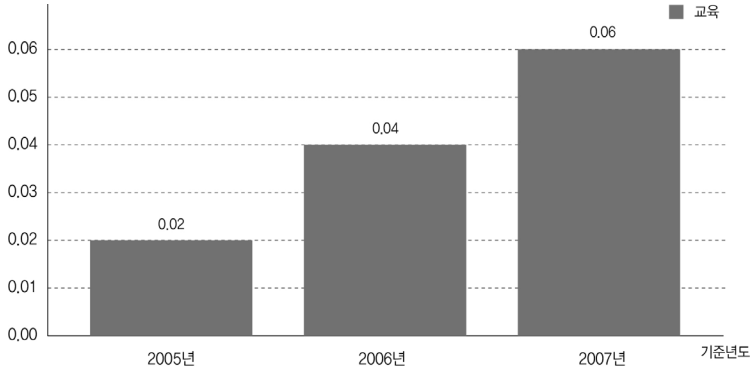
(구)교육과학기술부 및 (구)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모로코의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전문대, 대학(원)교육 분야에 무상원조를 집중 지원하였다.

[그림 3-3] (구)교육과학기술부 무상원조 지원현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그림 3-4] (구)교육인적자원부 무상원조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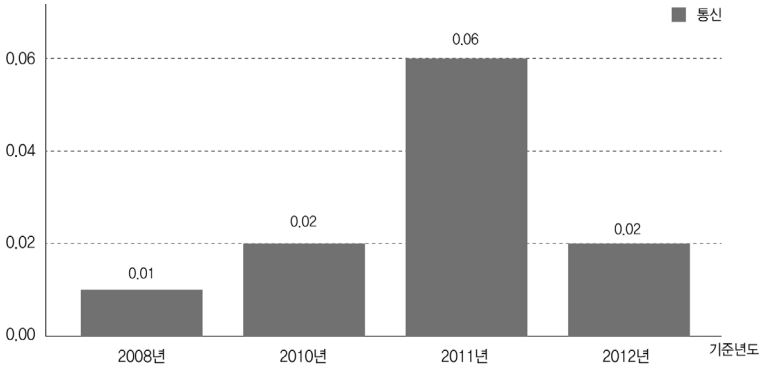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로코에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 관련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왔다.

[그림 3-5] 방송통신위원회 무상원조 지원현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http://211.171.208.92/index.html

라. EDCF

유상원조의 경우, 모로코에 아직까지 지원된 바는 없다.

제4장

KOICA의 모로코 지원방향 및 분야별 협력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모로코의 개발과제 및 특징

가. 경제문제의 핵심은 3고(高): 높은 실업률, 높은 농업비중, 높은 에너지 비용

모로코의 실업률은 지역 내 인접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장율로는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에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성장과 이를 위한 산업구조 다각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나 농업부문의 경제비중이 14.4%, 고용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로 농업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에서의 성장동력 확보가 긴요하다. 또한, 모로코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대외의존도가 97%로 심각한 수준인데, 전력수요가 매년 8%씩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계층간・지역간 큰 격차는 심각한 사회 불안요소

모로코는 국왕이 통치하는 국가로서 계층간·지역간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이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재스민 혁명이후 주변국들이 겪었던 사회적 불만의 분출, 그리고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겪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안정된 상황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80%가 소재한 북부 해안지역과 남부 내륙지역 간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러한 계층간·지역간 큰 격차는 사회적 안정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불안의 핵심이 되고 있다.

다. 문맹 완화를 위한 기초교육 및 성인교육 필요

모로코의 문해율 또한 인근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특히 여성 및 여아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랜기간 여아의 취업률 향상 및 문맹률 완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종교 및 문화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지원이 필요하다.

라. 국제사회는 경제인프라 및 사회 개발에 집중

프랑스는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며, 교육과 교통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무상 ODA만을 지원하며, 중점지원 분야는 생산 분야이고 이중 농업·임업·어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유상 ODA의 비중이 무상 ODA에 비해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EU 등 다자기구 역시 교통인프라와 교육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모로코의 교육, 교통 및 에너지, 농업·임업·어업 등에 중점지원을 하고 있다.

마. 일본 및 한국 등과 보다 큰 협력관계 모색

모로코는 프랑스에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매우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오랜 기간 동안의 식민통치와 모로코인들의 프랑스 불법이민 등으로 프랑스 내에서 모로코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모로코의 상류계층이나 젊은 대학생들은 일본 및 한국 등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바. 모로코는 중요한 ODA 사업 대상국

내수중심의 OECD/DAC 회원국은 ODA를 선택과 집중, 수출중심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여러 나라에 ODA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후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국가들은 전 세계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의 현지 기업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 ODA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모로코에서의 ODA 사업활동은 향후 불어권 국가들과의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모로코는 11-12세기 모라비드 왕조 때 세네갈, 알제리, 모리타니, 튀니지, 리비아를 포함하는 대제국이었고, 이로 인해 아직도 세네갈 등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모로코는 향후 사하라이남 불어권 국가들과의 협력사업 시 삼각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국가이다.

2. 모로코 지원 기본방향

앞에서 서술한 모로코의 국가적 과제 및 특징을 고려할 때, KOICA에서는 모로코의 시장경제 활성화 및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지원을 협력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와의 개발협력 확대를 위하여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문화·종교적 위상이 높은 모로코를 전략적으로 활용, 향후 삼각협력 기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프랑스 등 현지 경험이 풍부한 공여국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문맹률 완화 및 공공행정 역량배양

모로코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문맹률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정비와 공공행정 서비스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정책수립 및 수행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및 전력수급 안정화

모로코의 새로운 산업육성 정책에 맞춰 산업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가의 주요한 과제인 수자원 관리부족 및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역량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선진 공여국들과의 협력사업 확대

모로코 현지에 있는 프랑스, 일본, 벨기에, 스페인, 독일 ODA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ODA신흥국인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국가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원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모로코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중점지원 분야 선정

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가.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국의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분석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설정하고,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선별·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량 및 정성 분석 방법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결과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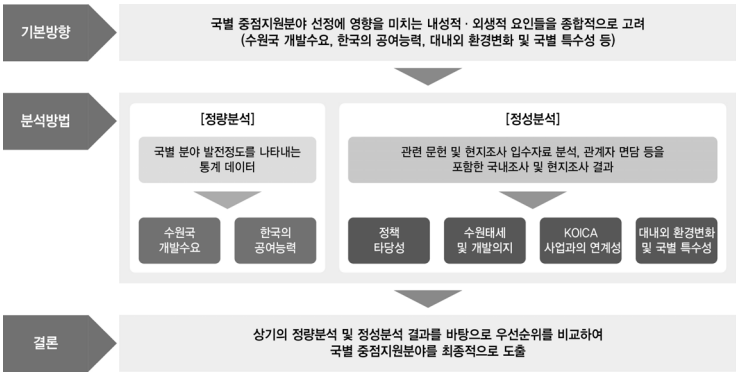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분야의 범위를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인프라 등 총 6개 분야로 한정하였다. 이는 KOICA의 사업분야[47]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산업에너지의 경우, 광범위한 사업을 다루고 있어 이 중 인프라(교통, 통신 등)은 별도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범분야와 기후변화대응의 경우, 모든 분야 및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특정 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함께 고려하였다.

상기의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지표를 선정하고,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했다. 우선 정량 분석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대상국과 한국의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를 측정하여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국별 특수성 등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산한 분야별 점수를 종합적으로 비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국별 중점지원 분야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

47) KOICA 7대 사업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농림수산,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범분야(환경, 성평등, ICT, 인권), 기후변화대응으로 정해져있다.(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그림 4-1] 중점지원 분야 선정 방법론 개요



나. 정량분석

1) 기본 방향

본 연구에 활용된 정략분석 방법론은 아프리카 협력분야 선정 관련 기존 선행연구[48]에서 사용된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수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급역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적 협력분야를 규명하고 있다. 이는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 간 상대적인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gap)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기존 ODA관련 타 연구들과는 달리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상기 6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발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합산하여 분야별 지수값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야별 지수값은 벤치마킹 국가의 지수값과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 격차 및 핵심 성장요인으로서의 잠재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역시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비교하여, 분야별 상대적 발전정도 차이를 분석했다.

48) 박영호 외.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방안』. KIEP. ODA 지역연구 12-04

2) 분야별 지표 및 비교대상국 선정

박영호 외(2012)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환경수행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 그리고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문별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세계개발지수(World Development Index, WDI)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6개 분야별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 분석에 사용된 지표의 선정 근거와 각 지표별 자료 출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상세한 지표구성 및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4-1> 분야별 세부 지표 및 데이터 출처

분야	세부 지표	데이터 출처
교육	교육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GCI, HDI
보건의료	보건의료 및 식수위생 서비스 질, 환경 및 접근성	GCI, HDI, WHO
농림수산	관개화율, 농업 생산성과 경제 기여도	GCI, WDI, FAO
공공행정	정부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안정성	GCI
산업에너지	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및 에너지 수급 환경	GCI, WDI, UNIDO
인프라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보급률 및 발전 정도	GCI, WDI, ITU

한편, 각각의 데이터는 모두 다른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있기에, 분야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데이터를 같은 범위로 표준화하고 이를 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된 세계경쟁력지수(GCI)를 기준으로, 그 외 데이터들 역시 1-7 사이의 지수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분야별 발전정도는 수원국 대비 다음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벤치마킹 국가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상대적 발전 격차를 측정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경쟁력지수(GCI)보고서』를 통해 국가들의 경제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국 보다 다음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표 4-2> 세계경제포럼 경제 발전단계 구분

구분	1단계: 요소주도 경제단계 (1.0)	이행단계: 1단계 → 2단계 (1.5)	2단계: 효율성 주도 경제단계 (2.0)	이행단계: 2단계 → 3단계 (2.5)	3단계: 혁신주도 경제단계 (3.0)
국가 (예시)	방글라데시, 브룬디, 차드, 세네갈, 에티오피아, 인도,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앙골라, 볼리비아, 보츠와나, 가봉, 온두라스, 몽골, 필리핀, 리비아, 베네수엘라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자메이카, 요르단, 모로코, 페루, 태국, 튀니지	아르헨티나, 헝가리, 브라질,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오만, 터키, UAE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홍콩, 한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카타르, 싱가포르, 스웨덴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4)

<표 4-3> 발전단계별 연구 대상국 및 비교대상국가

분석대상국가(발전단계)	비교대상국가(발전단계)
알제리(1.5)	이집트(2.0), 자메이카(2.0), 모로코(2.0)
모로코(2.0)	UAE(2.5), 터키(2.5), 오만(2.5)
튀니지(2.0)	UAE(2.5), 터키(2.5), 오만(2.5)
세네갈(1.0)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코트디브아르(1.0)	알제리(1.5), 보츠와나(1.5), 가봉(1.5)

3) 수원국 개발수요 및 한국의 공여능력 분석

우선 수원국 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수요 지수값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과 벤치마킹 대상국의 분야별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1]을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때, 벤치마킹 대상국이 2개국 이상이므로 평균값을 사용하여, 연구대상국과 벤치마킹 대상국 간의 이질성에 따른 이상 값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발수요 지수값은 벤치마킹 대상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해당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부문이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1] 개발수요 분석 수식

$$N_{ci} = (\frac{G_{ci} - \overline{E_c}}{\sigma_c}) + 4$$

G_{ci} = 연구대상국와 벤치마킹대상국가 i분야 지수의 갭

$\overline{E_c}$ = $\frac{\text{연구대상국와 벤치마킹대상국의협력가능분야 지수갭의 합}}{\text{(협력가능분야 개수)}}$

σ_c = 연구대상국와 벤치마킹국가간 6개 협력가능 분야 갭의 표준편차

다음으로 한국 공여능력 지수값 산출을 위해, 연구대상국의 지수값과 한국의 지수값 간 차이를 [수식 2]를 사용하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가공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공여능력 지수값은 수원국 대비 분야별 발전정도 차이를 보여주므로 이는 분야별 한국의 상대적 공급역량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글상자 4-2] 공여능력 분석 수식

$$S_{ci} = (\frac{G_{c_i} - \overline{E_c}}{\sigma_c}) + 4$$

G_{ci} = 연구대상국와 한국의 i분야 지수의 갭

$\overline{E_c}$ = $\frac{\text{연구대상국와 한국의 협력가능분야 지수 갭의 합}}{\text{(협력 가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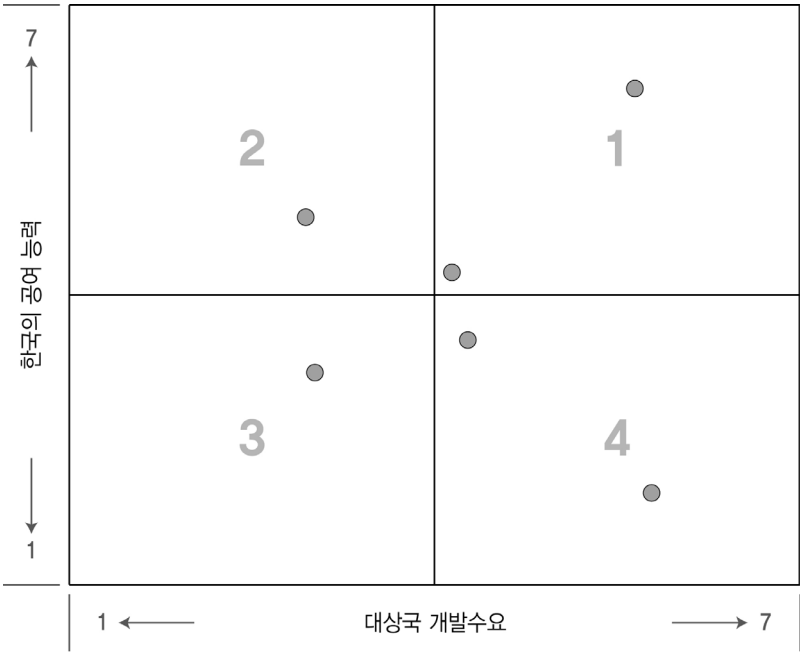
σ_c = 연구대상국와 한국 간 6개 협력가능분야 갭의 표준편차

4) 중점지원 분야 도출

본 연구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중점지원 분야란 연구대상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이 동시에 충족되는 영역으로, 상기 산식을 통해 산출된 연구대상국의 개발수요 지수값과 한국의 공여능력 지수값을 동시에 비교하여 도출 가능하다. 이는 [그림 4-2]와 같은 사사분면 공간 배치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후 최종 중점지원 분야 선정 시 정성분석 결과와의 합산을 위해, 개발수요 지수값과 공여능력 지수값에 각각 가중치 50%를 곱해 합산한 최종 지수값 결과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측정한다.

[그림 4-2] 정량분석 결과-사사분면 배치



주: 제1사분면: 최적 개발협력 분야
제2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는 낮으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
제3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도 없으며 한국의 역량도 없는 분야
제4사분면: 분석대상국의 수요 충족에는 필요하나 한국의 역량이 부족한 분야

다. 정성분석

1) 기본 방향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 자료로 쓰인 분야별 데이터들이 과거 특정 시점에만 집중하여 측정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정량분석만으로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을 위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를 재검토하고 이를 별도로 분석하여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원국의 개발수요는 중점지원 분야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량분석을 통해서는 분야별 상대적 발전격차만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수요로 유추할 수 있을 뿐, 연구대상국의 정책적 의지 및 수원태세, 실제 분야별 개발 수요와 같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은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문헌조사, 인터뷰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및 개발의지 등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량분석만으로는 KOICA와 연구대상국 간의 기존 협력관계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없다. 연구대상국에 대한 KOICA의 원조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이미 현지 대사관 및 주재원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협력관계 및 사업 포트폴리오는 한국의 공여능력을 기 검증한 결과일 뿐 아니라, 향후 KOICA의 장기적인 협력관계에 있어 가장 밑바탕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국의 개발의지나 우리와의 기존 협력관계와 별개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정세 변화 등 국별로 ODA 지원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구대상국별로 고려한 특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4-4> 연구대상국별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연구대상국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알제리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수요
모로코, 튀니지	북아프리카 민주화
세네갈	사헬(Sahel) 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코트디부아르	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량분석의 보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 및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량분석과의 결과 합산 및 편의를 위해 분야별 점수를 계량화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분석 대상

우선 수원국 정책타당성은 국가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야별 발전의 중요성 및 정책 반영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KOICA 지원의 지속가능성 및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발전전략(NDS)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섹터별 전략, 지역협력기구 전략 및 정책적 담화와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평점을 주었다. 다음으로는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의 경우, 현지조사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을 통해 파악된 현지 정부 부처별 실제 지원요청 여부 및 적극성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KOICA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사업 추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OICA와의 사업 연계성은 기존 지원현황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평점을 매겼다. KOICA 본부 및 현지사무소와의 면담과 입수자료를 통해 분야별 기 진행 사업 및 예정사업의 개수와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된 분야를 분석해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검증된 분야도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환경변화 및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하였다.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및 KOICA 사업과의 연계성과는 별개로, ODA 사업 진행 시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국제적 환경 변화 및 특수 요소들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3) 중점지원 분야 도출

상기 4개에 대한 분야별 점수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를 수행한 국별 연구진이 리커트 5점 척도[49]를 사용하여 평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했다. 더불어 각 지표마다 본 연구에 고려해야할 필요성 및 중요도가 다르므로 지표별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오차를 최소화하고 분석자료가 내재하고 있는 과소·과대평가의 가능성을 보완하여 균형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지표별 평점 및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한 점수를 결과로서 도출하고, 분야별로 최종 값을 비교하여 국별 중점지원 분야를 도출하게 되었다. 아래 표는 정성분석에 사용된 지표 및 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5> 분석 지표 및 가중치

분석 지표	가중치
국가발전계획(NDS) 및 정책과의 부합성(정책 타당성) - 국가발전계획(NDS) 및 주요 현안 - 섹터별 전략 - 지역협력기구 전략	0.25
해당부처 지원요청 및 수원태세 정도(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 미니포럼 및 부처별 면담 결과	0.1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 기존 지원현황 - 향후 지원계획	0.40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예: 알제리-북아프리카 민주화, 국내기업 진출수요 튀니지/모로코-북아프리카 민주화 세네갈-사헬지역 기후변화, 에볼라,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코트디부아르-에볼라 사태, 역내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	0.20

49)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s)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응답척도로 모호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채택된 방법이며, 1점(매우 낮음)과 5점(매우 높음)을 기준으로 한다.

라. 종합결과 분석 및 중점지원 분야 최종 도출

상기의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은 각각의 방법론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정량분석의 경우 결과값이 1-7의 지수값으로 표준화되어 산출되었으나, 정성분석의 경우 결과값이 1-5 사이의 값으로 산출되는 등 척도가 상이하다. 따라서 두 분석 결과를 종합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의 결과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정량 및 정성분석 결과값을 각각 5점 기준으로 표준화[50]하였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 간 가중치는 각각 30:70으로 산정하여 합산에 반영하였다. 이는 정량분석이 과거의 한 시점을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한 데 반해, 현지 방문을 통해 입수한 수원국의 실제적인 수요, 기존 KOICA 추진사업 및 계획과의 연계성, 국별 특수성 등 현지의 최신 동향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분석의 특성 상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진의 판단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 활용 시, 분야별로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최종 지수값이 산출되며, 이를 비교하여 분야 간 우선순위를 도출해낼 수 있다.

[글상자 4-3] 분야별 종합결과 도출 수식

분야별 최종 지수값=(분야별 정량 표준지수*30%)+(분야별 정성 표준지수*70%)

2. 분석 결과

가. 정량분석 결과

수원국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의 경우, 보건의료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농림수산, 교육 순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개발수요는 공공행정, 인프라 순이었다.

50) 7점 기준의 값을 α라고 했을 때, 산식(2α+1)/3을 통해 5점 등간척도의 값으로 표준화하였다.

한국의 공여능력을 보면, 산업에너지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교육, 인프라, 농림수산 순이었고, 가장 낮은 분야는 공공행정, 보건의료 순이었다. 공공행정의 경우, 한국의 절대적인 공공행정 분야의 역량, 기술력은 높으나 타 분야보다 상대적인 갭의 격차가 작으므로 점수가 낮게 산출되었다.

수원국 개발수요와 한국의 공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국 개발수요도 높고 한국의 공여능력이 높은 분야는 산업에너지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 그리고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정량분석 결과

구분	정량 분석				30%
분야/지표	정량 지표		총계		우선순위
	수원국 개발수요	한국의 공여능력	평점	표준화지수	
	50%	50%		5점 기준	
교육	4.46	4.53	4.49	3.33	3
보건의료	5.37	4.00	4.69	3.46	2
농림수산	4.77	4.20	4.49	3.32	4
공공행정	3.40	2.10	2.75	2.16	6
산업에너지	4.15	5.25	4.70	3.47	1
인프라	3.49	4.46	3.97	2.98	5

자료: 연구진 분석

나. 정성분석 결과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와의 사업연계성 및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별 특수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행정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교육, 산업에너지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분야는 재스민 혁명 이후 커진 모로코 국민들의 민주화 인식 및 요구를 수용하고 경제성장률의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정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점 등 해당 분야의 정책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모로코 정부는

현재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역량 강화사업'과 유사한 행정역량 강화와 행정정보화 등의 사업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등, 공공행정에 대한 수원태세나 개발의지 역시 매우 높았다. KOICA는 그 동안 "무역역량 강화사업"과 "모로코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KOICA 지원사업과의 연계성도 뛰어나다고 하겠다. 재스민 혁명으로 인하여 앞으로 모로코가 북아프리카 지역 내 경제 및 물류의 거점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행정 능력배양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 분야는 정책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재스민 혁명 이후 공교육시스템 재정비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문맹율과 실업률 감소 및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높은 정책적 의지가 있음에 따라 매우 타당하게 나타났다. 또한, 현지조사 시, 교육부가 technical meeting과 세부 자료를 제공하면서 KOICA와의 협력의지를 적극 표명하였으며, 특히, 한국어를 모로코 중고등학교 정규교과목화 하려는 의지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측면에서 높게 평가 될 수 있었다. 그동안 KOICA에서 "중등교사 IT활용교육 역량강화사업" 및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KOICA 지원사업과의 연계성도 높은 편이고, 재스민 혁명에 따라 실업률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 수요가 높은 점 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차원에서도 해당 분야의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모로코의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고, 전력수요가 매년 약 8%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의 80%가 화력발전으로서 다각화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정책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KOICA 이사장의 현지 방문 시 상공경제부 장관이 자동차 및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협력을, 에너지 수자원부 장관이 수자원, 전력, 미개발지역에 대한 지질지형 조사 및 지도작성 등의 사업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에서의 수원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동안 KOICA와의 관련 분야 사업은 "태양광 에너지 효율향상 연구기반구축 사업"이 유일 하였으나, 앞으로 KOICA가 산업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해당부문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4-7> 정성분석 결과

구분	정성 분석						70%
분야/지표	정책 타당성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총계		우선 순위
					평점	표준화 지수	
	25%	15%	40%	20%		5점 기준	
교육	5	5	4	5	4.6	4.60	2
보건의료	4	3	1	1	2.05	2.05	5
농림수산	4	2	3	1	2.7	2.70	4
공공행정	5	4	5	5	4.85	4.85	1
산업에너지	4	4	2	5	3.4	3.40	3
인프라	3	1	2	1	1.9	1.90	6

자료: 연구진 분석

다. 종합분석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함께 본 최종 종합평가를 보면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이 공공행정, 산업에너지 순으로 도출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정량분석 상 개발수요 및 공급능력이 높게 평가되어 3위로 선정되었고, 정성분석에서는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의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아 2위로 평가되어 종합분석 결과 1순위로 도출되었다.

공공행정의 경우, 정량분석 결과, 공급능력 측면에서 한국과 모로코와의 상대적인 개발격차가 낮아 6위로 평가되었으나, 정성분석 시 모든 부문에서 상위 수준으로 평가된 결과 1위로 도출되어, 종합분석 결과 2순위로 선정되었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정량분석 상 개발수요는 중간이나 공급능력이 높아 1위로 선정되었고, 정성분석에서는 정책타당성, 수원태세 및 의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위로 평가되어 종합분석 결과 3순위로 도출되었다.

<표 4-8> 종합분석 결과

구분	정량 분석(30%)		정성 분석(70%)		최종종합	100%
분야/지표	평점 (1-7)	표준화지수 (5점 기준)	평점 (1-5)	표준화지수 (5점 기준)	최종종합 (정성:70%+ 정량:30%)	우선 순위
교육	4.49	3.33	4.6	4.60	4.22	1
보건의료	4.69	3.46	2.05	2.05	2.47	5
농림수산	4.49	3.32	2.7	2.70	2.89	4
공공행정	2.75	2.16	4.85	4.85	4.04	2
산업에너지	4.70	3.47	3.4	3.40	3.42	3
인프라	3.97	2.98	1.9	1.90	2.22	6

자료: 연구진 분석

제3절 중점지원 분야별 협력방안

1. 교육

KOICA는 문해교육 접근성 확대 및 국가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분야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및 한국의 공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해교육기관 건립과 문해교육 지원, 직업훈련-취·창업센터 지원, 한국어 정규과목 추진 등을 중점지원 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가. 문맹률 완화를 위한 문해교육기관 건립 및 문해교육 지원

모로코의 문맹률은 2013년 기준 약 33%로서, 튀니지의 21%나 알제리의 27%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로코 여성의 문맹률은 57.5%(농촌지역 여성 문맹률은 87%)[51]로서,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문맹률 완화 교육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문맹률을 보면 약 18%로 전체 연령의 문맹률에 비해 낮다. 이는 초등학교 순 취학률이 1990년에 농촌 남아의 경우 48.8%, 여아의 경우 22.5%이던 것이 2008/2009년에는 각각 93.2% 그리고 87.9%로 제고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령의 문맹률은 아직도 높은 편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데, 문자해독이 어려운 모로코인들은 이미 학령기가 지난 성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규 교육지원보다는 문해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원과 유사한 문해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 현지 NGO와 협력체제를 구축한 후, ICT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거리 교육이

51) http://webzine.koica.go.kr/201403/sub4_2.php

적당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현지 NGO를 활용하여 문해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요 대상 지역으로는 5개의 농촌지역, 즉, 마라케쉬(Marrakech), 텐시프트와 알 하우즈(Tensift and Al Haouz), 타자(Taza), 알 호세이마와 타우나테(Al Hoceima and Taounate), 두칼라와 압다(Doukkala and Abda), 탕헤르와 테투안(Tangier and Tétouan), 그리고 수스, 마사, 드라아(Souss, Massa and Draà) 등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문해교육을 성실히 마친 교육이수자에게는 취·창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문맹의 퇴치와 함께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동 사업은 모로코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되 풍부한 경험이 많은 UNESCO 및 현지 NGO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업을 통해 도농간 격차와 남녀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로코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고용증대를 위한 직업훈련-취・창업센터 지원

현재 모로코 내 심각한 실업 문제에 KOICA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만 실시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찾게 놔두는 것보다는 직업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2013년에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 지원사업(600만불)'을 통해 설립된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원(IFMIAC)은 모범적인 개발협력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로코에 확산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청년 실업층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집약적, 고용효과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기술훈련 강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로코 인간개발을 위한 국가개발계획(INDH)"상 우선순위인 산업기술 인력양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의 실업이나 빈곤문제 등 소외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직업교육기회 확대와 같은

기술지원과 함께 주인의식, 자기 동기부여를 통한 농촌의 자발적인 개발운동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KOICA에서는 동 사업을 확대·심화·발전시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창업지원을 통해 실업 및 빈곤퇴치를 하고, 소득 증대 및 자생력 강화,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직업훈련을 위한 직종은 모로코에서 취·창업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 즉, 컴퓨터 수리/자동차 수리/전자제품 수리/제과·제빵/관광/한국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 인근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가능한 수요가 많은 분야의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현지 진출 국내기업들과 협력 하에 국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업훈련-취창업센터에 개설하여 교육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직업훈련-취·창업센터 내 교육생 생산품 직거래 판매 장소를 제공하고, 우수 교육이수자에게 취·창업지원을 하며, 동시에 Microcredit 자금을 제공해 줌으로써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한다. 우수 교육 이수자에게는 주택을 개량해주는 지원 등을 통해 직업교육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의 저소득가구 보건위생 또한 개선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창업 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직업훈련-취·창업센터 가 관리함으로써, 직업훈련-취·창업센터가 자활공동체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에서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취·창업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향후 삼각협력 형태로 사하라 이남의 불어권 국가인 말리, 모리타니아, 세네갈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 모로코는 해당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유대관계가 깊고, 국가정책상 이미 다수의 삼각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사하라 이남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KOICA-모로코가 불어권 취약국과 삼각협력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어 정규과목 추진사업 및 한국어 교사 파견

본 사업은 모로코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지원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어 교사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어를 정규 과목화 하자는 교육부의 요청을 바탕으로 제안하게 된 사업이다.

최근 아시아 및 한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모로코 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이마저도 공식 자격인증을 받은 한국어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현재 아랍어를 사용하는 중동 지역이나 불어를 주로 사용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을 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이 아프리카 협력국 내 유수 대학에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중국의 문화, 역사, 언어를 가르치고 현지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례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국의 관련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KOICA에서는 교육부의 요청과 한국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모로코의 중고등학교에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모로코 학생들이 한국어를 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하여 대학까지 계속 학습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교사에 대한 파견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 모로코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모로코와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 또는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행정

KOICA는 정부효율화 및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목표로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및 한국의 공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정부 프로그램과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중점지원 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가. 공공행정 효율화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프로그램

본 사업은 모로코 공공행정의 효율화 및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통관, 조달, 조세, 연기금 관리 등 정부 제반 영역에서 ICT를 활용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모로코는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정보화 및 전자정부 발달 수준이 높고, '디지털 모로코 2013'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국가 발전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보급률이나 PC 보급률이 높은 편이며,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정보통신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국민 인식은 성숙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모로코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도입 초기 상태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한국 사례가 많이 도움 될 것으로 보이다. 전자정부 분야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언어(불어, 아랍어) 문제를 고려할 때, 모로코 기업 또는 프랑스 등 유럽 업체 등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 정보화진흥원이 모로코의 국가현안, 전자정부 추진실적 및 향후전망, 그리고 對 모로코 IT ODA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 예산회계시스템,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온라인세무업무시스템, G4B 시스템 부문에서의 협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왕의 관심사항인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e-러닝/e-스쿨시스템, e-보건/e-헬스시스템, 사회보험서비스, 복지 관련 서비스 등의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통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ITS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산업이 관광 분야이므로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보제공, 관련 조직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52]

52) 2014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 및 수출전망(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중 모로코 편 내용 재구성

<표 4-9> 모로코의 전자정부 관련 협력수요

	분석관점(Perspectives)			
	전자정부 추진중	국가현안	전자정부 전망	IT ODA 전망
온라인세무업무시스템	●			
인터넷민원서비스(G4C)	●			
기업지원단일창구시스템 (G4B)	●			
행정정보시스템			●	
정부예산회계시스템	●			
행정정보공유/ 부처간연계시스템	●			
사회보험(연계)시스템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국가복지정보/ 전달시스템		●		
마스터플랜 수립	●			
부처별 ISP 수립	●			
e-러닝/e-스쿨시스템		●		
ITS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		
부처별 업무시스템	●			
전자연권/ 출입국관리시스템				
e-보건/헬스시스템		●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전자정부 사업은 한국의 공급능력이 입증된 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인근 튀니지에서 KOICA가 성공적으로 실시한 전자조달 시스템 지원사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나.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모로코 개발의 어려움 중 하나는 관련분야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여 선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로코 공무원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우므로, KOICA의 중점지원 분야에서 모로코 사무관급 공무원의 중장기적 역량강화를 위한 석사학위과정을 제안한다.

해당 사업은 현재 KOICA가 시행 중에 있는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 연수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차이점은 매년 중점지원 분야, 예를 들면,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 10인을 한국에서 무역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모로코에 귀국 후 무역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역학 석사과정을 함께 이수하는 10인의 공무원은 평소 무역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 한국에서 무역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해결책을 찾고, 귀국 후 수행할 무역정책을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귀국 후에는 모로코의 무역 분야 혁신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 무역정책이 모로코에 그대로 이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매년 여러 중점지원 분야 중에서 한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담당 공무원 10인을 한국에서 교육시켜 모로코 정부에 복귀시킬 경우, 10년 후에는 약 100명의 국장·과장 급 인사들이 한국에서 훈련받은 결과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한국과 모로코의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한국의 ODA지원 효과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가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추진을 적극 제안하며, 이 프로그램은 형태상 연수사업이지만,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다년도의 국별 역량강화 프로젝트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산업에너지

KOICA는 향후 모로코와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시 수자원 및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2015년 대구 물포럼에 벤키란 총리가 참석하는 등, 모로코 정부의 수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KOICA가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세부강 유역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동 사업은 단순한 홍수피해 저감 계획을 넘어서서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 활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댐, 수로, 저수지, 수력발전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계획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파이낸싱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마스터플랜을 작성, 실질적인 사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자원 및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수력, 풍력) 분야 기술협력, 수자원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타당성 조사 사업,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연구소(IRESEN)와의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의 사업을 제안한다.

KOICA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큰 규모의 국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협력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양국간 재생에너지 분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과 더불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이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와의 협력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존의 태양광 연구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심화 발전시키고, 전력생산 및 송배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는 등 기술협력 중심의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제4절 협력 프레임워크

모로코의 국가적 과제, KOICA의 기본 협력방향 및 중점지원 분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 및 협력방안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협력 프레임워크의 도출이 가능하다.

[그림 4-3] KOICA-모로코 간 협력 프레임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KOICA는 모로코의 시장경제 활성화 및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지원을 협력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는 1) 문맹률 완화 및 공공행정 역량배양, 2)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둘 것을 제안한다.

중점지원 분야로는 정량 및 정성 분석에 따라 교육, 공공행정 및 산업에너지 분야가 도출되었다. 우선, 교육 분야의 경우 문해교육 접근성 확대 및 국가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문맹률 완화를 위한 문해교육기관 건립 및 문해교육 지원, 직업훈련-취·창업센터 지원, 한국어 중등교육 지원을 제안하였다. 문해교육 지원의 경우, 해당 분야에

서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UNESCO 및 현지 NGO와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직업훈련-취창업센터 지원 사업은 KOICA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카사블랑카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취·창업 기능을 더하고,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자활공동체로 운영함으로써, ODA 공여기관과 수혜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목표로 한다.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정부 효율화 및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목표로 1) 전자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2)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는 프로젝트 사업과 초청연수사업 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며, KOICA 튀니지 사무소가 유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므로, 해당 경험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수자원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1) 수자원관리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및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유관분야 연구소,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협력 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다.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 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협력방안 연구 : 모로코

제5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로코의 개발환경에 대한 조사와 국가개발전략 및 한국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KOICA의 지원방향 및 협력방안 등 모로코와의 개발협력에 있어 기본적인 전략 틀을 도출하는데 있다. 또한 KOICA가 수행하고자 하는 모로코와의 협력사업이 국제적인 개발협력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국제기구 및 다른 지원 공여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공조 가능 분야도 가늠해 보아, KOICA 협력사업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KOICA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가능성 타진도 연구 목적의 하나이다.

모로코는 아랍의 봄 이후에도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 없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모로코 정부는 국민의 높아진 민주화 의식수준에 부응함과 동시에 실업률 완화와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고심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OICA의 지원은 모로코에 단순한 개발협력 지원이 아니라 발전에 성공한 국가가 모로코에 희망을 주는 효과를 동반한 지원임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직업훈련 분야의 사업은 현지의 인력양성 및 청년취업에 많은 도움을 준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로코는 중동지역의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공용어로 아랍어를 사용하고, 영어 대신 프랑스어를 사용하므로, 우리나라 기관들이 협력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 북부지역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협력할 사안들이 많다고 평가된다. 특히 모로코에 인접한 알제리에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현지어를 구사하는 인력이 필요하나, 이러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향후 모로코 청년층에게 모로코 국가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한국에서 받게 하고, 이들에게 관련 내용의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교육하여, 향후 양국의 개발협력에 주축이 되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모로코와의 개발협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이 지역전문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앞으로 모로코 뿐 만아니라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하라이남 불어권 아프리카들과의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KOICA도 프랑스의 AFD나 EU,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대단위 규모의 ODA사업에 협력관계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여국이나 공여기관과의 협력사업 시 관련사업의 교육훈련은 한국에서 연수형태로 담당하여, 이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KOICA 직원들이 현지에서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이들을 해당 분야 및 한국어·한국문화를 교육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을 꾀하는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로코에서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공조 대상으로는 먼저, 프랑스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가 모로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 보다 세부적인 협력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조가능 분야는 AFD가 중점 지원하는 분야에서의 연수와 훈련에 대해 공조하면서, 단계적으로 협력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적절하다.

KOICA가 오랜 ODA 사업으로 많은 경험을 축적한 공여국들과 공조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다.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KOICA에 불어로 현지인과 소통이 가능한 불어권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한국인 불어권 ODA 전문가 양성이나 모로코인 채용확대 등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서유럽 국가들의 사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KOICA가 중장기적으로 심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시경. 2003.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 및 투자환경에 관한 연구: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 24-1호. 한국중동학회. pp. 115-143

김성규. 2013. 『개도국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ODA연구. 한국국제협력단.

김종도. 2008. 「모로코 속담을 통한 의식구조연구」. 『중동연구』27권 1호

김정숙, 이한규. 2013. 「모로코 제6차 개정헌법과 마그레브 소수민족 베르베르인의 생존문제」. 『한국프랑스학논집』82집

김창건. 2014. 「마그레브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고찰 및 공적개발원조의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2014권 2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국가정보: 모로코』, KOTRA

박복영, 김준연, 이홍식. 2014. 「공적개발원조 중점지원국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국제통상연구』 19권 2호 2014년 6월

이명원. 2008. 「마그립 지역 영화를 통해 본 아랍인의 의식구조 연구」. 『중동연구』27권 1호

이브 라코스트 외. 2011. 『마그레브, 북아프리카의 민족과 문명』, 한울

이순학, 이홍식. 2012.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출을 진작시키는가?: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2012년 9월

임주인. 2009. 「모로코 이민자 정착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 『이베로아메리카』 11권 1호.

주 모로코 대사관. 2010. 모로코 개황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모로코, 2014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 및 수출전망』.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수출지원시스템

<국외문헌>

Achy, Lahcen. 2010. “Trading High Unemployment for Bad Jobs: Employment Challenges in the Maghreb.” Carnegie Papers. No. 3.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DE. 2014. Evaluation Conjointe des Opérations d'Appui Bugétaire au Maroc, Rapport Final.

AFD. 2010. Capitalisation des Demarches pour la mise en oeuvre des projet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Cas de la Tunisie et du Maroc.

AFD. 2014. “Le Modèle de Croissance marocain: opportunités et vulnerabilités.” juin 2014/no.14, Macroéconomie & Développement.

AFD. 2014. Les Activités du Groupe AFD au Maroc.

AfDB. 2012. Morocco: Country Strategy Paper 2012-2016, AfDB

AfDB. 2013. AfDB in the North Africa 2013.

AfDB. 2014. Socio-Economic Database 2014.

Agence de Développement Social Maroc. 2012. Rapport d'activité de l'ADS, Maroc.

Agenor, Pierre-Richard, Nihal Bayraktar, and Karim El Aynaoui. 2005. “Roads out of poverty: Assessing the links between aid, public investment,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Paper 3490.

Ali Chelbi et Yves Ficatier. 2010. Capitalisation des demarches pour la mise en oeuvre des projet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Cas de la Tunisie et du Maroc, AFD

Angel-Urdinola, Diego F, A. Semlali, and S. Brodmann. 2010. “Non-Public Provision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in Arab-Mediterranean Countries: An Inventory of Youth Programs.”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55673. Washington, DC: World Bank.

Auer, Peter, Umit Efendioglu and Janine Leschke. 2008.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round the World: Coping with th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2nd Edition. Geneva: ILO.

Ayadi, M, G. Boulila, M. Lahouel and P. Montigny (2005). “Pro-Poor Growth in Tunisia”,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Strategies, Paris, France

BAfD. 2011. “La pauvreté et l'inégalité en Tunisie, au Maroc et en Mauritanie.” Note Economique BAfD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2. Etude comparative sur les politiques d’exportation de l’Egypte, du Maroc, de la Tunisie et de la Corée du Sud, BAD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2. Maroc-Document de stratégie pays 2012-2016, BAD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3. “La recherche d’'une croissance inclusive en Afrique du Nord: une approche comparative.” Note économique. BAfD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014. Le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eveloppement en Afrique du Nord, Le Groupe de la BAD.

Banque Mondiale. 2006. Mémorandum économique pays: Promouvoir la croissance et l’emploi par la diversification productive et la compétitivité, Rapport No. 32948-MOR, Mars, Washington D.C.

Banque Mondiale. 2010. Cadre de Partenariat Stratégique pour le Royaume du Maroc 2010- 2013, Rapport No. 50316-MA, Janvier 2010, Banque Mondiale.

Banque Mondiale. 2011. Rapport sur le Développement dans le Monde: Conflits, Sécurité et Développement, Washington D.C.

Banque Mondiale. 2012. Rapport sur l'Etat d'Avancement du Cadre de Partenariat Stratégique pour le Royaume du Maroc 2010-2013, Rapport No. 67694-MA, mai, Washington D.C.

Banque Mondiale. 2012. Royaume du Maroc-Promouvoir les opportunités et la participation des jeunes, Rapport No. 68731-MOR, Juin, Washington D.C.

Banque Mondiale. 2013. L’emploi pour une prospérité partagée: le moment pour l’action au Moyen-Orient et en Afrique du Nord, Washington D.C.

Baraka N. et A. Benrida. 2005. La croissance économique et l'emploi, document de travail, 50 ans de développement humain au Maroc et perspectives pour 2025.

Bedossa B. 2013. Analyse de la situation économique et financière du Maroc: évaluation du risque pays et du risque souverain du Maroc, Compte-rendu de mission AMR,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Janvier.

Bibi, S. and R. Chatti. 2007. “Public Spending, Pro-Poor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Tunisia: A Multi-level Analysis”. In Ali Abdel Gadir Ali and Shenggen Fan (eds.), Public Policy and Poverty Reduction in the Arab Region, State of Kuwait: The Arab Planning Institute, pp. 259-319.

Breisinger C., O. Ecker, P. Al-Riff ai et Y. Bingxin. 2012. Beyond the Arab Awakening: Policies and Investments for Poverty Reduction and Food Security, Institut international de recherche sur les politiques alimentaires (IFPRI), Washington D.C.

Campante, Filipe R. and Davin Chor. 2012. “Why was the Arab World Posed for Revolution? Schooling, Economic Opportunities, and Arab Spr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6. No. 2. pp. 167-188.

Chaffai, M. E., Patrick Plane and Dorra Triki Guermazi. 2006.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Tunisian Manufacturing Sectors: Convergence or Catch-up with OECD members”. Working Paper Series, The World Bank.

Chemingui, M.A. and H. Bchir Mohammed. 2008. “Does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Matters for Poverty Reduction in Africa”. Background paper for for the International Policy Analysis Network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IFPRI), Washington, D.C.

Clément J-F. 1995. “Les effets sociaux du programme d’ajustement structurel marocain”, Politique étrangère n°4, 1003-1013.

Coordination Sud. 2012.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Solidarité Urgence Développement.

Cornelia Kaldewei y Ingo Pitterle. 2011. “Behavioural Factors as Emerging Main Determinants of Child Mortality in Middle-Income Countries: A Case Study of Jordan”. DESA Working Paper No. 103,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s Affairs. Available from: http://www.un.org/esa/desa/papers/2011/wp103_2011.pdf

Cour des Comptes. 2012. La Politique française d'aide au développement, Rapport Public Thématique

Dutta S. et B. Lanvin. 2013.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3, The Local Dynamics of Innovation, Cornell University, INSEAD, WIPO.

ETF (European Training Foundation). 2007. “The contribu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o Migration Development in Tunisia”. Research Report. Available from: http://www.etf.europa.eu/pubmgmt.nsf/(getAttachment)/5CD26BB43A026CD8C12573DB004D8AD2/$File/NOTE7B7KG6.pdf

EU, Europeaid https://ec.europa.eu/europeaid/node/450

FEMI SE. 2013. Mobiliser le capital humain sur l’’innovation en Méditerranée, FEMIP.

Fitch Ratings. 2013. Peer review: Moroccan Banks, September 2013.

FMI. 2013. Morocco: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13/110, Mai, Washington D.C.

Fortuny, Mariangels and Jalal Al Husseni. 2012. Labor Market Policies and Institutions: A Synthesis Report. The Case of Algeria, Jordan, Morocco, Syria and Turkey. Employment Sector Working Paper. No. 64. Geneva: ILO.

Gatti, Roberta, Diego F Angel-Urdinola, Joana Silva and Andras Bodor. 2011. The Challenges of Informalit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Overview.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Washington. DC: World Bank.

Gita Subrahmanyam and Vincent Castel. 2014. Labour market reforms in post-transition North Africa, AfDB Economic Brief.

Haut Commissariat au Plan, Royaume du Maroc. 2005. Les sources de la croissance économique au Maroc, Septembre, Rabat.

Hugounenq R. 2013. Le système des subventions au Maroc: quelques éléments de compréhension, Note interne,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Décembre 2013.

ILO. 2012. "Jobs and Livelihood at the Heart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LO Concept Note. Geneva: ILO.

IMF. 2009a.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09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unisia".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09b. "Statement of the IMF Mission on the 2009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unisia",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10. "Tunisia: 2010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Public Information Notice on the Executive Board Discussion;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unisia". IMF Country Report No. 10/282, Washington, D.C.

IMF. 2013. Morocco, Selected Issues. IMF

Isaksson, Anders and Thiam Hee Ng. 2006.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Cross-Country Analysis and Country Case Studies", UNIDO Working Paper, Vienna.

Keller, Jennifer and Mustapha K. Nabli. 2002. The Macroeconomics of Labor Market Outcomes in MENA Over the 1990s: How Growth Has Failed To Keep Pace With A Burgeoning Labor Market.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Washington. DC: World Bank.

Kim, Jung-Ho and Lee, Jin-sang. 2013. 「Export-driven Industrial Development in Morocco: Prospects for Korean-Morocco Partnership」. 『한국아프리카학회지』 39집

Lahouel, M.H. 2007. “The Success of Pro-Poor Growth in Rural and Urban Tunisi”. In T. Besley and L.J.Cord (eds.),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Pro-Poor Growth. Insights and Lessons from Countries Experiences. Palgrave Macmillan and the World Bank, pp. 199-218.

Lofgren, Hans and Carolina Diaz-Bonilla. 2010a. “MAMS: An economy-wide model for analysis of MDG country strategies . an application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Marco V. Sanchez, Rob Vos, Enrique Ganuza, Hans Lofgren, and Carolina Diaz-Bonilla (eds), Public Policies for Human Development. Feasible Financing Strategies for Achieving MDG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ondon: Palgrave/Macmillan.

Lofgren, Hans. 2010. “What determines the evolution of MDG indicators? A Selec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Development Prospects Group (DECPG),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Third Draft September 21).

Malik, Adeel and Bassem Awadallah. 2013. “The Economics of the Arab Spring.” World Development. Vol. 45. pp. 296-313.

Marc, Francois. 2013. Rapport General, no. 156 SENAT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Royaume du Maroc. 2012.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l’année budgétaire 2013, Rapport économique et financier, Rabat.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Royaume du Maroc. 2013.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l''année budgétaire 2014, Rapport économique et financier, Rabat.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Royaume du Maroc. 2013.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l''année budgétaire 2014, Rapport sur la dette, Rabat.

Ministère Fédéral Allemand de la Coopération Economique et du Devéloppement (BMZ). 2013. Maroc-Allemagne 50 ans de Coopération Ensemble, Nous Façonnons l'Avenir.

Natixis. 2013. “Maroc: des faiblesses à surmonter et des défis à relever pour une croissance plus équilibrée.” Flash Economie, Recherche Economique, juin.

Nehru, Vikram and Ashok Dhareshwar. 1993. “A New Database on Physical Capital Stock: Sources, Methodology, and Results”, Revista de Analisis Economica, Vol. 8, No. 1, pp. 37-59, June.

PNUD. 2013. Rapport sur le développement humain 2013 −L'essor du Sud: Le progrès humain dans un monde diversifié, Programme des Nations unies pour le développement.

Rahal Abdelouahed. 2012. Plan de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marocaine, Royaume du Maroc, Ministèr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es Nouvelles Technologies.

Said, Mona. 2001. "Public Sector Employment & Labor Merkets in Arab Countries: Recent Developments & Policy Issues". D. Salehi-Isfahani, ed. 2001. Labor and Human Capital in the Middle East: Studies of Labor Markets and Household Behavior. Reading, UK: Ithaca Press.

Sanchez, Marco V, Rob Vos, Enrique Ganuza, Hans Lofgren, and Carolina Diaz-Bonilla(eds). 2010. Public Policies for Human Development. Feasible Financing Strategies for Achieving MDG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ondon: Palgrave/Macmillan.

Sanchez, Marco V. 2004. Rising inequality and falling poverty in Costa Rica's agriculture during trade reform. A macro-micro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Maastricht: Shaker.

Sanchez, Marco V. and Giacomo Sbrana. 2009a. "Determinants of attendance in Jordan's education". Technical note prepared for the Project Assessing Development Strategie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 the Arab region,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s Affairs. Available from: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capacity/country_documents/jordan_sanchez_sbrana_2009.pdf

Sanchez, Marco V. and Giacomo Sbrana. 2009b. "Determinants of education attainment and development goals in Yemen".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Project Assessing Development Strategie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in the Arab region,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s Affairs. Available from: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capacity/yemen.shtml

Sbrana, Giacomo. 2009. “Technical note on the determinants of water and sanitation in Yemen”. Technical note prepared for the Project Assessing Development Strategies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in the Arab region, New York: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s Affairs. Available from: http://www.un.org/en/development/desa/policy/capacity/yemen.shtml

Sgard J. 2006. “Rapport sur le risque-pays du Maroc.” Document de travail n° 18,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Juin.

Soumaya Iraqui. 2012. Strategie Maroc Innovation, Cycle des Hautes Etudes pour le Développement Economique, CHEDE, Royaume du Maroc, Ministèr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es Nouvelles Technologies.

Touhami Abdelkhalek et Fouzia Ejjanoui. 2012. Inégalité et Polarisation des Dépenses des Ménages au Maroc: Evolution et Etat Actuel, Working Paper No. 696, Economic Research Forum

UNDP. 2004. Rapport national sur les objectifs du millenaires, Tuni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Vergne Clémence. 2014. “Le modèle de croissance marocain: opportunités et vulnerabilités.” Macroéconomie & Développement, AFD, juin 2014.

Vos, Rob and Marco V. Sanchez. 2010. “A Non-Parametric Microsimulation Approach to Assess Changes in Inequality and Poverty”. International Journal of Microsimulation 3(1): 8-23. Available from: http://www.microsimulation.org/IJM/V3_1/IJM_25.pdf

World Bank. 2003.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CPL-37820 SCL-3782A SCPM-3782S CPL-37830)”, Report No: 27171, Water Supply and Sewerage Project, Finance, Private Sector and Infrastructure Group,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World Bank. 2003. “Tunisia Poverty Update. Volume I: Main Re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2007. “Tunisia: Country Assistance Strategy Docu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2008. The Road Not Traveled: Education Reform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2013. Building Effective Employment Programs for Unemployed Youth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2013. Jobs for Shared Prosperity: Time for Ac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World Bank. 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3.

World Bank. 2014.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for The Kingdom of Morocco for the period FY2014-2017, Report No. 86518-MA, The World Bank.

Yousef, Tarik M. 2004. “Development, Growth and Policy Reform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ince 1950.”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8. No. 3. pp. 91-116.

<인터넷 홈페이지>

AFD, Maroc. http://www.afd.fr/home/pays/mediterranee-et-moyen-orient/geo/maroc

AfDB, Morocco Economic Outlook. http://www.afdb.org/en/countries/north-africa/morocco/morocco-economic-outlook/

EU, Europeaid, Morocco. https://ec.europa.eu/europeaid/countries/morocco_en

ILO, Key Indicators of Labor Market http://www.ilo.org/empelm/what/WCMS_114240/lang--en/index.htm

JICA, Morocco. http://www.jica.go.jp/morocco/english/

Knoema, Morocco. http://knoema.com/atlas/Morocco

Maroc.ma. http://www.maroc.ma/fr/content/la-liste-du-gouvernement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http://www.finances.gov.ma

Haut Commissariat au Plan. http://www.hcp.ma/

Ministèr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es Nouvelles Technologies. http://www.mcinet.gov.ma

Département du Commerce Extérieur. http://www.maroc-trade.gov.ma

Programme E-gouvernement. http://www.egov.ma

OECD, Morocco: Aid at a Glance. http://www.oecd.org/dac/stats/documentupload/MAR.JPG

Proparco au Maroc http://www.proparco.fr/Accueil_PROPARCO/regional-website/Portail-Maroc_1

World Bank, Morocco. http://www.worldbank.org/en/country/morocco

World Bank Group, Enterprise surveys. www.enterprisesurveys.org

부 록

[부록 1] 정량분석 방법의 분야별 지표 및 지표 출처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교육	Second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gross %*.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Quality of management schools	
	Internet access in schools	
	Availability of research and training services	
	Extent of staff training	
	Quality of primary education	
	Mean years of schooling	Human Development Index
	Expected years of schooling	
보건 의료	Tuberculosis cases/100,000pop.*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Business impact of tuberculosis	
	HIV prevalence, % adult pop.*	
	Business impact of HIV/AIDS	
	Infant mortality, deaths/1,000 live births*	
	Life expectancy/years*	
	Density of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HO
	Density of nursing and midwifery personnel per 1,000 population	
	Health expenditure, public (of GDP)	World Bank
	Mortality rate, under-5 (per 1,000 live births)	
	Maternal mortality ratio (national estimate, per 100,000 live births)	
	Improved sanitation facilities (% of population with access)	
	Hospitals per 10,000 population	
	Improved water source, rural (% of rural population with access)	
	Improved water source, urban (% of urban population with access)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농림수산	GCI Agricultural policy cost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3)
	Total area equipped for irrigation / Total L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Machinery & Equipment area of Agricultural area	
	Agriculture, value added (of GDP)	World Bank
	Fertilizer consumption (per hectare of arable land)	
	Cereal yield (kg per hectare)	
공공행정	Property rights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Diversion of public funds	
	Public trust in politicians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Judicial independence	
	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settling disputes	
	Efficiency of legal framework in challengin gregs.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Business costs of terrorism	
	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Organized crime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Ethical behavior of firms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0-10 (best)*	

분류		분야별 지표	자료 출처
산업에너지	산업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UNIDO(2010)
		Share of Medium and High-Tech Activities in Total MVA	
		Industry, value added	World Bank
	에너지	Quality of electricity supply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Elecricity production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1)
		Access to electricity	World Bank(2010)
		Alternative and nuclear energy	
인프라	교통 인프라	Quality of road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
		Quality of rail road infrastructure	
		Quality of port infrastructure	
		Quality of air transport infrastructure	
		Airtransport,registeredcarrierdeparturesworldwide	World Bank
	통신 인프라	Fixed telephone line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orld Tecolecommunicatio n/ICT Indicators(2013)
		Mobile cellualr subscriptions	
		Internet users	
		Fi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s	

[부록 2] 모로코 정성분석 상세결과

지표	분석 내용	결과
[공공행정]		4.85
정책타당성 (25%)	- 재스민 혁명 이후 공공행정시스템 재정비 필요 - 선도적 지방분권화와 공공행정 개혁 중 - NDS에 따라 향후 거버넌스 개선이 추진될 전망	5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시, 무역역량 강화사업과 같은 행정역량 강화와 행정의 정보화 등의 사업 지원희망	4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무역역량 강화사업 (2012-2017/295만불) - 모로코 산업통계 측정 및 활용 역량강화 사업(2014-2018/610만불)	5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으로 공공행정에 대한 기대수준 제고 - 모로코가 북아프리카 지역 내 경제 및 물류 거점지로 성장할 전망에 따라, 공공행정 능력배양이 적극 필요할 전망	5
[교육]		4.6
정책타당성 (25%)	- 모로코 정부는 청년실업과 낙후된 농촌개발을 위해 기술교육훈련에 정책적 의지 - 문맹율 감소에 대한 높은 정책적 의지와 AECID나 JICA 등도 문맹률 감소정책 적극권고 - 지역격차 해소 위해 공교육 적극 투자 전망	5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면담 시, 교육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 - 후속 Technical meeting과 세부 자료를 제공하여 KOICA와의 협력의지 표명 - 상공경제부 장관은 교육훈련 지원을, 외교부장관은 인력양성 및 연수 확대를 KOICA이사장에게 요청 - 교육부는 한국어를 중고등학교 정규교과목화 하려는 의지표명	5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카사블랑카 자동차직업훈련 지원사업(2010-2013/ 600만불) - 중등교사 IT활용교육 역량강화사업 (라밧시)(2008-2010/300만불	4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으로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제고 - 모로코가 북아프리카 지역 내 경제 및 물류 거점지로 성장할 전망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양성이 적극 필요할 전망	5

지표	분석 내용	결과
[산업에너지]		3.4
정책타당성 (25%)	- 에너지 해외의존도 97%로 막대한 재정소요 - 전력수요가 매년 8% 규모로 증가 - 전기생산 80%가 화력발전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높은 우선순위	4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상공경제부장관은 자동차·섬유 산업 육성 위한 기술협력을, 에너지 수자원부 장관은 수자원, 전력, 저개발지역 지질지형조사 및 지도작성 등을 KOICA이사장에게 직접 요청	4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태양광에너지 효율향상 연구 기반구축사업 (2012-2014) - 2015년 신규사업으로 세부강 유역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으로 산업에너지발전 기대수준 제고 - 현재까지 주로 유상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지원 - KOICA는 주로 연구개발 협력 등이 가능	5
[농림수산]		2.7
정책타당성 (25%)	- 농업분야는 모로코 경제성장과 연관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2012년 GDP의 14.4%, 전체고용의 40%가 농업에 종사) - 전체 농경지의 85.7%가 관개시설이 없는 상태 -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수산자원 풍족	4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면담 시, 농업부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단, 문해교육이나 지역개발 차원에서 농촌지역 개발사업 지원은 요청한 바 있음	2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KOICA가 수산물 양식 전문가 등 10명을 파견한 바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기술 공동개발 및 품종보호 등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 한 바 있음(2012)	3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으로 농림수산 발전을 통한 소득증대 기대수준 제고 - 현재까지 주로 유상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지원 - KOICA는 주로 연구개발 협력 등이 가능	1

지표	분석 내용	결과
[보건의료]		2.05
정책타당성 (25%)	- HIV/AIDS의 확산이 멈추지 않은 상태 - 말라리아 발병율도 증가추세	4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시, 보건의료 관련 지원요청 없었음	3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최근 10년 간 추진사업 내 동 분야 관련 사업 없음 - 향후 포트폴리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기대수준 제고 -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로 인한 영향 없음 - 우리나라 ODA 지원과는 큰 연계성을 찾기 어려움	1
[인프라]		1.9
정책타당성 (25%)	-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필요	3
수원태세 및 개발의지 (15%)	- 현지조사 면담 시, 인프라 관련 협력요청은 없었음	1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40%)	- 최근 10년 간 해당 분야 지원사업 없음 - 향후 관련 사업 추진예정 * 세부강 유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2015-2016/41.2억원) *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 및 관리 역량강화(2015-2017/2.26억원)	2
대내외 환경변화 및 국별 특수성 (20%)	- 재스민 혁명으로 인프라에 대한 기대수준이 제고되었으므로 항만, 도로, 교통, 철도 등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필요	1

Etude du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 au Maroc et Etablissement de Plan de Coopération

Consultant Local:

Professeur Driss BAAKIL
(Université de Hassan I. Maroc)

TABLE DES MATIERES

Chapitre 1 : Introduction

Section 1 Contexte et objet de l'étude

Section 2 Méthode, Composition et Champ l'étude

Section 3. Importance et limites de l'étude

Chapitre 2 : Etat général et Situation Actuelle du Maroc

Section 1 : Informations générales du Pays

1. Enquête générale de régime
2. Le statut politique
3. Situation économique
4. Le statut social et culturel

Section 2 : L'environnement pour le développement national

1. Situation Actuelle pour le Développement National
2. Les Difficultés pour le développement national

Section 3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1.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NDS)
2. Les stratégies sectorielles
3. Les pays appartenant à mécanisme et activités de coopération régionale

Chapitre 3 : Soutien de l'Etat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Section 1. La stratégie de soutien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1. Le Soutien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2. La stratégie de Soutien de Donateur Majeur
3. Les principales stratégies de soutien de L'organisation multilatérale
4. Les principales implications des activités de soutien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CHAPITRE 1 Introduction

Section 1 Contexte et objet de l'étude

Section 2 Méthode, Composition et Champ l'étude

Section 3. Importance et limites de l'étude

CHAPITRE 2 Etat général et Situation Actuelle du Maroc

Section 1 Informations générales du Pays

1. Enquête générale de régime

Se situant à la partie occidentale de l'Afrique du Nord, le Maroc est connu comme «Al Malghreb», l'ouest, en Arabe. La seule monarchie en Afrique du Nord, le Maroc est un mélange de cultures arabes, africaines, berbères et européennes. Différentes origines et cultures convergent dans le royaume.
Le Maroc a longtemps maintenu des relations diplomatiques, économiques et culturelles étroites avec l'Europe qu'elle continue d'approfondir. Le royaume du Maroc a la réputation d'état stable et tolérant . La stabilité politique à long terme est soutenue par de nouvelles réformes. La géographie joue un rôle clé dans la hausse des volumes d'échanges.

Le Maroc et le printemps arabe : Le pays a subit des changements importants ces dernières années, mais le royaume a maintenu sa tradition de stabilité sociale et politique, même au milieu des bouleversements les plus larges, notamment constatés dans certains pays de la région du Maghréb suite au printemps arabe. La transition politique au Maroc a été facilitée "par une tradition de pluralisme politique, la permanence de la monarchie (avec le Roi Mohammed VI perçu comme un réformateur et légitime parmi la population) et des réformes économiques et sociales qui ont débuté à l'accession du Roi au trône en 1999".
Il est à noter que le PIB non-agricole marocain, donc industriel et tertiaire, a cru de plus de 4%/an en moyenne depuis 2011, excepté en 2013, la stabilité ayant permis de soutenir les arrivées de touristes (10 millions en 2013) et d'investissements étrangers. Au Maroc la détérioration a été plus sévère avant de commencer à se réduire en 2013 (5,4% du PIB de déficit budgétaire et 7,5% de déficit des comptes courants) grâce notamment à une réforme fiscale, la bonne performance des nouveaux

secteurs exportateurs et des prix de l'énergie moins élevés. Une croissance rapide du PIB soutenue par les investissements directs étrangers, la modernisation de l'agriculture et le développement de nouveaux secteurs dans les services et l'industrie serait appréciée positivement. En revanche, une croissance plus faible que prévu et/ou un engagement moins déterminé sur les réformes serait apprécié négativement.

Cependant, le pays a bénéficié de prêts et d'aides publics et privés et bénéficie du soutien du FMI. Au Maroc, l'actuelle appréciation de perspective stable anticipe une réduction progressive des déficits jumeaux soutenue par des réformes continues. La poursuite possible du soutien du FMI après l'expiration de l'actuel programme en août 2014 doit pouvoir soutenir la politique de réformes A cet effet, la ligne de précaution monétaire et de liquidités de 6,2 milliards de dollars, soit 6% du PNB est un élément-clé de l'agenda des réformes, "mais les autorités n'entendent pas l'utiliser". Au Maroc, les banques sont restées relativement solides malgré les pressions de ces dernières années. Le chômage se situe à 9% et constitue un dossier social clé pour sa stabilité sociale. Les analystes du FMI tablent sur un taux de croissance de l'économie marocaine autour de 4,6% sur 2011 et une appréciation du même ordre pour l'année prochaine. Cette prospective est fondée en grande partie sur la hausse des cours du phosphate et des produits dérivés. Le contexte régional semble favoriser le Maroc aux yeux du rapport.

En effet, le document insiste sur une stabilité macroéconomique suffisante pour attirer les investissements et favoriser la création d'emplois dans le secteur privé.

Au Maroc, la charge de la Caisse de compensation a connu une hausse considérable par rapport aux prévisions du budget 2011. Le coût pour les finances publiques de ce type de soutien sera d'autant plus élevé que les cours des produits alimentaires devront se maintenir à un niveau élevé», prévoient les rédacteurs du rapport. La première conséquence des révoltes populaires était de plomber la reprise amorcée en 2010, après les effets de la crise mondiale de 2008-2009. Le FMI a dû revoir deux fois ses projections pour la région après le déclenchement de ces événements

Ainsi, le Maroc en tant qu'Etat arabe le plus occidental a parcouru un long chemin depuis le tournant du millénaire, et a connu de grands progrès au cours des deux dernières années, notamment le déploiement d'une nouvelle constitution en 2011 qui a introduit d'importantes réformes politiques, économiques et sociales.

2. Le statut politique

Le Maroc est la seule monarchie en Afrique du Nord. En Mars 2011, le roi a annoncé des plans de réforme constitutionnelle, ce qui était l'une des principales demandes des manifestants (mouvement du 20 Février, en l'occurrence). Pour ce faire, la monarchie a nommé une commission spéciale, dirigée par un expert en droit constitutionnel, chargée de recueillir les commentaires des parties politiques de la nation et de réviser la constitution de 1996.

La Commission a publié sa nouvelle version du document en mi juin, avant le référendum qui a eu lieu le 1 juillet 2011, celui-ci a connu un taux de participation significatif d'environ 74 %. Les réformes ont été approuvées par 98,5 % des suffrages exprimés. Malgré les récentes modifications apportées à la Constitution renforçant les pouvoirs du parlement et du gouvernement élu, la monarchie reste l'institution politique la plus puissante grâce à ses pouvoirs constitutionnels formels. Selon la Constitution, le roi est le chef de l'Etat, le commandant en chef des forces armées et le chef religieux du pays. Le roi dirige également la Cour suprême, qui est la plus haute juridiction du pays, ainsi que le conseil suprême de la magistrature, qui nomme les autres membres de la Cour suprême. Le roi et le parlement nomment chacun six des 12 membres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qui statue sur la conformité des lois à la constitution. Le monarque choisit également le président de la cour.

L'année 2011 a connu des changements avec la victoire électorale du parti islamiste : Parti du Développement de la Justice PJD, qui a eu 107 des 325 sièges disponibles.

Le parti a formé avec l'Istiqlal et plusieurs petits partis une coalition, que l'Istiqlal a quitté mi- 2013, pour être remplacé par le Rassemblement National des Indépendants.

Sur le plan administratif, le pays se dote en 2015 d'un nouveau découpage territorial, annoncé par le projet de régionalisation avancée de 2011. Il compte désormais 12 régions au lieu de 16 auparavant, régies par les gouverneurs régionaux (connu sous le nom walis) et, à un niveau inférieur, les préfectures, les provinces et les communes. Les conseils directement élus existent également dans la plupart des niveaux de gouvernement local. Chaque région est supervisée par un wali, qui est nommé par le roi. Actuellement, les pouvoirs régionaux sont limités à des questions

de planification et de zonage, même si en 2006, le pays a commencé la localisation de l'administration de la santé, permettant aux régions de prendre un plus grand contrôle de leurs installations locales et d'aider à mettre en place les services médicaux les plus avancés dans les zones rurales du pays.

La souveraineté du Maroc sur le Sahara occidental a été contestée depuis 1975, ce qui a joué un rôle majeur dans le modelage des affaires étrangères marocaines. Le Maroc a traditionnellement eu des relations pauvres avec l'Algérie, son pays voisin, en grande partie en raison des positions divergentes des deux pays concernant les questions du territoire.
L'Algérie soutient et héberge le Polisario, ainsi que des dizaines de réfugiés sahraouis. La frontière terrestre entre les deux pays a été fermée depuis 1994, et en Octobre 2013, le Maroc a retiré son ambassadeur en Algérie en réponse à des déclarations faites par le président algérien Abdelaziz Bouteflika alléguant des violations des droits humains.

3. Situation économique

La croissance économique s'est redressée en 2013

En 2013, le taux de croissance s'est établi à 4,4%, contre 2,7% en 2012, en raison principalement de la hausse de 20,4% de la valeur ajoutée du secteur primaire. Le secteur tertiaire a maintenu une croissance de 3,3% et la valeur ajoutée du secteur des industries manufacturières a progressé de 0,5%.
Principal vecteur d'activité, la consommation finale a progressé de 5,5% (après 4,6% en 2012). Cette hausse a pour origine le dynamisme de la consommation des ménages (5,6% après 3,6% en 2012), principalement grâce aux revenus résultant de la bonne campagne agricole. La consommation publique est restée porteuse malgré les hauts niveaux atteints les années précédentes (5,4% après 7,9% en
2012).
L'inflation s'est accélérée pour atteindre 1,9% (après +1,3% en 2012), intégrant l'effet de la décision d'indexer partiellement les prix intérieurs de certains produits pétroliers aux cours internationaux du baril de pétrole.

Les déficits extérieurs s'atténuent mais demeurent élevés

En 2013, les importations et les exportations ont baissé, respectivement de 2% et de 0,8% par rapport à l'année précédente. Le déficit commercial a ainsi reculé de 3,2%. La baisse des exportations est due au recul de 23,3% des ventes de l'Office Chérifien des Phosphates (les exportations hors phosphates et dérivés affichant une progression de 7,2%). La détente des cours du pétrole a permis de limiter la facture énergétique et ainsi le montant des importations.
En 2013 toujours, les recettes du tourisme et des transferts financiers des Marocains non-résidents ont enregistré une légère régression, respectivement de 0,7% et 0,9%. Les opérations courantes ont ainsi affiché un déficit en recul (7,7% du PIB) par rapport à 2012 (10% du PIB). A noter également la bonne tenue des recettes d'IDE, en progression de 25,2%.
Au total, le Maroc a achevé l'année 2013 sur un stock de réserves de change équivalent à environ 4 mois d'importations de biens et services.

L'objectif gouvernemental (révisé) de déficit budgétaire a été respecté

En 2013, le déficit budgétaire a été ramené à 5,4% du PIB (l'objectif -révisé- du gouvernement était de 5,5%), après avoir atteint 7,6% en 2012. La décision prise par les pouvoirs publics, le 16 septembre 2013, d'indexer partiellement les prix intérieurs de certains produits pétroliers liquides aux cours internationaux du pétrole a constitué un premier pas décisif de la réforme de la caisse de compensation.
En janvier 2014, le Maroc a franchi une nouvelle étape dans la réforme du système de compensation, en annonçant la suppression de la subvention à l'essence et au fuel industriel et sa réduction notable pour le gasoil. Un début de fiscalisation des grandes entreprises agricoles et une réforme de la TVA.

4. Le statut social et culturel

Avec ses 28 millions d'habitants, le Maroc est l'un des dix pays les plus peuplés du continent africain. Il figure parmi les mieux placés sur le plan économique, avec un niveau de vie deux fois plus élevé que la moyenne africaine. Largement tourné vers l'Europe, tant par sa proximité géographique que par son histoire, le Royaume

entretient avec elle, et en particulier avec la France, l'Espagne et l'Italie, des relations humaines, économiques et diplomatiques privilégiées. Il reste que le Maroc est confronté à de lourds défis, désireux d'entrer au prochain siècle sur la scène mondiale, dans un climat de profondes mutations sociales, économiques et démographiques.

Une transition démographique en demi-teinte

Un recul significatif de la mortalité s'est opéré au Maroc depuis le début des années 1960, avec un gain en espérance de vie de plus de vingt ans (47 ans en 1962, 70 ans en 1999), tandis que dans le même temps, la mortalité infantile baissait des deux-tiers. Le Maroc continue pourtant d'accuser des retards dans ce domaine. La survie de l'enfant y est encore précaire par rapport aux pays d'un niveau de développement comparable. La longévité des adultes est en constante amélioration, de plusieurs années supérieure à celle de l'ensemble des pays en développement.
Les progrès en matière d'alimentation, d'hygiène et de santé, principaux facteurs de recul de la mortalité, n'ont pas bénéficié à tous de façon égale. Les disparités sont flagrantes. La durée de vie moyenne des citadins est de six ans plus élevée que celle des ruraux, la mortalité infantile deux fois plus forte dans les zones rurales que dans les villes. Vivre à la campagne reste donc un facteur discriminant en termes de mortalité, ce qui traduit un déphasage équivalent dans tous les autres domaines. Les inégalités sont également régionales : la probabilité pour qu'un enfant décède avant son premier anniversaire est deux fois plus élevé s'il naît dans l'Oriental, le Centre ou le Centre-Sud que dans le Centre-Nord. Tous les Marocains ne sont donc pas encore égaux devant la vie.
Maroc et Tunisie, suivis de l'Egypte, ont pris le pas, en matière de transition féconde, sur l'ensemble des pays de l'Afrique continentale, en franchissant le seuil de quatre enfants par femme dans la première moitié de la décennie 1990, alors que la moyenne africaine était de 5,7 enfants. Au Maroc, la fécondité est descendue en dessous de trois enfants, avec 2,8 enfants par femme aujourd'hui, mais la situation demeure très hétérogène. A l'échelon national, les différences de fécondité entre milieu urbain et milieu rural s'estompent progressivement, avec un écart inférieur à deux enfants (2,3 et 4,1 enfants par femme respectivement sur la période 1995-97). Mais sur les quelque soixante circonscriptions administratives (provinces et

préfectures) que compte le Royaume, les écarts sont importants : à Casablanca, dans sa partie la plus aisée, les femmes avaient en 1994 cinq fois moins d'enfants que celles de la province fortement rurale et relativement démunie de Chefchaouen (1,4 et 6,9 enfants respectivement). Il est donc prématuré de parler d'un régime démographique marocain, une frange de la population restant encore à l'écart du processus de transition.

Une amélioration de la condition des femmes

Au Maroc, à l'instar d'autres pays arabes, mais aussi d'Asie, prévaut une préférence pour les fils. Selon la tradition, un héritier assure la pérennité de la lignée et la préservation du patrimoine familial. Il a aussi un rôle traditionnel de soutien envers ses parents pendant leur vieillesse, renforcé aujourd'hui du fait des déficiences des systèmes de retraites. Ce trait culturel n'engendre cependant pas d'inégalités flagrantes ni systématiques à l'égard des filles, tant sur les plans de la santé ou de l'alimentation, par exemple, et l'avantage que la nature leur concède en termes de survie (mortalité infantile, espérance de vie) est respecté au Maroc. La différence est bien visible en revanche dans d'autres domaines, notamment en matière d'éducation. S'il est à peu près égalitaire en milieu urbain, l'accès à l'instruction est en effet extrêmement inéquitable en milieu rural, où les trois-quarts des garçons d'âge scolaire, mais moins d'une fille sur deux, fréquentent l'école.

La femme marocaine reste lésée dans beaucoup de domaines, et très dépendante de ses réseaux familiaux : une femme sur trois exerce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plus d'une sur deux est analphabète, elle est peu représentée dans l'enseignement secondaire ou supérieur. Ces entraves à son émancipation s'accompagnent de pratiques sociales discriminatoires, telles que les mariages arrangés, la répudiation, ou la stricte ségrégation dont elle est victime dans la vie publique. D'importants progrès sont pourtant enregistrés : un net recul du mariage et de la procréation chez les très jeunes femmes, un mariage de plus en plus tardif (19,6 ans en 1960, 26,1 ans en 1994), une pratique de la contraception de plus en plus en plus fréquente (19% des femmes mariées en 1980, 56% en 1996), et les progrès notables accomplis en matière de santé reproductive témoignent d'une amélioration sensible de sa condition.

La médiatisation, l'instruction et les liens étroits entretenus entre les Marocains de la diaspora et leur famille restée au Maroc ont aussi œuvré en faveur de l'amélioration de la condition des femmes. L'amélioration peu à peu des normes sociales, et leur diffusion dans leur environnement ont contribué à l'accélération de la transition démographique au Maroc, mais aussi, en favorisant les transformations sociales, à la réduction des disparités entre hommes et femmes, dans tous les domaines.

Les projets élaborés par les autorités marocaines - avec la collaboration de plus en plus fréquente du secteur non gouvernemental - dans le souci de favoriser la promotion et l'insertion sociale des femmes, qui relèvent de domaines aussi divers que la protection juridique, l'éducation,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la santé, la création d'infrastructures de relais dans l'éducation des enfants (crèches, écoles…), ont commencé à donner leur fruit. Ces initiatives se heurtent à la rigidité des comportements sociaux qui lèsent les femmes. Leur participation aux prises de décision publiques et leur présence à des postes à responsabilité, n'a pas atteint le niveau souhaité.

La conscience du fait que le développement, sous ses diverses formes, requiert la promotion des femmes, est réelle, mais l'évolution de leur rôle et de leur condition est lente.

L'alphabétisation, une priorité

Depuis son indépendance, le Maroc a accordé une priorité au secteur de l'éducation, en lui consacrant une part importante de son PIB, et a réalisé des progrès indéniables dans ce domaine. Quatre décennies n'ont cependant pas suffi à atteindre l'objectif de généralisation de l'enseignement de base à l'ensemble des enfants d'âge scolaire, ni à éradiquer l'analphabétisme.

Malgré une régression sensible, l'analphabétisme demeure extrêmement répandu : 90% de la population en 1960, 55% en 1994. Il est essentiellement le fait du milieu rural (75% contre 37% en milieu urbain), et touche surtout les femmes. Le Maroc accuse encore un retard important en matière d'alphabétisation par rapport aux autres pays en développement, y compris aux autres pays arabes.

Depuis le début des années 1990, des initiatives ciblées sur le milieu rural, sur les femmes et les filles, cherchent à rattraper les retards accumulés. Institutionnellement, elles se sont traduites par le lancement de projets tels que le Projet de Promotion de la Scolarisation des Filles, mis en place à partir de 1992, ou par la création, en 1993,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utte contre l'Analphabétisme. Des campagnes d'envergure visant à sensibiliser les marocains aux bénéfices de la scolarisation de leurs enfants, en particulier des filles, ont été menées en collaboration avec divers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et des efforts ont été consentis afin d'alléger les dépenses d'éducation des familles (gratuité des fournitures, création de cantines scolaires…). Mais les programmes d'alphabétisation lancés ces dernières années ont surtout touché les femmes urbaines, et se sont révélés défaillants dans les zones rurales. Malgré les ressources mobilisées en faveur de l'éducation, les progrès réalisés restent modestes : la qualité de l'enseignement laisse encore à désirer, les groupes les plus défavorisés (ruraux, filles...) accèdent encore difficilement à l'école, et la quittent bien souvent avant même d'avoir atteint le seuil minimum de connaissances prévenant le retour inéluctable à l'analphabétisme.

Des conditions de vie de moins en moins précaires

La pauvreté endémique recule au Maroc, mais une frange de sa population reste en situation de grande précarité. Elle sévit surtout en milieu rural, où près d'une personne sur deux est jugée vulnérable, car susceptible de passer à tout moment en dessous du seuil de pauvreté. Le milieu urbain n'est pas épargné : un tiers de sa population court ce risque. Ce sont au total 11 millions de personnes exposées.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vie passe bien sûr par l'éradication de la pauvreté, mais aussi par la prise en compte de facteurs multiples.

L'aménagement du territoire, la création d'infrastructures et le développement social sont l'objet d'efforts importants, qui ne parviennent pourtant pas à faire face à la croissance démographique et urbaine rapide que connaît le Maroc depuis trois décennies, d'autant qu'il est tenu à la fois de résorber les déficits accumulés et de prévenir les besoins futurs. Il s'agit là d'un double défi qu'il s'efforce de relever.

La précarité des situations individuelles se situe d'abord dans le domaine de l'emploi. Résultat de performances économiques insuffisantes, de la croissance démographique et de l'urbanisation galopante des dernières décennies, le chômage augmente au

Maroc : il touche aujourd'hui près d'un actif sur cinq en milieu urbain, plus d'un sur dix en milieu rural. A l'instar des pays industrialisés et, de plus en plus, des pays en développement, le pays doit affronter en particulier une montée du chômage des jeunes, des actifs diplômés et du chômage de longue durée. On assiste de ce fait, dans les villes surtout, au développement d'un chômage structurel auquel pallie en partie le secteur informel, avec l'apparition d'activités précaires ou marginales. Ce secteur, qui emploie une main d'œuvre jeune, et souvent peu ou pas qualifiée, joue le rôle de régulateur du marché du travail, surtout en période de crise. Mais son développement accroît la précarisation de l'emploi, d'autant qu'il n'obéit généralement pas à la législation du travail.

Si le chômage reste au Maroc un phénomène essentiellement urbain (trois actifs au chômage sur quatre vivent en ville), c'est paradoxalement parce que les villes génèrent davantage d'emplois, et attirent donc la population au chômage. L'emploi rural est en effet encore largement dominé par l'agriculture (qui emploie à elle seule près de 80% des actifs ruraux), et très tributaire de ses résultats. Ainsi, les crises climatiques non maîtrisées, telles les sécheresses de 1994 et 1995, provoquent un exode rural massif qui contribue à la hausse du chômage dans les villes. Mieux former sa main d'œuvre, développer ses infrastructures pour libérer la production agricole des contraintes climatiques, et améliorer sa compétitivité à l'échelon international sont autant de priorités que se fixe le Maroc afin de relever le défi du chômage, qui s'annonce comme l'un des plus lourds de ces prochaines années.

La précarité des individus se situe également sur le plan alimentaire, le Maroc n'étant pas aujourd'hui en mesure d'assurer son autosuffisance dans ce domaine (en particulier en produits de base tels que les céréales, l'huile, le sucre…) ni même, y compris par les importations, de satisfaire entièrement la demande exprimée. Les fortes fluctuations de la production agricole nationale dues aux aléas climatiques, des capacités limitées de stockage des récoltes et la faible diversité des denrées produites, sont autant de facteurs d'insécurité alimentaire pour le pays.

L'accès aux denrées alimentaires est par ailleurs inégalitaire, tant sur le plan de la qualité (diversité, apports nutritionnels) que de la quantité. Entre 1970 et 1984, la qualité du régime alimentaire s'est améliorée en milieu urbain, mais elle s'est détériorée en milieu rural − phénomène qui n'est cependant pas spécifique au Maroc. La moitié des ménages marocains (2 millions au total) sont considérés comme

vulnérables car exposés au risque d'insécurité alimentaire. Un enfant sur six en milieu urbain, mais presque un sur trois en milieu rural, est encore touché par des retards de croissance dus à la malnutrition. Des régimes alimentaires souvent mal équilibrés, résultat de conditions socio-économiques médiocres et d'habitudes alimentaires peu diversifiées, sont à l'origine de déficiences nutritionnelles débouchant sur certaines pathologies chroniques (anémie, goitre…).

Le chemin conduisant à la sécurité alimentaire au Maroc est encore long, mais la distance parcourue en ce domaine durant les dernières décennies a tout de même été considérable.
Aujourd'hui, le taux d'accroissement des disponibilités alimentaires a dépassé celui de la population, ce qui atteste d'une amélioration globale des régimes alimentaires et incite à l'optimisme. Le Maroc ne semble pourtant pouvoir, à terme, garantir la sécurité alimentaire de sa population qu'à travers les échanges commerciaux avec l'extérieur, en augmentant le volume de ses importations. Il lui faudra pour cela exporter davantage afin de prévenir un trop grand déficit de sa balance commerciale.

L'une des priorités des autorités marocaines est le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d'aménagement, étape préliminaire nécessaire à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sanitaires de la population. Le constat actuel est lourd. L'électrification des logements, en passe d'être généralisée dans les villes (80% des ménages), ne concerne qu'un ménage rural sur dix. La dispersion de l'habitat en zones rurales reste une entrave majeure au développement de ses infrastructures : moins d'une personne sur cinq y a accès à l'eau potable, un ménage sur vingt dispose de l'eau courante dans son logement, et seulement une personne sur cent est raccordée aux réseaux d'assainissement. L'habitat jugé précaire ou insalubre concernerait un cinquième de la population urbaine, et les trois-quarts de la population rurale.

Le Maroc a engagé diverses actions afin de combler ces retards, dont des projets de construction de logements sociaux dans les villes destinés aux catégories sociales à faibles revenus. La population des bidonvilles a ainsi été ramenée de 13% en 1982 à moins de 7% en 1992. Il faut en outre reconnaître le mérite de ne pas seulement chercher à pallier le manque de logements par des constructions anarchiques, inesthétiques, comme cela se produit dans la plupart des mégalopoles des pays en

développement. Le Maroc manifeste en effet le souci de réhabiliter et préserver l'habitat ancien (médina, qsour, qasbah), pour l'intérêt historique qu'il représente.

Un éventail de programmes a été mis au point dans le but de développer les infrastructures rurales. Un projet d'électrification devrait, d'ici 2010, assurer le raccordement aux réseaux du tiers de la population marocaine : un programme d'approvisionnement en eau potable, mis en œuvre en 1995, devrait, dans sa phase finale, toucher 11 millions de bénéficiaires. Le désenclavement des zones rurales, par la construction d'infrastructures routières, fait également l'objet de programmes.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vie passe aussi par celle des performances du secteur de la santé. La densité médicale augmente mais demeure insuffisante, surtout en milieu rural, et il reste nécessaire de développer les programmes de prévention et de lutte contre les maladies, tout en renforçant l'offre de soins. Des initiatives parallèles, dépassant le domaine de la santé stricto sensu, se développent aussi, en particulier en ce qui concerne la protection sociale, la prise en char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ou l'insertion des enfants en situation de rupture sociale ou familiale, afin d'enrayer la marginalisation de certaines catégories de la population.

Ces dernières années, les initiatives du Ministère de la Santé et d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afin de pallier les lacunes du système de santé se sont multipliées. Une forte mobilisation sociale et les efforts financiers consentis ont permis d'enregistrer des progrès notables, notamment en matière de prévention des maladies infantiles (poliomyélite, rougeole, diphtérie, coqueluche) et de réduction des risques liés à la maternité. La couverture vaccinale des enfants a ainsi atteint près de 90% en 1997, sans distinction de sexe. Un plan quinquennal de lutte contre les maladies sexuellement transmissibles, ciblé sur les populations à risque (prostitué(e)s, toxicomanes…) a été mis en place. Des programmes d'envergur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reproductive, tels que le Programme National de Planification Familiale ou la Stratégie Nationale de Maternité Sans Risque, ont permis d'augmenter la prévalence contraceptive, en particulier en milieu rural, de développer l'utilisation de moyens de contraception longue durée et d'améliorer de la qualité des services sanitaires et sociaux. Ils visent également à améliorer la surveillance périnatale (grossesse, accouchement), la qualité des soins obstétricaux et la prise en charge globale des

soins de santé maternelle.
D'autres programmes touchant à la réduction de la mortalité néonatale et infantile (lutte contre les maladies diarrhéiques, les maladies de carence, les infections respiratoires aiguës…) ont sensiblement amélioré les conditions sanitaires des enfants. Mais les actions entreprises en faveur la santé maternelle et infantile demeurent insuffisantes : les services de pédiatrie se développent, mais sont surtout concentrés dans les zones urbaines, la mortalité maternelle reste élevée, et l'accès aux soins prénatals trop rare.

Vers une restructuration des modes de financement social

La baisse rapide de la fécondité et le recul de la mortalité s'accompagnent de changements dans la structure de la population et dans la composition des ménages, modifiant ainsi progressivement les rôles et les attentes de chaque génération à l'égard des plus jeunes ou des plus moins jeunes.
Le Maroc, avec plus d'un tiers de sa population qui a de moins de 15 ans et 5% de 65 ans ou plus, a une population jeune. Il compte cependant, avec la Tunisie, parmi les pays du continent africain dans lesquels le processus de vieillissement est le plus avancé. Le problème du vieillissement ne présente pas encore d'urgence absolue, mais se profile imperceptiblement. Entre 1960 et 1994, la population des « vieux » et des « non-vieux » a crû à des rythmes semblables, autour de 2,5% par an. Depuis 1994, les écarts vont croissant. Au cours des cinq dernières années, les premiers se sont accrus à un rythme moyen de 4%, 2,5 fois plus que vite que le reste de la population. Dans trente ans, le différentiel de croissance devrait s'établir dans un ratio de 6,5 à 1, portant, à cet horizon, la proportion de 65 ans ou plus à 8%.

La famille a longtemps été l'institution sociale privilégiée destinée à répondre aux besoins des personnes âgées. L'efficacité des solidarités familiales dans ce rôle, leur coût social modique, et le faible poids démographique des personnes âgées ont fait que, jusqu'à présent, les autorités marocaines n'ont pas eu à intervenir en tant qu'institution de relais. Modernisation sociale (participation croissante des femmes aux activités hors du foyer, la rupture de la co-résidence ou de la proximité parents-enfants en raison de l'exode rural ou des migrations outre-mer, individualisme croissant) et diminution du nombre d'enfants, remettent en cause le fonctionnement

des solidarités intergénérationnelles. L'élargissement de la couverture des personnes âgées par les différents régimes de retraite devra donc très vite venir en renfort à la famille pour assurer leur prise en charge. Dans cette perspective, des efforts consistant notamment à instaurer le versement d'une pension de retraite minimale ont été faits depuis milieu des années 1990.

Les modes du financement social sont appelés à changer, non seulement en ce qui concerne la prise en charge des personnes âgées, mais aussi de celle de toute une frange de la population qui était jusqu'à présent largement dépendante des transferts financiers provenant des émigrés. Par les transferts de leur épargne, les émigrés ont participé à l'entretien de plusieurs milliers de familles restées dans le pays, et ainsi contribué à la réduction des disparités sociales et au recul de la pauvreté. Or, ces transferts tendent à se réduire, non seulement parce que l'émigration est de plus en plus contrôlée et sélectionnée, mais aussi par l'effet de l'arrivée des enfant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générations d'émigrés à l'âge adulte. Ceux-ci s'arriment de plus en plus à leur pays d'accueil, souhaitant bien souvent s'y installer de façon durable, et ne témoignent plus qu'une solidarité ponctuelle à l'égard de leur famille restée au Maroc. L'immigration a au cours des dernières décennies notablement contribué à l'atténuation du chômage, à l'entrée de devises, et à l'alimentation de l'investissement. Le Maroc, dans sa politique globale de développement, devra trouver d'autres voies que le transfert automatique de l'épargne de ses émigrés pour préserver les liens avec la diaspora et les bienfaits, notamment économiques, qu'elle est à même de lui fournir.

Section 2 L'environnement pour le développement national

1. Situation Actuelle pour le Développement National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inscrit elle aussi dans les préoccupations nationales, à travers des programmes tels que la Stratégie 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ou le programme Action 30. La désertification et, à une plus grande échelle, la déforestation, progressent rapidement au Maroc où, comme dans nombre d'autres pays en développement, la pression démographique pèse de plus en plus lourdement sur l'environnement. Le pâturage

intensif, voire parfois anarchique lorsque les troupeaux sont laissés en liberté, le défrichage massif d'immenses étendues boisées pour satisfaire aux besoins grandissants en bois de chauffage, matériaux de construction, fourrage, extension des terres arables, urbanisation galopante… ont, dans certaines régions, un effet véritablement dévastateur.

Chaque année, 25 000 hectares de forêts disparaissent. Cette déforestation massive entraîne de graves problèmes d'érosion du sol, dont résultent l'appauvrissement rapide de la terre, la détérioration des rendements des surfaces agricoles, et donc l'accroissement de la pauvreté rurale.

Soucieux de préserver l'environnement, la faune et la flore, le Maroc crée des sites protégés et des réserves naturelles. Des programmes de réintroduction d'espèces animales ou végétales en voie de disparition sont en cours. Dans le Sud du pays, les autorités ont mis en œuvre des mesures visant à freiner la désertification menaçant les palmeraies et les zones habitées. Un plan national ambitieux consiste à planter des arbres en nombre, afin de satisfaire à terme la consommation des industries nationales, et des quotas d'abattage légal d'arbres ont été établis pour enrayer la déforestation. Des actions d'éducation, menées pour la plupart avec le concours des organisations non gouvernementales, ont été lancées dans le but de sensibiliser l'opinion aux problèmes de l'environnement, en particulier dans les écoles.

Le souci de préserver l'environnement relève aussi de la volonté d'améliorer la gestion des sols, dans le but de maintenir l'équilibre entre les hommes et les ressources. Entretenir les forêts, créer des infrastructures d'irrigation, ménager les ressources naturelles et, plus largement, protéger l'ensemble des écosystèmes, est nécessaire à l'économie marocaine, qui tire de la nature une part non négligeable de ses ressources. Les forêts du Maroc procurent par exemple la matière première de nombreuses industries (secteur du papier, du bâtiment, de la scierie, de l'artisanat, production de liège, de caoutchouc…). Divers programmes de lutte contre l'érosion des sols, de protection des forêts, de mise en valeur du patrimoine naturel et de développement de l'agriculture irriguée sont mis en œuvre à ces fins.

2. Les Difficultés pour le développement national

Partant de l'idée que les questions touchant à l'environnement ne peuvent être confinées dans un Etat, le Maroc a choisi de procéder par étapes en privilégiant la coopération dans différents domaines : couche d'ozone, désertification, modification climatique, etc. Le Maroc a donc adhéré à plusieurs instruments. Toutefois, la mise en œuvre présente des forces et des faiblesses. Les faiblesses sont dues principalement au système dualiste qui caractérise le droit interne et qui engendre des retards dans l'application des législations. Les retards sont aussi dus aux problèmes de traduction des textes internationaux.

Le Maroc est un pays extrêmement diversifié, autant par ses types humains, ses sites naturels ou son patrimoine architectural, que par son parler, sa musique ou sa cuisine. Bordé par la Méditerranée, l'Atlantique et le Sahara, il est aussi occidental qu'oriental : les immensités brûlées de la péninsule arabique sont évoquées par ses paysages désertiques, tandis que ses massifs forestiers rappellent ceux de l'Europe méridionale.

Riche et contrasté, cet environnement est aussi, de plus en plus, l'objet de multiples atteintes, qui dégradent sa qualité et menacent son intégrité. Le Maroc connaît en effet des problèmes écologiques d'ampleur variables, liés à la fois aux facteurs naturels et aux influences humaines. Il doit faire face, en particulier, à la déforestation, aux surpâturages, à l'érosion, à la désertification, à l'ensablement, à l'amenuisement des terres cultivables, à l'urbanisation incontrôlée, à la surdensité humaine dans certaines régions, à la dégradation de patrimoine culturel, à la pollution industrielle, agricole, domestique, etc.

Face à ces problèmes environnementaux, quels remèdes juridiques offre la législation environnementale ? Le droit, ayant en général vocation à réguler les rapports sociaux, et censé résoudre les conflits qu'ils engendrent, est-il aussi en mesure de relever le défi écologique ? Si sur le plan théorique la réponse à cette question demeure, aux yeux d'une partie de la doctrine notamment marocaine largement incertaine, l'autre étant divisée quant au rôle, que le droit peut jouer en matière d'environnement.

Une approche du droit dans son rapport à l'environnement, fût-elle principalement axée sur l'examen d'un système juridique national –en l'occurrence le droit marocain-, resterait assurément fort incomplète, si elle omettait de prendre en compte un aspect essentiel de cette relation : sa dimension internationale. Car, de même que l'environnement ne peut être artificiellement confiné dans les limites territoriales d'un Etat, de même sa protection juridique ne peut être valablement assurée par le recours au seul droit national d'un tel Etat. C'est dire que droit interne et droit international sont appelés à se compléter, à s'imbriquer, à conjuguer leurs apports respectifs, au bénéfice d'une cause commune : la saine gestion écologique de la planète Terre.
Section 3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1.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NDS)

La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contient un programme d'action visant à mener des initiatives à court terme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humain et institutionnel. Ces initiatives incluent des programmes destinés à promouvoir la productivité, la diversification de la base de production, le développement de systèmes de santé et d'enseignement concurrentiels, le renforcement et l'amélioration des institutions publiques et le développement de la main-d'œuvre nationale, entre autres.
La NDS est le résultat de longues consultations entre le gouvernement, le secteur privé et la société civile.

L'objectif de la NDS est de trouver un équilibre entre les défis susmentionnés et les besoins de développement. La NDS vise en particulier à identifier les défis et objectifs majeurs en termes de développement. Elle vise également à assurer une cohérence stratégique entre les plans de développement nationaux et le budget global, et à transformer la plate-forme institutionnelle pour passer de l'adoption de projets de développement sur une base ponctuelle à une planification tournée vers l'avenir et axée sur les résultats. La NDS vise aussi au développement institutionnel du secteur public afin de renforcer la capacité de ce dernier à mettre en œuvre les programmes de modernisation et de développement envisagés et à apporter une réponse appropriée aux questions intersectorielles. Enfin, elle a également pour objectif d'établir un cadre garantissant des ressources (naturelles, humaines, financières) suffisantes pour permettre la mise en œuvre effective des plans et programmes qu'elle prévoit.

Les programmes et projets contenus dans la NDS reflètent les priorités du pays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À cet égard, la NDS définit les objectifs spécifiques suivants:

o Développement économique: La priorité est donnée aux dépenses effectuées au profit des infrastructures, de la population et des institutions.

o Développement humain: le pays doit continuer à investir massivement dans des systèmes de santé et d'enseignement modernes et conformes aux normes internationales, ainsi qu'à renforcer les capacités et les compétences de la main-d'œuvre et à développer les capacités humaines nécessaires à la recherche-développement dans les domaines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o Développement social: les travaux du gouvernement devraient viser à promouvoir les valeurs familiales, à élaborer un système efficace de protection sociale, à développer les institutions démocratiques, à prendre des initiatives pour renforcer l'autonomisation des femmes dans les domaines économique et politique, à adopter des mesures pour préserver l'héritage et la culture du pays, à renforcer l'identité arabe et islamique du pays et à encourager les activités sportives et des modes de vie plus sains.

o Développement environnemental: l'objectif est de mettre en place un système de gestion environnementale compatible avec la croissance économique, d'encourager la rationalisation de la consommation d'eau et de préserver les ressources rares grâce à une utilisation durable de celles-ci. Le gouvernement s'est engagé à améliorer la qualité de l'air, à réduire les déchets et à développer le recyclage, à faire tout son possible pour préserver l'héritage et la biodiversité du pays, à adopter une conduite et des valeurs favorables à l'environnement et à participer aux programmes de coopération régionale et internationale qui encouragent les technologies vertes.

Selon la NDS, la mise en œuvre réussie des programmes et projets stratégiques prévus dépend des programmes de modernisation et d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u secteur public, ainsi que du développement d'une culture de l'innovation et d'une gestion axée sur les résultats, de l'amélioration de la prestation de services publics et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organismes publics.

La NDS définit le processus visant à favoriser la prospérité économique, l'objectif général étant de répondre aux besoins de la génération actuelle sans compromettre la capacité des générations futures à répondre aux leurs.

D'après la NDS, une économie diversifiée serait plus stable et donc mieux à même de créer des emplois et des possibilités pour la prochaine génération.

Les objectifs du Millénaire pour le développement (OMD) constituent un plan approuvé par tous les pays du monde et par toutes les grandes institutions mondiales de développement. Ils sont répartis en huit catégories. il s'agit entre autres de:

1. Réduire l'extrême pauvreté et la faim
2. Assurer l'éducation primaire pour tous
3. Promouvoir l'égalité des sexes et l'autonomisation des femmes
4. Réduire la mortalité des enfants de moins de cinq ans
5. Améliorer la santé maternelle
6. Combattre le VIH/SIDA, le paludisme et d'autres maladies
7. Assurer un environnement durable
8. Mettre en place un partenariat mondial pour le développement

Depuis l'adoption de cette déclaration par le Maroc en 2000, une série de rapports ont été élaboré par le Haut-Commissariat du Plan (HCP) en coordination avec les des sept Agences du système des Nations Unies (PNUD, UNFPA, UNICEF, OMS, CEA, ONUFEMME, ONUSIDA).

Description du niveau de développement au point de vue de l'OMD (Objectif du Millénaire pour le développement du PNUD)

Objectif 1:
En ce qui concerne le premier objectif millénaire pour le développement, qui consiste à réduire la pauvreté et la faim, il semble clair d'après les données ci-dessous que la pauvreté et la vulnérabilité au niveau national (urbain et rural) ont baissé de manière significative pendant la période 2001-2008.

La pauvreté absolue est passée de :

- 6,7% à 3,6% au niveau national ;
- 2,3% à 1,3% en milieu urbain ;
- 12,3% à 6,7% en milieu rural.

La pauvreté relative de :

- 15,3% à 8,8% au niveau national ;
- 7,6% à 4,7% en milieu urbain ;
- 22,0% à 14,2% en milieu rural.

La vulnérabilité de:

- 22,8% à 15,9% au niveau national ;
- 16,6% à 11,7% en milieu urbain ;
- 30,5% à 21,4% en milieu rural.

Cela dit que la pauvreté absolue a été réduite de 41,2%, la pauvreté relative de 42,5% et la vulnérabilité de 30,3%. (page 15)

Aussi, depuis 2004 le Maroc a pu tracer une cartographie de pauvreté, qui a permis non seulement de cibler les programmes sociaux, mais aussi d'évaluer la dynamique et la répartition géographique de la pauvreté. La cartographie de 2007, montre que la baisse de la pauvreté entre 2004 et 2007 a été plus grande dans les communes les plus pauvres, celles ayant bénéficié de l'INDH (page 16). De plus, on constatait une augmentation de la consommation dans les ménages marocaines dû à l'évolution positif du PIB par habitant entre 2001 et 2007, chose qui a contribué à la baisse des inégalités sociales. (page 17)

Malgré les efforts du Royaume du Maroc en matière de réduction de pauvreté et de vulnérabilité, il reste deux défis majeurs à relever. Il s'agit d'abord de travailler d'une approche de continuité et pérenniser les efforts dans la lutte contre la pauvreté et la faim. Aussi il faut investir dans les éléments qui portent sur la baisse de l'inégalité sociale. (page 17)

Objectif 2:

Le 2ème objectif millénaire de développement consiste à garantir l'éducation primaire pour tous. Ici on parle des taux de la scolarisation primaire pour les enfants entre 6 et 11 ans, et les taux d'alphabétisation.

Certaines mesures ont été entreprises par le gouvernement marocain afin de faire face aux faibles impacts des politiques suivies jusqu'à l'année 2000. Parmi ces mesures qui ont contribué fortement à l'objectif 2, la mise en place d'une charte nationale de l'éducation et de formation en 2000 et l'intensification des efforts de la mise en œuvre de cette charte en 2008 par le plan d'urgence, qui avait pour but d'accélérer les recommandations de la charte nationale de l'éducation et de formation.

En ce qui est plan d'urgence (lancé au début de l'année scolaire 2008-2009), il vise en priorité le développement du préscolaire, du primaire et du secondaire ainsi que la réhabilitation des établissements scolaires au niveau qualité et quantité. Il vise aussi l'amélioration continue de la qualité, la promotion de l'excellence et de la réussite scolaire,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efficient, mais aussi l'instauration des outils de gouvernance à tous les niveaux et le développement d'une gestion stratégique des ressources humaines.

Globalement, les efforts déployés ont permis une nette amélioration du taux de scolarisation, et d'alphabétisation particulièrement en milieu rural. (page 22)

- Taux de scolarisation des enfants entre 6 et 11 ans s'est développé de 52,4% en 1990 à 90,5% en 2009
- Taux d'alphabétisation de la population âgée de 15-24 ans s'est développé de 58% en 1994 à 79,6 en 2009

Objectif 3:

Le 3ème objectif millénaire de développement repose sur la promotion de l'égalité des sexes et l'autonomisation des femmes. Il faut dire que le Maroc a parcouru un chemin assez important en matière de parité et égalité des sexes. Selon le rapport de l'HCP, L'indice de parité entre les sexes a atteint en matière d'éducation, en 2008/2009, 89% au primaire, 80% au secondaire collégial, 97% au secondaire

qualifiant et 90% au supérieur.
En matière d'emploi, la participation réelle de la femme a été jugée insuffisante. C'est ainsi qu'elle représente un actif sur quatre et un taux d'activité trois fois inférieur à celui des hommes (25,8% contre 75,3%).

Au niveau de l'accès aux postes de décision, la situation reste faible. Le nombre de femmes ministres est passé de quatre en 1993, à sept en 2007 et cinq en 2009, soit 15% de l'ensemble du gouvernement. Elles sont également présentes dans la sphère diplomatique où l'on compte actuellement 10 ambassadrices de Sa Majesté le Roi. Au Parlement, leur part est passée de 0,7% à 10,5% entre 1997 et 2007 grâce à des mesures de discrimination positive.

Au niveau juridique, plusieurs mesures ont été prises sur initiative du Roi du Maroc, surtout au niveau de lutte contre les dispositions discriminatoires et de violence.
Par exemple, dans le cadre de la mise en œuvre de la stratégie nationale de lutte contre la violence, une démarche de sensibilisation et de conscientisation sociétale pour influencer et changer le comportement envers ce phénomène. Ainsi, des campagnes de mobilisation sociale sont organisées chaque année en collaboration étroite avec les acteurs institutionnels et de la société civile.

De plus il y avait la mise en œuvre du programme multi-sectoriel "TAMKINE", qui s'appuie essentiellement sur l'institutionnalisation du Genre et des droits humains des femmes dans les politiques nationales et programmes de développement mais aussi sur la territorialisation des politiques nationales sensibles au genre.

Aussi, il a été procédé à une relecture du code pénal dans le but d'amender les textes discriminatoires. Ce projet vise à mettre en place de nouvelles dispositions incriminant toutes les formes de violence à l'égard des femmes. (page 28)

Dans la foulée, une panoplie de mesures, dédiées spécifiquement à la promotion des droits En 2004, le Code de la famille a vu le jour. Il consacre le principe de l'égalité et de la responsabilité mutuelle dans les rapports entre les conjoints, tout en préservant les droits des enfants.
Enfin, il faut relever, en 2006, la réforme du code de la nationalité, qui permet

désormais à la mère d'octroyer sa nationalité à ses enfants nés de père étranger. (page 28)

Objectif 4:
Il s'agit ici de réduire la mortalité des enfants de moins de cinq ans. Parmi l'ensemble des décès annuels, la proportion d'enfants qui meurent avant leur cinquième anniversaire était de 42% vers 1980 ; elle ne représentait plus que 20% en 1987 et 13% en juin 2008 (page 33).

Le Maroc a réalisé des progrès significatifs en matière de santé, en particulier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vie, l'accès aux services de santé, programmes de prévention et de lutte contre les maladies ...etc. Cette amélioration s'articule dans l'augmentation de l'espérance de vie à la naissance qui est passée de 65.5 ans en 1988 à 72.9 ans en 2009.

Parmi les mesures prises par le Maroc afin de réduire la moralité des enfants de moins de 5 ans:

- L'introduction de la couverture vaccinale qui a eu un impact positif sur la situation épidémiologique de certaines maladies cibles telles que la poliomyélite et la diphtérie.
- Le Programme National d'Immunisation (PNI) a permis aussi d'éliminer le tétanos néonatal comme l'une des causes de mortalité néonatale et de réduire la mortalité liée à la rougeole et à la coqueluche.
- Le Programme National de Lutte contre les Maladies Diarrhéiques (PLDM) et le Programme National de Lutte contre les Maladies de Carences (PLMC) ont contribué à la réduction notable des décès en bas âge.
- La lutte contre la malnutrition et les troubles dus aux carences en micronutriments (vitamine D et iode, puis, plus récemment, vitamine A et fer).

Objectif 5:
Améliorer la santé maternelle est le 5ème objectif millénaire de développement que le Maroc s'est fixé a relever d'ici 2015.

La mortalité maternelle est un phénomène difficilement mesurable en l'absence de données d'un système d'enregistrement fiable des décès par cause. A ce propos une enquête nationale démographique (END) à plusieurs passages est en cours de réalisation auprès d'un grand échantillon de plus de 105000 ménages. Elle devrait permettre de livrer des estimations issues de trois approches différentes : une estimation directe rétrospective (5 ans avant l'enquête) ; une estimation basée sur le suivi des grossesses durant les passages de l'enquête, et une estimation au troisième passage selon la méthode des sœurs. Ces approches devraient permettre de cerner avec le plus de précision possible l'ordre de grandeur de la mortalité maternelle au Maroc. (page 38)

Globalement la situation au Maroc est toujours affreuse, car la mortalité et la morbidité maternelle et néonatale demeurent élevées, constituant toujours un problème de santé publique, ce qui a ramené les pouvoirs publics à mettre en place un plan d'action ambitieux visant l'accélération de la réduction de la mortalité maternelle.

Objectif 6:

Le 6ème objectif millénaire de développement rentre dans le cadre de la santé et vise à combattre le VIH/SIDA, le paludisme et d'autres maladies. le Maroc a mis en place une panoplie de mesures et de dispositions pour faire face à la propagation du Sida après 1986. Grâce à sa volonté politique, le Maroc a mis en place plusieurs plans stratégiques pour combattre le Sida en intégrant les parties prenantes dans ce domaine, à savoir les organisations gouvernementales et non gouvernementales, la société civile, le secteur privé et des collectivités locales. Le Maroc a, ainsi, pu enregistrer des avancées notables en matière de prévention, de dépistage et de prise en charge des personnes vivant avec le VIH/sida. Le Maroc a été le premier pays d'Afrique du Nord et du Moyen Orient à bénéficier de l'appui du Fonds Mondial de Lutte contre le SIDA, la Tuberculose et le Paludisme dès le premier appel à soumission en 2003 et le renouvellement de cet appui pour la période 2007 à 2011, constitue un gage de la reconnaissance des efforts déployés. (page 43)

Objectif 7:

Assurer un environnement durable est le 7ème objectif millénaire de développement. Depuis 1992, le Öaroc a fai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l'une des priorités de tous les projets de développement. Cette priorité s'est confirmée par une volonté

politique forte se traduisant par l'élaboration d'une première Stratégie Nationale de la Protection et du Développement Durable en 1995, déclinée en un Plan d'Action National pour l'Environnement ''PANE'' (1997- 2001) dans le cadre d'un processus de concertation et de participation, avec un financement de 2,2 milliards de DH. Plusieurs lois environnementales ont été adoptées visant la rationalisation de la gestion de l'eau dans un cadre participatif, concerté et décentralisé,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e l'environnement ,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et la gestion des déchets. (page 49)

Pour accompagner ce développement, le Maroc a mis en place un système de financement basé sur la création des fonds et de mécanismes de développement, entre autres:

- Fonds National pour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e l'Environnement (FNE)
- Fonds de Dépollution Industrielle (FODEP)
- Mécanisme pour le Développement Propre (MDP)

Parmi les efforts notables du Maroc en matièr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l'élaboration des stratégies de:

- biodiversité: création de 10 parcs nationaux, quelques réserves de biosphère (arganier, intercontinentale de la méditerranée, etc.), identification de 164 sites d'intérêt biologique et écologique
- préservation de ressources naturelles:
  - forêts: augmentation des efforts de reboisement passant de 10000 ha dans les années 80 à 33000 ha à la fin de l'année 2006
  - oasis:exécution du programme de Développement Territorial Durable des Oasis du Tafilalet (2006-2011) principalement à travers: le développement des systèmes économiseurs d'eaux, l'appui technique en agro- écologie, le développement des produits écotouristiques et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s structures locales
  - sols: ici des actions de conservation en matière de lutte contre l'ensablement ont été entreprises
-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la dégradation de l'air coûte le Maroc 3,6 Milliards de DH par an. Afin de combattre de phénomène, le Maroc a choisi de s'investir dans les énergies renouvelables pour adopter des modes de production non

polluants. La mise en place d'un réseau national de surveillance de la qualité de l'air comptant 21 stations fixes de suivi.

- accès de façon durable à l'eau et à un meilleur système d'assainissement: le programme d'Alimentation Groupée en Eau Potable Rurale (PAGER) basé sur une approche participative impliquant les populations dans toutes les phases du projet (programmation, conception, réalisation et gestion) a permis d'augmenter le taux d'accès à l'eau potable en milieu rural de 14% en 1994 à 90% en 2009, au niveau urbain, ce taux est arrivée à 100%.
- lutte contre l'habitat insalubre: le programme "VSB" Ville sans Bidonvilles qui a été lancé en 2004 a connu une réussite assez respectable, car en 2010, environ 40 villes ont été déclarées villes sans bidonvilles.

Objectif 8:

Le 8ème et dernier objectif millénaire de développement, vise à mettre en place un partenariat mondial pour le développement. Le Maroc est considéré comme un pays relativement dépendant de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sachant que les donateurs principaux sont: la banque mondiale, l'union européenne et la banque européenne d'investissement. Le Maroc au titre de la Déclaration de Paris, le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en partenariat avec le PNUD, et avec le concours financier de la coopération espagnole et française, s'est engagé depuis 2008 dans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d'information dédié aux projets de développements pour livrer plus de visibilités et de suivi à l'aide octroyée au Royaume.

Les paramètres qui portent sur niveau de pauvreté au Maroc (d'après les tableaux pages 19-20):

Paramètre	année 1990	année 2008	développement
Proportion de la population disposant de moins de 1 US$ par jour en PPA (%)	3,5%	0,56%	84%
Indice d'écart de la pauvreté	0,0271%	0.0186%	31%
Proportion de la population n'atteignant pas le niveau minimal d'apport calorique (%)	4,6%	0,9%	80%
Taux de pauvreté absolue (%)	12,5%	3,6%	71%
Taux de pauvreté relative (%)	21%	8,8%	58%
Taux de vulnérabilité (%)	24,1%	15,9%	66%

2. Les stratégies sectorielles

La stratégie nationale de développement requiert une plus grande appropriation de tous les acteurs. Elle invite à une plus grande intégration de l'ensemble des grandes études sectorielles en cours. En effet, c'est l'articulation des stratégies et plans sectoriels au sein des groupes thématiques constitués dans les domaines suivants:

- cadrage macro-économique, croissance et compétitivité;
- gouvernance, institutions et démocratie;
- activités génératrices de revenus, solidarité et sécurité sociale;
- infrastructures de base pour le développement;
- développement rural et ressources naturelles;
- éducation et alphabétisation;
- santé et population;
- environnement et cadre de vie;
- emploi et formation;
- culture, religion, paix et sécurité; et,
- analyse et suivi de la pauvreté et du genre.

Le travail des groupes thématiques a consisté à faire un état des lieux dans le domaine couvert, à analyser la politique mise en œuvre, à dégager les priorités stratégiques à favoriser, à établir un plan d'actions prioritaires et à identifier les coûts de ces actions. Les rapports de ces groupes constituent donc véritablement des documents de travail détaillés par secteur reflétant les préoccupations de toutes les parties prenantes.
Ce travail a donné l'occasion de revoir l'ensemble des politiques sectorielles, nationales et thématiques. Ces réflexions ont permis non seulement de faire ressortir les principaux atouts économiques et sociaux permettant de garantir une croissance forte et un développement durable.

Les stratégies gouvernementales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Les institutions de recherche, en plus de leur rôle essentiel de production de connaissances, de leur diffusion et de leur exploitation dans les activités d'éducation

et de formation, ont un autre rôle encore plus essentiel à savoir celui de transformer lesdites connaissances en valeurs ajoutées répondant aux enjeux politiques, sociaux, culturels et économiques du pays. Elles doivent donc mobiliser leurs potentiels humain, scientifique et technique pour les mettre au service du développement de leur pays.

Afin de réussir la Stratégie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à l'horizon 2025. Les programmes prioritaires de recherche qui étaient en vigueur pendant la période 1999-2006 qui ont étaient définis en 1998 à l'initiative de l'autorité gouvernementale chargée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n concertation, d'une part, avec les Départements ministériels en charge de l'agriculture, de la santé, de l'eau, de l'environnement, de l'énergie, de la pêche, de l'équipement, des forêts, du transport, des télécommunications, de l'industrie et, d'autre part, avec les établissements publics et privés de recherche, les associations professionnelles, les offices et les régions. Ils portent sur :

- Agriculture en conditions difficiles
- 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a vie
- Connaissance, préservation et valorisation des ressources naturelles
- Développement socioéconomique et culturel
- Sciences et technologie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 Innovation et compétitivité des entreprises

Après la validation de la Stratégie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à l'horizon 2025 par le Comité permanent interministérie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du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en 2006, se sont ajoutés à ces six programmes prioritaires deux autres programmes à savoir :

- Gestion des risques
- Biotechnologies

Bref, tous ces programmes étaient validés parComité permanent interministérie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du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On va les détailler selon leur contexte socio-économique.

Programme I : Agriculture en conditions difficiles

L'agriculture marocaine, comptant pour 15 à 20 % du Produit Intérieur Brut (PIB) et générant 3 à 4 millions d'emplois en milieu rural et 60 à 100 000 emplois dans l'agro-alimentaire, les travaux de recherche qui seront menés dans le cadre de ce programme prioritaire doivent s'inscrire dans cette perspective et, par conséquent, leurs résultats doivent contribuer au maintien voire à l'amélioration de la place de cette agriculture dans l'économie du pays.

Axes et thèmes prioritaires du Programme I

- ❖ Adaptation de l'agriculture aux conditions édaphiques : pédologie, contamination, salinité, érosion.
- ❖ Adaptation de l'agriculture aux conditions climatiques : stress hydrique, désertification, sécheresse.
- ❖ Amélioration de la production agricole : irrigation, génétique.
- ❖ Sélection et introduction d'espèces adaptées aux conditions climatiques : Cultures alternatives, espèces d'importance économique et agroalimentaire.
- ❖ Lutte biologique, microbiologique et biogénétique : Diversification des espèces, stress biotique, résistance, biopesticides, aspects fongiques, stérilité, synthèse de molécules thérapeutiques.

Programme II : 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a vie

L'hygiène et la santé sont les principaux facteurs qui améliorent les conditions de la qualité de vie de la population. Ils occupent une place importante dans l'Initiative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Humain (INDH).L'état consacre plus de 50%de son budget à cet initiative.

Axes et thèmes prioritaires du Programme II

- ➢ En ce qui concerne l'Hygiène

- Qualité des aliments, de l'air et de l'eau.
- Salubrité des produits agricoles et produits transformés (Agro-industriels).

- Fortification des denrées alimentaires.
- Irradiation, radioactivité.
- Sécurité dans les hôpitaux et les entreprises.

➢ En ce qui concerne la Santé

- Maladies sexuellement transmissibles, cardiovasculaires, endocriniennes.
- Nutrition et carences alimentaires.
- Oncologie : prévention et thérapeutique.
- Tuberculose.
- Hépatites.
- Epidémiologie et biostatistiques.
- Génétique humaine et neurogénétique.
- Biomatériaux.
- Hématologie et hématopathologie.
- Rhumatologie.
- Neurologie : maladies dépressives et anxieuses.
- Pharmacologie, ethnopharmacologie, pharmacognosie, molécules à visée thérapeutique.
- Problèmes de santé de la mère et de l'enfant : morbidité, mortalité, nutrition, croissance.

Programme III : Connaissance, préservation et valorisation des ressources naturelles

L'eau et l'énergie sont les deux principaux facteurs du développement social, de la production industrielle et de la production agricole.

L'eau et l'énergie doivent être traitées comme des denrées économiquement rares. En effet, le Maroc connaîtra un déséquilibre entre l'offre et la demande en eau qui se traduira par un déficit de l'ordre de 337 millions de m3 d'ici 2020. En 1955, chaque habitant disposait de 2763 m3/an. En 2025, il n'en disposera que de 590 soit environ 1600 litres par jour. On peut sérieusement parler de pénurie d'eau. La préservation de ces dernières devient un enjeu capital et leur gestion rationnelle une nécessité.

Axes et thèmes prioritaires du Programme III

➢ En ce qui concerne l'Eau

- Dessalement de l'eau de mer et des eaux saumâtres (procédés membranaires et osmose inverse).
- Traitement, épuration, réutilisation et valorisation des eaux usées.
- Qualité physique, chimique et biologique de l'eau.

- Gestion intégrée des ressources en eau.
- Evaluation et qualité des eaux souterraines.
- Dépollution des eaux.
- Changements climatiques et ressources en eau.
- Technologies d'économie de l'eau.

➢ En ce qui concerne l'Energie et les Energies renouvelables

- Energie solaire photovoltaïque et thermique et leurs applications.
- Energie éolienne et ses applications.
- Energie de la biomasse et ses applications.
- Energie nucléaire et ses applications.
- Valorisation des schistes bitumineux.
- Systèmes énergétiques : modélisation, optimisation, dimensionnement et économie.
- Matériaux, nanomatériaux et leurs applications dans la production d'énergie.

Programme IV : Environnement et développement durable

Toutes les solutions que la recherche apporterait aux problèmes de l'environnement doivent faire l'objet d'une évaluation quant à leur impact en termes de PIB sur le développement du pays. Dans cette perspective, la recherche marocaine doit s'intéresser également à l'économie de l'environnement.

Les priorités autour desquelles les structures de recherche mèneront leurs travaux sont les suivantes :

o Traitement et valorisation des déchets solides, ménagers, industriels, miniers et agro-alimentaires.
o Eco toxicologie.
o Qualité physique, chimique et biologique de l'eau de mer.
o Gestion intégrée des zones littorales.
o Valorisation des ressources naturelles à intérêt économique : algues, plantes aromatiques et médicinales, produits forestiers et produits miniers.
o Biodiversité et développement durable.
o Amélioration des techniques de reboisement.
o Modélisation et gestion durable des écosystèmes et des ressources naturelles.
o Mécanismes de production propres.
o Economie de l'environnement.

Programme V : Biotechnologies

La biotechnologie, en tant qu'outil efficace pour la modification des organismes, peut contribuer à la préservation de la qualité de la vie en améliorant la productivité agricole, la santé et l'environnement. En agriculture, elle constitue un instrument pour le développement de variétés à haut potentiel de rendement bien adaptées à différents stress.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lle permet la mise au point de techniques de diagnostic, la fabrication de vaccins et de médicaments. En ce qui concerne l'environnement, la biotechnologie favorise l'emploi de matières premières naturelles et le recours aux énergies renouvelables. Son utilisation permet de diminuer l'émission des gaz à effet de serre et la production de déchets. D'une manière générale, la biotechnologie préserve l'environnement en remplaçant les procédés chimiques industriels par des procédés biologiques compatibles avec le fonctionnement des écosystèmes.

Axes et thèmes prioritaires du Programme V

- Génie des procédés, génie génétique et biotechnologie.
- Techniques d'amélioration des plantes par embryogenèse et organogenèse somatiques.
- Procédés de biotransformation des produits agricoles et des déchets organiques.

Programme VI : Gestion des risques

La notion de risques est prise ici dans son sens large. Il s'agit aussi bien des risques naturels que de ceux engendrés par les activités humaines dans le mond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ou, d'une manière générale, par l'usage des technologies qui ont un impact négatif sur l'environnement et sur ses ressources et sur la qualité et le cadre de vie des populations.

Le Maroc est souvent victime de catastrophes naturelles dues aux inondations, aux séismes et aux glissements de terrain. Les plus célèbres inondations sont celles de la vallée de l'Ourika,

De Berrechid et de Mohammedia et récemment celles de Tanger, Er-Rachidia, Nador, etc. Quant aux séismes, celui d'Al Hoceima est encore présent dans les mémoires.

S'agissant des risques technologiques, ils sont reliés à la concentration des activités industrielles dans des endroits proches des agglomérations urbaines (Axes Mohammedia- Casablanca-Kénitra et El Jadida-Safi). Elles sont également liées au transport des produits dangereux (produits chimiques, pétrole, éléments radioactifs,

etc.). S'ajoutent à cela les risques à caractère global dus aux changements climatiques.

Axes et thèmes prioritaires du Programme VI

- Risques financiers : mathématiques financières, bourse, capitaux, change, endettement.
- Risques naturels : séismes, systèmes d'alerte précoce (Sécheresse, érosion, crues, glissement de terrain, incendies de forêts, aléas climatiques, extrêmes météorologiques).
- Amélioration des outils de prévention et prévision météorologiques.
- Risques technologiques : modélisation et changements globaux (Effet de serre, réchauffement global, perturbation des cycles biogéochimiques), sécurité des systèmes informatiques.
- Aspects juridiques des risques.

Programme VII : Innovation et compétitivité des entreprises

Les PME/PMI doivent être capables d'investir pour assurer leur survie et, surtout, faire face aux enjeux de la globalisation de l'économie. Cependant, il y a moyen de surmonter partiellement cette difficulté en créant une synergie entre les PME/PMI et les institutions de recherche nationales qui, si elles ne disposent pas de moyens financiers, elles ont les ressources humaines (Compétences), l'expertise, le savoir et le savoir-faire. Cette synergie est aujourd'hui juridiquement réalisable, comme le stipule la loi 01-00, soit à travers la prise de parts par les universités dans le capital d'entreprises soit à travers la création d'entreprises par les universités elles-mêmes.

Axes et thèmes prioritaires du Programme VII

- Organisation, gestion, productivité et aide à la décision dans les entreprises : contrôle qualité, Gestion stratégique des ressources humaines, propriété industrielle, génie et maintenance industriels, incitations étatiques.
- Elaboration de nouveaux matériaux et nanomatériaux industriels : céramique, matériaux composites, polymères, ciments, matériaux métalliques, verres, phosphates, cuir, fibres textiles, colorants et pigments ;
- Prévention et lutte contre la corrosion ;
- Informatique industrielle : développement et génie logiciels, technologie de l'information et modélisation, réseaux informatiques et systèmes d'information,

e-commerce, télétravail ;

o Microélectronique appliquée à l'industrie : circuits intégrés, couches minces, semi-conducteurs, systèmes embarqués

o Industries traditionnelles : production de céramique écologiquement propre, amélioration des procédés et de la qualité des produits de l'artisanat

Programme VIII : Développement socioéconomique et culturel

- Aménagement et développement intégré des espaces et territoires urbains, ruraux, désertiques et maritimes ; 15

-Développement humain : lutte contre la précarité, la pauvreté et l'exclusion, droit de l'intégration soci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Evaluation des politiques sociales.

-Patrimoine culture : gestion, conservation, réhabilitation et valorisation économique.

-Système d'éducation et formation : management, économie, ingénierie, planification, apprentissage, pédagogies scolaire et universitaire, évaluation.

-Technologie de l'information et éducation : télé-enseignement.

-Traitement automatique de la langue arabe.

-Technologie de l'information et économie : aspect juridique.

-Presse : régionalisation, modernisation, lectorat.

-Immigration : impacts locaux, nationaux et internationaux.

-Marocains résidants à l'étranger : affaire publique, religieuse, culturelles, intégration, réintégration.

-Relation internationales, aspect politique, économique et social : Union du Maghreb Arabe, Union Européenne, Union pour la Méditerranée.

-Résistance et mouvement de libération.

-Economie informelle et développement.

-Investissement : Investissements directs étrangers, structures et modalités de financement.

STRATEGIE ENERGETIQUE : PLAN NATIONAL D'ACTIONS PRIORITAIRES (PNAP 2008-2012)

Le programme d'équipement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jusqu'à 2016 est donné comme suit : Pour la période 2012-2016, le plan d'équipement est composé d'unités de production engagées ou en cours de réalisation, totalisant 5200 MW. Charbon : Unités de Jorf Lasfar 5&6 (2x350 MW), SAFI (2x660 MW dont une unité en

2016 et la deuxième en 2017) et Jerada (350 MW) Fuel: Groupes diesels de Tiznit et Dakhla (90 MW) Hydraulique : Complexe Mdez El Menzel (170 MW) et STEP de Abdelmoumen (350 MW) Eolienne : Parcs de Tarfaya, Taza , Koudia Al Baida (Repowering et extension) Tanger II et Parcs Eoliens Privés (1320 MW) Solaire : Centrales de Ouarzazate et de Ain Béni Mathar (900 MW) Se marquant par une forte dépendance énergétique de l'extérieur, le Maroc se trouve dans une situation vulnérable vis-à-vis des fluctuations erratiques des marchés et à la volatilité de leurs cours, d'autant plus que nous entrons dans une ère d'énergie chère, dans un contexte mondial plein d'incertitudes. 25 1 - Objectifs et Orientations stratégiques C'est en intégrant toutes ces données dans leurs dimensions internationale et nationale que le Ministère de l'Energie, des Mines, de l'Eau et de l'Environnement, acteur responsable du développement énergétique du pays a élaboré, conformément aux Hautes Orientations Royales, une nouvelle stratégie énergétique nationale pour relever ces défis, avec pour objectifs majeurs d'assurer l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et la disponibilité de l'énergie, l'accès généralisé à l'énergie à des prix raisonnables, la maîtrise de la demande et la préservation de l'environnement. Pour atteindre ces objectifs, les orientations stratégiques adoptées et déclinées en plans d'action à court, moyen et long terme ont défini les lignes forces à mettre en œuvre pour satisfaire la demande énergétique croissante: Construire un bouquet électrique optimisé autour de choix technologiques fiables et compétitifs. Le charbon propre, énergie la plus disponible avec les prix les plus stables et produisant le KWh le moins cher, constitue le socle de la production de base. Les options pour le gaz naturel, le nucléaire et la combustion directe des schistes bitumineux restent ouvertes et leur réalisation conditionnée par leur accessibilité et leur disponibilité de longue durée, leur faisabilité technico- économique et leur compétitivité. Développer les énergies renouvelables dont l'exploitation du potentiel considérable permettra au Maroc de couvrir une part substantielle de ses besoins en énergie, d'atténuer sa dépendance énergétique et de réduire les émissions des gaz à effet de serre. Eriger l'efficacité énergétique en priorité nationale comme moyen le plus rapide et le moins coûteux pour mieux utiliser et économiser l'énergie et baisser la facture énergétique. Mobiliser les ressources nationales fossiles par l'intensification de l'exploration pétrolière, la mise en valeur des immenses gisements de schistes bitumineux et l'extraction d'uranium des phosphates. S'intégrer dans le système énergétique régional africain et euro-méditerranéen pour renforcer la sécurité énergétique,

abaisser les coûts d'approvisionnement, élargir les échanges, développer la coopération, les transferts de technologies et la solidarité.

Objectifs :

- Assurer, comme cela a été signalé, la sécurité de l'approvisionnement en toutes circonstances à des coûts abordables en diversifiant les formes d'énergies utilisées. A ce propos, il est à noter que le pétrole compte aujourd'hui pour 60 % dans le bilan énergétique, contre 95 % dans les années 70 alors que l'utilisation du charbon comme source d'énergie est passée durant les années 80 de 8 % à 31,5 % aujourd'hui (57% de l'électricité produite à partir du charbon), le gaz naturel ne faisant son apparition dans ce bilan qu'à partir de 2005 (500 millions de m3 consommés annuellement par la centrale de Tahaddart) ;

o Encourager l'exploration et le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locales à travers l'intensification de l'exploration pétrolière en visant en particulier l'off-shore profond. Seule une découverte importante en pétrole/gaz est susceptible de modifier structurellement et en profondeur, le paysage énergétique marocain ;

o Promouvoir le recours aux énergies renouvelables (petite hydraulique, biomasse, énergie solaire, énergie éolienne, etc.) sachant que le Maroc possède des atouts indéniables dans ce domaine ;

o Planifier, programmer et opérer les choix stratégiques à travers une cohérence du système énergétique dans son ensemble : adaptation offre-demande, garantie du service public, niveau de la fiscalité, options de substitutions et/ou complémentarités entre énergies; compatibilité de notre modèle énergétique avec nos choix fondamentaux de société (décentralisation, aménagement du territoire, développement rural, participation des citoyens et des collectivités aux débats et aux choix énergétiques).

o garder toutes les options ouvertes sur le long terme : charbon, pétrole, hydraulique, gaz naturel, électronucléaire, etc. ;

o contribuer à la résolution de problèmes en relation avec l'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tels que la sécheresse, le dessalement de l'eau de mer et la déforestation, la réduction de l'émission de gaz carbonique à l'origine du réchauffement du globe, de plomb, de souffre.

❖ Les réalisations matérielles prévues

La construction ou le redimensionnent de cinq unités pour la production de 1068 MW supplémentaires sont programmées d'ici 2010. Il s'agit de :

- la station thermo solaire de Beni Mathar d'une capacité de 472 MW
- la turbine à gaz de Mohammadia pour une capacité de 300 MW
- le groupe diesel de Tan Tan avec 116 MW
- le complexe hydroélectrique de Tanafnit El borj avec 40 MW
- le parc éolien de Tanger avec 140 MW

STRATEGIE NATIONALE POUR LE DEVELOPPEMEN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A L'HORIZON 2025

❖ Le Maroc à l'horizon 2025

La modernisation permettant de relever le degré de compétitivité du pays reposera sur quatre grands axes : la connectivité aux réseaux standards internationaux, la consolidation des équilibres macro-économiques, la modernisation de la gouvernance publique et le repositionnement de l'économie nationale. Les diagnostics effectués par les différents secteurs d'activité dont le Programme Emergence, révèlent que les positions du tissu économique se présentent comme suit :

- des secteurs compétitifs : Tourisme, Bâtiments et Travaux publics, Commerces et Services).
- des secteurs à fort potentiel : Agriculture, Pêche, Agro-industrie, Mines, Artisanat ;
- des secteurs fragiles comme le Textile.
- et les nouvelles opportunités qu'ouvre la mondialisation : offshoring, automobile, électronique, aéronautique, etc.

Les changements avec lesquels il faut compter

✓ La mondialisation de l'économie
✓ La montée des technologies
✓ La transformation des territoires
✓ Les changements dans les formes de travail
✓ La rareté des ressources
✓ Le développement des incertitudes

❖ La Recherche à l'horizon 2025 : Les défis mobilisateurs de la recherche à l'horizon 2025

Education/formation

▪ l'alphabétisation devra passer de 60% à 95-100%. Le niveau d'alphabétisation est, actuellement, de l'ordre de 97,9% en Corée, de 97,7% en Espagne, de 92,5% au

Portugal, de 86% au Liban et de 75% en Tunisie.

- le taux de scolarisation dans le primaire devra atteindre les 100%. Il est, actuellement, de 100% en Espagne, de 97% au Portugal, en Corée et en Tunisie et de 91% au Liban.
- le taux de scolarisation dans le secondaire devrait passer de 44% à 80/90%. Il est, actuellement, de 96% en Espagne, de 88% en Corée, 85% au Portugal et de 65% en Tunisie.
- la population de la tranche d'âge 19/23 ans qui poursuit les études supérieures, actuellement de 12% (Liban 42%, Tunisie 23%), devra dépasser la barre des 50%.
- Enfin, le nombre d'ingénieurs pour 10 000 habitants qui est, actuellement, de l'ordre de 10, devra dépasser le nombre de 200. A titre d'exemple, il est actuellement de 43 en Jordanie.

L'accès aux services de base

Dans ce domaine, des progrès significatifs sont attendus :

- La population n'ayant pas un accès à un point d'eau aménagé devrait passer de 18% à 0% - Tunisie 20%.
- La probabilité de ne pas survivre jusqu'à 40 ans en pourcentage de la cohorte devrait baisser de 8,6% à un taux inférieur de celui de la Tunisie (4,7%) et du Liban (5,7%). Les pays comme l'Espagne, le Portugal et la Corée assurent déjà à leur population une probabilité de vivre jusqu'à 65 ans de l'ordre de 92,8% pour la première, et de 91,2% pour le second et la troisième etc.

La lutte contre la pauvreté et l'exclusion

Des efforts importants devront être consentis pour que le pourcentage de la population en deçà du seuil de pauvreté, à présent de 14,3 %, devra tendre vers 0%, celui de la Tunisie est actuellement de 6,6%.

❖ Les mesures à prendre :

✓ Au niveau de la Gouvernance du SNRI

La dimension politique

La dimension du pilotage

La dimension communication

La dimension mobilisation des ressources humaines

- ✓ Au niveau du système de financement de la recherche
- ✓ Au niveau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 ✓ Au niveau des programmes de Recherche
- ✓ Au niveau de la valorisation des résultats de la recherche

PROGRAMME EMERGENCE : STRATEGIE INDUSTRIELLE DU MAROC

Le plan Emergence 2015 pour le secteur industriel, s'inscrit dans la logique d'œuvrer ensemble pour créer des richesses et des emplois qui offriront aux Marocains de meilleures opportunités de développement humain. En mobilisant et coordonnant les actions de l'Etat et des opérateurs économiques, il vise à construire un secteur industriel fort et à créer un cercle vertueux de croissance. Il consacre, en outre, les principes démocratiques du dialogue et de la transparence, l'importance des ressources humaines et la responsabilité sociale des entreprises. L'Etat et le secteur privé ont scellé ensemble ce Pacte en formalisant un contrat programme couvrant la période 2009-2015. En consolidant dans un document unique leurs engagements mutuels, les partenaires espèrent apporter à l'ensemble des investisseurs la visibilité nécessaire sur ce que sera l'industrie marocaine de demain. Cette formule contractuelle est également une garantie de bonne exécution des mesures décidées en assurant la mobilisation de tous autour d'actions précises, concrètes, concertées et budgétisées. 22 Le contrat programme a été conçu autour de trois idées fondamentales : • La nécessité absolue de focaliser les efforts de relance industrielle sur les filières pour lesquelles le Maroc possède des avantages compétitifs clairs et exploitables, à travers des programmes de développement dédiés. • La nécessité de traiter l'ensemble du tissu des entreprises, sans exclusive, à travers 4 « Chantiers Transversaux » majeurs, déclinés en un chantier de renforcement de la Compétitivité des PME, un chantier Amélioration du climat des affaires, un chantier Formation et un plan de développement de parcs industriels de nouvelle génération, dits «P2I - Plateformes Industrielles Intégrées». • La nécessité de mettre en place une organisation institutionnelle à même de permettre la mise en œuvre efficace et efficiente des programmes. Le plan Emergence pour les Phosphates présente trois axes de développement : arbitrer en temps réel entre ses trois familles de produits, le phosphate brut , l'acide phosphorique et les engrais, bâtir une offre adaptée aux nouvelles configurations du marché et enfin optimiser la consommation de phosphate en offrant aux investisseurs étrangers un hub phosphatier avec des usines d'acide phosphorique clés en main sur la plate-forme industrielle de

Jorf Lasfar et un port intégré pour exporter les produits. Le phosphate est transporté vers ce complexe par voie humide à travers un pipeline permettant des économies d'eau et d'énergie.

❖ Objectifs du Programme Emergence :

D'une manière spécifique, les principaux objectifs du Programme Emergence visent :
- la création de richesses, donc de l'emploi et de la croissance ;
- le développement des activités exportatrices à haute valeur ajoutée ;
- le positionnement du Maroc sur des métiers mondiaux pérennes, où il pourra faire valoir ses atouts : proximité et position géographique du Maroc entre trois continents, main-d'œuvrequalifiée et compétitive, accès aux marchés, qualité de vie.

❖ Les stratégies découlant du Programme Emergence

L'Offshoring :

Il est basé sur les délocalisations. Pour attirer les activités d'externalisation (Filières banques, administratives et informatiques ou encore de téléservices), la construction de plates formes d'accueil des délocalisations a été programmée. Il s'agit de la technopole de Rabat et de la technopole de Casablanca (Nearshore Park) et plus tard celles de Tanger et Marrakech. L'Objectif est d'offrir des sites clés en main aux futurs locataires de ces plates formes.

L'automobile :

Il s'agit de se positionner sur la fabrication de composants, un secteur porteur déjà développé au Maroc. Sur les 3000 pièces qui constituent une voiture, le Maroc peut raisonnablement se positionner sur 300 d'entre elles, à fournir aux 28 sites d'assemblage répertoriés en Espagne, au Portugal et en France, soit à trois jours de navigation du Maroc. Le potentiel est important : un chiffre d'affaires additionnel de 7 milliards de DH et 40 000 emplois nouveaux en dix ans.

L'aéronautique :

En 2005, les entreprises employaient près de 2200 personnes et génèrent un chiffre d'affaires d'environ 600 MDH. Moyennant une politique plus agressive, le Programme Emergence table sur un chiffre d'affaires additionnel de 4 milliards de DH et 12 000 emplois.

L'électronique de spécialité :

Le Maroc peut se positionner sur des composants plus sophistiqués, notamment ceux servant aux appareillages embarqués pour l'aviation et l'automobile, et l'électronique à usage médical, ou encore celle destinée à la défense. Là encore, un site dédié sera localisé du côté de TFZ et portera le nom d'«Electronic City». Il est prévu un chiffre d'affaires additionnel d'au moins 5 milliards de DH dans dix ans et création de 11000 emplois.

Les produits de la mer :

Avec un dispositif plus agressif et en s'orientant vers des produits plus élaborés comme le congelé et les produits haut de gamme, essentiellement le poisson frais, il pourrait faire mieux. A terme, l'étude table sur un chiffre d'affaires supplémentaire de 3 milliards de DH et 50 000 emplois.

L'agroalimentaire :

Une relance plus agressive sur des filières traditionnelles du Maroc comme l'olive, l'huile d'olive, l'huile d'argan et le jus d'orange de qualité supérieure. En menant la bataille sur ces trois fronts, le Maroc devrait engranger, à terme, un chiffre d'affaires supplémentaire de 4 milliards de DH et générer 16,000 emplois.

Le textile-habillement :

Il est à signaler que le secteur du textile-habillement a déjà entamé son propre Programme Emergence qui s’est traduit par la signature d'une convention entre les professionnels du

Secteur et le gouvernement.

INITIATIVE NATIONALE POUR LE DEVELOPPEMENT HUMAIN (INDH)

❖ Objectifs de l'INDH :

D'une manière spécifique, l'INDH a pour objectifs :

o Eradiquer la pauvreté, la vulnérabilité, la précarité et l'exclusion sociale.

o Elargir les possibilités d'épanouissement offertes à chacun en matière de capacités, de droits et d'opportunités.

o Permettre à la population de vivre dans un cadre de vie décent en lui facilitant l'accès aux équipements et aux services sociaux de base.

o Renforcer la cohésion sociale.

o Instaurer une dynamique pérenne en faveur du développement humain, de l'épanouissement et du bien-être de l'ensemble de la population.

o A plus ou moins long terme, instaurer une ingénierie sociale en mesure de favoriser le diagnostic, la mise en œuvre, la coordination et l'évaluation de projets sociaux.

❖ Programmes de l'INDH :

Pour réaliser les objectifs ci-dessus mentionnés, quatre programmes ont été élaborés avec chacun des cibles et des portées bien déterminées. Il s'agit de :

- Lutte contre la pauvreté rurale
- Lutte contre l'exclusion sociale urbaine
- Lutte contre la précarité
- Programme transversal de développement humain

❖ Financement de l'INDH :

Un compte d'affectation spéciale a été créé et alimenté par une dotation de dix milliards de dirhams (10 MMDH) pour la période 2006-2010 à raison de 2,5 MMDH pour chacun des quatre programmes ci-dessus mentionnés.

PLAN AZUR (VISION2020): STRATEGIE NATIONALE POUR LE DEVELOPPEMENT DU TOURISME A L'HORIZON 2020

La Vision 2020 a pour objectif de continuer à faire du tourisme l'un des moteurs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social et culturel du Maroc, la vision 2020 a été construite autour des principes fondateurs suivant :

- Capitaliser sur les acquis de la Vision 2010.
- Passer à une démarche plus intégré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 Valoriser les ressources les plus différenciées sur le territoire en répondant aux besoins des marchés les plus porteurs.
- Redresser les faiblesses structurelles persistantes du secteur.
- Mettre le développement durable au cœur de la stratégie.

Par ailleurs, l'une des ambitions de la Vision 2020 est de hisser le Maroc en 2020 parmi les 20 premières destinations touristiques mondiales tout en s'imposant comme une destination de référence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durable dans le pourtour méditerranéen.

Cette Vision est avant tout une ambition qualitative pour promouvoir un tourisme authentique, propre et responsable, qui accélère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u Royaume sans pour autant dénaturer son patrimoine naturel et culturel.

Ainsi, la conception du produit touristique consiste en l'émergence de huit nouvelles destinations touristiques articulées autour de cinq axes de développement :

- Enrichissement de l'offre culturelle.
- Poursuite du positionnement offensif sur le balnéaire.
- Création d'une offre Nature
- Mise en place de corridors thématiques.
- Structuration d'une offre performante d'animation.

STRATEGIE DE DEVELOPPEMENT DE L'ARTISANAT AU MAROC (VISION 2015)

❖ Objectifs de la Vision 2015

Plusieurs ont été fixés pour la Vision 2015. Parmi ceux-ci, il y a lieu de signaler :

- la création de nouveaux emplois.
- l'augmentation de la part du PIB générée par l'artisanat.
- l'instauration d'un nouveau rôle de l'administration, qui doit passer d'une administration de gestion à une administration de développement.
- l'émergence et le développement d'un tissu d'acteurs-producteurs de référence capables de produire en volume et en qualité suffisante.
- l'amélioration du produit artisanal marocain pour l'adapter aux goûts et aux tendances de la clientèle nationale et étrangère.
- l'apport d'une aide aux PME pour l'élaboration de plans de marketing.
- l'augmentation de la part de l'export pour la faire passer de 26% actuellement à 50% de la production nationale.
- l'apport d'un appui aux mono-artisans urbains et ruraux en termes de production/vente et d'amélioration de leurs conditions de vie.
- la création d'espaces de vente dans des zones à flux touristique important.
- la conquête des réseaux modernes de distribution non explorés jusqu'à présent.
- la création d'un label national en vue d'asseoir l'artisanat marocain sur des bases solides lui conférant une image de marque au Maroc et à l'étranger.
- la mise à niveau du système de formation en collaboration avec les chambres d'artisanat.

STRATEGIE DE DEVELOPPEMENT AGRICOLE A L'HORIZON 2015 (PLAN MAROC VERT)

Le plan Maroc Vert 2020 pour l'agriculture mis en œuvre depuis avril 2008, consolide la politique de relance de l'agriculture, désormais considérée comme l'un des principaux moteurs de croissance de l'économie nationale pour la prochaine décennie. L'ambition est d'attirer dans le secteur agricole des investissements de près de 150 milliards de DH d'ici 2020, avec l'objectif de générer, à terme, un PIB de 100 milliards de DH par an. Cette nouvelle richesse permettrait d'améliorer les revenus des agriculteurs et de garantir davantage la sécurité alimentaire du Maroc. Il

a aussi pour but de protéger les ressources naturelles des différentes régions tout en intégrant l'agriculture marocaine au marché national et international. Le Plan Maroc Vert a pour finalité la mise en valeur de l'ensemble du potentiel agricole territorial et la rupture avec l'image simpliste d'une agriculture duale opposant un secteur moderne à un secteur traditionnel et vivrier. La nouvelle agriculture marocaine se veut un secteur destiné à tous les agriculteurs, sans exclusion, mais avec des stratégies différenciées en fonction du tissu ciblé. Pour cela, elle s'articule autour de deux piliers. Le premier pilier vise le développement accéléré d'une agriculture moderne et compétitive, vitale pour l'économie nationale, à travers la concrétisation d'un millier de nouveaux projets à haute valeur ajoutée et/ou productivité tant dans les productions que dans les industries agroalimentaires, répondant aux règles du marché en s'appuyant sur les investissements privés. Le second pilier du Plan Maroc Vert vise l'accompagnement solidaire de la petite agriculture à travers la réalisation de 545 projets d'intensification ou de professionnalisation des petites exploitations agricoles dans les zones rurales difficiles, favorisant ainsi une meilleure productivité, une plus grande valorisation de la production et une pérennisation du revenu agricole. Ce second pilier a également pour but la reconversion de la céréaliculture en cultures à plus forte valeur ajoutée et moins sensibles aux précipitations ainsi que la valorisation des produits du terroir. Afin de renforcer les projets de ces deux piliers, le PMV s'appuie par ailleurs sur des projets dits transverses consistant en la refonte du cadre sectoriel et l'amélioration des facteurs transversaux, relatifs notamment aux politiques de l'eau, du foncier et de l'organisation interprofessionnelle

❖ Objectifs du Plan Maroc Vert

A terme, le Plan Maroc Vert vise la réalisation des objectifs suivants :

- Promouvoir une agriculture durable et respectueuse de l'environnement.
- Impacter considérablement la part du PIB générée par l'agriculture (70 à 100 milliards de dirhams/an).
- Contribuer au renforcement de la politique de l'emploi.
- Contribuer à la garantie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et renforcer l'intégration de l'agriculture marocaine au marché national et international.
- Améliorer la compétitivité des produits agricoles marocains en vue de

promouvoir l'export et l'investissement privé dans le secteur agricole notamment dans les filières à haute valeur ajoutée.

- Rééquilibrer sur le long terme le déficit de la balance alimentaire et sécuriser au maximum les échanges.
- Améliorer la capacité des nouveaux acteurs du secteur pour faire face aux aléas naturels et du marché.
- Promouvoir le concept d'agrégation autour d'opérateurs performants et structurés.
- Développer une approche orientée vers la lutte contre la pauvreté, en augmentant significativement le revenu agricole des exploitants les plus fragiles, notamment dans les zones périphériques.

Chapitre 3 : Soutien de l'Etat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Section 1. La stratégie de soutien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1. Soutien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La question des flux financiers est d'une importance capitale pour le développement des pays principalement pour ceux qui ont des ressources limitées. Certains pays émergents ont pu emprunter le sentier de croissance grâce aux flux financiers dont ils ont pu bénéficier à travers divers canaux dont les principaux sont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les flux des transferts de leur communauté résidante à l'étranger, l'accès au marché financier international et le commerce extérieur, l'investissement direct étranger.

Il importe de passer en revue l'importance de ces différents flux pour l'économie du Maroc, en identifiant les pays émetteurs de ces flux dans une perspective temporelle pour dégager les changements dans la structure des partenaires du Maroc et voir dans quelle mesures les nouveaux pays industrialisés tels que la Chine, le Brésil, Le Mexique, la Turquie deviennent des acteurs au premier niveau des transferts financiers.

Le Maroc, pays émergent d'une population de près de 30 millions de personnes, est fortement bénéficiaire de la coopération financière internationale. Entre 2001 et 2004, il a reçu en moyenne 530M€ par an d'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APD) nette, soit environ 1,3% de son PIB, dont la majeure partie (près de 70%) par le biais de la coopération bilatérale.

Profil de la dette extérieure publique :

Les financements alloués au Maroc sont conséquents et le nombre des bailleurs de fonds actifs dans ce pays est important.

En 2013, la dette extérieure publique s'est caractérisée par la poursuite de sa tendance haussière entamée depuis 2007 et a enregistré un encours de 234,7 milliards DH, soit une progression de 10,3% ou 22 milliards DH par rapport à 2012. Cette évolution est due au recours à des ressources extérieures, notamment celles assorties de conditions financières concessionnelles et avantageuses, pour couvrir les besoins de

financement tant du Trésor que des établissements et entreprises publics dans un contexte marqué par des déficits budgétaire et du compte courant de la balance des paiements.

Pour sa part, le ratio de la dette extérieure publique par rapport au PIB s'est établi à 26,9%, en hausse de 1,2point du PIB par rapport à son niveau de 2012 (25,7%). Exprimé en Dollar US et en Euro, le stock de la dette extérieure publique s'élève à fin 2013 respectivement à 28,8 milliards $US et à 20,9 milliards EUR.

: Le Maroc reçoit de nombreuses aides et des prêts accordés par des pays étrangers, au titre de l'Aide publique de développement. Le dernier don octroyé au Maroc par un pays étranger, le Qatar, date du 24 août, pour un montant de 1,15 milliard de dirhams. Officiellement, cet argent est versé au titre de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APD). Le Maroc est un important bénéficiaire de l'APD. En 2012, ce pays a reçu 1,48 milliard de dollars, selon les chiffres de la Banque mondiale, ce qui classe le royaume au 20e rang des bénéficiaires à l'échelle mondiale. Du côté des Etats-Unis, l'Agence des Etats-Unis pour le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USAID) a versé 167 millions de dollars au Maroc, en 2012. Outre les pays occidentaux, le Maroc reçoit également des dons et des prêts en provenance des pays du Golfe. Près de 600 millions de dollars ont été accordés 2012 au Maroc sous forme de dons et prêts de la part de pays du Golfe.

2. La stratégie de Soutien du Donateur Majeur « la France »

L'Hexagone figure en pole position des bailleurs de fonds du Maroc. Rien qu'en 2011, la part de la France représentait 62% des aides bilatérales reçues par le Maroc. Durant cette année, le pays était, après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et la Côte d'Ivoire, le troisième bénéficiaire de l'aide française en Afrique, rappelle Tel Quel. 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 octroyé, en 2013, 250 millions d'euros au Maroc sous forme de prêts.

2.2

En matière de coopération, la France est le premier bailleur de fonds bilatéral avec une APD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bilatérale annuelle moyenne de 188,2 millions de dollars sur la période 2001 − 2005. En 2005, la contribution totale de la France, y compris par le biais d'organisations multilatérales dont la Commission européenne, s'élevait à 259,1 millions de dollars, soit 40 % de l'aide globale reçue par le Maroc

L'aide publique française au Maroc s'appuie sur tous les instruments d'aide au

développement mis en œuvre principalement par le Service de Coopération et d'Action Culturelle (SCAC), la Mission Economique Française (MEF) et le groupe de 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La France a mis en place deux instruments d'aide à la mise à niveau du secteur privé, avec une attention particulière pour les PME-PMI :

• une ligne de prêts bonifiés, dotée de 30 millions d'euros en 1999, finance les achats de biens et services français permettant la mise à niveau technique des PME-PMI marocaines ; un fonds de garantie en faveur des PME du Maroc de 30 millions d'euros a été mis en place

en 1999, avec depuis 2005, un compartiment de 10 millions d'euros consacré plus spécialement à la restructuration financière des PME.

Elle participe également aux différents groupes de travail des bailleurs de fonds européens, aux concertations avec le gouvernement marocain sur les grands programmes nationaux et engage des cofinancements ou financements parallèles avec d'autres bailleurs bilatéraux ou multilatéraux opérant au Maroc.

Depuis le début de ses interventions au Maroc, l'AFD a engagé un montant total de 621M€, ce qui revient à près de 48M€ par an. Si l'on ajoute, les activités de sa filiale PROPARCO, dédiée aux activités du secteur privé (180M€) et les opérations de garanties d'emprunts obligataires (380M€) lancées en 1996 et 1999 sur les marchés financiers internationaux, les engagements totaux cumulés du groupe dépassent 1Md€ en 2005.

Au cours des années 2000-2004, l'AFD a engagé des montants annuels d'environ 50M€.

Les engagements nets cumulés du groupe AFD au 30 juin 2007 s'élèvent à 871 M€ d'engagements AFD auxquels s'ajoutent 227 M€ d'engagements de sa filiale PROPARCO. L'AFD concentre ses interventions dans quatre domaines : l'eau et l'environnement, les infrastructures socioéconomiques, le développement du secteur productif et le soutien du secteur privé via PROPARCO.

Le Partenariat maroco-français devra mobiliser l'ensemble du dispositif français de coopération (principalement l'AfD, le SCAC, et la Mission Economique) sur quatre domaines de concentration :

• Éducation : La mise en place de la Charte Education-Formation permettra au Maroc de rattraper le retard vis à vis des pays de la rive sud de la Méditerranée, avec une valeur ajoutée de l'appui français due à une histoire et des pratiques

communes.

• Secteur productif : La modernisation compétitive de l'économie doit permettre au Maroc de relever le défi de son ouverture commerciale, avec une valeur ajoutée de l'appui français expliquée par l'importance des relations économiques qui lient les deux pays.

• Infrastructures de base : Dans le cadre du désenclavement du milieu rural pour accompagner l'urbanisation croissante que connaît le Maroc, le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de base permettra d'agir efficacement contre la pauvreté et l'exclusion, avec une valeur ajoutée de l'appui français justifiée par la forte implication et les bons résultats obtenus ces dernières années.

• Eau - assainissement : Les besoins de financement du secteur sont très importants et diversifiés. Les interventions doivent permettre une gestion durable de la demande et améliorer les conditions de vie des populations, avec une valeur ajoutée de l'appui français liée à l'expérience et le savoir-faire .

2.2 Stratégie de L'AFD AU Maroc

La stratégie de l'AFD s'articule autour de trois objectifs principaux qui contribuent aux priorités nationales :

Renforcer la compétitivité de l'économie et améliorer le contenu en emploi de la croissance

L'AFD appuie les initiatives en lien avec le Plan Emergence industrielle (MEDZ, 150 M€) et accompagne les grands groupes marocains dans des opérations d'investissement (financement du minéroduc − 240 M€ - et du programme eau − 180 M€ - de l'Office Chérifien des Phosphates). Elle poursuit également son intervention en faveur de la modernisation et de l'amélioration de la compétitivité des exploitations agricoles et de la pêche, dans le cadre du Plan Maroc Vert (cf. supra) et du Plan Halieutis (Office National des Pêches, 28 M€). En matièr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l'AFD accompagne la politique du gouvernement, fondée sur trois principes : approche par les compétences, gestion des centres sectoriels de formation déléguée aux branches professionnelles et recours à l'apprentissage et à la formation en alternance en vue de favoriser l'insertion des « apprenants » : en complément des 22 centres de formation déjà financés dans 12 secteurs économiques (aéronautique, automobile, ...), l'AFD est disposée à étendre ses concours à de nouveaux secteurs (énergies renouvelables et efficacité énergétique).

Réduire les inégalités sociales et territoriales

À travers des appuis aux secteurs de la santé et de l'éducation. Dans le domaine de l'éducation, les activités de l'AFD visent à soutenir la réforme du système éducatif marocain (« programme d'urgence 2009-2012 », 50 M€). Dans le secteur de la santé, l'AFD a financé un programme d'appui à la régionalisation et au renforcement des soins de santé de base et accompagne la stratégie 2008-2012 du ministère de la santé sur les soins de santé primaire (aide budgétaire sectorielle de 35 M€). L'amélioration des conditions de vie des populations, à travers l'aménagement de l'espace urbain et le renforcement des infrastructures et services de base est également une priorité pour l'AFD. Elle appuie les opérations de lutte contre l'habitat insalubre, d'aménagement de quartiers urbains et de développement de villes nouvelles à travers le financement du contrat programme (2008-2012) du holding Al Omrane (50 M€). Elle accompagne également le développement et la modernisation des transports urbains dans les grandes villes (tramway de Rabat- Salé, 45 M€). Dans la perspective de prêts directs en faveur des collectivités locales, l'AFD contribue au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gestion des communes et au développement des sociétés de développement local (SDL). Plus globalement, les opérations de l'AFD visent la généralisation de l'accès aux services de base - eau, assainissement, éducation, santé⋯- mais aussi le désenclavement des populations rurales (2e programme national de routes rurales, 60 M€).

Favoriser une croissance durable et contribuer à la préserva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secteur de l'eau, les interventions de l'AFD portent sur : i) l'accès des populations aux services d'eau potable en milieu rural (20 M€) ; ii) l'amélioration des performances des réseaux d'eau potable en milieu urbain afin d'optimiser la ressource (20 M€) ; iii) le rattrapage des retards en matière de dépollution et d'assainissement (65 M€), iv) la valorisation de la petite et moyenne irrigation et la promotion d'une agriculture pluviale plus respectueuse des sols agricoles (40 M€). Dans le secteur de l'énergie, l'AFD accompagnera la nouvelle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 elle apportera ainsi son appui au Plan solaire marocain (100 M€ pour la 1ere phase du projet de centrale solaire de Ouarzazate) et poursuivra sa coopération avec l'ONE en matière de transport d'électricité (50 M€). Enfin, l'AFD pourrait développer son action en faveur de la préservation de la biodiversité (conservation de la cédraie de l'Atlas).

Financement du secteur privé par le canal de PROPARCO

✓ Le refinancement de banques locales, sous forme de lignes de crédit en devises à long terme, qui leur permettent de disposer de ressources adaptées pour financer les grands projets d'infrastructure et les investissements de la zone franche de Tanger (ligne de 50 M€ à la BCP); le développement des banques marocaines en Afrique sub-saharienne constitue une autre piste de partenariat

✓ Le financement d'entreprises marocaines en direct ou au travers de fonds d'investissement : Proparco est présente au capital de six fonds d'investissement (en direct ou via le fonds de fonds Averroès, co-géré avec la CDC) et a pris une participation dans le fonds PME Croissance

✓ Le financement d'entrepreneurs par le canal d'institutions de micro-finance, notamment au travers de garanties bancaires et de financements subordonnés (Fondation BP pour le microcrédit : 10 M€)

✓ L'apport de prêts longs et/ou structurés ou de quasi-fonds propres dans le cadre de grands projets d'infrastructures ou industriels impliquant des structures financières particulières (PPP, producteurs privés d'électricité, concessions) et nécessitant des ressources à long terme en devises.

2.3 . Perspectives et Projets

: Lors de la IXème « Rencontre de Haut Niveau » entre les Premiers ministres marocain et français du 2 juillet 2010, le montant des financements concessionnels de l'AFD sur la période 2010-2012 a été porté « à 600 M€ au minimum », dont 200 M€ pour la Ligne à Grande Vitesse (LGV) Tanger-Kenitra.

Par ailleurs, l'AFD poursuivra le développement de ses concours « non souverains » : en 2011, 330 M€ ont ainsi été autorisés (sur un total de 481,1 M€,).

Sans exclure le financement ponctuel de projets, l'AFD vise à accompagner les politiques publiques par des aide programmes voire des appuis budgétaires sectoriels (éducation et santé). De plus, les concours accordés par l'AFD en 2011 sont très emblématiques puisqu'ils financent la mise en œuvre de plans sectoriels :

✓ Plan Solaire (prêt de 100 M€, accompagné d'une subvention de 300 K€), pour la 1ère phase du projet de centrale de Ouarzazate

✓ Pilier II (« agriculture solidaire ») du Plan Maroc Vert sous forme d'un programme d'appui dans le nord du Royaume (prêt de 50 M€, accompagné d'une

subvention de 300 K€)

✓ Programme eau de l'OCP (prêt de 180 M€), qui vise − en dépit du doublement de la production − à ne plus prélever dans la nappe phréatique à l'horizon 2020 (par le recours au traitement d'eaux usées et au dessalement d'eau de mer)

✓ Programme de plateformes industrielles intégrées et de technopôles (prêt de 150 M€ et subvention de 500 K€ en faveur de MEDZ, filiale spécialisée de la CDG) dans le cadre du « Plan Emergence » et du Pacte national pour l'émergence industrielle.

: MFED MAROC

✓ Porteur du projet : BRED

✓ Intitulé du projet : Mécanisme de financement pour l'énergie durable spécifique au Maroc « MFED Maroc ».

✓ Les objectifs du projet : introduction au Maroc de technologies, d'appareils et d'équipements axés sur l'efficacité énergétique et les énergies renouvelables

✓ Chiffre mobilisé : jusqu'à 80 millions d'euros

✓ Destination des fonds : Institutions financières participantes (« IFP ») au Maroc pour rétrocession à des emprunteurs secondaires éligibles du secteur privé.

✓ Objet : investissements dans l'énergie durable

✓ Intérêts du projet

• Promotion du développement des prêts en faveur de l'efficacité énergétique e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au Maroc

• Illustration le recourir à des intermédiaires financiers pour des investissements visant à encourager l'efficacité énergétique.

• Montrer les avantages d'une utilisation rationnelle de l'énergie grâce à l'amélioration de la compétitivité industrielle face à la hausse du coût de l'énergie.

• Développement des capacités internes des IFP pour le financement de projets en faveur de l'efficacité énergétique e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 Le client : Institutions financières éligibles au Maroc

✓ Organismes finançant le projet :

• La Banque européenne d'investissement « BEI »

• L'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 AFD »

• La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 KfW ».

- La Facilité d'investissement pour le voisinage de l'Union européenne - Sud (FIV UE - Sud) : montant de 12 millions d'euros

✓ Coopération technique

Un programme de coopération technique complet sous forme Une subvention de 3,05 millions d'euros est accordée par :

- La Facilité d'investissement pour le voisinage de l'Union européenne - Sud (FIV UE - Sud)
- Le Fonds multi - donateurs de la BERD pour la partie méridionale et orientale du bassin méditerranéen (SEMED).

3. Les principales stratégies de soutien :

3.1 Organisation Bilatérale

3.1.1. L'Allemagne :

Ensemble, les gouvernements marocain et allemand ont défini trois secteurs prioritaires de la politique de coopération. Leur importance pour un développement harmonieux du Maroc n'est pas négligeable. Les différents projets sont définis par rapport à ces priorités.

Les différents projets sont définis par rapport à ces priorités.

Les trois secteurs sont:

✓ adduction d'eau potable et assainissement ;

✓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y compris la protection des ressources naturelles ;

✓ mise à niveau de l'économie marocaine, y compris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Le montant total de 110 millions d'euros se répartit comme suit:

Coopération financière:

o Programme sectoriel alimentation en eau III (amélioration des performances de l'ONEP): 21 millions d'euros-

o Alimentation en eau potable rurale II: 9,5 millions d'euros

o Assainissement des petits centres III: 7,5 millions d'euros

o Élimination des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10 millions d'euros

o Parc éolien de Tanger: 50 millions d'euros

o Fonds de Dépollution (FODEP) - mesure d'accompagnement: 0,5 millions d'euros

o Programme de Gestion et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PGPE: 4,5 millions d'euros

Coopération technique:

o Appui à la mise en œuvre du programme d'action national de lutte contre la désertification: 2 millions d'euros

o Promotion de la compétitivité internationale de l'économie marocaine (augmentation): 1,5 millions d'euros

o 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s produits agroalimentaires: 2,5 millions d'euros

o Intégration de l'approche genre aux politiques de développement: 1 million d'euros

3.1.2. Le Japon :

La politique de base de l'APD destinée au Maroc vise à la réalisation sous toutes ses formes d'une aide basée sur le « Plan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 » (2000-2004), dont les axes principaux sont la privatisation, les réformes économiques et la réduction des inégalités sociales. En particulier, la poursuite des actions pour la réduction des disparités entre les régions est clairement inscrite en ce qui concerne les domaines visés par les OMD. Les champs essentiels de l'aide définis lors des discussions de juillet 1999 sur la politique globale de coopération sont les suivants : 1. développement de l'agriculture et de l'industrie de la pêche ; 2.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en eau ; 3.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de base ; 4. aménagement régional destiné à réduire le taux de pauvreté et les disparités entre les villes et les milieux rurales ; 5. environnement ; 6. Développement social

Le gouvernement du Japon a depuis 1976 collaboré avec le Maroc dans divers domaines tels que l'approvisionnement en eau potable, la pêche, la santé maternelle, l'électrification rurale, la construction de routes et autoroutes, la construction d'établissement scolaires et de recherche.

Le nombre de projets financés par le gouvernement du Japon au Maroc est comme suit:

✓ 28 projets d'aide financière (prêt) depuis 1976, d'un montant global de 220 milliards de yens (soit environ16, 1 milliards de DH)?

✓ 64 projets d'aide non remboursable (dons) depuis 1979 d'un montant global de 30,9 milliards de yens (environ 2,4 milliards de DH)

✓ 301 projets d'aide non remboursable aux micro projets locaux (dons) depuis 1989 d'un montant global de 1,5 milliards de yen (environ 129 millions de DH)

Les principaux secteurs concernés sont l'agriculture et l'industrie halieutique, l'approvisionnement en eau et l'électrification rurale, les transports et la santé maternelle. En outre, l'APL (aide sous forme de dons aux micro-projets locaux contribuant à la sécurité humaine) représente depuis 2000 entre 12 et 28 projets par an, soit au total 126 projets.

3.1.3. La Chine

La Chine ne figure pas parmi les premiers pays donateurs. Depuis 1961 et jusqu'à présent, le Maroc a bénéficié à titre de dons de la part de la Chine, d'un montant global de 122,42 millions de yuans.

Ces dons sont destinés à financer la fourniture de matériel pour des secteurs divers comme la pêche, la santé, l'équipement, l'agriculture et l'énergie.

Les derniers dons sont les suivants:

- ✓ 5 millions de Yuans, le 5 février 2002 pour le financement de trois cartes géochimiques dans la région de Goulimin-Smara;
- ✓ 800.000 Yuans, le 27 août 2002 pour la fourniture d'un lot de matériel pour le Centre
- ✓ Hospitalier Moulay Youssef de Rabat ;
- ✓ 500.000 Yuans, le 27 août 2002 pour l'achat de meubles et appareils électroménagers;
- ✓ 5 millions de Yuans, le 31 décembre 2003 pour la réalisation de petits projets de coopération économique et technique et l'importation de matériel chinois;
- ✓ 5 millions de Yuans, le 25 février 2004 pour la fourniture de matériel humanitaire pour les victimes du tremblement de terre d'Al Hoceima;
- ✓ 10 millions de Yuans, le 16 mai 2005 pour la formation de personnel dans les domaines du textile, de la sismologie et de la prévision de séismes ainsi que des stages de formation pour les fonctionnaires de ce Ministère, du Ministère de l'Industrie et du Ministère du Commerce Extérieur;
- ✓ 20 millions de Yuans, le 5 septembre 2005 pour le financement du programme pilote de traitement des cours d'eau pour la période 2006-2010;
- ✓ 40 millions de yuans, le 24 avril 2006 affectés à hauteur de 10 millions de yuans au profit de la fondation Mohamed V pour la solidarité, en vue du financement de l'équipement de centres sociaux construits ou en cours de construction par ladite fondation, et à hauteur de 30 millions de yuans pour le financement d'opérations s'inscrivant dans le cadre de l'Initiative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Humain.

3.1.3. L'Espagne et l'Italie :

En plus des aides finaicères et les dettes, il a été constaté une pOURSUITE DE LA REALISATION DES PROJETS FINANCES A TRAVERS LES ACCORDS DE CONVERSION CONCLUS AVEC L'ESPAGNE ET L'ITALIE

Les projets financés dans le cadre des Accords de conversion de la dette en investissements publics conclus avec l'Espagne (50 millions €) et l'Italie (20 millions €) ont permis de convertir, au titre de l'année 2013, 60,4 millions DH de la dette due par le Maroc à ces créanciers, en investissements publics. Ce montant est réparti comme suit :

- 54,7 millions DH convertis dans le cadre du Programme de conversion de la dette conclu avec l'Espagne à travers le financement de projets d'assainissement liquide réalisés par la Branche eau de l'Office Nationale de l'Electricité et de l'Eau Potable au niveau des villes de Chefchaouen et Saidia (21,3 M.DH) et de projets d'acquisition et d'installation d'équipements électriques au profit de la Branche électricité de l'Office (33,4 M.DH) ;

- 5,8 millions DH ont été convertis dans le cadre de l'Accord conclu avec l'Italie dont 3,4 millions DH au titre du Programme d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s associations marocaines réalisé par l'Agence de Développement Social et 2,46 millions DH dans le cadre de projets relevant de l'Initiative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Humain (INDH).

Ainsi et à fin 2013, le montant total converti pour l'ensemble des projets financés à travers le Programme de conversion de la dette conclu avec l'Espagne a atteint 376,4 millions DH, soit un taux d'utilisation de 68%. Pour ce qui est de l'Accord conclu avec l'Italie, le montant total converti a atteint 199,5 millions DH soit un taux d'utilisation de 89%.

CONCLUSION D'UN NOUVEL ACCORD DE CONVERSION EN INVESTISSEMENTS PUBLICS AVEC L'ITALIE

Suite aux résultats probants des 3 premiers Accords conclus entre le Maroc et l'Italie en 2000, 2004 et 2009, les deux pays ont procédé, en date du 9 avril 2013, à la conclusion d'un quatrième Accord de conversion de la dette en investissements publics portant sur une enveloppe de 15 millions €. L'enveloppe de cet Accord a été dédiée au financement de :

- projets relevant de la deuxième phase de l'INDH pour un montant de 12 millions €;

- projets de préservation du patrimoine archéologique à hauteur d'un montant de 2 millions € ;

et - formations au profit du personnel médical pour un montant de 1 million €.

3.2. Organisation multilatérale :

3.2.1. L'Union européenne

Le Maroc, en valeur absolue, a été le premier pays bénéficiaire du programme MEDA qui s'est achevé le 31/12/2006. Au titre du MEDA, le Royaume a bénéficié d'une allocation de €1,2 Md de dons sur la période 1995-2006 en termes d'engagement. Sur la même période, le niveau des paiements a atteint 783 M€. Depuis quelques années, on note une accélération de la mise en œuvre des programmes et des réformes.

Au 1er janvier 2007, le programme MEDA a été remplacé par l'instrument européen de voisinage et de partenariat (IEVP). La politique européenne de voisinage a pour but le renforcement des liens avec l'UE. Dans ce cadre, l'enveloppe allouée au Maroc pour la période 2007-2010 est actuellement de 682 M€2. La ventilation de cette enveloppe est la suivante :

- ✓ volet stratégique : 43,4 %
- ✓ volet économique : 31,5%
- ✓ volet institutionnel : 13,7%
- ✓ volet environnement : 7,3%
- ✓ volet gouvernance droit de l'homme : 4,1%

L'UE intervient également par le biais de la BEI qui, pour la période 1997-2003, a accordé au Maroc des prêts d'un montant total de plus d'un milliard d'euros. Présente au Maroc depuis 1978, la BEI y a apporté des financements pour un montant total de plus de 3 milliards d'EUR. Ses opérations se sont réparties entre les secteurs d'intervention traditionnels de la Banque dans la région :

o Énergie : avec plus de 1,15 milliard d'EUR de financements, le secteur de l'énergie est le principal bénéficiaire des prêts de BEI. Parmi les projets financés par la Banque figurent le gazoduc du Maghreb, qui relie le Maroc et l'Espagne, et le premier parc d'éoliennes en concession privée.

o Transports et télécommunications : la BEI a accordé 930 millions d'EUR dans ce secteur. La Banque a récemment financé la construction et la réhabilitation de routes rurales dans les provinces du Nord, et la construction des autoroutes Rabat-Fès et Rabat-Tanger. Elle a également contribué à la modernisation de nombreux ports marocains.

o Eau et environnement : la Banque a prêté près de 520 millions d'EUR pour le financement d'importants ouvrages de gestion des eaux et pour l'assainissement de plusieurs villes marocaines (Marrakech, Fès, Meknès, Oujda et Settat).

o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 par le canal de ses lignes de crédit, la Banque a accordé près de 250 millions d'EUR pour le financement des PME, en particulier dans une perspective de constitution de coentreprises entre opérateurs marocains et européens.

o Capital-investissement : les opérations de capital-risque ont absorbé plus de 120 millions d'EUR au Maroc. Elles ont permis de financer plusieurs fonds d'investissement et de co-investir avec des banques locales dans un grand nombre de PME au travers d'opérations en capital ou quasi-capital. La Banque a également apporté son soutien au développement de la micro- finance au Maroc à travers notamment la politique de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dont la Facilité euro-méditerranéenne d'investissement et de partenariat (FEMIP).

o Capital humain : la Banque a consacré 100 millions d'EUR aux secteurs de l'éducation et de la santé. Elle a notamment financé la création et l'extension d'une trentaine de centres de formation dans les secteurs du tourisme, du textile et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afin d'améliorer la qualité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o Infrastructures urbaines : la BEI a consenti plus de 70 millions d'EUR en faveur de la construction de logements sociaux, une première pour la BEI dans ce secteur en dehors de l'Union européenne. Ce projet permettra de réhabiliter des quartiers insalubres et de remédier à la pénurie de logements sociaux au Maroc.

o Assistance technique : avec 15 opérations d'une valeur totale de 7,1 millions d'EUR, le Maroc est le principal bénéficiaire de l'assistance technique de la FEMIP en nombre de projets, et le 3e en volume sur la période 2003-2006. Ces opérations ont principalement bénéficié aux secteurs de l'environnement et du capital humain ainsi qu'au secteur financier.

Il est à rappeler que pour la période de 2007 à 2013, le Maroc bénéficie d'une

enveloppe de 654 millions d'euros, auxquels s'ajoutent encore d'autres fonds attribués à des domaines thématiques tels que les droits de l'homme, la migration et les programmes régionaux.

: Les objectifs essentiels de la coopération financière entre l'UE et le Maroc sont de répondre aux besoins de développement socio-économique durable du Maroc, d'appuyer les stratégies de réformes sectorielles marocaines, de promouvoir la bonne gouvernance et les droits de l'homme, de favoriser le rapprochement de la législation marocaine avec l'acquis communautaire, et ce sur base des priorités politiques fixées conjointement par les deux parties dans le plan d'action de la politique européenne de voisinage (PEV).

Le Maroc est le premier bénéficiaire de la coopération technique et financière de l'UE dans la région du voisinage au titre de l'instrument de la PEV, à l'exception de la Palestine (de 2011 à 2013 budget de 580,5 millions EUR pour les années 2011 à 2013, soit plus de 190 millions EUR par an). Des fonds additionnels de 80 millions EUR en 2011-2012 et 48 millions EUR en 2013 ont été alloués au Maroc pour appuyer les réformes démocratiques et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urable et inclusif sous le programme SPRING (programme destiné à aider la région du voisinage sud suite au Printemps arabe).

L'appui budgétaire :

Levier majeur pour accélérer les réformes prioritaires aussi bien pour le Maroc que pour l'UE, l'appui budgétaire consiste à verser directement des fonds dans le budget de l'Etat lorsque les objectifs agréés entre les deux parties sont atteints. Par ailleurs, des projets "classiques"' continuent d'être développés dans plusieurs domaines de coopération tels que la gouvernance et les droits de l'homme, le développement rural, les infrastructures ou encore l'appui institutionnel.

Résultats :

Des résultats tangibles ont aussi été constatés dans plusieurs secteurs sociaux: appuyée par l'aide de l'UE, la réforme de la santé a permis déjà une réduction de plus de 50% de la mortalité maternelle et de plus de 30% de la mortalité infantile entre 2004 et 2010, ainsi que l'extension de la couverture médicale de 16% en 2005 à 44% en 2012. Les programmes menés dans le secteur de l'éducation et de la lutte contre l'analphabétisme permettent de constater une amélioration des indicateurs clés (augmentation des taux nets de scolarisation, diminution du taux d'analphabétisme de

43% en 2004 à 28% en 2012), tout en s'attaquant aux défis qui restent encore à relever dans ces secteurs.

Autres programmes de coopération

Il est important de noter qu'en plus de l'appui aux politiques sectorielles du Maroc, d'autres programmes de coopération sont également en œuvre au Maroc :

- ✓ Programmes Tempus et Erasmus Mundus visant à promouvoir la coopération entre institutions d'enseignement supérieur et la mobilité des étudiants.
- ✓ L'UE a appuyé la société civile depuis l'année 2000 à travers 140 projets avec un montant global de 40 millions EUR. 300 organisations et réseaux ont en été les bénéficiaires. Actuellement, plus de 50 projets sont en cours d'exécution avec un budget global de 15 millions EUR, dans les domaines de la démocratie et des droits de l'homme, mais aussi de la justice, la migration, la sécurité, l'environnement, l'énergie, les transports. Par ailleurs, la nouvelle Facilité Société Civile permettra de contribuer au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la société civile (y compris de plaidoyer et monitoring des politiques publiques) avec la mise en œuvre d'un nouveau programme qui couvre la période 2013-2015 avec un budget global de 1.4 millions EUR.
- ✓ Un Fonds européen pour la démocratie a également été mis sur pied, afin de répondre aux demandes de soutien formulées par les organisations de la société civile, les mouvements et les militants individuels, y compris les jeunes leaders et les médias indépendants, agissant en faveur d'un système politique pluraliste et ce, indépendamment de leur taille ou de leur statut officiel.
- ✓ La Facilité d'Investissement Voisinage (FIV), instrument financier lancé en 2008 pour les pays du voisinage Sud et Est, qui complète les prêts des institutions financières européennes (AFD, BEI, KFW..) par des dons de l'UE. Le Maroc est actuellement le premier bénéficiaire de la région voisinage Sud. Les secteurs concernés par la FIV sont le transport (Tramway de Rabat), les routes rurales, l'éducation, l'assainissement, l'eau potable, l'énergie solaire et le réseau électrique marocain.

La Banque Européenne d''Investissement (BEI) contribue également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 au Maroc. Depuis 2002, la BEI a financé pour 2,6 milliards d'EUR de projets dans différents secteurs d'activité: énergie, environnement, finance, capital humain, industrie, transport, capital investissement. Exemples de projets financés: construction de routes, assainissement de l'eau, site d'énergie solaire

d’Ouarzazate, extension de réseaux d'électricité⋯Depuis septembre 2012, la Banque Européenne de Reconstruction et de Développement (BERD) a aussi commencé à investir dans la région du Sud et de l'Est du bassin méditerranéen, et notamment au Maroc.

: Les propositions budgétaires soutiendront la nouvelle approche de la Commission (le «programme pour le changement») visant à concentrer l'aide de l'UE sur l'appui à la démocratie, aux droits de l'homme et à la bonne gouvernance et à créer une croissance inclusive et durable. Dans le cadre du nouveau principe de «différenciation», l'UE attribuera une plus grande part des fonds là où l'aide peut avoir l'incidence la plus forte: dans les régions et pays qui ont les plus grands besoins, y compris les États fragiles. Les pays disposant de suffisamment de ressources pour assurer leur propre développement ne recevront plus d'aide bilatérale sous forme de subvention mais bénéficieront de nouvelles formes de partenariat; ils continueront à recevoir des fonds au moyen des programmes thématiques et régionaux. Cette aide sera complétée par différentes modalités de coopération innovantes, telles qu'une combinaison de subventions et de prêts.

L'une des innovations majeures est le nouvel instrument de partenariat, instrument clé de la politique extérieure. Celui-ci visera à faire progresser et à promouvoir les intérêts de l'UE et à relever les grands défis internationaux. Il permettra aussi à l'UE de poursuivre des objectifs allant au-delà de la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avec les pays industrialisés, les économies émergentes et le pays où l'UE a d'importants intérêts.

Les instruments de la politique de voisinage et les instruments de préadhésion :

Dans le contexte de la nouvelle approche de la politique européenne de voisinage (PEV), le nouvel instrument fournira une aide rationalisée aux mêmes pays partenaires1 que celle qui leur était attribuée dans le cadre de l’instrument européen de voisinage et de partenariat (IEVP). Conformément au principe de la différenciation et à l'approche «donner plus pour recevoir plus», la PEV appuiera le renforcement des relations avec les pays partenaires et apportera des avantages tangibles aussi bien à l'UE qu'à ses partenaires dans des domaines tels que la démocratie et les droits de l'homme, l'État de droit, la bonne gouvernance,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 durable et l'intégration économique progressive dans le marché unique de l'UE.

3.2.2. Les autres grands prêteurs multilatéraux :

Les autres grands prêteurs multilatéraux sont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BAD) dont les engagements cumulés au Maroc dépassent USD 3 milliards, le Fonds Arabe de Développement Economique et Social (FADES) et la Banque Islamique de Développement (BID) avec des engagements de volume comparable, essentiellement orientés vers la création ou renforcement des infrastructures du pays. Bien que ses prêts ne soient pas comptabilisés dans l'APD au Maroc, la Banque Mondiale, malgré la faiblesse des déboursements constatée ces dernières années, redevient un partenaire d'importance en raison avant tout de ses capacités d'expertise et de conseil. A souligner ici que le CAS (Mai 2005) prévoit une nette croissance des engagements de la Banque, passant d'USD 250 à 300 millions annuels.

3.2.2.1. La banque islamique de développement « BIsD »

A. Cadre stratégique de la BIsD :

En 2003, le Groupe de la BIsD a adopté un nouveau cadre stratégique qui vient réaffirmer la vision, la mission et les valeurs centrales de cette institution, tout en redéfinissant ses objectifs à moyen terme. Les objectifs sont désormais les suivants : promouvoir l'industrie et les institutions financières islamiques, réduire la pauvreté, encourager la coopération entre pays membres. Pour y parvenir, la BIsD se concentrera sur les 6 domaines prioritaires suivants : (i) développement humain ; (ii) développement agricole et sécurité alimentaire ; (iii)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iv) commerce entre pays membres ; (v) développement du secteur privé ; et (vi) recherche et développement dans les secteurs de l'économie, de la banque et des finances islamiques.

B. Vision 2005 « Une vision pour la dignité humaine »

L'année 1426 Hijra (2005), la Banque islamique de développement a établi sa vision stratégique à long terme dans le document Vision 1440H (2020) : « D'ici à l'année 1440 Hijra, la BIsD sera devenue l'une des plus grandes banques de développement du monde et, inspirée par ses principes islamiques, elle contribuera à transformer sensiblement le panorama du développement humain global dans le monde musulman, ainsi qu'à en rétablir la dignité ». La vision de la BIsD est de jouer un rôle de « leader dans la défense du développement socioéconomique des pays membres et des Communautés musulmanes conformes à la Charia (loi islamique) ». La mission de la BIsD est énoncée comme suit :

« Réduire la pauvreté, promouvoir le développement humain, la science et la

technologie, l'économie, la banque et les finances islamiques, ainsi que renforcer la coopération entre les pays membres aux côtés de nos partenaires de développement ».
La BIsD concède des prêts et des dons. Les prêts sont sans intérêts (conformément à la Charia), mais ils impliquent des frais administratifs atteignant 1,5 % à 2,5 % pour les prêts standard et 0,75 % pour les prêts très concessionnels aux PMMD. Le montant des commissions est fixé provisoirement dans les accords de financement et finalement après le dernier décaissement. Les commissions sont à régler quel que soit le niveau de décaissement. Les remboursements de prêts s'étendent sur une période de 15 à 30 ans avec un délai de grâce de 3 à 10 ans, en fonction du projet/bénéficiaire.
La BIsD offre également des formules de crédit-bail non concessionnel avec une marge bénéficiaire annuelle de 7,5 % à 8 % sur une période de maturité de 3 à 4 ans, ainsi que de vastes montants d'opérations de financement des exportations avec une marge bénéficiaire de 6,5 % et une période de remboursement de 9 à 24 mois .
C. Types d'aide
La BIsD concède trois types principaux de financements : projets, soutien à la balance des paiements pour encourager le commerce entre pays membres, coopération technique. Elle peut aussi financer les prises de participations, qui ne doivent pas dépasser 1/3 du capital du projet.
D. Canaux d'assistance
Excepté les programmes de financement du commerce extérieur, les projets de la BIsD sont destinés aux ministères sectoriels, aux organismes d'exécution de projets, et parfois directement aux promoteurs privés.
E. Secteurs et projets
Les secteurs prioritaires de la BIsD sont les suivants : développement humain, développement rural et sécurité alimentaire,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développement du secteur privé, recherche et développement en matière d'économie islamique, banque et finances.
3.2.2.2. Groupe de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BAD/FAD
A. Stratégie générale
Dans le droit fil de sa stratégie a moyen terme (2008−2012), le Groupe de la Banque a axé ses opérations sur la résolution des défis pressants auxquels les PMR sont confrontes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pour les aider a atteindre un développement et une croissance durables et inclusifs. Au cours de l'année, la

Banque a oriente ses efforts vers ses quatre domaines d'intervention prioritaires que sont l'infrastructure, la gouvernance, le développement du secteur prive, et l'enseignement supérieur et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La Banque a également intensifie son appui aux Etats fragiles, aux pays a revenu intermédiaire (PRI), au développement agricole et rural, a la parité hommes femmes, a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t au changement climatique, a l'intégration régionale et au commerce, ainsi qu'a la production et a la gestion du savoir.

B. Programme ou projet pour le Maroc : le programme d'investissement 2008-2018 de l'Office chérifien des phosphates (OCP)

C. Période de soutien : 2008- 2018

D. Objectif : L'objectif de ce projet est d'accroitre durablement la contribution de l'OCP à l'économie marocaine et de conforter sa position de leader mondial du secteur des phosphates.

E. Les résultats attendus : Capacité de production de phosphate de l'OCP accrue de 65 % (de 28 a 47 millions de tonnes par an) ; Augmentation des recettes de l'Etat et des investissements directs étrangers dans le secteur marocain des phosphates ; Réduction des émissions de gaz a effet de serre et Stimulation de la création d'emplois avec 9 000 nouveaux emplois directs.

3.2.2.2. Le fonds Monétaire International « FMI »

STRATEGIE :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ans les pays membres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qui prend la forme d'une assistance technique « De conseils ;

Collecte de fonds pour financer l'assistance technique du FMI » et d'actions de formation, est l'une des trois activités primordiales du FMI; elle est intégrée aux deux autres, à savoir la surveillance et l'octroi de financements. Elle est au service des priorités stratégiques du FMI en ce qu'elle renforce les capacités des pays membres dans les domaines budgétaire et juridique, des marchés monétaires et financiers, et des statistiques.

4. Les principales implications des activités de soutien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 Tout pays désireux d'inscrire un organisme dans le Groupe de la BIsD doit remplir trois conditions, à savoir : (i) être membre de l'Organisation de la conférence

islamique (OCI), (ii) verser sa contribution au capital de l'organisme et (iii) accepter les termes et les conditions susceptibles d'être décidés par le Conseil des gouverneurs de l'organisme.

La première étape du cycle de projet/programme consiste en ce qu'une institution publique du pays bénéficiaire potentiel soumette une demande de financement officielle à la BIsD, qui, après la décision du comité technique de la banque, sera transmise par les organes de direction au Conseil d'administration et au Conseil des gouverneurs pour son approbation. La demande doit faire l'objet d'une étude de faisabilité. Aucun décaissement ne peut être effectué avant la date d'entrée en vigueur de l'accord de financement. Les accords de dons entrent en vigueur dès leur signature. Pour les prêts, les documents suivants sont nécessaires dans les 12 mois postérieurs à la signature : un avis juridique et des documents attestant que tout le service de la dette est à jour. Au-delà de ce délai, l'accord sera nul et non avenu, sauf si la BIsD accorde une prorogation.

En termes de conditions préalables, la BIsD exige généralement la création d'une unité de projet et l'ouverture d'un compte en banque spécial.

En outre, la BIsD sollicite généralement des fonds de contrepartie des pouvoirs publics bénéficiaires ou du promoteur privé, afin de couvrir les coûts en monnaie nationale. Pour les pays les moins développés toutefois, ces fonds peuvent parfois provenir des ressources de prêts.

: Les aides au développement inter-états ont finalement un coût pour les pays bénéficiaires. L'Union européenne, dans une nouvelle course au soutien des pays du Printemps arabe, ne se cache désormais plus derrière ses diplomates pour dicter les règles du jeu. Le Maroc, également touché par la brise du changement dans la région, sait ce qu'il l'attend : l'Union européenne a dressé les priorités pour chaque Etat dans un canevas bien clair où les dossiers les plus attendus s'articulent essentiellement autour des instruments d'installation de la démocratie et de la bonne gouvernance au sein des appareils de l'Etat. La semaine dernière, Manfredo Fanti, sous directeur en charge de la région Maghreb au Service européen pour l'action extérieure, a encore une fois confirmé ce repositionnement devant un parterre de journalistes marocains en déplacement à Bruxelles : « Nous préparons aujourd'hui la période 2014-2020 pour les aides vers les pays du Maghreb « sauf, la Mauritanie » et nous avons aujourd'hui des attentes très précises par rapport à certains chantiers de réformes : la Constitution, les lois organiques, la justice, la presse et les médias et la

vie civile en général », détaille le responsable européen. En effet, la nouvelle Constitution, sa préservation en tant que texte de référence et son applicabilité, notamment à travers des lois organiques, est un chantier que suivent de près les donateurs européens. Exclusivement du domaine du législateur, ces lois traînent souvent trop longtemps entre les couloirs des décideurs de la chose politique avant de sortir au grand jour. Certaines, à l'exemple de la loi organique sur la grève, n'ont jamais vu le jour. La réforme de la justice est également un défi auquel s'attelle aujourd'hui l'équipe de Benkirane. Les instances européennes n'hésite d'ailleurs pas à applaudir l'engagement du Maroc dans ce processus en rapportant que « l'année 2011 a finalement connu des progrès sur le plan législatif avec une trentaine de projets de loi et décrets dont plusieurs ont été adoptés et publiés au Bulletin Officiel ». Les Européennes précisent toutefois que « l'appui que l'UE est décidée à dédier à la réforme de la justice reste subordonné à l'élaboration d'une véritable stratégie opérationnelle pour cette réforme ». Sur ce pan, la réalité est encore en deçà des attentes des citoyens et des donateurs : les tribunaux marchent encore avec une mentalité moyenâgeuse et le respect des droits des justiciables n'est toujours pas respecté. Si on y ajoute le manque, parfois trop flagrant, du respect par les OPJ et autres agents assimilés du code de procédures pénale, on peut bien comprendre comment le ministre de la justice, Mustapha Ramid, n'arrive pas à concilier entre les caciques et les jeunes magistrats de plus en plus demandeurs d'une indépendance d'un corps de magistrats.

La mobilité, un joker aux mains du Maroc.

Entamé en octobre 2011 entre le Maroc et l'UE, le dialogue sur la migration, la mobilité et la sécurité vise à définir des conditions à la fois fluides et plus sûres pour la migration et la mobilité de leurs citoyens. Ce dialogue devrait déboucher sur la conclusion d'un Partenariat de mobilité entre l'UE, ses Etats membres et le Maroc. « En décembre 2011, un séminaire entre l'UE et les ministères marocains concernés s'est déroulé de façon très positive et a permis de dégager des premières pistes concrètes de coopération dans le cadre d'un futur Partenariat de mobilité », rapporte un document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daté de mai dernier. Un responsable à la Direction générale du développement et de la coopération (DEVCO), relevant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nous a confié à ce sujet « qu'un partenariat pour la mobilité est en cours de discussion entre le gouvernement marocain et l'UE. Ce partenariat couvre plusieurs aspects : facilitation des visas, réadmission, accroissement des

échanges universitaires et des opportunité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etc. Une première prise de contact a eu lieu en octobre 2012 entre les deux parties sur une déclaration conjointe sur le partenariat de mobilité. Depuis octobre des échanges se sont tenus entre l'UE et le gouvernement marocain pour finaliser cette déclaration. D'ailleurs, une autre rencontre est prévu début février pour tenter de finaliser le texte ». La promotion d'une participation active de la société civile par les pouvoirs, notamment législatifs, est un des intérêts attendus par les donateurs de l'UE. Selon le même responsable à la DEVCO, le principe qui a présidé à l'instauration de la Facilité Société Civile est celui de la reconnaissance du rôle central que peuvent jouer les associations, les syndicats ou les ONG dans le débat public et leur rôle dans l'établissement d'une forme de «contre-pouvoir» au service de la société et notamment des plus démunis au sein de cette société. « Reconnaissant leur rôle de «canal de transmission» des préoccupations citoyennes, mais aussi leur rôle d'incubateur ou de promoteur d'idées, la Facilité Société Civile (FSC) entend œuvrer à renforcer la capacité des OSC (Organisations de la Société Civil,ndlr) à influencer le débat public, à engager les gouvernements sur la voie des réformes démocratiques et sociales et à encourager la reddition des comptes dans la mise en œuvre des politiques publiques par les Gouvernements », explique le responsable européen. Pour cela, la Facilité se propose de renforcer l'efficacité des OSC dans leur mission de contributeur au débat public en améliorant leur coordination, leur capacité à mettre en œuvre des initiatives communes, et surtout d'engager un dialogue sur les politiques publiques avec les gouvernements, ajoute notre source. En chiffres, la Facilité Société Civile consiste en une enveloppe financière de 22 millions d'euros répartie entre tous les pays composant la zone voisinage (Est et Sud soit 16 pays). Dans ce contexte, le Maroc a bénéficié de 1,4 million euros au titre de cette Facilité pour 2012 et 2013. Seul bémol pour les ONG candidates aux aides, un certain nombre de critères à remplir. Les subventions peuvent être attribuées soit à une personne physique ressortissante d'un pays éligible (dans le cas d'espèce, une personne physique de nationalité Marocaine ou de nationalité d'un EM de l'Union européenne doté d'une personnalité juridique), soit à une personne morale établie dans un des pays éligibles (le Maroc ou 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Si la personne éligible est dépourvue de personnalité juridique, elle peut toutefois participer à la procédure d'attribution à condition que la Commission européenne donne son accord préalable, que les représentants de cette personne aient la capacité de l'engager juridiquement et

qu'ils offrent des garanties financières et opérationnelles suffisantes. De plus, les actions que finance l'UE à travers ses subventions doivent être des actions sans but lucratif destinées à promouvoir la réalisation d'un objectif s'inscrivant nécessairement dans le cadre de la Politique Européenne de Voisinage.

Coopération régionale (UMA ,UEOMA ,CEDEAO)

Vision générale :

Ce qui concerne les ressources financières programmables indicatives que la Communauté envisage mettre à disposition de l'Afrique de l'Ouest pour la période 2002 - 2007, un montant de 235 millions d'euros est prévu pour l'allocation visée à L'article 9 de l'annexe IV de l'Accord de partenariat ACP-CE. Cette allocation ne constitue pas un droit et peut être révisée par la Communauté, à la suite de la réalisation des revues à mi-parcours et en fin de parcours, conformément à l'article 11 de l'annexe IV. Les reliquats des FED antérieurs à la date de l'entrée en vigueur du protocole financier ainsi que les montants désengagés ultérieurement seront ajoutés à cette allocation indicative, conformément au paragraphe 5 de l'annexe 1 de l'Accord de partenariat ACP-CE.

1. PRINCIPES ET OBJECTIF DE LA COOPÉRATION RÉGIONALE COMMUNAUTAIRE :

On a 6 objectifs principaux :

a) encourager l'intégration graduelle des États ACP dans l'économie mondiale.

b) accélérer la coopération et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c) promouvoir la libre circulation des populations, des biens, des services, des capitaux, de la main d'œuvre et de la technologie entre les pays ACP.

d) accélérer la diversification des économies des États ACP, ainsi que la coordination et l'harmonisation des politiques régionales et sous-régionales de coopération.

E) promouvoir et développer le commerce inter et intra-ACP et avec les pays tiers.»

2. AGENDA POLITIQUE DE LA REGION :

La région d'Afrique de l'Afrique de l'ouest, concerne les 15 pays de la CEDEAO, qui regroupent les 8 pays de l'UEMOA (Union Economique et Monétaire de l'Afrique de l'Ouest) ainsi que le Cap-Vert, la Gambie, le Ghana, la Guinée, le

Liberia, le Nigeria et la Sierra Leone, et la Mauritanie qui a quitté la CEDEAO le 1er janvier 2001 et fait partie de l'UMA.

2.1. Le processus d'intégration économique régionale :

L'intégration économique est le processus d'unification des politiques économiques entre différents États et qui passe par l'abolition partielle ou totale des restrictions tarifaires (taxes, droits de douane) et non-tarifaires sur le commerce. Il en existe plusieurs formes : zone de libre-échange, marché commun, zone monétaire, union douanière etc.

- Amérique : Marché commun du Sud (MERCOSUR), Organisation des États américains (OEA), Union des nations sud-américaines(UNASUR)...
- Afrique : Communauté économique des États de l'Afrique de l'Ouest (CEDEAO),Union économique et monétaire ouest africaine UEMOA Communauté économique des États de l'Afrique centrale (CEEAC), Union africaine...
- Moyen-Orient : Ligue arabe, Organisation des pays arabes exportateurs de pétrole (OPAEP), Conseil de coopération du Golfe (CCG).
- Asie : Association des nations de l'Asie du Sud-est (ASEAN).
- Europe : Accord de libre-échange centre-européen (ALECE), Association européenne de libre-échange (AELE), Union européenne (UE).

2.1.2. Les structures institutionnelles de l'intégration régionale :

Deux organisations ont été officiellement mandatées en matière d'intégration régionale, la CEDEAO et l'UEMOA.

1/. La CEDEAO : la CEDEAO est l'institution intégratrice de référence au niveau économique en Afrique de l'Ouest.

2/l'UEMOA : c'est une organisation principal à vocation d'intégration économique, a été créée en 1994 au moment de la dévaluation du franc CFA et précisément pour assurer à l'avenir une cohérence entre la politique monétaire de l'Union et les politiques budgétaires et économiques des Etats membres.

2.2. La dimension régionale des politiques sectorielles :

2.2.1. Transports : Les transports comprennent plusieurs modes, routier, maritime, fluvial, ferroviaire et aérien, qui ont des rôles complémentaires à jouer pour assurer le meilleur service aux usagers, ce qui souligne l'importance d'une approche multi-modale

2.2.2. Sécurité alimentaire, politique agricole et politique de la pêche :

La sécurité alimentaire est une priorité majeure pour tous les Etats de la région et se

retrouve inscrite en tant que telle au niveau des politiques nationales et dans les PRSP. Elle n'apparaît pas toujours comme un secteur spécifique mais est souvent abordée de manière transversale tant à travers la politique agricole et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qu'au travers d'autres aspects des politique macro-économiques et sectorielles.

2.2.3. Energie : L'UEMOA de son côté, a défini un programme énergétique communautaire dont les principaux axes sont la promotion de l'énergie renouvelable, l'interconnexion des réseaux électriques et la mise en place d'un système de planification énergétique intégrée. 2.2.4. Télécommunications : La CEDEAO a d'une part, par son fonds spécial des communications permis l'entretien des infrastructures, et, d'autre part lancé son deuxième programme Intelcom II pour permettre la réhabilitation et la modernisation des liaisons inter-Etats. Elle a établi un calendrier pour la création d'un marché libéralisé des télécoms d'ici 2007. L'UEMOA a initié des actions dans le sens de l'harmonisation des cadr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 et de mise en place de structures de concertations régulateurs/ fournisseurs/ opérateurs.

2.2.5. Secteurs sociaux: santé : Sur le plan régional, la CEDEAO a créé une institution spécialisée en santé : l'Organisation Ouest Africaine de la Santé (OOAS) en regroupant toutes les organisations intergouvernementales du secteur. L'UEMOA, pour sa part a limité les axes principaux de sa stratégie à la mise en œuvre d'action de lutte commune contre les grandes endémies, l'installation de laboratoires communautaires de fabrication et de contrôle de la qualité des médicaments, une recherche médicale appropriée et la régionalisation de l'approvisionnement en médicaments essentiels. Un cadre de concertation OOAS − UEMOA est en voie de finalisation.

2.2.6. Secteurs sociaux, éducation : La CEDEAO a formulé dans ce domaine des objectifs ambitieux (Education pour tous) mais qui semblent peu réalistes à court terme et ne sont pas assortis d'une stratégie claire pour les atteindre. Des initiatives ont été prises en matière d'équivalence des diplômes et un système de prix d'excellence mise en place. L'UEMOA a mis en évidence l'importance de ce secteur pour l'intégration régionale en définissant des priorités de création de centres d'excellence, de coordination des programmes de reconnaissance des diplômes et de création d'institutions communes d'enseignement supérieur, universitaire et professionnel .

2.2.7. Secteurs sociaux: culture La culture est aussi un actif économique en Afrique

de l'Ouest et des initiatives significatives de grande ampleur existent (par exemple : festival du cinéma de Ouagadougou, festival international du livre à Bamako, festival des arts de la CEDEAO,…). La dimension économique de la culture constitue également un enjeu au niveau de l'OMC, en particulier concernant la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 et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2.3. La dimension régionale des politiques de paix, de sécurité et de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

2.3.1. La sécurité et la prévention des conflits : La CEDEAO a mis en place un protocole relatif au mécanisme de prévention, de gestion et de règlement des conflits, de maintien de la paix et de la sécurité. Un appui à l'institution est toutefois nécessaire pour renforcer le système d'alerte précoce, la capacité militaire et humanitaire de l'ECOMOG, ainsi que ses moyens de gestion.

2.3.2. La lutte contre la drogue, le blanchiment d'argent et le trafic d'êtres humains : La lutte contre la drogue et le blanchiment d'argent font l'objet d'efforts de la CEDEAO et de ses Etats membres avec l'appui d'institutions internationales et d'ONG.

3-ANALYSE DU CONTEXTE POLITIQUE, ECONOMIQUE ET SOCIAL DE LA REGION :

A) Contexte politique :

La période récente a été marquée par une consolidation de la démocratie dans plusieurs pays d'Afrique l'Ouest. Si certains ont réussi à établir une démocratie stable, d'autres ont une démocratie qui demeure fragile, et enfin un dernier groupe de pays connaît encore une grande instabilité politique, économique et sociale qui fait obstacle aux avancées démocratiques. Les pays à démocratie fragile sont ceux sortant d'une crise politique ou d'une période de dictature; ils sont parfois encore en proie aux troubles et conflits électoraux, ethniques ou religieux. Enfin, la dernière catégorie concerne les pays en crise ou fortement déstabilisés: pays où l'instabilité politique reste extrême, ou qui émergent seulement de conflits graves.

B) contexte social :

Une fraction importante de la population de l'Afrique de l'ouest vit dans une situation d'extrême pauvreté. Ce pourcentage dépasse la moitié de la population au Nigeria, dans tous les pays enclavés et en Sierra

Leone où il est une conséquence de la guerre. Ces indicateurs montrent qu'au total la région est caractérisée par une situation de faib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 En matière de santé, la malaria, la tuberculose et le VIH/sida sont les maladies transmissibles dont le poids est considéré comme le plus important. Les maladies de l'enfance ont également un poids considérable.

C) Contexte économique :

Les économies de la zone sont peu diversifiées et centrées sur des produits de base (agriculture et élevage dans tous les pays, pêches dans la plupart des pays côtiers mais principalement en Mauritanie et au Sénégal), produits miniers (Mali, Mauritanie et pays de la MRU), pétrole (Nigeria).

4. EVALUATION DE LA COOPERATION PASSEE ET PRESENTE :

4.1. Leçons du passé :Les principales leçons qui peuvent être tirées de la mise en œuvre des différents FED sont: pour ce qui est de l'appui au processus d'intégration, En matière de transport, En matière d'appui aux processus de démocratisation, l'analyse montre l'insuffisance de la prise en compte de l'aspect « prévention des conflits » dans les interventions de l'UE.

4.2. Programmes des Etats membres de l'UE et des autres bailleurs de fonds :

Les acteurs de l'aide à l'intégration économique en Afrique de l'ouest ont été principalement la Commission européenne, chef de file et principal partenaire, le Fonds monétaire international (FMI), la Banque Mondiale (BM),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BAD) et la France.

4.3. Cohérence avec les autres politiques communautaires :

la cohérence des politiques communautaires se fait dans quatre domaines : la politique agricole, la politique de la pêche, la politique commerciale ainsi que de la politique étrangère et de sécurité commune (PESC). Pour ce qui est de l'agriculture, des problèmes d'incohérence entre la PAC et les politiques de développement ont créé des déséquilibres dans la région dans le passé. En matière de pêches, La Commission européenne a signé des accords bilatéraux avec les pays côtiers pour l'obtention de licences d'exploitation en fonction de contreparties financières. La cohérence entre la stratégie régionale et la politique commerciale de l'Union Européenne est assurée à travers la mise en place des APE qui, conformément à l'accord de Cotonou, constitue un élément essentiel de la politique commerciale et de

développement de l'UE. Dans le domaine de la Politique Extérieure et de Sécurité Commun (PESC), il existe un dialogue politique institutionnalisé avec la région sous forme de Troïka ministérielle UE-CEDEAO. L'UE suit avec attention et de manière permanente l'évolution de la situation politique dans la région et a adopté une série de positions communes sur des situations et pays politiquement sensibles.

5-STRATEGIE DE REPONSE DE LA CE. :

Sur base de l'analyse développée dans les chapitres qui précèdent, la stratégie de réponse a été établie en tenant plus particulièrement compte des éléments suivants qui mettent en évidence les enjeux importants auxquels est confrontée la région: Processus d'intégrations, le diagnostic socio-économique et leçons du passe.

A) Secteurs et domaines d'intervention :

Sur base de ce qui précède, la stratégie de coopération UE- région Afrique de l'Ouest se concentrera sur deux secteurs de concentration principaux: l'intégration économique régionale et appui au commerce, d'une part et le secteur des transports d'autre part.

Orientations principales de la stratégie envisagée :

Consiste généralement a :

-Appui au processus d'intégration dans une perspective d'intégration à l'économie mondial.

-Définition et mise en œuvre d'une stratégie régionale des transports en tant que --facteur fondamental d'intégration régionale,

-Valorisation des acquis à travers le partage d'expérience, la mise en commun et la mise en réseau.

- Et consolidation de l'état de droit, prévention et gestion des conflits.

6 - PRESENTATION DU PROGRAMME INDICATIF :

Dans le cadre général du présent document de stratégie de coopération régionale, les parties se sont mises d'accord sur les priorités de leur coopération et sur les secteurs sur lesquels se concentrera l'appui de la Communauté. Un programme indicatif détaillé est présenté dans ce chapitre, suivi d'annexes comportant une série de tableaux où figurent les cadres d'intervention pour chaque secteur de concentration, un chronogramme du portefeuille d'activités et les calendriers des engagements indicatifs.

A) Instruments financiers :

Le présent programme indicatif repose sur une allocation indicative en faveur de l'Afrique de l'ouest, d'un montant de 235 millions Euro. Cette allocation indicative se répartit comme suit:

Secteur de concentration:« Intégration économique et appui au commerce »: 50 % soit environ 118 millions Euro.

L'objectif global du présent PIR est de contribuer à la réduction de la pauvreté par une meilleure croissance économique de la région facilitée par le renforcement d'une intégration économique régionale des pays de l'Afrique de l'ouest.

-Intégration économique et appui au commerce son objectif spécifique est l'insertion progressive de la région "Afrique de l'ouest" dans l'économie mondiale par la consolidation de l'espace économique régional

-Secteur des transports son 'objectif spécifique est de concentration est l'amélioration des services de transports régionaux en vue de diminuer les coûts des facteurs et de faciliter la libre circulation des personnes et des marchandises, conditions fondamentales de l'intégration régionale.

Secteur de concentration : « transports » 35 % soit environ 82 millions Euro.

b) Autres programmes : Un montant indicatif de 35 millions € a été réservé pour ce qui suit:

1. Appui à une politique régionale de prévention des conflits et de bonne gouvernance : Ces actions devront se concevoir dans le cadre d'une dialogue politique renforcé entre la CEDEAO et l'Union européenne mais aussi au niveau de chacun des Etats membre de la région. l'Union européenne mais aussi au niveau de chacun des Etats membre de la région. Il s'agit en continuité des actions déjà entreprises par la CEDEAO, de renforcer les capacités du système d'observation (système d'alerte précoce) au sein du mécanisme de prévention des conflits à travers le développement des méthodes de la collecte, la gestion, et le traitement de l'information. Il s'agit également de et de promouvoir l'action de la société civile des femmes et des médias et leur rôle dans la prévention des conflits.

2. Appui au développement humain : une valeur ajoutée régionale peut être envisagée à travers des actions de mise en réseau et d'échanges d'expériences, de gestion des épidémies trans-frontalières, de rationalisation et de valorisation en matière de recherche et d'institutions régionales (santé, éducation, culture). 3. Appui à la sécurité alimentaire : certaines actions peuvent être considérées et ce, entre autres, en appui au CILSS et aux autres organisations régionales. Un soutien aux actions visant

la durabilité des ressources naturelles et ce, entre autres, dans le secteur de la pêche seront considérées. Le PIR pourrait financer une étude d'évaluation des besoins en matière de développement et de coordination des politiques sectorielles des pêches afin d'identifier des mesures d'appui ainsi que la continuation de projets initiés sous les FED précédents dans le domaine de l'environnement .le finacement de ces actions c'est la sécurité alimentaire.

4. Organisations dûment mandatées : les organisations régionales dûment mandatées sont l'UEMOA et la CEDEAO.

5. Banque européenne d'investissement et facilité d'investissement :

La BEI dispose d'une gamme étendue d'instruments financiers : financements sous la forme de participation en fonds propres et quasi fonds propres, prêts en devises ou en monnaies locales, garanties. Elle pourra intervenir dans tous les secteurs d'activités (secteurs productifs et infrastructures, mais aussi santé et éducation), avec des entrepreneurs et promoteurs locaux ou étrangers. 6-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KOICA) :

Dans le cadre de la coopération bilatérale, la KOICA au Maroc œuvre à travers plusieurs projets de développement en collaboration avec le Gouvernement Marocain. Les projets de développement sont pour l'instant réalisés uniquement avec les ministères marocains. La KOICA ne travaille pas directement avec les associations.

En partenariat avec

Années de réalisation Description Budget (US Dollar)

MICNT

Ministèr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es nouvelles technologies - Département du Commerce Exterieur 2011 - 2014

(Nouveau) Établissement de Plate-formes de formationpour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en Commerce International 2 950 000

MEM et IRESEN

Ministre de l'Énergie, des Mines, de l'Eau et de l'Environnement

Institut de Recherche en Énergie Solaire et Energies Renouvelables

2012 - 2014

(En cours) Renforcement des Capacités en Recherche enCellules Solaires 2 500 000

MEFP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2010 - 2013

(En cours) IFMIAC - Institut de Formation avancée au Métiers de l'Industrie Automobile de Casablanca

- Construction d'un centre visant à développer la capacité de l'industrie automobile au Maroc par le partage de l'expérience Coréenne 6 000 000

MICNT et Administration de la Défense Nationale

Ministèr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es nouvelles technologies 2010 - 2012

(Clôturé) Mise en place du Centre Marocain d'Alerte et de Gestion des Incidents Informatiques « ma-CERT »

- Construction d'un système de Traitement des Incidents de Sécurité Informatique 3 400 000

MEN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08 - 2010

(Clôturé) Création d'un centre maroco-coréen de formation en TICE 2008-2010 (CMCF-TICE)

- Renforcer les compétences des enseignants marocains dans les domaine des TIC 3 000 000

MICNT

Ministèr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e Nouvelles Technologies 2008 - 2010

(Clôturé) Centre d'Accès à l'Information

- TICE à la Faculté des Sciences Juridiques, Economiques, et Sociales de Salé 2 520 000

ANCFCC

Agence Nationale de la Conservation Foncière, du Cadastre et de la Cartographie 2007 - 2008

(Clôturé) Établissement de la Méthodologie du Cadastre et de Projet Pilote de Tétouan

- Améliorer l'usage du sol par le biais de la méthodologie cadastrale moderne 1 033 000

L'Entraide Nationale et le MDSFS

Ministère du Développement Social, de la Famille et de la Solidarité 2007 - 2008

(Clôturé) Projet Pilote de Dar Al Mouwaten de Tiflet

• Contribuer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région 880 000
Université Al Akhawayne 2006 - 2008
(Clôturé) CITI - Centre d'Innovation en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pour le développement humain
• Développer les ressources humaines dans le secteur des TIC. 1 675 000
OFPPT
Office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e la Promotion du Travail 2004 - 2005
(Clôturé) Centre de Recherche et Engineering
Automobile (CREA) 542 000
MEN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1994 - 1996
(Clôturé) Établissement d'un laboratoire
informatique dans un collège 858 000

Programme Annuel 2013
Le Gouvernement Coréen prévoit un budget de 5.08 millions de dollars pour la mise en œuvre au Maroc des programmes de coopération technique de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KOICA), au titre de l'année 2013.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KOICA) a mis en place plusieurs programmes de coopération pour l'année 2013 ayant pour objectif de disséminer l'expertise coréenne en matière d'avance technologique et économique. Ces programmes sont centrés sur des projets en cours de réalisation, sur des programmes de formation au profit des fonctionnaires marocains et sur l'envoi des volontaires coréens pour faire l'apport de leur expertise dans des domaines prioritaires au Maroc. Les programmes élaborés pour l'année 2013 sont comme suit :

Projets en cours : 2,9 millions USD
La KOICA s'est investi à la mise en œuvre de 3 projets de coopération au Maroc qui relèvent des domaines où la Corée est créditée d'une expertise reconnue et dont le budget total alloué pour l'année 2013 atteint les 2,97 millions de dollars. Il s'agit de :
• La mise en place de « l'Institut de Formation Avancée aux Métiers de l'Industrie Automobile à Casablanca (IFMIAC) », en partenariat avec le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qui a été lancé en décembre 2012. Le budget consacré à ce projet est de 6 millions USD pour la période 2010-2013, dont 1,7 millions pour l'année 2013.

- Le projet de « l'Etablissement de plateformes de formation pour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en commerce international » en partenariat avec le Département du Commerce Extérieur auprès du Ministèr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u Nouvelle Technologies. Le budget alloué pour ce projet est de 2,95 millions dollars US pour la période 2011-2014, dont 619 mille USD pour l'année 2013.
- Le projet du « Renforcement des capacités capacités de recherche en cellules solaires au Maroc» en partenariat avec le Ministère de l'Energie, des Mines, de l'Eau et de l'Environnement. Le budget alloué pour ce projet est de 2,5 millions dollars US pour la période 2012-2014, dont 663 mille pour l'année 2013.

Stages de Formation : 438 mille USD

Cette année, la KOICA propose huit programmes de formation au profit de cinquante huit cadres et fonctionnaires marocains ; il s'agit de quatre programmes globaux, d'un programme pluriannuel en partenariat avec le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et de trois programmes conçus spécialement pour le Maroc dont un qui relève du domaine du développement urbain et qui sera organisé pour la première fois cette année. Ces programmes se présentent comme suit :

4 Programmes globaux ouverts à tous les pays partenaires intéressés, le Maroc y sera représenté par 7 fonctionnaires marocains.

3 Programmes spéciaux particulièrement conçus pour le Maroc, il s'agit des programmes: e-Gouvernement, en faveur de 15 fonctionnaires marocains.

Gestion et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en eaux, en faveur de 15 fonctionnaires marocains. (Nouveau) Politique de développement urbain et régional, en faveur de 15 fonctionnaires marocains.

1 Programme pluriannuel intitulé « Stratégie pour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s pays africains francophones -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 au profit de 6 fonctionnaires du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Volontaires Coréens : 1,6 millions USD

Cinquante deux volontaires coréens sont actuellement en service au Maroc dans le

cadre du programme (World Friends Korea). L'on prévoit toutefois l'augmentation de ce nombre en 2013, d'une façon plus marquée que la croissance connue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A travers ces programmes de coopération, la Corée continuera à déployer ses efforts en faveur du développement du Maroc et à partager son expérience de développement avec le Royaume.

Coopération dans l'énergie solaire avec IRESEN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à travers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KOICA) partage son expertise dans la recherche en cellules solaires à travers un projet intitulé «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Recherche en Cellules Solaires au Maroc» en collaboration avec l'Institut de Recherche en Energie Solaire et Energies Nouvelles (IRESEN) sous tutelle du Ministère de l'Energie, des Mines, de l'Eau et de l'Environnement du Royaume duMaroc.

La KOICA, le Ministère et l'IRESEN visent à renforcer les capacités de recherches en couches minces de cellules solaires et à développer les ressources humaines nécessaires pour assurer le bon déroulement des recherches en ce domaine dans le futur. La KOICA et le Centre de Recherche en Energie Solaire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Chonbuk veillent à partager la technologie de pointe relative à l'énergie solaire, domaine où la république République de Corée a un net avantage compétitif, dans le cadre de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et de la coopération bilatérale du gouvernement Coréen.

Les engagements de la coopération coréenne pour ce projet seront l'élaboration d'équipements de recherche spécialisés dans le cadre du projet pour améliorer la capacité de recherche des académiciens marocains, l'envoi d'experts coréens au Maroc pour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de recherche, le partage d'expertise, et l'invitation des parties prenantes marocaines (chercheurs, ingénieurs et responsables de différentes institutions marocaines concernées) pour des formations en Corée.

Ce projet assistera l'IRESEN à accomplir son premier objectif qui est de créer une structure scientifique nationale de recherche, développement et innovation en couches minces photovoltaïques qui bénéficiera à plusieurs acteurs, notamment les universités et l'industrie. Le centre de recherche sera installé dans la ville verte de Ben Guerir, accolé à l'Université Mohammed VI Polytechnique parmi d'autres centres de recherches en énergies renouvelables.

9ème Rencontre Annuelle d'AMACO

L'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 la Coopération Maroco-Coréenne(AMACO) a tenu le vendredi 30 novembre 2012 la neuvième rencontre annuelle des participants marocains au programme de formation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KOICA).

Les rencontres annuelles d'AMACO sont essentiellement une occasion d'échange libre des idées pour le renforcement des liens de coopération entre le Royaume du Maroc et la République de Corée ; ils permettent également de regrouper les anciens et nouveaux bénéficiaires du programme de formation de la KOICA afin de faciliter la communication et les relations entre eux. A cet égard, plusieurs activités ont été organisées cette année à savoir des présentations de la part des nouveaux participants au programme de formation de la KOICA qui sont en fait des témoignages sur leurs séjours de formation en Corée ainsi que des discussions qui ont eu lieu sur les moyens pratiques de la consolidation de la coopération entre l'AMACO d'une part et la KOICA et l'ambassade de Corée d'autre part.

Le programme de formation de la KOICA est un axe essentiel de la coopération technique de cette dernière qui offre aux participants l'opportunité d'améliorer leurs compétences techniques, ainsi que les pratiques administratives courantes, en vue de leur permettre d'apporter leur contribution à leur pays. Dans ce cadre et depuis 1992, 406 participants marocains ont bénéficié de divers types de formations organisées par la KOICA.

En 2012, 52 cadres marocains ont effectués des formations en Corée dans plusieurs spécialités à travers les programmes de formation la KOICA. Ces programmes sont maintenus régulièrement chaque année pour garantir la participation d'une variété de cadres œuvrant dans divers domaines dont principalement les TIC, la gouvernance et l'environnement. Les formations proposées couvrent aussi d'autres domaines comme l'administration judicaire, la planification urbaine, la pêche maritime et le développement des chemins de fer. Ceci contribue à l'apport de l'expertise coréenne au Maroc par la découverte de l'expérience économique et sociale d'un pays exemple de développement.

Le Ministère des Finances et la KOICA : Partenariat

Le Secrétaire Général du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MEF), Monsieur Khalid Safir et le Représentant Résident de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KOICA) Monsieur Youseung Shin, ont procédé le 01 novembre 2012 à Rabat, à la signature d'une convention de partenariat entre le Maroc et la République de Corée pour l'établissement d'un programme de formation pluriannuel qui relève du domaine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La cérémonie de signature s'est déroulée en présence de Son Excellence Monsieur l'Ambassadeur de la République de Corée, Taeho Lee, qui a exprimé sa satisfaction quant à la coopération entre le Royaume du Maroc et la République de Corée. A cet effet, il a mis en exergue l'expérience de son pays en matière des finances publiques et a exprimé sa volonté de la partager avec les pays partenaires, dont le Maroc.

Pour sa part le Secrétaire Général du MEF a adressé ses remerciements au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la Corée qui œuvre à mettre le savoir- faire de ses ressources humaines au service des autres pays, et ce dans une démarche de partage et d'échange de bonnes pratiques. Il a par ailleurs, rendu hommage à la KOICA qui a réalisé des séjours de formation au bénéfice de responsables et cadres de plusieurs départements ministériels marocains, notamment dans les domaines du e-Gov, de la promotion du commerce et de l'investissement et des PME.

Le programme triennal de formation dans le domaine des finances publiques, objet de cette convention de partenariat, est intitulé « Stratégie pour le Développement des Capacités en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pays africain francophones ». Il est organisé pour la (KOICA) au profit des fonctionnaires marocains qui œuvrent dans le domaine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Ce programme a comme finalité d'assurer le renforcement des capacités et le développement des compétences dans le domaine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Il tend également à améliorer l'efficacité et l'efficience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établir une coopération économique solide avec la Corée. Il se décline en trois composantes essentielles : les cours de formation qui sont dispensés

sous forme de modules ; les visites sur terrain qui permettent d'étudier les sujets proposés en profondeur et les ateliers de formation où les participants élaborent des projets pertinents dont la mise en œuvre sera entamé à l'issue de la formation et une fois de retour au Maroc.

De 2012 à 2014, 18 cadres marocains du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seront invités en Corée pour prendre part à ce programme de formation.

5ème Séminaire des volontaires coréens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KOICA) à organisée le 5ème séminaire des volontaires coréens le 18 octobre 2012 à Rabat, pour partager les meilleures pratiques et faciliter le dialogue entre les organismes accueillant les volontaires coréens au Maroc.

L'Agence a invité 52 délégués et responsables des centres où œuvrent les volontaires coréens au Maroc. Le séminaire a constitué une occasion pour partager les expériences de bonne gestion concernant les volontaires coréens au Maroc. Parmi les participants se trouvait SEM Taeho LEE, Ambassadeur de la République de Corée au Maroc et d'autres représentants, respectivement de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le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et l'Entraide Nationale. La discussion a porté sur une meilleure opération des volontaires coréens à travers le partage des expériences des divers organismes d'accueil.

Le programme international des volontaires coréens (World Friend Korea) est un programme qui est motivé par le fait que le volontariat peut contribuer à l'amélioration du développement social d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Depuis le lancement du programme des volontaires coréens au Maroc en 2001, plus de 176 volontaires coréens ont été envoyés au Maroc pour assurer une présence active dans divers domaines et dans tous les coins du Royaume.

Visite du Directeur Général de World Friends Korea au Maroc

Le Directeur Général du programme international des volontaires coréens (World Friends Korea) de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KOICA), M. KIM Yong-Pyo, a effectué une visite au Maroc pour l'évaluation du programme des volontaires Coréens.

M. KIM Yong-Pyo, Directeur Général du programme International des Volontaires coréens (World Friends Korea) de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KOICA) a été en visite au Maroc pour examiner en profondeur les modalités du

programme des volontaires coréens.

Au cours de cette visite, M. KIM Yong-Pyo a été reçu au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et de la Coopération par M. Mohammed Maliki, le Directeur des Affaires Asiatiques et de l'Océanie, où ils se sont entretenus sur les moyens de renforcer le programme des volontaires coréens au Maroc. Un autre moment fort de la visite du responsable coréen au Maroc a été la remise d'un don au Centre Maroco-Coréen de Formation en TICE (CMCF-TICE) pour appuyer le travail des volontaires coréens à ce centre. Pour rappel, le CMCF-TICE est le fruit d'une coopération étroite entre le Maroc et la Corée qui visait l'introduction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TIC) dans l'enseignement marocain.

Le programme international des volontaires coréens (World Friends Korea) est un programme ambitieux qui s'inspire de la conviction que le volontariat peut changer le rythme et la nature du développement et qui encourage la participation des citoyens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 des pays en développement. Depuis le lancement du programme des volontaires coréens au Maroc en 2001, plus de 176 volontaires coréens ont été envoyé au Maroc où ils assurent une présence active dans divers domaines et dans tous les coins du Royaume.

Programme de Formation "Gestion et développement durable des ressources en eau" - "Sustainable Wat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

17 fonctionnaires marocains participeront à la première édition du programme de formation « Gestion et développement durable des ressources en eau », organisé par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KOICA) dans le cadre du renforcement de la coopération technique entre le Royaume du Maroc et la République de Corée dans ce domaine.

Le gouvernement coréen invite 17 cadres marocains pour participer au programme de formation« Gestion et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en eau » qui se déroulera à Séoul, en Corée, du 03 au 22 septembre 2012 à l'Institut des Ressources Futurs(FRI). Les participants proviennent de trois organismes publics, le Département de l'eau du Ministère de l'énergie des mines de l'eau et de l'environnement, l'Office national de l'eau potable(ONEP) et l'Agence pour la promotion et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et social des provinces du sud du royaume. Cette formation s'adresse à des cadres supérieurs comme à différents experts de l'élaboration des politiques qui œuvrent pour le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en eau.

Ce programme de formation organisé pour la première fois cette année, sera

désormais inclus annuellement dans le programme de formation de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Pendant la formation, les participants prendront une variété de cours sur le sujet du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en eau. En outre, les participants auront l'occasion d'effectuer des visites d'étude à un certain nombre d'organismes pionniers dans le domaine du développement des rivières en Corée.
A cette occasion, et avant le départ des 17 participants en Corée, l'Ambassadeur de la République de Corée, S.E.M Taeho LEE, et le Représentant Résident de la KOICA, M. Youseung SHIN, ont organisés une réception à leur faveur, le jeudi 30 août 2012 à 11 du matin. Cette rencontre avait pour objectif de motiver et d'encourager les participants et de leur informer sur les détails de leur séjour en Corée ainsi que des conditions du déroulement de leur formation.
Dans le cadre de la coopération bilatérale entre la Corée et le Maroc, le gouvernement coréen, à travers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KOICA), s'engage à inviter chaque année environ 50 professionnels Marocains à participer à une douzaine de programmes de formation tel que Gestion des Ressources en Eau, Politique de Planification Urbaine et Développement de la Gestion des Chemins de Fer.
Interview avec un bénéficiaire de la formation Urban Planning en Corée
Interview avec Mr. Omar Marsli du Ministère de l'Habitat Marocain sur la formation "Urban Planning and Policy" en Corée. (KOICA Intern Report) - Urban Planning and Policy

Exposition sur le Maghreb en Corée
Le 11 Juillet 2012, la 6ème exposition au KOICA Global Village (en République de Corée) sur le Maghreb «Perle de la méditerranée − Maghreb» à ouvert ses portes, et restera ouverte aux visiteurs jusqu'à la fin de l'année.

L'exposition à débuté avec un mot de M. Dae-won PARK, Président de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KOICA) et de S.E.M. Mohammed Chraïbi, Ambassadeur du Maroc en République de Corée.

Cette exposition présente aux visiteurs la culture maghrébine, représentée par le Maroc, l'Algérie et la Tunisie. Son programme regroupe plusieurs volets, tout d'abord une présentation de la diversité culturelle amazighe et arabe de la région, une

introduction à la cuisine et aux divers habits traditionnels et une présentation des spécificités géographiques de la région (Montagnes, mer, déserts et autre). Le second volet concerne la question de la désertification et comportera une introduction générale aux relations bilatérales en la Corée et ces trois pays à travers les projets de développement durable entrepris dans les trois pays. Concernant le Maroc, les projets de l'IFMIAC (Institut de Formation aux métiers de l'Industrie Automobile de Casablanca) et du CMCF (Centre Maroco-Coréen de Formation en TICE) entrepris par la KOICA seront mis en avant.

Le KOICA Global Village a été établit en 2010 au sein du siège de la KOICA en République de Corée pour sensibiliser le public aux questions de développement à travers la promotion de la communication interculturelle.

Programmes de Master en Corée destinés aux fonctionnaires marocains 2012-2013

Dans le but de partager le savoir-faire du développement, le Gouvernement Coréen, à travers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KOICA) lance la deuxième partie de son programme de diplôme de Master pour l'année 2012 qui s'assiste dans les plans stratégiques de développement du Maroc. Dans ce cadre, la KOICA se propose d'inviter les cadres et fonctionnaires marocains à participer à ces 10 programmes.

Il est à noter que tout ces Masters sont dispensés en République de Corée et en anglais, hormis un seul programme francophone qui est mentionné sur la liste ci-dessous. Le sommaire des Masters proposées est comme suit :

1. Global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 16 mois (16/08/2012 - 15/12/2013)
2.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 13 mois (1/08/2012 - 30/09/2013)
3. Fisheries Science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 4 mois (27/06/2012 - 28/08/2013)
4.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de 14 mois (27/07/2012 - 28/09/2013)
5. Finance MBA Progra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e

20 mois (21/08/2012 - 28/03/2014)
6.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 12 mois (18/07/2012 - 10/08/2013)
7. (Francophone) Dévelopment Internationa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 12 mois (18/07/2012 - 10/08/2013)
8. Rural Society Leadership Development for Global Poverty Reduction, Yonsei University de 16 mois (18/08/2012 - 28/12/2013)
9. Global e-policy and e-Government, Sungkyunkwan University de 12 mois (25/07/2012 - 27/07/2013)
10. Development Competency through SME (Small and Medium Entreprise), Handong Global University de 16 mois (18/08/2012 - 17/12/2013)

Il est à noter que les personnes intéressées par ces Masters doivent déposer leur dossier de candidature à la 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 et Scientifiques au sein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e la coopération à travers une note officielle émanant de l'organisme auquel ils appartiennent. Ces programmes sont conçus pour les fonctionnaires du secteur public afin qu'ils appliquent leur nouveaux acquis pour contribuer au développement de leur pays.

AMACO - 8ème rencontre annuelle

L'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 la coopération maroco-coréenne (AMACO) en collaboration avec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KOICA) a tenu le jeudi 08 décembre 2011 la huitième édition de la rencontre annuelle des ex-stagiaires marocains de la KOICA, et ce à l'Hôtel Golden Tulip Farah de Rabat à partir de 18h30. Ces rencontres annuelles visent à faciliter la communication entre les membres et à valoriser la coopération des deux pays.

Depuis sa création en 2004, l'Association AMACO vise à solidifier et promouvoir le transfert du savoir-faire Coréen au cadres et fonctionnaires dans plusieurs domaines en créant une plateforme qui facilite l'interaction et la communication des ex-stagiaires marocains et qui aide la promotion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deux pays. Cette initiative s'adresse à l'ensemble des acteurs qui sont concernés par le renforcement des relations bilatérales tout particulièrement aux cadres de tout niveau qui ont bénéficié d'un séjour en Corée dans le cadre de la coopération Maroco-Coréenne. L'association comporte actuellement plus de 300 membres.

L'objectif de la KOICA est de promouvoir la coopération entre le Royaume du Maroc et la République de la Corée à travers le développement des ressources humaines dans plusieurs domaines. Depuis 1992, 343 cadres marocains au total ont bénéficiés de ces programmes de formation en Corée. En 2011, 55 cadres marocains ont effectués des formations en Corée dans plusieurs spécialités à travers les programmes de formation la KOICA. Ces programmes sont maintenus régulièrement chaque année pour garantir la participation d'une variété de cadres œuvrant dans divers domaines dont principalement les TIC, la gouvernance et l'environnement. Les formations proposées couvrent aussi d'autres domaines comme la santé, l'industrie et l'énergie, le développement rural et l'éducation. Ceci contribue à l'apport de l'expertise coréenne au Maroc par la découverte de l'expérience économique et sociale d'un pays exemple de développement.

Références bibliographiques et sources documentaires :

Rapports, études et publications :

Haut Commissariat au Plan, Etude sur le ‘’Développement au Maroc’’, 2013

Oxford Business Group, The Report, 2014

Ambassade de France au Maroc, service économique régional, ‘’Situation économique du Maroc’’, 2014 ,

La Cour Suprême du Maroc, ‘’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2013,

L’Organisation Mondiale du Commerce, Examen des politiques commerciales, Mars 2014,

Le Haut- Commissariat au Plan, « Mesure le seuil de la pauvreté relative conformément aux normes de FAO-OMS et de la méthode d’estimation de la Banque mondiale, 2007.

Nations Unies, Commission Economique pour l’Afrique, ‘’la conformité des stratégies nationales de développement’’, 2013

Background paper commissioned by CeSPI for ‘’the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Development in Africa 2009 MAROC ‘’; Mohammed CHIGUEUR Professeur, Directeur du Laboratoire d’Eudes et de Recherches Internationales Maroc (LERIM), Université Mohamed Ier, Oujda (Maroc),

Ministère de la Finance, ‘’Rapport Annuel de la Dette 2013’’ , Loi de finance 2015

ACTIVITES AU MAROC DE L’AGENCE FRANCAISE DE DEVELOPPEMENT « bilan 2008-2012»,

La Coopération Financière de l’Union Européenne au Maroc (2011-2013), COMMISSION EUROPEENNE – COMMUNIQUE DE PRESSE

‘’Renforcer la place de l'Europe dans le monde: Un budget extérieur 2014-2020 pour respecter les engagements de l'Union Européenne et promouvoir les valeurs partagées’’ Bruxelles, le 7 décembre 2011

Rapport final 2011 ;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BAD / Fonds africain de développement FAD ; RAPPORT des Conseils d’administration de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et du Fonds africain de développement

pour la période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2011,

RAPPORT ANNUEL 2012 RENFORCER LES CAPACITÉS POUR PÉRENNISER LA CROISSANCE, Les services du FMI ont achevé les entretiens sur les consultations de 2012 au titre de l'article IV et la première revue de la LPL avec le Maroc Communiqué de presse n°12/489 Le 17 décembre 2012

Mounir El Figuigui ; ''Ce qu'attend l'Union européenne du Maroc''; Publié dans Le Soir Echos le 23 - 01 – 2013

Initiative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Humain : Rapport ''analyse et recommandations'', N°2/2013,

RAPPORT des Conseils d'administration de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BAD) et du Fonds africain de développement (FAD) pour la période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2011

Rapport d'activité du RESEAU DE DEVELOPPEMENT TOURISTIQUE RURAL au Maroc (2012-2013)

Ministère de la Finance, "Budget citoyen, au titre de l'année 2015", Loi de finance 2015

L'Agence des nations unies au Maroc et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Conférence internationale sur les méthodes de mesure de développement humain et les approches d'évaluation axées sur l'équité en faveur des nouvelles générations'', Rabat 4-5 Juin 2014

Agence des nations unies au Maroc et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Les disparités dans l'accès au soins au Maroc : Etude de cas'', 7 Juin 2010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Etude sur l'élaboration d'un protocole de conduite de l'évaluation participative suite à une étude faite 2007-2008''', 2010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Bilan des actions INDH 2005-2009 et examen de la lutte contre l'exclusion en milieu urbain à travers l'analyse des actions INDH 2005-2009'

Le 2ème rapport de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ONDH), ''Evaluation des progrès en matière d'inclusion'', Mai 2011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ONDH), ''Evaluation des réalisations de la 1ère phase de l'INDH (2005-2010) et leurs effets sur les populations-cibles'', Avril 2013.

l'Observatoire national de développement humain et l'Université Ibn Zohr d'Agadir, Rapport '' Valorisation des dérivées du cactus opunta ficus indica (Huile, fruits, raquettes) sous forme de produits à haute valeur ajoutée''2009.

Rapport du projet portant sur le Mécanisme de financement pour l'énergie durable spécifique au Maroc (MFED Maroc), Publié le 14 Novembre 2014

Le système des nations unies au Maroc et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Les disparités dans l'accès à une éducation de base de qualité : Etudes de cas'', Mars 2010.

Le Bulletin d'information de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N°1, Septembre 2013.

Le Bulletin d'information de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N°2, 2ème semestre 2013.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ONDH), ''Etude portant sur les profils territoriaux de la pauvreté'' 2011,

Rapport final de l'Equipe Chaire UNESCO-GN à l'ONDH, '' La promotion des ressources humaines, pour une gestion durable des terres fragiles'' février 2012

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Direction des Etudes et des

Prévisions Financières, « Etude comparative des contributions régionales à la création de la richesse nationale : Ordre et reconfiguration des systèmes productifs locaux à la faveur du découpage proposé par la Commission Consultative dela Régionalisation », Juin 2011

Communauté européenne-Afrique de l'Ouest, « Document de stratégie de coopération régionale et Programme indicatif régional pour la période 2002 − 2007. »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Formation des Cadres et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 LES PRIORITES NATIONALES DE RECHERCHE PROGRAMMES, AXES ET THEMES DEFINIES EN FONCTION DES ORIENTATIONS DES STRATEGIES GOUVERNEMENTALES EN MATIERE DE DEVELOPPEMENT (Période 2009-2012)

Le Haut-Commissariat au Plan, «OBJECTIFS DU MILLENAIRE POUR LE DEVELOPPEMENT : RAPPORT NATIONAL 2009», Mars 2010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Secrétariat Général (CN-INDH), Bilan des réalisations de l'Initiative Nationale du Développement Humain (INDH) (Exercice 2012), Avril 2013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Secrétariat Général (CN-INDH), Bilan des réalisations de l'Initiative Nationale du Développement Humain (INDH) (Exercice 2013), Mai 2014

l'Observatoir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ONDH), "Enquête Panel de Ménages ONDH" (En trois lots séparés)

Site 1 : Région de Taza-Al Hoceima-Taounate (LOT 1)

Site 2 : Région de Rabat-Salé-Zemmour-Zaer (LOT 2)

Site 3 : Région de Marrakech-Tensift-Al Haouz (LOT 3)

Webographie :

Le quotidien marocain (OPINION), l'article "Le programme multisectoriel "TAMKIN", présenté aux Nations Unies" publié sur lopinion.ma le 04/03/2012. Lien: http://www.lopinion.ma/def.asp?codelangue=23&id_info=23926

Site l'Agence Coréen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KOICA) au Maroc [mis à jour 26 février. 2015]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BAfD) "Initiative pour l'approvisionnement en eau et l'assainissement en milieu rural (IAEAR)": d'après le site du Ministère de l'Energie, des Mines, de l'Eau et de l'Environnement, http://www.mem.gov.ma/

Rapport du Conseil National e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 l'Initiative National du développement Humain : analyse et recommandations.'' Saisie N°2/2013, WWW.CESE.ma

연구자료 서아프리카 2015-11-168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
모로코

발 행 2015년 8월
발 행 인 김 영 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서아프리카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전 화 031) 740-0114
팩 스 031) 740-0655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이프리넷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